201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ngolian Studies

한국과 몽골의 민족 기원 문제

The matter of the origin between Korea and Mongol

일시 : 2012年 3月 23日(금)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강연실

주최 : 한국몽골학회

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동북아역사재단

한 국 몽 골 학 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Mongolian Studies

2012 한몽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201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3월 22일 (목)　　March, 22, thursday

- ◆ 인천공항 도착(Arrival)
- ◆ 환영만찬(프레지던트 호텔)(Dinner and Preparatory Meeting)

3월 23일 (금)　　March, 23, Friday

09:00-09:30　◆ 등　록(Registration)

09:30-10:00　◆ 개회식(Opening Ceremony)　　사회: 김 기선(단국대)
Chair : Kim Kisun(Dankook Univ.)

09:30-10:00　◆ 개회사 : 박 원길(한국몽골학회 회장)
Welcoming address : Won Kil Park(President of KAMS)
◆ 환영사 : 박 철(한국외국어대 총장)
Congratulatory speech : Chul Park (President of HUFS)
◆ 축　사 : Gerel Dorjpalam(주한몽골대사)
Congratulatory speech : Gerel Dorjpalam(Ambassador of Mongolia

10:00-10:10　기념사진 촬영(photographing)

기조발표
Keynote address

사회 : 김 기선(단국대)
Chair : Kim Kisun(Dankook Univ.)

10:10-10:40　◆ 주 채혁　**(세종대)**
고올리 칸 궁왕(弓王)석상과 몽한분족문제

제1부. 언어부문
Session 1 : Language

사회: 김 기성(한림대)
Chair : Kim KiSeong(Hanlim Univ.)

10:40-11:00 ◆ Jaroslav Vacek (체코 카렐대, Czech)
Dravidian and Altaic-implications of the established parallels

11:00-11:20 ◆ Sh. Battugs (몽골국립사범대, Mongol)
Монгол хэлний шинэ үг бүтэх арга(몽골어 신조어 형성법)

11:20-11:40 ◆ D. Baasanbat (몽골국립대, Mongol)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МАНЖ үгийн тухай(몽골어 속의 만주어 차용어에 관하여)

11:40-12:00 ◆ L.Ganchimeg (몽골국립대, Mongol)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элц үгийг толилох асуудалд(몽골어 관용어의 사전 배열 문제)

12:00-12:20 ◆ B. Hishigsukh (몽골국립대, Mongol)
Нэншинэхэн үеий нМонгол уранзохиол,урлагт "Чингис хааны дүр"ний гбүтээсэн туршлага, ололт, дутагдал(근대 몽골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주인공 칭기스칸 형상 묘사의 장점과 단점)

12:20-13:20 점심식사(교수회관 교수식당 VIP룸)
Lunch

제2부. 한몽 역사부문
Session 2 : History

사회 : 윤 은숙(강원대)
Chair : Yun Eunsook(KangWon Univ.)

13:20-13:40 ◆ E. Zoritukoev (러시아, Russia)
코리족과 코리보리아드의 민족 기원

13:40-14:00 ◆ B. Sumiyabaatar (몽골 울란바타르대, Mongol)
몽골 게세르 칸과 한국 거슬한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관계 문제 고찰

14:00-14:20 ◆ 朝格图 (Chogt) (중국 내몽골대, China)
成吉思汗大扎撒原形考(칭기스칸 대자삭(법전) 원형 고(考))

14:20-14:40 ◆ 복기대 (뇌과학대)
흉노는 몽골족의 조상인가?

14:40-15:00 ◆ 최기호 (울란바타르대)
알랑고아 신화, 고주몽 신화 비교와 졸본부여 건국

15:00-15:20 ◆ 이성규 (단국대)
알타이어족설을 통해 본 한국인의 기원

15:20-15:40 휴식(Tea Break)

제3부. 문화, 민속부문
Session 3 : Culture & Folklore

사회 : 박 환영(중앙대)

Chair : Park HwanYoung(Chungang Univ.)

15:40-16:00 ◆ 이홍규 **(을지병원)**

인류의 기원, 이동, 분포/DNA미토콘드리아를 통해 본 인류역사

16:00-16:20 ◆ D. Otgontsetseg (한국외대)

БНСУ-д монгол хэл заан сургаж ирсэн түүхэн байдал, цаашдын төлөв.(한국에서의 몽골어 교육 현황과 전망)

16:20-16:40 ◆ D.Taya (중국 내몽골대, China)

A Cultural History of the Oirat Mongolian Writing System(卫拉特蒙古文字史问题) (오이라트 몽골 문자사(文字史) 문제)

16:40-17:00 ◆ Jantsan BAT-IREEDUI (몽골국립대, Mongol)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АРЫН НЭР, ХОЧ Н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АЛД(몽골 문학에서의 주인공의 이름과 별명 연구)

17:00-17:10 휴식(Tea Break)

17:10-17:30 ◆ 김천호 (한양여대)

유라시아 순대문화의 분포와 변천

17:30-17:50 ◆ Erdenbatur (额尔敦巴特尔) (중국 내몽골대, China)

蒙古肃良合姓考辩(몽골의 솔롱고스(Solongos) 성씨 고찰)

17:50-18:50 ◆ 종합 토론(Discussion) : 신종한(단국대), 주채혁(세종대), 남상긍(안양과학대), 이성규(단국대), 박환영(중앙대), 이안나(한양대), 최형원(단국대), 유원수(서울대), 최동권(상지대), 김기선(단국대), 김기성(한림대), 조병학(가천의과학대), 장두식(단국대),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박소현(영남대), 김선호(부산외대), 소브다(한국외대)어트겅체첵(한국외대), 갈바예르(한국외대),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송재용(단국대), 송병구(단국대), 을지바트(서울시립대), 이용성(서울대), 김광옥(수원대), 이태준(가천의과학대)

19:00-21:00 ◆ 만찬(Reception dinner)

고올리칸 弓王 석상과 몽·한의 分族

주채혁(IAMS 한국측 집행위원)

1. 머리말

이는, 1990년 3월 26일 몽·한수교가 이루어져서 이해 5월경에 베. 수미야바아타르 교수가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하면서 이루어진 첫 학문적 소통에서 그가 문제로 제기한 연구주제다[1]. 1991년 8월경에는 울란바아타르에서 몽골과학아카데미와 한국몽골학회가 제1회 『몽골비사』에 관한 한·몽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여기서 필자는 "『몽골비사』의 연구와 두민족의 기원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2]. 그리고 이에 이어서 한국몽골학회 주도로 수흐바아타르 아이막 다리강가에 훈촐로오 유물유적의 탐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92년 8월 중순경에는 마침내 훈촐로오 연구자 도. 바예르 교수와 함께 부이르호반 숑크 타반 톨로고이[3]에 있는 이 고올리칸 훈촐로오 소재지를 탐사케 됐다. 이 탐사는 몽골과 한국 학자들의 공동탐사로 근 20여명으로 구성된 탐사

1) 당시의 문제제기 담론에 관한 내용은, 주채혁 『몽골은 고구려의 외손민족』『월간조선』1998년 5월 326~343쪽에 정리돼 있다. 331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는 우리와 만나면서 때때로 "몽골과 한국 관계사에 관한 메가톤급 원자탄을 가지고 내가 한국에 왔다"고 하였고 1990년 여름 어느 날인가는 "부이르호숫가 남쪽 초원에 서 있는 훈촐로오(石人像)가 동명성왕이라고 추정한다"고 하여, 우리를 몹시 당혹스럽게 했다. 부이르 호수라면 대흥안령 북·서부인데 그 머나먼 땅에서 동명성왕이 말을 타고 오다니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貊高麗는 高句麗이자 原몽골일 수 있다"는 나의 추론에 대해, 그는 "史實은 하나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追記: 유목적 거리개념이 없었던 당시의 우리는 그가 네오파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까지 했다. 그의 태생지는 서·남부 대흥안령 수흐바아타르 아이막 다리강가 대스텝이고, 그곳은 우리가 1990년대 중반에 고올리 돌각담 무덤을 발굴[손보기교수 지도]한 지역으로 넓게 보아 홍산문화권의 서북쪽 언저리라고 하겠다. 우리는 훌룬부이르 몽골스텝과 함께 남·북으로 세로 놓인 몽골의 기원지인 동부몽골이라고 칭했다. [이즈음 베. 수미야바아타르 교수의 초청은 단국대학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처럼 흥분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기도 한 차에 필명이 흥안목동인 하칸추루 교수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란이라는 딸과 한여름에 함께 방한했다. [추기: 그의 태생지는 통료시로 바로 홍산문화권에 속한 곳이다] 그는 방한 일성으로 "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라든가 "몽골과 한국이 함께 몽골세계제국을 이룩했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제주도를 답사하고는 "제주도에 세계에서 몽골 고급전통문화가 아직도 가장 밀집돼 남아있다"고 하여, 한·몽 수교 직후 당시의 한국인에 대한 몽골충격을 배가시켰다. [이 때 하칸추루 교수 부녀의 초대는 박원길 현 한국몽골학회장이 제언해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의 배려로 이루어졌다].

2) 주채혁「몽골秘史」연구와 두민족의 起源 문제(제1회 「몽골비사」에 관한 한·몽심포지움 자료집 몽골과학아카데미·한국몽골학회 울란바아타르 1991.08. 05, 1~8쪽; 『몽골학』1 1993 未攝)

3) 이에는 어떤 전설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채록할 수는 없었다. 지명의 뜻은, 훌룬부이르 몽골스텝 하일라르 태생인 내몽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아. 아르다잡 교수와 1999년 가을에 내몽골쪽 부이르호반 현지답사 중에 그에게서 들어 채록했다.

팀에 의해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진 동몽골 대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4] 그 후 필자는 유목몽골의 기원을 탐사하기 위해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유적발굴에 주력하는 사실상 고고학 발굴팀이 된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를 떠나, 유목목초와 몽골의 기원지 에르구네시를 향해 흥안령 북부 훌룬부이르 몽골스텝으로 홀로 떠났다. 그 주요지대가 거의 모두 내몽골영역내에 있었으므로 내몽골대학과 나의 소속대학인 강원대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소흥안령지대 답사에 몰입했다. 때로는 현지학자와 공동탐사캠프를 차리고 순록유목현지를 집중 탐사하기도 하며, 사정상 1999~2000년에 걸쳐 상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학을 이용해 주로 현지답사를 했다. 현지원주민 관계 분야 전공학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대·소흥안령일대를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답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결과로 내 나름으로 도출해낸 결론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논증과정은 이미 발표한 논문 3편에서 피력한 바 있으므로, 고올리칸 석인상과 몽·한분족 문제에 관한 내용만 이에서 추출해 요약·정리 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재조명해가려 한다.[5]

2. 고올리칸- 놈온한 석상과 동명루트, 할힝골 貊高麗 창업

본고에서 槁離(Qori)와 鄂倫(Orun)은 Qalqa Mongol의 'Qalqa'와 같은 뜻으로, 코리인과 오룬춘은 弓裔의 鐵原 弓氏와 같이 弓族을

---

4) 1991. 7.27~8·16일과 1992. 7.22~8.8일간에 걸친 현지답사가 있었다. 조사보고서는 한국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원『한·몽공동학술조사-동몽골 1차년도 보고서』 1992(**1**)[총 394쪽]로 출간됐다. 보고서는 1993(**2**). 1994(**3**). 1995(**4**)집 까지 출간됐다.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리강가 스텝 고올리 돌각담 무덤 탐사에는 실은 초대 주몽골 한국대사 權永純 교수의 뜨거운 열정과 고난을 감수하는 아낌없는 헌신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 팀사단 부단장으로 본의 아니게 그 누락됨을 깊히 사죄드린다.

5)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чууд "Халх овог – Нумтан угсаатан"-аас салбарласан талаарх шинжилгээ --Act Mongolica-2009 Volume9[320], Center for Mongol Studies, Mongol national University 2009, 5, 18 pp.125~146]**

周采赫 「關于蒙古與韓國人的弓族分族考」『多元共存和邊緣的選擇圖們江學術論壇2009』延邊大學 亞洲研究中心 111~129頁

주채혁 「東明(T'umen)루트: 몽·한'활겨레'(Qalqa obog, 弓族) 分族考」『한·몽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몽골학회 2010년 한국 서울 3월 26일 151~182쪽

주채혁 「東明(T'umen)루트 몽·한'활겨레(弓族)' 分族考」『몽·려활겨레문화론』혜안 2011. 31~70쪽 補遺, 재수록

지칭한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전후에 걸친 Qalqyn Gol지역에 대한 오랜 현지답사와 1970년대 중반에 제기된 베. 수미야바아타르의 Qalqyn Gol=紇升骨(忽本)이란 견해를 결합시켜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할힌골(Qalqyn Gol: 忽本=紇升骨=諾門汗) 항공사진[6]

특히 티베트어에서 그 뿌리를 말할 경우에 몽골을 'Хор Монгол'이라 하는데 이때 'Хор'가 바로 「활-箭筒」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몽골의 뿌리를 말할 때 쓰는 '할하몽골(Qalqa Mongol)'의 「할하(Qalqa)」가 곧 '활'이오 '코리(Qori)'로 할하오복(Qalqa obog)-'할하(Qalqa)'족은 '弓'族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몽골비사』274절에 나오는 Jalayirtai(札剌亦兒台赤) Khorichi(豁兒赤)에서 Khorichi-Qorči[7]를 箭筒士로 漢譯한 점으로 보아도 Xor, Qor나 Khor가 '활'일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아울러 고(구)려 계승을 표방해

6) 몽골·일본인력개발센터 『세계사속의 할힌골전투(놈온한 사변); 70주년 국제학술회의』 2009년 7월 2일~5일, 울란바아타르 [몽골국립대학교 기념관내]. 이때 제공한 영상이다.
7) 그러므로 실은, Khorichi-Qorči는 '활잡이'라는 뜻을 갖는 Korean의 토박이 유목몽골로이드어 호칭이라하겠다.

'활의 후예'라는 뜻으로 「弓裔」라고 작명한 鐵原 弓氏 시조의 사례는 고려(Qori)가 바로 '활'임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8]. 이 밖에도 이런 典據는 적지 아니 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東明說話는 곧 몽골과 고(구)려의 태반사를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몽골과 고(구)려의 弓族 分族論'을 제기케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스텝의 기마 양유목단계에 들기 이전 지금으로부터 25,000~15,000년 전인 약10,000년간의 순록수렵시대와 그 후 중신석기시대 이래의 騎순록 순록유목시대를 復元해보면서 도출된 가설이기도 하다. 물론 그간 北狄이 스키타이의 첨단 제철기술과 접목되면서 '北夷'(『論衡』「吉驗編」, Qori)와 '東夷'라는 명칭으로 전환되는 역사과정에서 줄곧 「몽골·고려 弓族(Qalqa obog) 분족론」이 이미 암시되어온 기반위에 성립된 문제의 제기이다.

…

.홀본[할하]-놈온한(諾門汗) 건너편 숑크 타반 톨로고이에 있는 고올리칸(弓王) 훈촐로오[현재 울란바아타르 몽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바야르 교수 찍음][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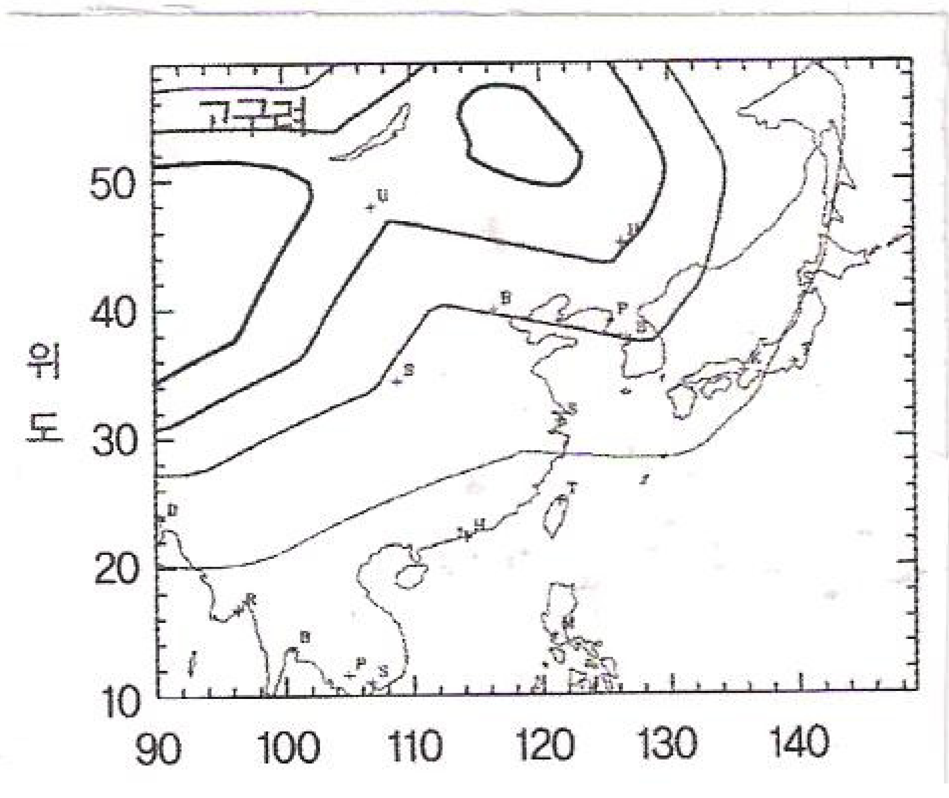
1970년대 중반에 베. 수미야바아타르가 東明聖王-高朱蒙이 몽골과 한국의 공동조상으로 여기서 북동쪽으로 이동해간 이들이 오늘날의 농경 한국인이고 서남쪽으로 이동해간 이들이 오늘날의 유목 몽골인이라고 한 견해는, 그 후 현지답사에서도 그대로 입증되었다[10].

8) 朴漢卨「弓裔姓名考」『霞城李瑄根博士古稀紀念論文集』1974 참조.

9) 아. 아르다잡 교수가 실링골에서 2000년 5월 29일에 「숑크(赤) 타반(5) 톨로고이(頭)」라는 주석을 붙여주었지만, "그 지명이 어떤 전설에서 비롯된 지명인가?"는 모르고 있었다.. 이 고올리칸 석상이 내몽골 부이르호반이 아닌 현재의 몽골국 국경내의 부이르호반에 아슬아슬하게 전승돼 尙存하고 있음은, 유목몽골사의 복원을 위해 실로 천만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곳의 부녀자들은 게르에서 나와 말을 보러 가면서, 곧 화장실에 가면서 몽골 부녀자와 고올리 부녀자가 서로 마주치면 몽골 부녀자들은 西南쪽에서 왼쪽 손을 들어 北東쪽을 향해 한번 돌리고 고올리 부녀자들은 북동쪽에서 오른손을 들어 서남쪽을 향해 한번 돌려 인사를 했다. 몽골 사람과 고올리 사람은 본래 한 종족이었는데, 몽골 사람들은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서 몽골 초원의 유목민이 되었고 고올리 사람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가서 고올리 사람이 되었으므로 서로 한 피붙이인 同氣間임을 일깨우는 인사의례였다.」

몽골사람과 한국 사람이 본래 같은 근원이었다는 이야기는 그간 막연히 들어왔지만, 논자가 아는 한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근원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문헌사료에서는 어디에서도 아직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로지 흥안령을 넘어 부이르 호수가의 황량한 벌판에 이르러서만 비로소 처음 접하는 이 관계 구비전승사료이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일식 기록 측정지역 11)

10) 윗 구비사료는, 주로 1992년 7월 28일에 현지 원주민 잠스랑수렝(Жамсарансүрэн: 67세, 남자)과의 회견에서 얻었다.

박창범의 고구려 日蝕記錄 분석 결과에서 그 최적 관측지가 鴨綠江 일대가 아니고 바이칼호 우측 몽골지역이라고 한 것이, 놀랍게도 이 지역 원주민들의 "몽골과 한국의 할힌골 언저리 分族" 증언과 맞아 떨어지면서 베. 수미야바아타르와 나의 주장에 크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과학적 기록과 우직한 문맹은, 모두 거짓말을 못하는 그 나름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원전 6~5세기 당시에 스키타이 제철기술과 결합해서 몽골스텝에까지 진출해 '騎馴鹿 순록치기'에서 '騎馬 양치기'로 돌변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騎馬射術」을 확보하는 무서운 弓士集團을 이룬 코리족-弓族들이다. 그 후 이들이 순록유목부족들의 우두머리 집단으로 놀랍게 성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수림툰드라라는 광대무변한 순록유목기지를 배경으로 출몰하며 기존 목농제국을 못살게 구는 오랑캐-코리양카이-코리(弓)族의 순록치기가 되었던 터였다. 그러므로 기존 목농제국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오랑캐-'활을 든' 순록유목치기 Qorči-오룬춘집단이 되는 셈이고, 바로 이 오랑캐-코리족들이 치는 순록-「코리(弓)族 Chaabog(순록)」이 Qorči(弓士: 箭筒士-Харваач)=오룬춘=오랑캐의 Chaabog 곧 'Orun bog'이 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시베리아의 한 중심 바이칼호 올콘섬에 코리족의 시조탄생설화가 깃든 不咸(Burqan) 祭天壇이 그 설화와 함께 전승돼 내려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키타이 제철기술과 결합되어 무서운 弓士戰力集團을 이루는가 하면, 스텝에 진출해 騎馬射術이라는 가공할 당시의 최첨단 遊牧武力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훌룬부이르 몽골스텝이라는 드넓은 유목지대와 嫩江平原이라는 거대한 목농지대를 통합

11) 박창범『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김영사, 2002. 56쪽

해 지배하면서, 치열하게 사회분화가 일어나 고대 유목제국이 창업되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터이다. 순록유목 태반인 古朝鮮帝國의 토대 위에 기원전 6~5세기경에 스키타이 제철기술을 수용하면서 창업·발전되는 槁離든 夫餘든 匈奴든, 高句麗든, 突厥이나 鮮卑든 그래서 모든 동북아 고대유목제국을 낳은 子宮이 훌룬부이르 몽골스텝-嫩江平原 곧 이른바 呼嫩平原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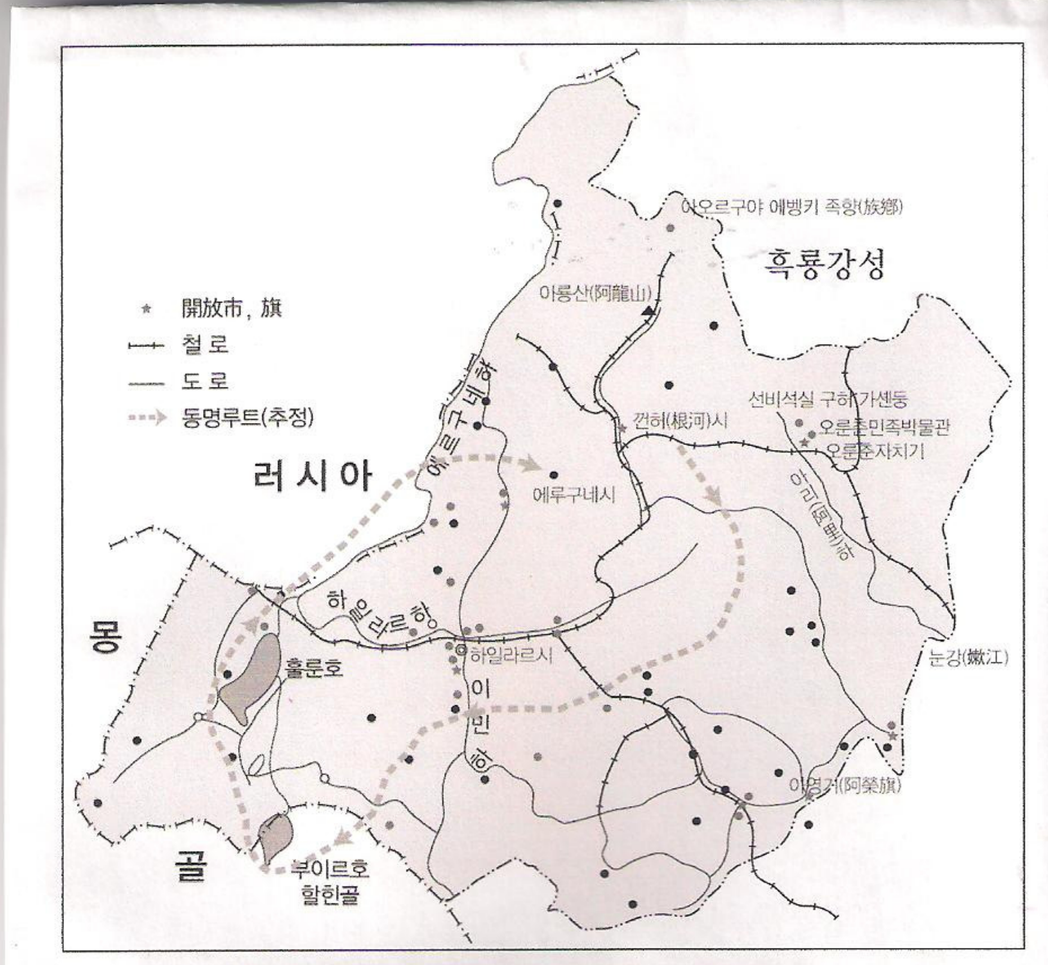
물론 세계제국은 무한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방공간이 전제돼야 창업될 수 있는데, 스텝과 바다라는 역사무대가 그것이다. 인류사상에서 15~16세기 해양세계제국 태동 이전의 스텝세계제국으로 결실된 것이 팍스 몽골리카의 몽골세계제국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순록유목 태반의 조선제국을 잇는 기마양유목 태반의 槁離-貊高麗(몽골)-高句麗도 물론 예외일 수가 없다. 이런 역사배경을 가지고 생겨나 전승돼온 코리족 族祖 탄생설화이고 東明聖王傳說의 역사적 실체라 하겠다.

실은 고리국 터로 추정되는 이 일대에서 가장 추워서 순록의 天敵인 모기가 살기 어려운 순록유목 適地 껀허(根河)에서 남하해 琵琶形靑銅短劍 출토 서북한계지[12]이자 奄利大水로 批正해볼 수 있는 '큰물'이라는 뜻을 갖는 「이민」의 이민河를 건너 할힌골(忽本江=渾江: 弓江)[13] 천연요새에 入城한 후에 '활의 나라(弓帝國)'-고올리칸국-貊高麗~고구려제국을 창업하는 과정을 담은 東明聖王 전설의 역사적 실체가, 결국 「할하오복」-'코리족(弓族)'의 "騎순록 순록유목→기마 양유목" 발전과정을 적은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전설이 바로, 騎순록 순록유목제국 古朝鮮→ 순록치기에서 양치기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夫餘→기마 양유목제국 貊高麗~高句麗 창업이라는 '할하'-弓帝國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12) 1999년~2000년 당시에는 담당자가 훌룬부이르 박물관에 소장된 이민河 유역 출토 비파형청동단검 칼라사진첩과 관계논문을 일부러 꺼내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2005년 전후부터 이른바 동북프로젝트가 한·중간에 문제되면서는, 모두 흔적을 감추어버렸다.

13) 1999년 가을에 하일라르에 사는 조선교포 徐昌海(1930년대 중반후에 태어남, 1934년생으로 현재 한국문물교류연구소 소장인 정수일 교수의 延邊중학교후배; 1999년 4월 21일에 열린 한국창조사학회 학술심포지움 『칭기스칸은 고올리의 후예다』[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金榮友 교수 주관]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정협 위원은, 십 수 년 전에 당시 80세 전후의 조선교포 노인들에게서 「高麗河」가 이 지역에 있다고만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느 江河를 이르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치 못 했다고 했다. 할힝골이 '활의 강'이고 이것이 바로 弓河=「高麗河」임을 깨닫게 된 것은, 2009년 여름 몽골사회과학원 베. 수미야바아타르 교수 연구실에서 그와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이다.



몽·려 활겨레 유목태반 훌룬부이르 몽골스텝-多勿 : 에르구네 동명루트 批正圖

실로, 그렇게 오룬춘(본래는 Qorunchun으로 Qorči일 가능성이 있는 이름)旗 껀허(根河)=순록유목지=槁離(Qori)國에서, 이민하(大水)-'엄리'대수를 건너 망명해 나온 Qorči(弓士: 箭筒士-Харваач)중의 가장 뛰어난 名弓手-朱蒙이 忽本 (또는 卒本) 곧 할힌골(諾門汗)=**紇升骨** 몽골스텝에 들어 부이르호수 언저리의 대규모 고올리 논벼농장[14]을 낀 기가 막힌

14) 지금의 생태조건으로 보아서는 거센 바람과 메마른 스텝지대인 이곳이, 아무리 대흥안령의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린다고 해도 논벼농사가 될 수는 없는 땅이다.[한국농업사연구의 거장 金容燮교수께 1999년 가을에 답사 현지에서 전화로 문의드렸으나 역시 이같은 답이 왔다] 그렇지만 몇 차례 찾아와 계속 원주민들에게 거듭 확인했으나 분명히 '논벼농사'를 지었다고만 확인해 주었을 따름이다. '오순 토트락'이란 논벼를 일컫는다. 수십

천연요새지에서, 기마 양유목에서 비롯되는 최첨단 騎馬射術로 몽골스텝에 진출하면서 일약 대성해 고구려제국을 세우고, 껀허라는 고리국 옛터를 되찾는 과정에서 *多勿*-'에루구네(Эргэн)'[되돌아와 되물림] 전설[15]이 생겨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장 북쪽에 있는 껀허(根河)의 槁離國이 순록유목제국의 본거지고 거기서 탈출해 나와 부이르호 언저리에 北夫餘를 세운 투멘(T'umen)이 松讓의 先代祖 창업자와 같은 제일의 東明(T'umen)이며, 이에서조차 다시 탈출해 분화·발전하는 과정에서 *紇升骨*-할힌골(諾門汗) 곧 *忽本*에 창업기지를 확보하고 좀 더 서남쪽으로 몽골스텝 깊숙이 진출한 투멘-東明(T'umen)이 高朱蒙(Go T'umen)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槁離國→부이르호 일대의 北夫餘→할힌골의 高朱蒙 순으로 기마 양유목의 발전이 이루어져 몽골스텝에 깊숙이 진출해 당시의 최첨단 유목무력인 騎馬射術을 확보한 高朱蒙이 북부여→고리국에 *多勿*-'에르구네(Эргэн)'都를 세워가는 捲土重來形 창업설화가 東明(T'umen)-高朱蒙 (Go T'umen)說話의 역사적인 실체내용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할힌골=忽本江=渾江: 弓江으로 할힌골의 地名舞臺를 거의 그대로 渾江-五女山城-不咸(Burqan)山[헨티산과 백두산에 모두 있을 수 있음] 식으로 지니고 이주한 貊(Elbenkü)高麗→곰(半月熊)고려: 高句麗로 감히 비정해본다. 물론 바이칼호 북극해권은 물이 차서 곰은

년 내에도 생태가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勘案한다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어찌 변해왔는지를 쉽게 추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1992년 7월 28일에 잠스랑수렝(Жамсарансүрэн: 67세)과의 회견에서 얻은 구비전승자료에 의하면 불과 5~60년 전만해도 목쟁기로, 농사를 지었는데 중국식도 러시아식도 아닌 자기네들의 고유농법으로 대규모의 경작을 했다고 한다. 필자는 수리시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고올리 농장터에서 특히 1999년을 전후해서 그간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면서 도자기와 토기, 석기, 특이 큰 맷돌 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담으로 이런 추억도 얽혀 있는 부이르호반이다. 1992년 8월 중순에 이곳에 답사하러 와서 현지 군수에게 야외에서 일행이 식사 대접을 받았다. 주위에 거대한 모래밭도 있어서 거센 바람이 치는 바람에 쌀밥과 국이나 반찬들이 모래와 섞였다. 팀의 원노인 권영순 교수(초대 주몽골 한국대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씹어 삼켰지만, 필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잔꾀를 내어 얼른 물에 밥을 말아 모래를 걸러내 쌀 밥알만 건져 먹었다.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기갈을 순간적으로 구제받은 셈이다. "아하! 물말아 먹는 관행이 이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르겠구나!"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후 2011년 여름인가 정수일 교수에게 쌀농사지역인 동남아시아에도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쪽엔 밥 따로, 반찬 따로의 문화권이 아니라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해주었다.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이 지역 한·몽분족관계사 연구를 위해서는 사소한 몸짓이나 눈짓 관행까지도 모두 면밀히 비교·분석해보는 연구자세가 긴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부이르호 일대가 이렇게 중차대한 유적지라면, 그동안의 생태환경의 격변을 고려하여 *海底探査式*의 답사와 발굴을 시도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고 SBS-TV의 홍성주 제작자가 즉석에서 내게 제안해보기도 했다.

15) 2009년 가을에 Gerelbadrakh. Jamsranjav 교수가 울란바아타르 산사르의 내 아파트에 찾아와 처음 문제로 제기 했다.

할하강(弓江)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거북모양 돌무지무덤[16]

살고 호랑이는 못 삶으로 미상불 선진 순록유목민을 상징하는 곰이 수렵민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만나는 곳이, 호랑이가 살 수 있는 훌룬부이르 곧 할힌골-忽本圈임을 과감히 상정해본다. 이 또한 그 무대를 그대로 가진 채 渾江一帶로 이주했을 수 있다. 시원적 유목성 본질을 가지는 조선-고구려 태반사이기 때문이다[17].

그런데, 주로 북유라시아 툰드라와 삼림툰드라에서 경영돼온 오랜 순록유목전통의 주류는, 아직도 어느 정도로는 그런 생태환경을 보존해오고 있는 북부 大·小興安嶺 일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누르쿠(努魯兒虎=脊梁)산맥과 遼澤의 東邊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에 接脈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 후에 기마 양유목 생태환경은 한랭 고원 건조지대인 스텝이고, 그 이전 始原遊牧이라 할 순록유목의 생태환경은 이와는 생태환경이 서로 다른 한랭 고원 저습지대이었으므 순록유목전통의 주류는 자연히 고조선 고(구)려 쪽으로 계승되게 되었다.

16) 할하강(弓江)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거대한 거북모양 돌무지무덤은 광개토대왕비(414년)에 「….王於忽本東岡履龍昇天」이라 한, 바로 그 자리에 쓴 고주몽의 무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고구려고분 북벽 至聖所의 玄武神主로 좌정하는 전 단계 고올리(高句麗) 무덤형태는 아닐까? 근래에 박창범 교수는 고구려 일식기록 분석 결과에서 그 최적 관측지가 압록강 일대가 전혀 아니고 바이칼호 남동쪽 몽골지역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놀랍게도 이 지역 원주민들의 "몽골과 한국의 부이르호반 할힌골(弓江) 언저리 분족(分族)" 증언과 맞아 떨어짐을 마침내 확인케 됐다.["송년특집다큐멘타리 유목민의 땅 몽골을 가다"(1992년 8월 중순 현지탐사). 박원길 현 한국몽골학회장 동행, SBS-TV 홍성주 PD 찍음]

17) 동북아시아 유목몽골로이드가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지명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고올리칸 석상이 자리 잡은 할힝골 언저리의 숑크(붉은) 타반(5) 톨로고이(머리)라는 지명이 혹시 渾江유역의 五女山城과 구비전설상 무슨 상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있을 심층연구를 위한 자료로 여기에 적어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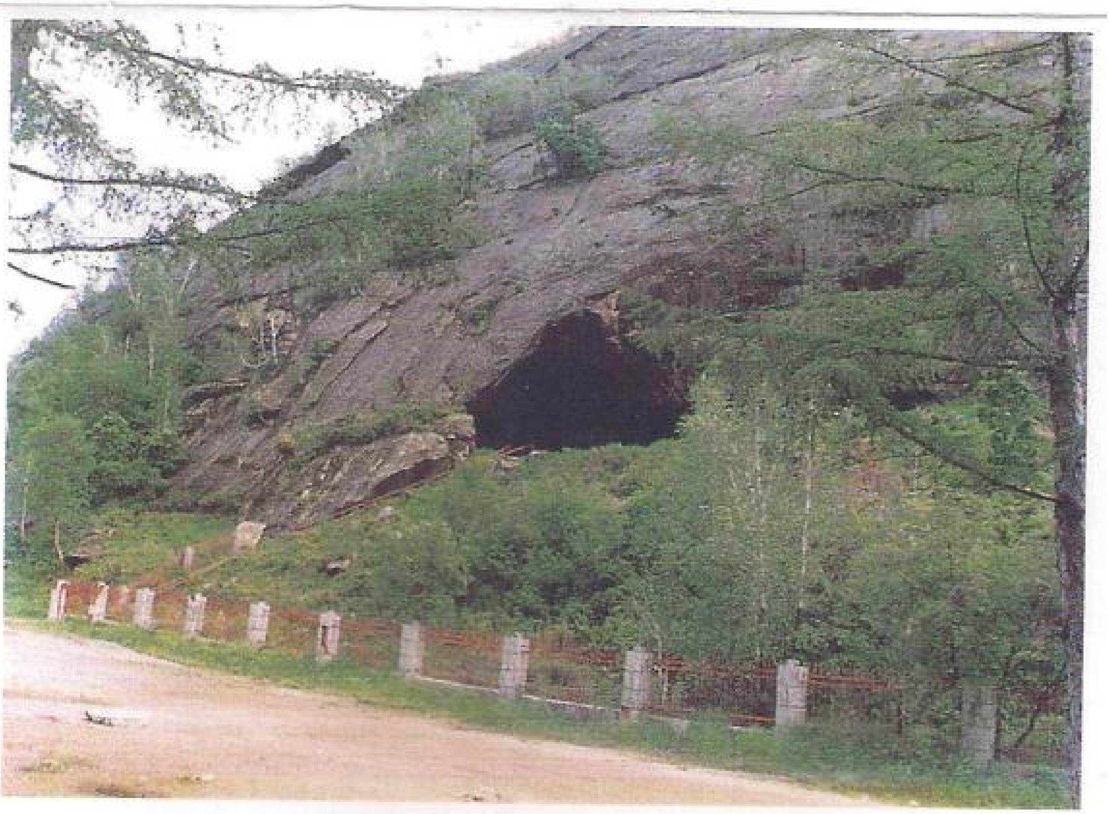
그런데 '東明 루트'의 「東明」은 무엇인가? 『삼국사기』 권제13 고구려 본기 제1 東明條에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夫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이라고 했는가 하면 흉노의 冒頓單于의 아버지 頭曼單于나 돌궐제국의 창업자 土門(Bumin)도 모두 善射者라는 뜻을 갖는 것으로 보아, 스키타이의 제철기술 수용으로 騎馬射術이라는 최첨단 유목무력을 확보한 이래로 각각 유목제국을 창업한 모든 유목제국 太祖를 통칭해서 頭曼-土門-東明-鄒牟-朱蒙-T'umen이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를 유목제국의 창업주인 太祖를 부르는 普通名詞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北夷 槖離國[18]에서 탈출해 나온 「東明[성왕]」을 그 音寫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동방을 밝힌'이라고 恣意的인 해석을 한다면, 같은 계열의 시조전설을 서술한 『廣開土大王碑』나 『牟頭婁墓誌』의 鄒牟[성왕]은 어떻게 그 뜻을 逐字 解釋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논자는 頭曼-土門-東明-鄒牟--朱蒙-T'umen을 고유명사가 아닌 普通名詞로 읽고 「東明(T'umen) 루트」를 순록유목제국의 기마 양유목제국화과정으로 想定, 이를 스키타이 제철기술의 수용으로 수림툰드라 순록유목의 스텝 기마양유목화과정에서 당시의 최첨단 유목무력인 騎馬射術을 확보해 「활겨레(Qalqa obog)제국」을 창업해가는 단계로 파악해본 것이다. 다만 槖離國에서 분화·발전해 나온 高朱蒙(Go T'umen)의 貊高句麗-貊高麗의 경우에는 추정되는 태반생태 여건의 특이성으로 보아 흉노나 돌궐의 T'umen과 차별화되는, 시원유목 순록유목태반과 직통하는 역사적인 정통성의 맥락과 직결되서 어떠한 역사적인 독자성을 부여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3) 阿榮旗-阿榮(Arong)嶺~阿里河-阿里(Ali)嶺~阿龍山-阿龍(Along)嶺, 단군신화 무대 추정 가셴둥과 高麗果

1999년 말 경에 홍안령 북부 하일라르(海拉爾) 거주자인 조선교포 徐昌海 정협위원은 순록의 주식 鮮의 蘚(Niokq)과 더불어 사는 草莓(산딸기류)라는

18) 여기서 槖離(王充『論衡』2「吉驗篇」)의 '槖'은 아이누語 '토나카이'-순록에서 기원됐고, 索離(杜佑 『通典』「夫餘」)의 '索'은 室韋와 함께 활 '시위(弓弦)'에서 유래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010년 4월 5일 追考].

高麗果가 껀허(根河)일대에 특히 많이 분포돼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고려과는 그 후 覆盆子[19]로 밝혀졌다. 오룬춘(Qorunchun), 할힝골-할하=高麗河나 놈온한 따위를 비롯한 활(Xor 또는 Qor=Khor: 弓)을 뜻하는 槁離(Qori) 관계 종족이름, 강이름이나 지명 및 과일이름이 이언저리에 특히 많이 분포돼 있어 주목된다.



가셴둥(嘎仙洞). 단군신화의 무대로 추정되는 훌룬부이르시 오룬춘기(鄂倫春旗) 대흥안령 분수령 바로 동쪽 嫩江 최상류에 있다. 1980년 米文平의, 『魏書』의 탁발선비 선조석실 석각축문(443년) 발견으로 확인. 朝鮮 · 鮮卑의 鮮(Soyon)族 조상제사터. 花崗巖 절벽의 석굴 입구 : 서남향, 20m(너비)×12m(높이). 석굴 내부 : 최고치 90m(남북길이)×27m(너비)×20m(높이). 석기시대~철기시대 유물 출토.

이 지대는 鮮卑族 舊墟 가셴둥(嘎仙洞)이 있어서 세계몽골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터이다. 이 가셴둥 동굴벽에 '칸(可寒: Хаан)'과 '카툰(可敦: Хатан)'이라는 몽골어가 石壁의 石刻 祝文에 刻字돼 있고 이 글의 내용이 『魏書』(世祖」條) 관계기록의 내용과 일치돼서, 이곳이 몽골(拓跋鮮卑) 기원지임이 공인되기도 했다. 이 잘 생긴 거대한 동굴 속에서는 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 유물들이 모두 발굴되고 있다[20]. 필자가 조선은 '아침의 나라'가 아니고 「순록유목민의 나라」라는 자각을 하게 한 오룬춘박물관도 이 지대에 있다. 오룬

19) 사내의 정력이 세어져서 요강을 뒤엎게 하는 산딸기라는 뜻의 이름이다
20) 米文平, 「鮮卑石室尋訪記」, 中國邊疆探察叢書, 山東 直隸출판사, 1997참조

춘은 본래 코룬춘(Qorunchun)이었는데 'Q'자가 그 후 음운 발전과정에서 탈락돼서 오룬춘(Orunchun)이 됐다는 것이, 전 몽골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아. 오치르 교수의 논증이다. 「코리」는 '활(弓)'인데 오룬춘은 이에서 비롯된 이름일 수 있다. 필자가 껀허 지역을 고리국으로 비정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활을 든' 이(持弓者)들의 나라 弓國: 코리는 마치도, '칼을 든' 이(持劍者)들의 나라 契丹(Cathey)[21]과 대비되기도 한다. 대·소흥안령일대에서 가장 추워서 범-호랑이가 못 살고 순록의 천적 모기를 피할 수 있는 순록유목 최적의 생태지대이다. 이 혹한지역 가셴둥 동굴에서 북극곰의 피가 흐르는 熊女(곰녀)와 추위에 약한 虎女(범녀)가 신랑감인 미래의 檀君의 아버지 환웅과의 同寢權 확보를 놓고 쟁패혈투를 벌였다면, 웅녀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차아탕: 순록치기 기원 고조선 「단군신화의 동굴무대」는 '가셴둥'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곰과 호랑이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생태권역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鮮卑의 '卑'는 鮮族의 허리띠라는 뜻[22]이고 보면, 몽골의 직계 조상인 선비족 조상의 기원동굴인 가셴둥은, 朝鮮겨레도 鮮卑族처럼 鮮(Soyon)族이어서 조선과 몽골은 단군신화를 그 태반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경원인 발굴로 유명한 裵文中은 1950년대에 이곳을 탐사하고 잘라이노르에서 동토작용을 찾아냈다[23]. 지금부터 25000~15000년간에 걸쳐 있었던 몽골고원의 동토현상이 점차 건혀 올라가면서 遼西地帶의 騎馴鹿 순록유목 중심권이 騎馬 양유목 起源圈인 呼嫩平原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곰녀와 웅녀의 가셴둥 환웅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21) 비파형 청동단검의 본무대에서 起源했다. Orunchun은 Qorunchun으로 Qorči 곧 '활잡이'라는 뜻이 되는 셈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Korean이다. 나는 1999년 8월 11일에 현지답사 1개월여를 지내다가 중국음식에 비위가 상해서 몹시 고전을 하던 참에 돼지뼈를 우린 쑥국물에 끓인 오룬춘 된장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놀랍게도 생기를 되찾았다. 阿西로 音寫된 오룬춘어 '아씨' 발음이 어찌나 우리말 아씨의 발음과 같은지 감격했다. 물론 뜻도 같았다. 답사 출발 전에 『조선일보』의 서희건 기자와 윤명철 교수가 함께 점심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北崖老人『揆園史話』(1675)에 檀君의 부인이 阿氏라 했으니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서기자의 당부를 듣고 왔던 기억이 새삼 상기됐다. 아씨가 왕비든 왕비가 시집올 적에 수행해온 '인제'든 여자들의 손맛이 음식맛을 주로 좌우하게 마련이고, 그런 맛은 시공간을 넘어 무서운 보수성을 지니기 때문이어서였다.

22) 주채혁『"鮮"의 高麗와 "小山"의 馴鹿 연구』『백산학보』67; 백산학회 2003

23) 裵文中『科學通報』1956 및 『科學紀錄』1957

故 민영규 교수 근영

阿里嶺 고개로 추정되는 根河市 阿龍山 소재 阿龍嶺. 순록바위그림이 있다.

가셴둥 앞에 흐르는 물 이름이 阿里河이고 阿榮旗도 있고 根河市의 阿龍山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원지쯤에 阿里(Ali)嶺 또는 阿榮(Arong)嶺이나 '맑은' 물[24]이라는 뜻을 갖는 根河가 흘러나오며 순록의 주식 蘚(Niokq)의 떼가 있고 순록바위그림이 尙存하는 阿龍(Along)嶺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태평양의 海風을 막아 건조한 몽골스텝을 만드는 대흥안령의

24) 몽골고원에는 淡水湖와 鹽水湖가 반반쯤 분포돼 있다.. 염분이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성분이기는 하지만, 염수호의 물은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맑은 물'이란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嶺東과 嶺西를 가르는 고개 일 수 있다. 바로 이 阿里嶺이, 저습지대 순록치기가 철기 수용 이후에 이 고개를 넘어 고원건조지대 몽골스텝의 기마 양치기로 발전하면서 수시로 넘은 그 역사적인 고개 아리령=아리랑 고개가 아닐까? 이런 거창한 북방몽골로이드의 유목발전사적 배경을 안고 태어난 것이 아리랑 민요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니까 동쪽 수렵지대~순록유목지대에서 시작한 민족들이 단군조선을 열었고 기원전 7세기 이후 철기를 수용하면서 대흥안령을 넘어 몽골스텝에 진출하게 됐는데, 바로 그들이 몽골 칭기스칸의 선조라고 하겠다. 아리랑 고개란 그의 선조들이 철기를 수용해 "순록치기"에서 기마 "양치기"로 발전하면서 넘은 그런 고개가 아닐까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민족사상 결정적인 분화-결별의 역사배경을 갖는 가락과 가사가 아니고서야, 아리랑이 이대토록 장구한 세월동안 그 넓고 넓은 땅 구석구석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시공을 넘어서서 그렇게 사무치는 정서로 뿌리내려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원주민들에게는 몽・한 분족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구비전설과 일정한 이별 의례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 박창범 교수의 고구려의 일시기록 분석결과가 그 관측지역이 압록강유역이 아주 아니고 바이칼호 동남쪽 몽골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 지역권에 드는 땅일 수 있어서이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근하시(根河市) 아룽산(阿龍山)의 아리령(阿里嶺) 고개[25], 거기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짚어보기도 한다. 아리하(阿里河) 곁의 가셴둥(嘎仙洞)이 있는 근방에서 서쪽으로 오르면 이내 넘는 고개이기도 하다. 실은 필자가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만 보면, 아리랑 후렴을 제대로 불러낼 수 있는 권역이 바이칼호수 부리야드족 거주지역 일대와 몽골의 기원지 동몽골대스텝 및 만주와 동서~남북 백두대간 지역 정도로 파악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역사적 배경에 관한 천착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26].

4. 동북아시아 유목제국사 상에서의 고올리칸 석상의 위상

인류사가 보다 더 질이 높은 세계제국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14세기 팍스 몽골리카체제의 성립이 그 한 정점을 이루는 과도적 단계로 볼 수 있으리라 본다. 그 주도 견인력은, 유목이라는 생업상 조직된 광역소수로 뛰어난 기동성과 타격력을 견지해야했던

25) '아리랑'의 어원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역시 그 역사배경의 구체적이고 엄밀한 천착을 전제하는 梁柱東과 李丙燾의 「고지명 유래설」이 가장 폭이 넓고 무게가 있는 신중한 견해라고 하겠다.

26) 1993년 8월, 홉수굴 호수 언저리 무속현지 조사 중에, 무속연구자 오 푸렙 교수의 도움말이 있었다. 그는 탐사대원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필자 하나뿐이어서, 낯설고 후미진 광막한 지역에서 외롭고 두려운 나머지 늘 아리랑 가락과 같은 타령조의 민요를 흥얼대는 나를 보고, 당신의 그 가락이 꼭 저 설산 위의 차아탕(Chaatang: 순록치기)과 같다며 이런 조언을 해 주었다.

유목집단에서 기원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북아제국은 주로 유목무력 주도의 다수 농경세력 통합이라는「유목제국형」을 지향해 발전해온 것으로, 그 주류를 파악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 까지는 주로 순록사냥을 위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그 후로 중・신석기 이래로 식량생산단계에 들면서는 순록유목에 주로 의지해 생존해 왔다. 그 후, 철기시대에 들면서 이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개활지대인 스텝으로 진출해 기마 양유목생산단계에 들면서 이들이 주도하여 본격적으로 고대 유목제국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접점에 고올리칸 석상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순록치기들의 본고장은 북극해쪽 수림툰드라와 툰드라, 특히 예니세이강~레나강 권역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추정되는데, 그 범위는 남으로 대・소・외흥안령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유목제국의 성립은 물이 북극해로 흘러드는 셀렝게강~바이칼호권역 이서와 이북 쪽에서는 호랑이와 거북이가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추워서 유목제국이 성립될 수 없었고,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몽골의 기원지인 동부몽골 이동과 이남에서 유목제국이 주로 성립됐다.

최후의 빙하기 이후부터 대흥안령 남부의 동토가 기후변화에 따라 그 동토지대가 점차로 북상하면서 순록유목민들은 지금의 훌룬부이르 몽골스텝과 눈강평원 일대에서 스키타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해서, 몽골스텝으로 진출해 기마 양유목민이 되기도 하고 동남류해 목농민으로 발전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그 분기선상에서 조선-부여-맥고려~고구려의 발전 분화가 이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역사발전과정을 상징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고올리칸 석인상이라고 본다. 7~8천년전 석상이 대흥안령 남부인 홍산문화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27]으로 보아, 대흥안령 북부인 훌룬부이르 몽골스텝 부이르 호반에서 기원전 수십년경의 고올리칸 석상이 薦新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은, 인류사상 희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 한 일이라 생각된다. 바람이 드세고 목재가 드믄 한랭 고원 건조대인 스텝지대여서다.

물론 격전이 늘 가능한 개활지이고 천혜의 목초지라서 역사상 각세력들의 출몰과 적대적 대결과정에서 석상들이 모조리 파괴되는 것이 상례이었기는 하지만, 고올리칸 석상은 이들을 모두 품어 안는 조상중의 조상 칸의 석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은, 고올리칸이란 호칭은 이곳을 자궁으로 동북아 유목제국이 태어나 세계제국으로 발전하는 어느 시점부터, 한문권의 왕이나 황제처럼 모든 유목제국의 우두머리를 총칭하는 호칭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목제국의 후예들이 그네들의 조상왕 무덤이나 조상왕을 쿠르간(Kurgan)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28]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

27) 禹實夏「몽골 지역 석인상의 기원과 遼河文明」『애벌 周采赫교수 정년퇴임기념특집호 몽골학』29호 한국몽골학회 2010. 8. 26. 145~183쪽.

28) 예컨대 심지어는 무굴제국의 칸도 쿠르간(Kurgan)이라고 불렀다. 單于나 칸(khan), 그리고 투멘(T'umen)도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대로 Xop, Qop-Khor는 활이다. 몽골종족을 표시할 때 붙는 Qalqa도 활이라는 뜻이어서, 고려(Qori)-고구려가 활인 이상은 몽·한의 弓族 分族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지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몽·한이 分族됐다는 할힝골지역 원주민들의 증언은, 박창범의 고구려 일식기록 분석 결과 그 관측지가 압록강 일대가 아닌 바이칼호 동남 언저리임을 밝힌 사실과 서로 맞아 떨어지기도 한다.

고리국 터로 추정되는 이 일대에서 가장 추워서 순록의 天敵인 모기가 살기 어려운 순록유목 適地 껀허(根河)에서 남하해 琵琶形靑銅短劍 출토 서북한계지이자 奄利大水로 批正해볼 수 있는 '큰물'이라는 뜻을 갖는 「이민」의 이민河를 건너 할힌골(忽本江=渾江: 弓江) 천연요새에 入城한 후에 '활의 나라(弓帝國)'-고올리칸국-貊高麗~고구려제국을 창업하는 과정을 담은 東明聖王 전설의 역사적 실체가, 결국「할하오복」-'코리족(弓族)'의 "騎순록 순록유목→기마 양유목" 발전과정을 적은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전설이 바로 騎순록 순록유목제국 古朝鮮→ 순록치기에서 양치기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夫餘→ 기마 양유목제국 貊高麗~高句麗 창업이라는 '할하'-弓帝國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多勿都로 비정되는 에르구네市, 단군신화의 그 동굴로 추정해볼 수 있는 가셴둥(嘎仙洞), 아리랑 고개로 추정되는 阿里河 상류의 阿龍嶺, 고올리인들이 논벼농사를 지었다는 거대한 고올리 농장터와 高麗果, 할힝골-할하-高麗河와 할하족 족명의 "활"과의 관련성 등이 모두 이를 방증하는 근거사료들로 동원될 수 있으리라 본다.

순록유목이든 양유목이든 유목생산에 기반을 둔 세력이 주도해 농경세력을 통합하는 형식이라면, 유목제국의 건설기본토대는 거대 목초지와 거대 목농지역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태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그 최적지대가 훌룬부이르 몽골스텝과 눈강평원 곧 呼嫩 평원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거대한 순록목초지와 양목초지가 동·서로 어우러져 있어서 순록유목이 철기 수용과 함께 기마 양유목지로 발전해갈 수 있는 천혜의 생태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모든 동북아시

이런 사례에 속하는 통칭이 아니었을까 한다.

아의 순록-양유목제국의 子宮이라고 동북아시아~세계 유목사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朝鮮과 貊高麗-몽골이라는 유목태반 기원 제국이 이곳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이 거의 필연일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최후의 빙하기 이후 기후변화과정에서 동토지대가 북상하면서 홍안령남부 홍산문화권과 阿城, 그리고 비유목지대라 할 동서~남북백두대간권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오랜 순록유목발전사는 또 다른 시각에서의 천착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청동기~초기철기시대를 지향해 발전하면서 역시 呼嫩평원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고올리칸 석상의 동북아시아 유목사상의 위상은 자못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薦新을 거듭하며 수천 년을 전승돼왔고 동북아시아 유목제국의 확대-발전에 따라 「고올리칸」은 그대로 '쿠르간(Kurgan)'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여러 유목민 조상무덤이나 태조를 일컫는 통칭으로 됐던 것이 아닐까 한다,

Dravidian and Altaic –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ed parallels

Jaroslav Vacek,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0. Introduction

Dravidian and Altaic is an old theory, it was mentioned already by R. Caldwell in his comparative grammar of Dravidian languages (1856), where he listed a few possible lexical parallels with the Altaic and Uralian languages, which he called Scythian, cf. e.g.:

Ta. *akkā, akkacci, akkaicci* etc. elder sister (DEDR 23)
Mo. *ax-a* elder brother (Caldwell 1913, pp. 611–12)
However, this Dravidian etymon is most probably related to:
Mo. *egeci* elder sister; older (referring to the age of women)[1]
MT. *EKĪN* sister, aunt, eldest sister etc. (MTD II,443)
OT. *EKÄ* elder sister, aunt (OTD s.v.)[2]

Ta. *kāl* leg, foot, base of a tree (DEDR 1479)
Mo. *köl* a. foot, leg; b. something resembling or functioning as a leg or foot (of a natural or man-made object; foot, leg, base, stand, lower part of an object, etc. (Caldwell 1913, p. 617).

Ta. *karu* black (DEDR 1278a)
Mo. *xar-a* 1. a. black, dark, obscure
OT. *kara:* black (Cl. 643) (cf. Caldwell 1913, p. 616)[3]

Though Caldwell's parallels may have to be amended, subsequently this topic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a few scholars, while it included not only Altaic in the narrow

---

[1] This latter parallel was proposed in my first presentation (Vacek 1977) and repeated later also with the MT. and OT. parallels. The following lexemes were also mentioned in my papers several times.
[2] As for the basic meaning of this word, cf. also Clauson (p. 100): *eke:* originally 'a close female relative older than oneself and younger than one's father', that is both 'junior /paternal/ aunt' and 'elder sister', later only 'elder sister'. However, Clauson's statement may have to be amended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attested traditions.
[3] Caldwell's transliteration was updated in all the above quoted lexemes.

sense (Turkic, Mongolian, Manchu-Tungus), but also the Uralian languages which for some time were considered to be part of a broader family called Uralo-Altaic.[4] Scholars from various specialisations mostly dealt with the possible lexical parallels, among them e.g. Andronov (first 1961, for a summary and further references cf. Andronov 2010), Bouda (1943), Burrow (1943), Menges (1964, 1977), Tyler (1968). Ramstedt and some other scholars (e.g. R.A. Miller 1971, 1980) considered Korean and Japanese to belong to the Altaic family. Besides that there are also studies on a possible relationship of Dravidian and Korean (Hulbert 1904, Clippinger 1984) and Dravidian and Japanese (especially Ohno 1980).

My work on the subject was inspired by the fact that I learned Mongolian in Mongolia in 1975, after having taught Tamil and Sanskrit for some years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Learning Mongolian with the background of Tamil was an extremely interesting experience, because besides a general typological similarity (which made my study easier), I was stumbling over parallel lexemes referring to everyday life from the very beginning. My subsequent research into the Dravidian and Altaic linguistic relationship in the last 36 years[5] produced over five hundred etymological parallel nests which were partly published. Besid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grammatical elements appearing in the first morphological layer after the verb root (Vacek 1977, 1978, 2004, 2006).

1. Dravidian and Altaic parallels

The lexical parallels seem to be a first signal of a possible relation between languages. If they are sufficiently frequent and also to a certain extent systematic,

---

[4] Altaic genetic relationship (which concerns also Uralo-Altaic) is viewed with scepticism and refusal by a number of linguists. We will not go into this question here, for a critical summary of the opinions cf. e.g. Choi 2004. That the similarities (lexical etc.) may reflect some other type of language relationship (e.g. early contact, borrowing etc.) is a possibility advocated in the work of many scholars. I feel that this possibility has to be considered very seriously, particularly if e.g. the lexical correspondences are not sufficiently systematic and if there are too many lacunae. Further cf. below.

[5] First presentation of the topic was made in 1976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ongolian Studies in Ulaanbaatar (Vacek 1977). The English version appeared a year later (Vacek 1978).

they deserve further investigation, however, without anticipating the final interpretation (!). So far I have established a relatively great number of lexical parallels in the sphere of basic vocabulary, nouns relating to the immediate surroundings including the human body, kinship terms and also nature (some basic terms for animals and also plants (e.g. *maram/modu(n)* tree etc., cf. Note 8 below). I should not repeat the data already published. Therefore I would like to list a few examples for illustration from different semantic and morphological spheres, which have not been mentioned before. For more parallels see the enclosed bibliography for the last ten years, and especially Vacek 2004 (or 2006), which gives a thorough survey of the basic problems, besides the individual topical papers.

Some of the etymological parallels are rather complex and reflect both formal and semantic variation,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se parallels. Some are semantically more concrete (Ex. 1–9), some are rather abstract (Ex. 10–12). Not all of the examples could be found in all the Altaic language branches, though obviously this is a matter of further research. Some of the correspondences are phonetically special (though to a certain extent regular) and they will be commented upon below. However, I do not intend to discuss all the phonetic intricacies here, for which the reader may consult the articles listed below.

Ex. 1.

Ma. *pu̱ḻa* river; Ka. *po̱ḻe* river; Koḍ. *poḷe* id. (DEDR 4318a)
Pe. *pūr* flood (of river) (Burrow, Bhattacharya 1970, p. 218)

***

Mo. *mören, mörün* large river or lake[6]

---

[6] The variation of initial stops and nasals is attested in more parallel etyma, cf. e.g.
Ta. *mey* body (used euphemistically), breast DEDR 5073b); Mo. *bej-e(n)* body, physique, organism;
Ta. *mokkaṉ* stout person or thing; *mokkai* bulkiness, stoutness (DEDR 5108); Mo. *bangxui-*to become very stout or fat; *bongxui-* to be rounded and bulging;
Ta. *meḻuku* to cleanse floor with cowdung solution, smear as the body with sandal paste, gloss over, varnish; Mo. *bila-, bilaγa-* to coat with, smear, spread; *milaγa-* to anoint, smear with oil; to perform the ritual of anointing new-born children, new dwellings, and other newly perfected objects by smearing them with butter, milk, etc. for securing good fortune (note the ritualistic overtone in both the Dravidian and Mongolian words).

***

MT. *BIRA* river (nine languages) (MTD I,84)

Ex. 2.[7]

Ta. *poḻi* to pour forth, shower (as rain), discharge in abundance, give liberally; flow, overflow, abound (as wealth)

poḻivu flowing, raining, abundance; *poḻil* greatness, largeness

Ma. *poḻi* pouring, shower, outlet of a river into the sea

poḻiyuka to pour down, flow off, drop (as leaves, fruits), shower

poḻikka to shower down, let drop

por̤iccal pouring, oozing

poḻippu overflowing, giving overdue measure

Ko. *poṛv-* to increase in numbers

Tu. *boriyuni* to yield milk

boripini, *boḷi* to milk

Pa. *poṛp-* to flow (DEDR 4556)

***

Mo. *bulara-* to issue from the ground (as water)

bulaɣ 1. spring, source, fountain head

***

MT. *PURĒ-* to drizzle (MTD II,44)

BURA- II. to pour (in or out) (MTD I,111)

BURUK whirlpool (MTD I,114)

BILKI- I. to make wet (MTD I,82)

BISA- to flood (MTD I,85)

VERE- to rinse, soak (MTD I,132)

***

OT. *bulak* a spring (of water) (Cl. 336)

Kazak *bula-* to flow, to gush out

---

[7] The etymological nests of Examples 1 and 2 seem to be related and to represent a more complex etymological nest including both nouns and verbs (I use the designation “models” for such complex etyma), and also some formal and semantic variation. Particularly significant is the phonetic variation of sibilants and liquids in Altaic (cf. Note 15 below), which is very often reflected by cerebral liquids in Dravidian.

bulak spring, source (Räs. 87b)

Ex. 3.

Ta. *taricu* land lying waste or fallow; pebbles, pieces of metal put into anklet for tinkling
taravai waste or uncultivated land
Ma. *tari* grit, granule, sand, coarse bits, unbroken lumps; rough uncultivated
tariśu lying waste or fallow
Ka. *taraku, tarakalu, torasalu* roughness of surface, unsmoothness, unevenness, grittiness, grit
tarasu rough, uncultivated, fallow land (DEDR 3097)

***

Mo. *darsai-* to become rough, uneven, or hard
darsaγar hardened, rough, warped, shrivelled

Ex. 4.

Ta. *eruku-* to have loose motions (said of cattle)
eru manure, excrement
Te. *ērugu* to go to stool; n. faeces; *eruvu* manure
Ga. (P.) *erg-* to defecate
Malt. *erge, ergtre* to go to stool (plus 6 languages; DEDR 813)

Mo. *ötüg*[8] manure, dung, humus; fine manure dust which covers places where cattle were kept
ötügsi-, ötügzi- to become fertilized

***

OT. *ÖTÜG* II. diarrhoea
ötgek, ötüg 1 diarrhoea (Cl. 51)

Ex. 5.

Go. *putga* (Mu.) feather
putgā (Ph.) id., wing
Pe. *putehiŋ, puteliŋ, butuhiŋ* (pl.) eyebrows (DEDR 4278)

Ma. *pūṭa* down of birds, wool, fine hair

---

[8] As for the parallel of Mongolian medial dental stop (voiced or voiceless) and a Dravidian liquid, cf. further Ta. *maram* tree, wood, timber (DEDR 4711a); Mo. *modu(n)* tree, woods, forest;
Ta. *kal* stone, pebble, boulder, Te. *kallu* stone, etc. (12 more languages; DEDR 1298); Mo. *xada(n)* rock, cliff, crag.

Tu. *puḷḷe*   plume, feather

Nk. *būr*   down, fine feather

Pa. *būḍul* (pl.) hair, fine feathers, down

Pe. *būra*   small feathers, down, wool, pubic hair   (plus 8 languages; DEDR 4358)

***

Mo. *ödün*   feather[9]

bozuγu   small bird feathers; tufts on the heads of birds

MT. *BUŽI*   feather, fine feather   (MTD I,102)[10]

Ex. 6.

Ta. *pukar*   tawny colour, brown; brightness, light, colour

pōr   tawny colour

Ma. *pukar*   dun colour

Ka. *pogar*   shine, brightness, lustre, colour (DEDR 4232)

***

Mo. *buγurai-*   to appear or turn grey

Ex. 7.

Ma. *okkuka*   to indent

Tu. *okku*   to scratch, make furrows[11]

Ka. *okkï*   to scratch (as fowls); *okku*   to dig

Tu. *okkuni*   to scratch

Kor. *ogi*   to cut

Go. *uhcānā*   to scratch (DEDR 926)[12]

***

Mo. *ögele-* to chisel, plane; to scrape off, trim; to make a groove, or furrow; to mortise

---

[9] There is an established loss of the initial voiceless labial in Mongolian (cf. Poppe, 1960, p. 10ff.; further cf. Note 16 below).

[10] The MTD (ibid.) also refers to Korean *pudyl-, pudyr-ha-da* very soft; *pudyn-kit* down, floccus (of small birds). Further cf. also Clippinger (1984, p. 22; No. 98), which may be one of the lexemes shared both by the 'centre' and the 'margins' (cf. below section 2.).

[11] The Malayalam and Tulu lexemes appear also in another etymon, DEDR 3780 with initial *n-*, which also seems to have a Mongolian parallel (see the following Example). Both etyma seem to be somehow related (a result of dialectal development and mutual intermixture?).

[12] The DEDR further refers to Ta. *ukir* finger-nail, toe-nail, claw; etc. (DEDR 561).

oγtul- to cut, cut off, cut across, chop off; to fell; to operate surgically

oγcura- to break, tear, split; to separate; [to become untied or disengaged; to get free]

oγuli adze

***

MT. *OΓO-* III to cut fell (cut down) a tree (MTD II,6)

UKLĀ- to tear, peel (the bark of a birch) (MTD II,253)

Ex. 8.

Ta. *nakaḷ* to be crushed

Ma. *ñeṅṅuka, ñaṅṅuka* to become soft or mellow, malleable as gold, yield, sink

ñekkuka to press, strangle, squeeze, crush

Ko. *nag-* to become dented, slightly hollowed

nagc- to dent

nak fine flour

Ka. *naggu* to become bruised (as a metal vessel); n. a bruise in metal vessels

naggisu to cause to get bruised

Koḍ. *nekk-* to press

Te. *naggu* to be powdered

Pa. *neŋg-* to grind; *neŋga* that which has been ground

Ga. (Oll.) *neŋ-* to grind; (S.) *neng-* to rub, grind

Konḍa *nek-* to push, push out, kick off (DEDR 2927b, s.v. Ta. *ñeri* to break 2927a)

Te. *nokku* to press, squeeze, pinch, indent; n. dent, impression, pressure, squeeze

nogulu to be pressed, squeezed, suffer under physical pressure (K.)

nogul(u)cu to crush (K.) (DEDR 3780)

***

Mo. *noγula-* to tear to pieces, tatter

noγura- to become tattered, threadbare, worn out, frayed

Ex. 9.

Ta. *curi* to bore, perforate as in an *ola* leaf or book; n. hole, aperture, perforation through the leaves of an *ola* book, instrument for boring *ola* leaf or book

curai hollowness, hollow interior, tubularity, cavity; a kind of sharp crowbar

cūr to bore, pierce, scoop out

cūrvu piercing, boring

Ma. *curi* round hole pierced through *olas* to thread them, the instrument which makes the hole

Ka. *suri* (Bark.) to string, as flowers

Tu. *suri* (B-K.) to string, bore (DEDR 2685)

Further cf.

Ta. *curuṅkai* n. 1. subterranean passage, underground channel, covered gutter, sewer; 2. secret passage in a fortress; 3. creep-hole, low entrance to creep through; 4. window-like opening in walls of big buildings (Tamil Lexicon s.v.)[13]

***

Mo. *corgi-* to make a hole with a red-hot pin or awl, pierce with a hot iron
corgiγul awl for burning holes; subterranean passage hollowed out by water

Ex. 10.

Ta. *purai* to be defective, slip into wrong note in singing; n. defect, blemish, falsehood
puraical defect, weakness, discord, flaw
puraittal defective note in singing
puraippu fault, flaw, defect, doubt;
purivu error
puraiy-ēṟu to be suffocated by food passing into the windpipe

Ka. *pore, porake* error, mistake, fault; the wrong way in drinking or swallowing
porey-ēṟu choking sensation to arise from a mouthful going the wrong way

Te. *pora* error, misunderstanding, duplicity, fraud
pora-paḍu, pora-baḍu, porapōvu anything to go the wrong way in swallowing (DEDR 4293)[14]

***

Mo. *buruγu* error, misconception, mistake, guilt; erroneous, false; unjust; wicked; contrary; left-hand side (of a person); right-hand side (of a riding animal)

Ex. 11.

Ta. *ācu* minuteness, fineness, acuteness, trifle, anything small or mean

---

[13] This word was not included into the DEDR. The *Tamil Lexicon* suggests that it is a borrowing from Sanskrit *suruṅgā* (a hole made underground for military purposes or house-breaking, mine, excavation, breach, subterranean passage). The Sanskrit word in its turn is explained as a borrowing from Greek *σύριγξ* (Syrinx) pipe, flute; (and also:) subterranean passage, hole, mine (cf. also Monier Williams s.v. and Mayrhofer KEWA s.v.). Mayrhofer (ibid.) further refers to Kuiper's suggestion that the word is of Munda origin (e.g. cf. Santālī *suruṅ* to hollow a blast hole). This formal and semantic closeness on all three sides is rather unusual and deserves further scrutiny.

[14] Further cf. Ta. *vaḻu, vaḻuvu* error, mistake, failure (seven languages; DEDR 5298); and Ta. *piḻai* to do wrong, fail, be missing, lost; n. fault, crime, defect, mistake (eight languages; DEDR 4187).

acai to be slender, flexible, diminish

accam thinness

Ma. *aśu* thin, slender

Ka. *asi, asa* thinness, leanness, slenderness, minuteness, weakness

asidane thinly, minutely, nicely

asiyar they who are weak; *asiyaḷ* slender woman

Te. *asadu* small, slender; *asi* slight

Kur. *ācā* thin, attenuated, reduced in strength, slender, slim

ācnā to turn out thin, grow thinner. (DEDR 341)

***

Mo. *öcüken, öcügüken, ücüken* little, small, insignificant, humble; few

?*arai* just a little too…; not quite ….; hardly, scarcely, barely

arsar of little importance, mediocre, ordinary, common[15]

***

MT. *OCOḴON* small, little; small moon (MTD II,27)

ASIḴAN small (MTD I,56)

OTĬḴA(N) a little, a little bit, not much (three languages; MTD II,28)

OT. *ES-* II. to become small (OTD s.v.)

AZ I. a little, not much; rarely (OTD s.v.)

AZU- to become small (OTD s.v.)

UČUZ, UŠAQ 1. small, insignificant; 2. cheap; 3. easily (OTD s.v.)

Ex. 12.

Ka. *pēsu, hēsu* to feel aversion, have a dislike; n. aversion, disgust[16]

pēsike, hēsike, ēsike, hēsige aversion, disgust, nastiness, object that causes disgust

Koḍ. *he·sige* disgust at touching dirty things

---

[15] The Mongolian parallel with medial liquid *-r-* would correspond to the Turkic variant with medial voiced sibilant *-z-* (Poppe 1960, pp. 80ff.). However the Mongolian variant with medial affricate is semantically closer. This variation may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mutual borrowing between different dialects.

[16] The Kannada examples display loss of initial voiceless labial *p-*. It is a parallel feature with the loss of initial voiceless labial in the Mongolian example below (cf. Poppe, 1960, p. 10ff.; cf. Note 9 above). There are some more parallels displaying this feature:

Mo. *olan,* Ta. *pala* (DEDR 3987) many

Mo. *ongγu-* to burn (inside), feel heat; Ta. *poṅku* (DEDR 4469a) boil up

Tu. *pēśiyuni, pēcuni* to loathe, be disgusted
pēśigè, pēsigè disgust, loathing, dirt, filth (DEDR 4431)

***

Go. *pāsk-* to dislike
pāskānā id., hate
Kui *pāska* to disparage, despise; n. disparagement (DEDR 4060)

***

Mo. *ös* hatred, revenge
ösi- to hate, beat extreme ill-will, feel vengeful; to spite
ösle- to hate; to take revenge
ösijele- to hate, be hostile; to avenge

***

MT. *USTUN-* to be hostile, unfriendly (three languages; MTD II,291–2)

***

OT. *ÖČ* revenge, anger (OTD s.v.)
ÜZ I. hate (OTD s.v.)

2. Methodological and historical questions

The number of the established parallels is a rather important indication that the languages concerned are related, because such a number of parallels and their systematic relationship appear not to be just coincidental.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question of what ty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languages may be. In the course of recent years I have formulated some suggestions specifying the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Dravidian and Altaic linguistic relationship in terms of modern sociolinguistics and contact linguistics (for more details cf. e.g. Thomason, Kaufman 1988), which was summed up especially in Vacek 2009a, 2009f and 2010b.

Essentially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we have to do with a ***language family*** or with ***some other type of relationship***. In the course of time I have realised that in spite of a relatively great number of parallels (particularly verbs and nouns belonging to the *basic vocabulary*) and also some *morphological parallels*, there is great formal and

semantic variation (I used the term *fuzziness;* e.g. Vacek 2009f). And besides that there are also significant *lacunae* in the parallels (personal pronouns and numerals are missing). All these 'symptoms' are not in favour of an interpretation of this relationship as a language family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form and variation of the parallels, irregular phonetic correspondences etc. point in the direction of an ***early language contact*** of the ancestors of these languages and ***mutual borrowing*** rather than a language family of the 19th century Young-Grammarian type (most typically represented by the Indo-European language family). However, the formal phonetic closeness and semantic identity of most of the parallels support the possibility that this contact did not take place in a very distant past and that at the same time the contact must have been rather intensive (Vacek 2010b). I have suggested (Vacek 2009f) the possibility that there are ***two layers in Dravidian*** – the indigenous layer preserving the original Indian linguistic background on the one hand (somehow related with South-East Asia)[17] and another layer reflecting the result of borrowing in the process of an intensive or ***high contact*** (Vacek 2009c, 2009f, 2010b) at some time in the past. This is also supported by a great number of *synonyms* in the basic vocabulary (both nouns and verbs) in Dravidian (Vacek 2009f).

In the light of my own experience with Dravidian and Altaic I feel that the established parallels of Dravidian and the other languages – Uralian, and possibly also Korean and Japanese – may have to be seen in the same light. And this may also be the correct approach to the much discussed ques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Altaic family as a whole (Vacek 2009a). Only we should be able to see the facts without any bias and ask the relevant questions, which should first of all concern the ***external history***. How could this parallelism have arisen – and when and where – these are the questions to be asked about the external history which at the present state of our knowledge we may not be able to answer with certainty.

We can propose some hypothetical explanations, which then have to be test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available archaeological data and possibly also

---

[17] Note that e.g. the possibility that Dravidian has lexical parallels in Australian languages and that the Dravidian numerals seem to be related to the languages of South-East Asia (Blažek 2007). Blažek (2006) speaks about an Australian substratum in Dravidian languages.

genetics. There may also be relevant information in some of the old Indian Sanskrit literary tradition (the Epics *Mahābhārata* and *Rāmāyaṇa,* the *Purāṇas*, possibly also the *Brāhmaṇa* texts and other Vedic texts), which so far has mostly been interpreted in terms of mythology. However, it may have preserved hints at ancient migrations and contacts of people and cultures which are not understoo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are there 'before our eye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external history may be found in the sphere of archaeology – the so-called megaliths, which are documented on the vast territory extending between Central Asia and India from approximately from 12th cent. B.C. up to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in India. These megalithic burials are a testimony of migrating people and though their language is not known for sure, the megalithic people obviously migrated to India from Central Asia in the first millennium B.C., starting in Central Asia about 1200 B.C. Some scholars are of the opinion that these megaliths were brought to India by the Indo-Aryans (e.g. Asko Parpola 1973), but it may have also been any other nomadic groups which originated from Central Asia and which had a similar 'material' culture. This, however, is to be investigated thoroughly before it can be answered with any certainty.

The general background can be defined as follows. I have suggested earlier that there was something like a "centre" of the linguistic continuum in Central Asia. By spreading in various directions from the ***centre*** – there arose ***marginal*** languages and language groups/subgroups – in the South – Dravidian, possibly also Elamite (cf. McAlpin 1981, who proposed an Elamo-Dravidian relationship) – and also in the East. This would be a result of migrations which in case of the southern direction may have proceeded in parallel with the Indo-Aryan migration to India between 1700 and 1000 B.C., but most likely a few centuries later in agreement with the dating of the megaliths. In the new territories these nomadic people from Central Asia very probably encountered different ethnic groups originally inhabiting the areas. In the case of Dravidian this would explain why some of its linguistic features seem to have parallels in South-East Asia.

Theoretically the South, South-East and East of Asia may have shared some common features, both cultural and linguistic. The new arrivals from Central Asia brought with themselves some features from the ‘centre’, which they may also share up to now (cf. Clippinger 1984, Ohno 1980 for the Korean and Japanese linguistic parallels with Dravidian). Some of these common features must also have been preserved in the ‘centre’, which would explain the parallels of the ‘marginal’ languages with the languages of the ‘centre’ (Mongolian, Turkic, Manchu-Tungus). On the other hand there may also be features shared exclusively by Dravidian and Korean or Dravidian and Japanese, which could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original languages of these regions. For example, Ohno (2001, p. 13; No. 21) refers to

Jap. *ar-e* powder made of rice
Ta. *ari* rice, paddy, ear of paddy; *arici* rice without husk, any husked grain (cf. DEDR 215)

which does not seem to be preserved in the ‘centre’ and may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original’ linguistic milieu in Eastern Asia. Similarly Clippinger (1984, p. 44; No. 288) lists

Kor. *nalak* rice plant
Ta. *nel* rice, paddy (cf. DEDR 3753)

which does not seem to have any parallel in the ‘centre’ either.
But there also seem to be lexemes shared both by the ‘centre’ and the ‘margins’ (cf. Note 10 above and Clippinger 1984, p. 23; No. 98). No matter how interesting this appears to be, it is only a presumption, which would require a further systematic research. Still, it seems to be a significant possibility, which, however, is to be tested on larger corpus of data.

3. Conclusion

The region of Central Asia was a point of dispersal of various early nomadic people who travelled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were a number of nomadic groups, which were also in mutual contact. In the second millennium B.C., the Indo-European speakers started spreading mainly to the West and South and covered the whole of Europe and also most part of northern India and Iran. In the closely adjacent area the

early “pre-Altaic” people (no matter whether their languages were one family or only a group of languages in close contact mutually borrowing many linguistic features) also dispersed in various directions (mainly northwards to Siberia and eastwards to Mongolia and beyond, and also partly westwards). The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ed linguistic parallels with Dravidian are that they should also have travelled to the south, either parallel with or more probably some time later than the Indo-European speakers. They came into contact with the earlier population of India, which obviously resulted in two layers in Dravidian – one basic layer originally Indian and one layer of the newcomers’ language. This follows from the ‘quality’ of the established linguistic parallels.

Though the lexical parallels of Dravidian with Altaic are relatively numerous, the ultimate interpretation of their relationship still remains open for further discussion. From a purely linguistic point of view the relationship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modern sociolinguistics and contact linguistics (Thomason, Kaufman 1988).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questions of external history, which will have to be studied on an interdisciplinary basis. The results will also be of importance from the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And as it was already suggested above, it may also be inspiring for the study of the relation of Korean and Japanese to Altaic on the one hand, and to Dravidian on the other.

References[18]

Andronov, M.S., 1961, New evidence of possible linguistic ties between the Deccan and the Urals. *Prof. R.P. Sethu Pillai Silver Jubilee Commemoration Volume.* Madras, pp. 137–140.

Andronov, M.S., 2010, *Dravidian Historical Linguistics.* LINCOM Europa, LINCOM Language Research 02, Muenchen (1st printing 2001).

Blažek, V., 2006, Was there Australian substratum in Dravidian? In: *Mother Tongue* XI, pp. 275–294.

Blažek, V., 2007, Dravidian numerals. In: *Mother Tongue* XII, pp. 203–214.

---

[18] I use the abbreviations specified below in the list of references. As for the abbreviations of languages I use those abbreviations commonly used and listed e.g. in the DEDR (Burrow and Emeneau 1984, *Dravidian Etymological Dictionary*) and in the MTD (*SRAVNITEL’NYJ SLOVAR’ TUNGUSO-MAN’ČŽURSKIH JAZYKOV* [A Comparative Dictionary of the Manchu-Tungus Languages] and in Räsänen 1969 (*Versuch eines etymologischen Wörterbuchs der Türksprachen*).

Bouda, Karl, 1943, Dravidisch und Uralaltaisch. In: *Ural-Altaische Jahrbücher* 25, pp. 161–173.

Burrow, Th., 1943, The body in Dravidian and Uralian. *BSOAS* 11, pp. 328–56.

Burrow, T., Bhattacharya, S., 1970, *The Pengo Language.* Oxford.

Burrow, T., Emeneau, M. B., 1984(2), *A Dravidian Etymological Dictionary*. Oxford. [abbreviated as DEDR]

Caldwell, R., 1913(3),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Dravidian or South-Indian Family of Languages*.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Ltd. London (first published 1856).

Clauson, G.,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abbreviated as Cl.]

Choi, Keeho, 2004, A study of linguistic geneaology between the Mongoli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 No. 1, pp. 1–23.

Clippinger, M.E., 1984, Korean and Dravidian: Lexical Evidence for an Old Theory,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8, pp. 1–57.

DREVNETJURKSKIJ SLOVAR' [Old Turkic Dictionary]. Izdatel'stvo 'Nauka', Leningrad 1969. [abbreviated as OTD]

Hulbert, H.B., 1905,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Seoul.

Lessing, F.D., 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and Los Angeles.

Mayrhofer, M., 1956–1980, *Kurzgefasst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ischen*. *A Concise Etymological Sanskrit Dictionary*. Heidelberg. 4 volumes. [abbreviated as KEWA]

McAlpin, D.W., 1981, *Proto-Elamo-Dravidian: The Evidence and its Implication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71, Part 3.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Philadelphia.

Menges, K. H., 1964, Altajisch und Dravidisch. *Orbis* 13, pp. 66–103.

Menges, K. H., 1977, Dravidian and Altaic. *Anthropos* 72, pp. 129–179

Miller, R.A., 1971, *Japanese and the other Altaic Langua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Miller, R.A., 1980, *Origins of the Japanese Languag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Ohno, Susumu, 1980, *Sound Correspondences between Tamil and Japanese*. Gakushuin Series of Treatises 8, Gakushuin. Reprinted 2001, International Institute of Tamil Studies, Chennai.

Parpola, A., 1973, *Arguments for an Aryan Origin of the South Indian Megaliths*. State Department of Archaeology, Government of Tamilnadu.

Poppe, N., 1960,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Teil 1, Vergleichende Lautlehre*. Otto Harrassowitz, Wiesbaden

Räsänen, M., 1969, *Versuch eines etymologischen Wörterbuchs der Türksprachen*. Helsinki. [abbreviated as Räs.]

Ramstedt, G.J., 1949–1953,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No. 95, 2 vols., Helsinki.

SRAVNITEL'NYJ SLOVAR' TUNGUSO-MAN'ČŽURSKIH JAZYKOV [A Comparative Dictionary of the Manchu-Tungus Languages]. Izdatel'stvo 'Nauka', Leningrad 1975–1977. [abbreviated as MTD]

Thomason, S. G., Kaufman, T., 1988, *Language contact, creolization and genetic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Tyler, S. A., 1968, Dravidian and Uralian: The Lexical Evidence. *Language* 44, pp. 798–812.

Vacek, J., 1977, Helnij garlyn holboony tuhaj (mongol dravid helnij barimtan deer) (About the language relationship, on the material of Mongolian and Dravidian languages). In: *Olon ulsyn mongolč erdemtnij III ih hural*, II-r boť. Ulaanbaatar 1977, pp. 44–55.

Vacek, J., 1978, The Problem of the Genetic Relationship of the Mongolian and Dravidian Languages. *Archív Orientální* 46, 2, 1978, pp. 141–151.

Vacek, J., 2002a, *Dravidian and Altaic 'Water – Viscosity – Cold'*. An Etymological and Typological Model. Charles University, The Karolinum Press, Prague, 359 pp.

Vacek, J., 2002b, Emphasizing and interrogative enclitic particles in Dravidian and Altaic. In: *MONGOLICA PRAGENSIA '02, Ethn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in Synchrony and Diachrony*.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pp. 151–185.

Vacek, J., 2002c, Dravidian and Altaic "deer – antelope – bull". *Indologica Taurinensia* XXVIII, pp. 251–266.

Vacek, J., 2003,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Etyma with initial sibilants or affricates). In: *MONGOLICA PRAGENSIA '03, Ethn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in Synchrony and Diachrony*.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Triton, Praha, pp. 175–205.

Vacek, J., 2004a, Dravidian and Altaic "sheep – deer – cattle". In: *South-Indian Horizons (Felicitation Volume for François Gros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Edited by Jean-Luc Chevillard (Editor) and Eva Wilden (Associate Editor) with the collaboration of A. Murugaiyan.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aris 2003, pp. 333–345.

Vacek, J., 2004b, Dravidian and Altaic – In search of a new paradigm. *Archív Orientální*, Vol. 72, pp. 384–453. Reprinted as 2006a.

Vacek, J., 2004c,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2.1. Etyma with initial velars. In: *MONGOLICA PRAGENSIA '04, Ethn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in Synchrony and Diachrony*.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Triton, Praha, pp. 195–230.

Vacek, J., 2005a, Dravidian and Altaic 'to break, to beat, to crush, to rub' (Ta. *kavi* – Mo. *xabir-* / *xaγar-* – MT. *KAPU-* / *KAVЪL-* / *KAŊTARĀ-* – OT. *kam-* / *kak-*). *Archív Orientální*, Vol. 73, pp. 325–334.

Vacek, J., 2005b,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2.2. Etyma with initial velars and final liquids. In: *MONGOLICA PRAGENSIA '05, Ethn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in Synchrony and Diachrony*.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Triton, Praha 2005, pp. 171–197.

Vacek, J., 2005c, Dravidian and Altaic parts of the body 1. Breast. In: *Acta Mongolica*, Vol. 5 (246). Dedicated to the 100th Birthday of Professor Yo'nsiebu' Biyambyin Rinc'en (1905–1977). Ulaanbatar 2005, pp. 65–70.

Vacek, J., 2006a, Dravidian and Altaic – In search of a new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Dravidian Linguistics* (Trivandrum, India), Vol. XXXV, No.1, January 2006, pp. 29–96. (Reprint of Vacek 2004b)

Vacek, J., 2006b, Dravidian and Altaic ‘to bow, bend, stoop, incline, curve’. 1. (C)VC- roots with initial labials and medial velars or labials. *Archív Orientální*, Vol. 74, pp. 183–202.

Vacek, J., 2006c, Dravidian and Altaic parts of the body 2. Hair, feather. In: *Acta Mongolica*, Vol. 6 (267). Dedicated to the 90th birthday of professor Denis Sinor. Edited by Ts. Shagdarsuren. Ulaanbaatar 2006, pp. 79–82.

Vacek, J., 2006d,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3.1. Etyma with initial labials (*p-, b-, f-, v-, m-*). In: *MONGOLICA PRAGENSIA ‘06, Ethn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in Synchrony and Diachrony*.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Triton, Praha, pp. 163–190.

Vacek, J., 2007a, Dravidan and Altaic parts of the body 3. Heart, chest, inside, mind, thought. In: *Mongolian Studies*, Vol. 22,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Mongolian Studies), pp. 27–45.

Vacek, J., 2007b, Dravidian and Altaic ‘to bend / to bow – elbow / knee / ankle’. Initial dental stop or nasal, medial velar or labial. *Archív Orientální* 75, No. 3, pp. 395–410.

Vacek, J., 2007c,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3.2. Etyma with initial labials (*p-, b-, f-, v-, m-*) and root-final liquids and retroflex stops. In: *MONGOLICA PRAGENSIA ’07. Ethnolinguistics, Sociolinguistics and Culture*. Vol. 1, 2007.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pp. 87–113.

Vacek, J., 2007d, Dravidian and Altaic – a new macrofamily on the horizon? In: *MONGOLICA, An International Annual of Mongol Studies*, Vol. 20 (41), 2007, pp. 429–443. A special issue containing the paper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Mongolists convened under the patronage of N. Enkhbayar, President of Mongolia (8–12 August, 2006, Ulaanbaatar) Ulaanbaatar,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ongol Studies.

Vacek, J., 2008a,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4.1. Etyma with initial dentals (*t-, d-, n-*). In: *MONGOLO-TIBETICA PRAGENSIA ’08,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Religion and Culture*. Vol. 1/1.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2008, pp. 99–133.

Vacek, J., 2008b, Dravidian and Altaic parts of the body 4. Liver, spleen. In: *Acta Mongolica*, Vol. 8 (306). Dedicated to the 70th Birthday of Professor D. Tumurtogoo. Ulaanbaatar 2008, pp. 7–14.

Vacek, J., 2009a, Dravidian and Altaic – problems and solutions. In: *Oriental Studi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Oriental Studies. 55 years of the Committee of Oriental Studies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1952–2007), *Rocznik Orientalisticzny* 62, 2009, 1, pp. 224–235.

Vacek, J., 2009b, Dravidian and Altaic ‘to bend’ – Ta. *kavi- / kavi̲-*, Mo. *kebüi- / köbüre-*, MT. *KAMPǏ- / KEBILE-*. In: *MONGOL STUDIES* (Research Papers), Volume XXX (318). Editors-in-chief D. Zayabaatar, M. Uuganbayar. School of Mongolian Language and Cultur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Ulaanbaatar, 2009, pp. 157–168.

Vacek, J., 2009c, Dravidijskij i altajskij – jazyki drevnih intensivnyh kontaktov (Dravidian and Altaic – ancient high contact languages). In: *Problemy mongolovednyh i altaističeskih issledovanij. Materialy meždunarodnoj konferencii, posvjaščennoj 70-letiju professora V.I. Rassadina*. Elista 2009, pp. 50–58.

Vacek, J., 2009d, Vacek, Dravidian and Altaic ‘to wave / to tremble – arm / shoulder-(blade) / wing’. In: *Acta Mongolica*, Vol. 9 (320). Dedicated to the 80th Birthday of Professor Rachelwitz. Ulaanbaatar 2009, pp. 7–14.

Vacek, J., 2009e,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4.2. Etyma with initial dentals (*t-, d-, n-*) and root-final liquids and retroflex stops. In: *MONGOLO-TIBETICA*

PRAGENSIA '09,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Religion and Culture. Vol. 2/1, 2009.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pp. 123–143.

Vacek, J., 2009f, Dravidian and Altaic – two layers in Dravidian due to ancient high contact? In: *MONGOLO-TIBETICA PRAGENSIA '09,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Religion and Culture*. Vol. 2/2, 2009.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pp. 75–107.

Vacek, J., 2010a, Dravidian and Altaic parts of the body 5. 'Extremities' – head, finger, foot/leg. *Rocznik Orientalisticzny* 63,1, pp. 271–283.

Vacek, J., 2010b, Dravidian and Altaic – ancient high contact langu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Dravidian Linguistic* (International School of Dravidian Linguistics, University of Trivandrum), Vol. 39, No. 2, pp. 117–138.

Vacek, J., 2010c,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5.1. Etyma with initial vowels (*i-, e-, u-, o-, a-*) and root-final stops, affricates, nasals and glides. In: *MONGOLO-TIBETICA PRAGENSIA '10.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Religion and Culture.* Vol. 3/1, 2010.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pp. 123–158.

Vacek, J., 2011a, *Verba dicendi* and related etyma in Dravidian and Altaic 5.2. Etyma with initial vowels (*i-, e-, u-, o-, a-*) and root-final liquids. In: *MONGOLO-TIBETICA PRAGENSIA '10.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Religion and Culture.* Vol. 4/1. Edited by J. Vacek and A. Oberfalzerová. Charles University and Triton, Praha 2011, pp. 135–160.

Vacek, J., 2011b, Dravidian and Altaic – a new beginning. Paper read at the World Classical Tamil Conference in Coimbatore. June 2010, in print.

Vacek, J., 2011c, Tamil and Altaic languages.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Contributions of Tamils to the Composite Cultre of Asia*. Institute of Asian Studies, 2011, 16–18 January 2011, in print.

Vacek, J., Lubsangdorji, J., 1994, Dravidian-Mongolian-Chuvash kinship terms. *Archív Orientální* 62, pp. 401–414.

Zvelebil, K. V., 1990, *Dravidian Linguistics, An Introduction*. Pondicherry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Culture, Pondicherry.

Zvelebil, K. V., 1991, Long-range language comparison in new models of language development: The case of Dravidian. *PILC Journal of Dravidic Studies* 1,1, pp. 21–31.

Үг товчлох тухай товчхон

Ш. Баттөгс МУБИС-МоСС Монгол хэл шинжлэлийн

тэнхмийн эрхлэгч, дэд профессор

Өнөөгийн нийгмийн үсрэнгүй хөгжил, мэдээллийн эрин зуунд аливаа мэдээ мэдээллийг уншигч сонсогчдод аль болох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шуурхай хүргэх нь хэвлэл мэдээллийнхний гол зорилт болж байна. Мэдээ мэдээллийг нийтэд ойлгомжтой хүртээмжтэй, соёлтой, хөнгөн шуурхай дамжуулахад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лийн чанар,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 чухал үүрэгтэй боловч хэлний дохио тэмдгийн тогтолцоо, түүний бичилбэрийн систем, боловсруулалт зэрэг нь чухал үүрэгтэй билээ. Хүмүүс ярьж бичихдээ илүүц, нуршаантай, давтамж бүхий үгийг аль болохоор хэмнэн товчилж, олон янзын болзмол дүрс, тэмдгийг зохион ашиглах болсны нэг нь үг товчлох арга юм.

Үг товчлохуй нь анх бичгийн хэлэнд буй болж, хожим ярианы хэлэнд нэвтэрсэн хэлний хураах, хэмнэх ёстой холбоотой сонин үзэгдэл юм.

Товчлолыг зөвхөн хэлзүйн түвшинд явцуу утгаар нь авч үзвэл үгийг

1. Эхний үсгээр товчлох (инициальная аббревиация)
2. Үеэр товчлох (слоговая аббревиация)
3. Холимог байдлаар товчлох (смешанная аббревиация) гэсэн 3 хэлбэрт байдаг бол өргөн утгаар нь яриа ба бичгийн хэлэнд түүнчлэн хэлний бүхий л түвшинд, авиазүй, үгзүй, өгүүлбэрзүй, үгийн санд хэлний аливаа нэгжийг товчилдог байна.

Бид хэлэх бичихийн зуур илүүц зүйлгүй, товч тодорхой өгүүлэхдээ мөнхүү, өнөөх, тэр, нөгөөх гэх мэт онцлон ялгах, тодруулах, заах утга бүхий төлөөний үг мөн элдэв дохио зангаа, хэлзүйн утга илэрхийлэх хэлний аливаа тэмдгүүдийг ашигладаг нь утгаа товчлохуйн мөн чанараас урган гарсан хэрэг юм.

Мөн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түргэн таталган бичиг ч бичилбэрийн системд тулгуурлан үсэг тэмдэг товчлохоос үүдэлтэй юм. Хэлшинжлэлд оноосон нэр хийгээд байнга давтагддаг буюу давтагдах шинж чанар бүхий нэр томъёо, үг хэллэгийг хэлэх, бичихийн зуур нэгэн нэгж болгон хураахыг үг товчлол буюу (аббревиация) гэдэг (3:151) бөгөөд энэ нь латин хэлний abbreviatura буюу “товч” гэсэн үгнээс үүссэн ажээ.

Үг товчлол нь хэлний эмх замбараагүй үгсийн бөөгнөрөл бус харин өөрийн үүсэн буй болох арга, хэрэглэгдэх хэмжээтэй, тогтолцоот зүйл мөн гээд үгийг товчлох дараах зарчмууд байна гэж үзэж байна.

Үүнд:

- ❖ Товчилсон үг нь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өргөн хэрэглэгддэг давтамжтай байх
- ❖ Тухайн товчилсон үг нь бусад товчилсон үгтэй хэлбэрийн хувьд адилгүй байх. Өөрөөр хэлбэл товчилсон үгс нь хоорондоо омоним байж болохгүй. Тухайлбал: МоАХ, МоХСС, МоСС, МаСС гэх мэт
- ❖ Шинээр үүссэн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товчилсон үгийг тайлбартайгаар нийтлэх. Тухайлбал: МСГХХМН – мал сүргийг гэмт халдлагаас хамгаалах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лэг
- ❖ Товчилсон үгээр шинэ нэр томьёо зохиохдоо утга санааг нь алдагдуулахгүйгээр аль болох цөөн үгээр илэрхийлэх

Товчлолыг эрдэмтэн Э. Равдан “20-р зууны бүтээгдэхүүн” гэсэн нь санамсаргүй хэрэг бус бөгөөд товчлолын гарал үүслийн талаар сэтгүүлзүйч Ч. Чойсамба “...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икийн асар хурдацтай дэвшил нь мэдээ мэдээллийг урьд өмнө үзэгдээгүй хэмжээгээр нэмэгдүүлсэн нь тэдгээрийг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боловсруулж дамж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эрж хайхад хүргэжээ. Үүний үр дүнд олон тооны товчлол үүссэн бөгөөд товчлол нь бага зайд их мэдээлэл агуулдгаараа сайн талтай боловч олон нийтэд ойлгомжгүй буюу олон нийтээр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гдөөгүй товчлолыг тайлбаргүйгээр нийтлэх нь буруу юм. Тухайлбал: УЭХХСХГ, МСГХХН, МЭХХТХ гэх мэт” (9:91) гэжээ.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 зарим онцлогийг үзвэл:

- Сүүлийн үед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сан олон тооны шинэ үгээр баяжиж байгаагийн дотор харь үгээр баяжиж байгаагийн дотор харь үгээр баяжин олшрох нь түгээмэл байна. эдгээр харь үгийн доторх зарим товчилсон үг монгол хэлний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орж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лгээр үг хэллэгийг ярианы боло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аль алинд нь тухайн хэлний хэллэг бичлэгээр нь хуулбарлан (кальки) хэрэглэж байна. Жишээ нь:

  CD – Compact disk
  FM – хэт богино долгионы радио
  E mail – electron mail – цахилгаан шуудан
  A mail – air mail – агаарын шуудан
  O, K – all correct – хэвийн
  IQ – Intelligence quotient – Оюуны илтгэцүүр

“... Бидний эцсийн зорилго нь байгууллагынхаа “IQ” буюу оюуны илтгэцүүрийг дээшлүүлэхэд оршино”. (Билл Гейтс “Сэтгэлгээний хурдаар хийх бизнес” номноос)

- Зарим хэвлэл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элд олон үгсээс бүтсэн нэгэн лексемийн оронд тэдгээрийн утгыг бүрэн илтгэх цөөн үгтэй гадаад ү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гаа нь товчлолын нэг хэлбэр юм. Тухайлбал:

  Их хурлын дарга – Спикер

Хотын дарга – Мэр

Ерөнхий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 ЕНД буюу Генсек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 Шинээр бий болсон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 ихэнх нь албан газар, пүүс компаний оноосон нэр байх бөгөөд зарим байгууллага эрхлэн явуулж бу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ийхаа онцлогт тохируулсан товчилсон нэртэй болсон нь элбэг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МОНЕЛ – монгол электрон

  ЭЛБА – Электрон бараа

  ЖЕНКО – Женерал электроник интернейшнэл корпораци г.м

- Мөн сүүлийн үед монгол хэмээх үгийг Мон хэмээн товчилж өөр үгтэй хоршуулан үг бүтээх нь нэн түгээмэл болж байна. Үүнд:

  Мон-Кор, Мон-Гени, Мон, Мон-Макао, Мон-Лаа, Мон-Вит, Мон-Сав, Мон-судар, Мо-Ам-Ко, Гер-Мо, Мон-Крем гэх мэт.

- Хэл нийгмийн үзэгдэл, түүний тусгал болдог учраас нийгмийн хөгжлийн явцад аливаа зүйл шинэчлэгдэн өөрчлөгдөж шинэ үг үүсэхийн сацуу зарим зүйл нийгмий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дагуу хуучрахад түүнийг заан нэрлэж байсан үг бас хуучирч идэвхгүй үгийн санд шилждэг билээ. Ийм үгс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товчилсон үг ч бий. Үүнд:

  ХЭАА, АСТ, АДХ, ДХЯ, БНМАУ, МХЗЭ, СХЗ гэх мэт

- Монгол хэлний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хэвшээгүй, хэсэг бүлэг хүмүүсийн хэл ярианд тохиолддог нийт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цөөн хувийг эзэлдэг этгээд утгатай идэвхгүй хэрэгцээний Найрка – найруулсан архи, НуА – нууц амраг, ШАГ – архи гэх мэт товчилсон үг ч бас байна. мөн зарим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 аль нэг бүрэлдүүлбэр нь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хээ утгыг бүрэн илэрхийлэх нь бий. Жишээ нь:

  СХУ – сурган, ДБМИ – магадлан итгэмжлэх, ШНТ – шалган нэвтрүүлэх товчоо буюу Шалган гэх мэт

- Зарим товчилсон үг ярианы хэлэнд товчилсон хэлбэрээрээ дуудагдаж байгаа нь тухайн үг хэлэхийн нэг урсгал буюу нэгэн үе болж байг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бөгөөд хураан товчлох нь зөвхө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төдийгүй ярианы хэлний үзэгдэл болж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ГОК, МАШС – нам, УБИС, МУИС, ДОХ, НҮБ, МГУ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товчилсон үгийг хэрэглээгээр нь өргөн ба явцуу хэрэглээний гэж хувааж болмоор байна.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товчилсон үг гэдэг нь хэрэглээ болон давтамж ихтэй,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нэгэнт хэвшсэн, тогтвортой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ХХК, НӨАТ, АНУ, ОХУ, ТИС, ШТС гэх мэт үгс хамаарна.

Явцуу хэрэглээний товчилсон үгэнд зохиогчийн (авторских слов), мэргэжлийн нэр томъёоны холбогдолтой товчилсон үг, хар ярианы буюу этгээд утгатай, хүний овог нэрийн болон зөвхөн эх бичвэрт үгийг олон давтахаас зайлсхийсэн товчилсон үг зэргийг оруулж болох юм. Жишээлбэл:

- Ф. Котлерийн “Марктингийн ухаан” УБ 1991 номд жижиг суурин газрыг ЖСГ гэсэн нь эхийн товчилсон үг гэж болмоор байна.
- УЗА – Утга зохиолын ажилтан, МАХ – Монгол Англи хэл, ХГХ – Хулгайн гэмт хэрэг ((мэргэжил нэр томъёоны) – ХГХ – ийг 1990 оныхтой харьцуулахад 5,5 дахин өсчээ.
- Хулгайн гэмт хэргийн гаралт илтгэлүүдийн эмхтгэл УБ 1997 хуу-5
- Да. Ганболд Дарь. Сүхбаатар (овог нэрийн)
- НУА, ГООНО – самогонь, Найрка, Шаг, Ориг – оргиналь, Мессеж буюу – месс (хар ярианы)

Ер нь товчилсон үгс нийтэд танил болох,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хэвшсэн ч хэрэглээ, давтамжийн хувьд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өөрөөр хэлбэл төрөл бүрийн найруулгад түгээмэл бус ихэвчлэ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албан бичгийн найруулгад хэрэглэгддэг магистр – маг, доктор – док, профессор – проф, доктор (Ph), доктор (Sc) гэх мэт үгс байна.

Үгийг товчлох нь хэлбэрт нь өөрчлөлт гарч байгаа хэрэг болохоос үгийн сангийн шинэ утга үүсч байгаа хэрэг биш гэж зарим судлаач үздэг боловч (4:55) хэл шинжлэлийн ном зохиолуудад товчлолыг үг бүтэх болон шинэ үг үүсэх нэгэн арга гэж үздэг байна. (2:87), (6:9), (1:115), (7:209), (8)

Хэдийгээр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нд нэгэнт бий болсон үгийг хэлэх бичих хэмнэлээс товчилж байгаа нь зөвхөн хэлзүйн түвшинд өөрчлөлт орж байгаа мэт боловч үгийн сан – утгазүйн түвшинд шинэ үг болж байгаа юм гэж үзэх үндэслэлтэй байна.

Ер нь хэлэнд нэгэн утга санаа бүхий үгсийг хэлзүйн 2 өөр хэлбэрээр илэрхийлэх шаардлага бараг үгүй бөгөөд хэрэв тийм бол үгийн сангийн нэмэлт утга утга өнгө аястай болдог байна. Үүнийг дараах үгээр жишээлэн авч үзье.

“АПУ” Энэ товчилсон нэр нь Архи пиво ундаа гэсэн оноосон нэрийнхээ утгаас гадна, үйлдвэрийн аргаар нэрлэсэн, баталгаат гэсэн утганцар (сема)-нууд нийлж сая сайн чанарын цагаан архи гэсэн утгалбар (семема) бий болж байгаа нь товчилсон үгийн зөвхөн хэлбэрт төдийгүй утганд бас өөрчлөлт гарч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энэ нь нэг талаар товчилсон үгээр үгийн сан баяжиж болохыг давхар баталж байна.

Товчилсон үг нь үгийн сан баяжуулах, шинэ үг үүсгэх нэгэн зүйл туслах арга бөгөөд монгол хэлэнд энэ аргаар үгийн сан баяжин олширсоор байна. энэ талаар доктор профессор Б. Пүрэв-Очир “Дал” сонинд хэвлүүлсэн “Монгол хэл хэлцээр баяжиж байна уу? Аль эсвэл...” хэмээх өгүүлэлдээ “Монгол хэл түүхэн хөгжлийнхөө үе үеийн туршид шинэ үг хэллэг утгаар баяжиж, дагавар нөхцөл үг өгүүлбэрийн сан хөмрөг нь арвижин хэрэглээний талбар нь улам тэлсээр иржээ. Үүний наад захын жишээ бол үг товчлох аргаар өдий төдий шинэ үг үүсэн, товчилсон хэвшмэл хэллэгээр үгийн сан баяжиж буй баримт болно. Монгол хэлэнд цөөнгүй шинэ үг үүсэн, үгийн санг баяжуулсаар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нь

төрөл бүрийн найруулгад өргөн хэрэглэгдсээр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АПУ-гийн архи, ШАГ-ийн наймаачин, ТҮЦ-ийн худалдагч, НИК хувьцаат компани, МАХ нам, АХ эвсэл, ДОХ-ын шинжилгээ, МОНЕЛ-ийн зурагт гэх мэт" гэжээ.

Энэ бүхнээс дүгнэн үзвэл үг товчлол нь зөвхөн хэлзүйн тухай ойлголт биш бөгөөд шинэ үг бүтээх, үгийн сан баяжуулах, найруулга хэрэглээний чухал асуудал болохын сацуу мэдээллийн өнөөгийн эрин үед мэдээллийг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нийтийн хүртээл болгох шаардлагаас үүдэлтэй хэлний нэг чухал судлагдахуун болж байна.

Эш татсан ном, зохиолын нэрс

1. Афанасьева, О. В., Антрушина, Г.Б "English lexicoloy" Москва, 1999, 115
2. Ахманова, А.С, "Словарь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1966, 87
3. Баянсан, Ж., Одонтөр. Ш., "Хэлшинжлэлийн зүйлчилсэн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1994, 151
4. Өнөрбаян. Ц.,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зүй", УБ, 1994, 55
5. Пүрэв-Очир. Б., "Дал" сонин 2001, №98 /4/
6. Розенталь Д.Э., Телекова. М. А., "Справочник лингвистичеки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1972, 87
7.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Минск, 1999, 209
8. Төмөрцэрэн. Ж., "Монголч эрдэмтдийн 5-р их хурлын материал"
9. Чойсамба. Ч., "Сонины хэл найруулга", УБ., 2000, 91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нгороо үгийн тухай

Ш. Баттөгс МУБИС-МоСС Монгол хэл шинжлэлийн

тэнхмийн эрхлэгч, дэд профессор

Хэлний шинжлэлийн лавлахуудад (1:43), (3:421) “тонгороо үг”-ийг /anagram/ “Үг хэллэгийн аль нэг үсгийг янз бүрийн байрлалд аваачин өөр өөр үг хэллэг үүсгэх” гэж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даг. “Anagram” гэсэн үгийн “ana” нь “эргэх, шинэ”, “gram” нь “үсэг” гэсэн утгатай латин үг болно.

Нөгөө талаар тонгороо үг нь үгэн наадмын /calembour/ шинжтэй, бас нууц бичгийн /cryptography/ онцлогийг агуулсан гэж өгүүлсэн байдаг.

Манай тооллын өмнөх III зуунд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эртний грекийн хэлзүйч Ликофрон үг хэллэгийн үсгүүдийг тонгоргон бичиж, өөр утгатай үг үүсгэх ёсыг анх хэрэглэсэн гэдэг. (2:50) Сэргэн мандалтын дараахан үед үг хэллэгийг өөрчлөх, тонгоргон өөр үг үүсгэхийг хууль бус гэж үздэг байсан бөгөөд үүний дараа үеэс үг хэллэг, өгүүлбэрийг өөрчлөн, өөр үг хэллэг үүсгэн, үүнийгээ хэлний зугаа, тоглоомын хэлбэрээр ашиглах болжээ. Францын XIII Лоус дэргэдээ албан ёсны тусгай үг тонгороочтой байсан гэдэг. (3:421)

Хэлшинжлэлд үгийн хэлбэр бүтэц дэх аль нэг үсгийг өөрчлөн, өөр бие даасан утгатай үгийн сангийн нэрлэлт үүсгэх, эсвэл тонгоргон уншихад өөр үг үүсэхгүй тухайн үг дахин үүсэх үгсийг тонгороо үг гэх бөгөөд тонгороо үгийн дээд хэлбэр нь үгийг тонгоргоход уул үгтэйгээ адил үг бүтэх явдал юм. Хувьсгалын жилүүдэд лам нарын дунд үгийг бүтэн тонгоргон ярих явдал байсан гэдэг боловч энэ талаарх баримт одоогоор алга байна. Үүнийг нэг талаар этгээд, чамирхсан, нөгөө талаар хэл яриагаа нууцлах маягтай байсан гэж ойлгож болно.

Тонгороо үг нь хэлшинжлэлийн хувьд чухал асуудал бус боловч үгийн наадгай, сүлжээ зохиох, үгийн хэллэгийн хувиргал, хүмүүсийн оюун ухааныг хөгжүүлэхэд багагүй үүрэгтэй болно.

Хэлшинжлэл төдийгү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лалд тонгороо үгийн талаар судалгааны зүйл бага байгаа ту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нгороо үгийн талаар цухас өгүүлье.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нгороо үгийг бүрэн ба хагас тонгороо үг гэж ангилж болмоор байна.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 гэдэг нь үгийг араас нь уншихад тухайн үг нь яг адил уншигдаж, бичигдэхийг хэлнэ. Жишээлбэл: Хах, мөөм, хадгалагдах, шош, хийх, хях, хөөх гэх мэт.

- Ижил ү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 дэх зарим үг тонгороо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Хөх I өнгө
Хөх II үйл үг
Хөх III зэрлэг гахайны үр төл

-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ийн цөөнгүй хувийг 2-р биед шууд захирах тэг нөхцөл бүхий үйл үг эзэлдэг. Жишээ нь: хах, уу, хөх, ана, оно, дад, цуц, тат, хях, чич, дууд гэх мэт
- Мөн ирээдүй цагаар тодотгон холбох "х" нөхцөлтэй үг олон байна. Жишээ нь: хавах, хаах, хасах, ханах, хазах, хөөх, хэрэх, хэлэх, хонох, хамах, халах гэх мэт.
- Зарим товчилсон /abbreviation/ үг тонгороо байна. Жишээ нь: АСА – арилжаа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алба, АА-гийн нийгэмлэг гэх мэт.

Тонгороо ү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ийг үгсийн аймгаар нь авч үзвэл:

1. Орны нэр: доод, дээд, өөдөө
2. Жинхэнэ нэр: үү, гижиг, цүүц, цэц, зааз, наран, гөлөг, гэзэг, гараг, нян, тоот, Казак, мээм, мөөм
3. Төлөөний үг: өөрөө, энэ
4. Тооны нэр: дэд, нэгэн
5. Угтан чимэх үг: нэн, өнө

Тонгороо үгийн дотор харь гаралтай үг цөөн байна. Лал, мадам, сорос, шош, нян, мам, казак гэх мэт.

Бүрэн тонгороо холбоо үг: Наран халах – халах наран, хөх мээм – мээм хөх, мөөм мээм – мээм мөөм, наран өөдөө – өөдөө наран, мөөм хөхөх – хөхөх мөөм

Бүрэн тонгороо өгүүлбэр: Оно, өөрөө – өөрөө оно.

Монгол хэлний зарим хоршоо болон эсрэг утгатай үгийн байрыг солин тонгоргож хэлэхэд утгын ялгаа гарахгүй.

Тухайлбал: Бодол санаа – санаа бодол, ном судар – судар ном, тайлан тооцоо – тооцоо тайлан, эсрэг утгатай, том жижиг – жижиг том, зовлон жаргал – жаргал зовлон гэх мэт.

Гэтэл зарим нийлмэл үгсийн байрыг солин тонгоргож хэлэхэд /дуу шуу – шуу дуу, тамхи тариа – тариа тамхи, хүн хүч – хүч хүн, урт богино – богино урт, өндөр нам – нам өндөр гэх мэт/ утгын хувьд ялгамж гарч байгаа нь тухайн үг хэллэг хэлэнд хэвш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 юм.

Үйлийн тодотгон холбох "х" нөхцөлтэй зарим тонгороо үг нь дуудлагын ижил /homophone/ үг үүсгэнэ. Тухайлбал: халах – халх, хэлэх – хэлх, хавах – хавх гэх мэт.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ийн үсгийн дундаж урт 3-4 байдаг бол хамгийн дээд тал нь 11 үсэгтэй "хадгалагдах" хэмээх үг байна.

Дэлхийн аль нэг хэлэнд “хадгалагдах” хэмээх үг шиг тонгоруулалтаараа утгаа бүрэн илэрхийлэх 11 үсэгтэй үг байх магадлал маш ховор аж. Ийм жишээ хэдэн арван сая үгэнд ганц тохиолдох сонин үзэгдэл юм. Гэхдээ аливаа хэл олон үсэгтэй эсвэл олон тонгороо үгтэй байх нь тухайн хэлний хэлзүйн болон хэлний хөгжилтэй холбоотой ямар нэг гойд тохиолдол бус, жирийн үзэгдэл гэж үзэж болно.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үг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үг гэдэг нь үгийг тонгоргон уншихад өөр үг үүсгэхийг хэлнэ. Үүнийг дотор нь шууд тонгорох, холимог байдлаар тонгорох гэж ангилж болно.

Шууд тонгорох гэдэг нь үгийг тонгоргоход өөр утгатай үг үүсгэхийг хэлнэ. Үүнд мод – дом, ээх – хээ, уусах – хасуу, дүл – лүд, цуу – ууц, мэдээ – ээдэм, дүү – үүд, мах – хам, хог – гох, хаш – шах, шүт – түш гэх мэт.

-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холбоо үг:
  - Маг хийх – гам хийх
  - Дам хийх – мад хийх
  - Дүү хаах – үүд хаах
-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өгүүлбэр:
  - Мал хаш – лам шах.
-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үүсэх дагавар, нөхцөлүүд

Жинхэнэ нэр бүтээх дагавраас:

Чин – нич, лан – нал, гоц – цог, маг – гам, гэм, раг – гар, гэр, гөр, гор, мад – дам, лаг – гал, гол, гөл, аас – саа, сөө, дас – сад, сэд, сод, сөд, мал – лам, лан – нал, на – ан гэх мэт.

Тэмдэг нэр бүтэх дагавраас

Уун – нуу, нүү, маг – гам, гэм, мал – мэл

Үйл үг бүтэх дагавраас

На – ан, он, шаа – ааш

Тонгорч болох нөхцлүүд

Чууд – дууч, ууд – дуу, дүү, аас – саа, руу – уур, үүр, сан – нас, даг – год, вал – лав, аад – даа, на – ан, он, лаа – өөл, жээ – ээж.

Тонгороо үгийг үүсмэл ба үүсмэл бус гэж ангилж болно. Үг бүтэх дагаврын өмнө язгууртайгаа гадаад хэлбэрээрээ тохирох цац, дад, хях, хөх, мээм, хах, оно, ана гэх мэт үгийн үүсмэл бус,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авч бүтсэн, мөн

үг хэллэгийн үсгийг өөрчлөн үүсгэсэн дууд, өөдөө, цүүц, дээд, доод, тоот гэх мэт үгсийг үүсмэл тонгороо үг гэнэ.

Харин холимог тонгороо үг гэдэг нь үгсийн доторх эгшиг болон гийгүүлэгчийн байрыг сольж өөр утгатай олон хувилбар бүхий үг хэллэг үүсгэхийг хэлнэ. Ингэхдээ тухайн үгсийг давхардуулахгүй, үсэг нэмж хасахгүйгээр байрлуулдаг. Ийм байдлаар хэдэн ч үг бүтээж болно. Жишээлбэл: салга – алгас, алх – хал, там – амт – мат, байгуулав – уул – гав – бай, гэх мэт.

Холимог тонгороо өгүүлбэр:

Энэ нь өгүүлбэрийн доторх үгсийг янз бүрийн байрлалд аваачин, өөр утгатай өгүүлбэр бүтээхийг хэлнэ. Жишээ нь: мод сар ургав – марс од гурав

Зарим тонгороо үгийг этгээд байдлаар хагас тонгоргох тохиолдол залуусын хэл ярианд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цагдааг – гацдаа, Налайхыг – хайлан, шагийг – гаш /шил архи гарга/ гэх ба хааяа гаш гэж тонгоргон нууцлаг байдлаар хэлдэг байжээ. Эдгээрийг этгээд үг хэллэгт судалдаг.

Зохиолч Ц. Дамбадорж зарим зохиолоо /Толбо нуур/ “Улаан оторч” гэсэн нэрээр хэвлүүлж байсан нь утга зохиолын нууц нэр /псевдоним/ болно. Зохиогч энэ баримтат зохиолдоо өөрийгөө Абмад гэсэн нэрээр зохиолын нэг дүр болгон оруулсан нь тонгороо үгийг ашиглан “нууц бичиг” /криптография/ үүсгэн хэрэглэсний жишээ болно.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 үүсэх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рэн тонгороо үг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үүснэ. Үүнд:

- Найрах арга буюу тодотгон холбохын “х” нөхцөлөөс үүсэх: хаах, харах, хөөх, ханах
- Үгийн эцсийн тогтворгүй “н”-ээс: наран, нэгэн, насан
- Авианы сэлгэц, тонгорлоос: мээм мөөм, түш шүт, цоно ноц, хаш шах
- Үг бүтэх дагавраас: цүү цүүц, дуу – дууд, өөд – өөдөө, өл – өллө, яа – яая

Бүрэн бус тонгороо үг үүсэхийг тодорхой аргад хамааруулах аргагүй юм. Учир нь: ямар ч үг хэллэг, холбоо үг, өгүүлбэрийг хэдэн ч байдлаар тонгоргож, өөр өөр үг үүсгэх боломжтой юм.

Anagram – A word or phrase formed by changing the order of the letters or words therein. Anagrams in Mongolian can be classified as perpect and imperfect. In Mongolian the longest anagram has 11 letters: “hadgalagdah”. A perpect anagram is a word which has the same meaning when it is read backwards. An inperfect anagram has a different meaning when it is read backwards.

Номзүй:

1. Ахманова О. С, Словарь лингвистичиски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1966

2. Жамбалдорж. С., Монгол нууцын хэлхээ УБ., 1985
3. Crystal.D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7

Тонгороо* Монгол хэлэнд энэ үгтэй адил тонгоруу гэсэн төсөө үг бий.
Тонгоруу* энэ үгийг эцсийн дагавар, нөхцөлөөр толгойлсон “тонгоруу толь” – хэрэглэнэ.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монгол-манж хоршоо үг

Дэмбэрэлийн БААСАНБАТ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монгол-манж хоршоо үгийг үүсэл , хэрэглээ, бүтэц, онцлог талаас нь ажиглавал:

Үүсэл гарвалын талаас нь :

а)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дэг үг,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дэг үгтэй хоршсон үүссэн жишээ их байна. Жишээ нь: Сонин хэвлэл, сайн муу, халуун хүйтэн, нэр төр, ирэх очих, бушуу түргэн .

б) Орчин цагийн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ний үг, нутгийн аялгууны үгтэй хоршсон байна. Жишээ нь: Тэнэг зүүлэг\ойрд\, ташуур малиа\бур\, тэнэг ирваа \сэл\

в)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эний үгс, утга хуучирсан үгтэй хоршсон жишээ байна. Жишээ нь: Дарга даамал, бичиг сачиг,

Өөрөөр хэлбэл “б, в” тохиолдолд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х үг эхний бүрэлдүүлбэр нь болдог байна.

Хэрэглээний талаас нь:

1. Хоёр бүрэлдүүлбэрийн аль аль нь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энд идэвхтэй хэрэглэгддэг үгс: Ном дэвтэр, бэлгэ дэмбэрэл, халуун хүйтэн, дээр доор, гүйх харайх, хонон өнжин, сайн муу , үнэ цэнэ, гм.

2. Хоёр бүрэлдүүлбэрийн аль аль нь идэвхгүй хэрэглэгддэг үгс: Ж-нь: цэрэг цуух, дэмий балай, машин чийчаан, үйл лай, бичиг сачиг, улс гүрэн, ном зом, дайн дажин гм.

Бүтцийн талаас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с юм уу, монгол хэлэнд ороод он удаан жилийн дараа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шиг болсон үгс, соё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гоор монгол хэлэнд шинээр орж ирж буй харь хэлний үгтэй хоршсон жишээ байна. Ийм жишээг ажиглахад ихэвчлэ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ямагт эхний бүрэлдүүлбэр болж байдаг нь харь хэлний үгийн утгыг тодруулах үү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ажээ. Энэ бүлгийн хоршоо үгийг ямар хэлний үгтэй хоршсоноор нь :

а) Монгол -түрэг: Эд хөрөнгө, хог бог, мөнгө санга, зураг хөрөг, аз жаргал

б)Монгол-перс: Эр бар,

в) Монгол- төвд: Үйл лай, өс хонзон, хийморь лундаа, бэлгэ дэмбэрэл, эм дом

г) Монгол- хятад: Гоё чамин, цэвэр нандин

д) Монгол- орос: Үнэ цэнэ, бараа товар,

е) Монгол- англи: хаяг адрес,

ё) Монгол- манж: Улс гүрэн, ёс төр, цэрэг цуух, араа соёо, хомс цөөн, илт илэрхий, эрин цаг, гинших гингэнэх, сонжих сонгох, хэм мөч, гэх мэт хоёр хэлний хоршоо үг гэж ангилж болох байна.

Онцлог талаас нь:

Монгол- манж хэлэнд үг хоршсон жишээ арвин байна.

1-рт: Монгол хэлэн дэх монгол - манж хоршоо үгийн утгыг ажиглахад, ихэвчлэн ойролцоо ерөнхийлсөн утгатай үг үүсгэсэн байдаг байна. Үүний шалтгаан нь тухайн ормол үгийн утга, орж байгаа хэлэндээ нийтэд тодорхой бус учир, эх хэлнийхээ мөнхүү утга бүхий үгтэй хоршин, утгыг тодруулах явцад тийнхүү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үг үүсгэдэг байна. Жишээ нь: “cooha” гэхэд монгол хүн шууд ойлгохгүй байж болно. Гэтэл цэрэг цуух (cooha) гэхэд цэ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утга тодрон гарч ирдэг байна. Жишээ нь:

Цэрэг цуух<mon čerig, man cooha “цэрэг”

Ёс төр < mon yosu,man tőrű “төр ёс”

Гингэнэх гинших < mon gingginen, man gingsimbi “гингэнэн гинших”

Тээг бэрх < mon tegeg, man berxe “бэрх тээг”

Сонгох сонжих <mon songγu, man sonjo “сонго сонж”

Дэмий балай < man demei, man balu “дэмий балай”

Хэм мөч < mon xem, man mőče “хэм мөч”

Нүх горви < mon γorbi, man nűxű “нүх горви”

Бөгс хондлой< mon xondulai, man bűγsű “хондлой бөгс”

2-рт: Дараалльн хувьд авч үзвэл ихэвчлэн хоршоо үгийн нэгдүгээр бүрэлдүүлбэр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байдаг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монгол үгийн утга нь манж хэлний үгийн утгыг тодочлох үү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байна. Жишээ нь: цэрэг цуух, улс гүрэн, сонгох сонжих, эгэх бэдрэх гэх мэт.

3-рт: Үгсийн айм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ий хувьд ихэвчлэн нэр үг, мөн тэмдгийн нэр, үйл үг зохих хувийг эзэлдэг. Жишээ нь: Нэр үг- ёс төр, цэрэг цуух, хэм мөч. Тэмдэг нэр- тээг бэрх, дэмий балай, ялдам ялгуун. Үйл үг-гингэнэх гинших, эгэх бэдрэх, сонгох сонжих гэх мэт.

4-рт: Монгол-манж, мөн манж- монгол бүрэлдүүлбэр бүхий хоршоо үгийн авиан зүйн онцлогийг ажиглавал хоршоо үгийн манж хэлний үгийн авианзүйн тогтолцоо нь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авианзүйн тогтолцоотой дүйж, харин одоогийн халх аялгуунаас нэлээд өөр байгаа юм. Энэ нь манж хэлний үг монгол хэлэнд орж хоршоо үг үүсгэсэн цаг үе боло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өгжлийн хувьслыг харуулж байгаа жишээ гэж болно. Жишээ нь:

Мон. бичгийн хэл	Манж бичгийн хэл	Монгол-манж хоршоо үг
berxe tegeg	berxe	бэрх тээг
baγsi gűsi	baγsi	багш гүүш
ildam ilγum	ildamű	ялдам ялгуун
sadun huda	sadűn kuda	садан худ
iledtű ilerxei	iletű	илт илэрхий
mőxiyexű sőnűgexű	műkiyexe	мөхөөх сөнөөх
homsu cőgen	komsű	цөөн хомс
taγtu asar	taγtű	тагт асар
ulus	gűrű	улс гүрэн
erin caγ	erin	эрин цаг
amban sayid	amban	амбан сайд
nűxű γorbi	nűxű	нүх горви
xem mőče	kemű	хэм мөч
sonju songγu	sonjo	сонгож сонжих
cerig	čooha	цэрэг цуух
bederen-e egebűi	bederembi	эгэж бэдрэх
tőrű yosu	doro	төр ёс
kuwaran horiy-a	kuwaran	хороо хуаран
zarulg-a	bosohu	бошго зарлага

ДҮГНЭЛТ

Энэ бүхнээс дүгнэхэ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ёр бүрэлдүүлбэрийн нэг нь монгол, нөгөө нь манж нэг бүлэг хоршоо үг буй бөгөөд утгын хувьд үгийн утгыг тодруулсан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хоршоо үг үүсгэж, дараалын хувьд монгол бүрэлдүүлбэр нь эхэнд нь, үгсийн аймгийн хувьд нэр үгс, мөн зарим нэг тэмдэг нэр, үйл үг, авиан зүйн хувьд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онцлогийг хадгалсан, монгол- манж хэлний хоршсон үг хамгийн түгээмэл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нь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Хоршоо үгийн толийн зүйл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бас үг хоршиx ёс зарчмыг нарийн судалж, хоршоо үгнээ ямар ямар дагавар хэрэглэн бүтсэн үг орж болдог байна гэдгийг магадлан нягталж, хоршоо үг бүтдэг оньсы нь хэлний шинжлэл, найруулгазүйн үүднээс илтгэн судалж гаргавал мөн л сонин шинжлэл болох ёстой байна.

Монгол хэлний эсрэг үг ба ойролцоо үг нь нийлэхээрээ хоршоо үг, салахаараа өгүүлбэрийн зэрэгцэл бүтээдэг байна.

Мө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ршоо үг нь өгүүлбэрийн найруулгад төсөөтэй буюу ойролцоо өгүүлбэрийг бүтээж, найруулгыг тэгшитгэн орсон нөхцөлд ажиглагдаж байгаа нэг зүйл бол хоршоо үгийн хоёр элементийг нэг талаар салгасан, нөгөө талаар сэлгэсэн маягтайгаар тус бүрд нь тодруулсан үг өгч, өгүүлбэрээр зэрэгцүүлдэг ёс байна.

НОМ ЗҮЙ

Баасанбат.Д. (2007) “Хөх судар”-ын хоршоо үгийн сан, Улаанбаатар

Бадамдорж.Д.(1995)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ршоо үгийн утгазүйн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алд//МУИС, ЭШБ №6 (114), 8-15х). Улаанбаатар.

Базаррагчаа.Т.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ршоо үгийг хэрэглэх тухайд. Уб.1990.

Балдан.Л. Д.Нацагдоржийн зохиолын хоршоо үгийн зүйлээс. Studia linguae end litterarum. Tom2. Fasc.17. 189-191. Уб.1973.

Баянсан.Ж. Соёл, хэл,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 УБ.2002. х-75

Бертагаев.Т.А. Сочетания слова и соверменная терминология.М.1971. х 33.

Дондуков.Ж.Ш. К.Вопросу о парных словах в монгольских языках

Дулам.С. Монгол аман зохиол, утга зохиол дахь бэлгэдэл зүйн тогтолцоо. Уб.1997, 37

Лувсанвандан.Ш. Дэмчигдорж.Б.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 Нэгдүгээр дэвтэр.УБ.1951.х50

Норжинлхам.С.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ршоо зэрэгцлийн хэрэглээ,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Сургалт-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иг. Боть III. Уб.2000. х-60

Өнөрбаян.Ц.Пүрэв-Очир.Б.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лалын онол-практики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УБ.1991. х-6

Пүрэв-Очир.Б,Баттогтох.Д. Хоршоо үгийн талаар хийсэн зарим ажиглалт.УБДС.ЭШБ.УБ. 1986. №16.

Равдан.Э. Бүтэц хэл шинжлэл. 1998. х-51

Ринчен.Б.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зүй. Дөтгөөр дэвтэр.Өгүүлбэр зүй.УБ.1967.х-1

Санжеев.Г.Д.Грамматика бурят-монгольского языка.М-Л. 1941. Х122.

Сүхбаатар.Ц.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айруулгазүй. 2002. х-121

Хөхбарс.ӨМБИС. Хөх хот. 2004. Монгол судлал. МС-ын ОУ-ын ЭШ-ий ярилцах хурлын материал.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втагдсан холбоо үгийн туха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ЭЛЦ НЭГЖИЙГ ТОЛИЛОХ АСУУДАЛД

Хэлц нэгжийн утга, дотоод хэлбэр, агуулга гэдэг бол үндэстнийг соёлын үүднээс товойлгон тодорхойлж болох дүр гэж үзвэл хэлц нэгжийн утгыг тайлахад тухайн хэлийг төрөлх хэлээ болгосон үндэстний бүтээн уламжилж ирсэн эдийн ба оюуны соёлын зүйл хэлээрээ яаж утгажин илэрдгийг харж болно.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 сэтгэлгээний дархлаа нь хэл, харин хэлний дархлаа нь хэл соёлын үнэ цэнэ тогтворжин шингэсэн хэлц нэгж байдаг гэж үзэж болно.

Хэлц нэгж бол хэлний утгат нэгжүүдийг энгийнээс нарийнд урган орох шаталсан бүтцийнх нь талаас үзвэл хамгийн дээд төвшний нэгж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хэлц үүсч, хэрэглэгдэх нь хэлээр үүтгэн цогцлоох сэтгэхүйн нэгэн хэлбэрийн үндсэн арга хэрэглүүр болдог. Ялангуяа хэлний утгын хийсвэрлэлийн хувьд хэлцээр илэрсэн илэрхийлэл бол дээд эрэмбийн хийсвэрлэлийн үр дүн, үйл явц мөн гэдэгт хэлшинжлэлч төдийгүй, гүн ухаантан, орчин үеийн хэлний сэтгэл судлаач нар нэгдмэл саналтай байдаг. Ийм учраас хэлц нэгж үүсэх, түүнийг харилцаанд хэрэглэх онцлог нь зөвхөн хэлшинжлэлийн хүрээний асуудал биш, түүнийг танин мэдэхүйн онол, сэтгэл судлал, соёл судлалын уулзвар заагт авч үзэх асуудал тулгамдаж байгааг судлаачид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х болсон байна. Хэлцийг үгийн сан–утгазүйн нэгж хэмээн үзэхдээ хэлшинжлэлийн ном зохиолд үгийн сангийн нэгж болгож, харин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ын бүтээлд бол дүрслэл хэрэглүүр (тропа)-ийн хүрээнд багталцуулж, уран зохиолын яруу илэрхийлэх хэрэглүүрийн нэг болох адилтгал зүйрлэлийн хамаатай зүйл мэтээр тодорхойлох нь хэв шинжит үзэгдэл баримт болсон байна.

Хэлц нэгж бол зөвхө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ичээлээр үздэг уран яруу дүрслэлийн нэг зүйл буюу адилтгал зүйрлэл болох, хэлшинжлэлд бол өвөрмөц хэллэг (идиом), хэвшмэл хэллэг хэмээх бүтэц-утгазүйн нэгэн багц илэрхийлэл, өгүүлбэрт биеэ даасан нэг гишүүн болдог зэрэг тодорхойлолт хуучирч, түүнийг танин мэдэхүйн үйл

явц, үр дүн,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ний онцлог, уламжлалт соёлын тусгал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ж тайлбарлах болсонтой холбоотой юм.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гтвортой нэгжийг бүтэц, утгын шинжээр нь нарийвчлан судалж, хэв шинж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улмаар түүнийг тользүйн практикт ямар байдлаар журамлан тогтоох нь эдүгээ чухал асуудлын нэг болоод байна.

1.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гтвортой нэгжийг бүтэц, утгын хэв шинжээр нь өвөрмөц хэллэг, хэвшмэл хэллэг хэмээн хоёр үндсэн төрлөөр ангилдаг уламжлал бий. Үүндээ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г их төлөв хэвшмэл хэллэгийн зүйлд харин “гуяа ганзгалах, хөл алдах, толгой алдах, сэтгэл дүүрэх, нүд дүүрэх" зэрэг хэллэгийг өвөрмөц хэллэгт хамруулан үздэг байна.

Бидний ангилан нэрлэж заншсан өвөрмөц хэллэгийн зарим нь бүрэлдүүлж буй хоёр гишүүний нэг нь дангаараа байхдаа илэрхийлж заадаг утгаа алдаагүй байдаг бол нөгөө гишүүн нь дангаарх утгаа алдаж, саармагжсан, заримдаа гол үгийнхээ утгыг эрчимжүүлэх үүргээр хэрэглэгдсэн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ухаан орох, зүүд орох, зүрх орох зэрэг холбоо үг чөлөөт холбоо үг биш боловч бас жинхэнэ өвөрмөц хэллэг ч хараахан биш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зүрх орох гэснийг "зүрхлэ-", ухаан орохыг "ухаар-", зүүд орох"-ыг "зүүдлэ-" гэх мэтээр нийлэг бүтэцтэй болгоход задлаг хэлбэрийнхээ утгаа гажихгүйгээр барахгүй, "орох" гэсэн үг нь биеэ даасан утгаа алдаж "зүрх", "ухаан". "зүүд" гэдэг үгс нь үндсэн утгаараа хэрэглэгдсэн үгсийн үгийн сангийн үүсмэл утгыг илэрхийлж, нэг утга санааны задлаг, нийлэг хоёр хэлбэрийг агуулсан байдагт оршино.

Чухам иймээс дээр тухайлан авч үзсэнтэй нэг төрлийн холбоо үгийг тогтвортой холбоо үгийн ангид багтаан хэлэлцэх боломжтойг ч жинхэнэ өвөрмөц хэллэгээс ялгаж "задлаг хам бүтэц", эсвэл бэсрэг хэллэг хэмээн нэрлэж болно. Өөрөөр хэлбэл, "ухаан орох - ухаар-" нь "аминд ор -(аврах), "хэл оро- (хэлэх ярих чадвар нь сэргэх), "хэлд орох" -(бага нялх хүүхэд юм ярьж хэлж сурах (эхлэх) зэрэг өвөрмөц хэллэгтэй нэг ижил утгатай хэмээн үзэж болмооргүй.

Нөгөөтээгүүр бидний "жинхэнэ өвөрмөц хэллэг", "бэсрэг хэллэг" гэж нэрлэсэн хэллэгийн аль аль нь бүтцийн хувьд задлаг хам бүтэц хэмээх хэв шинжид хамаатай боловч, утгын хувьд ялгаатайг хэлэх нь зүйтэй болов уу.

Оросын хэлц судлалч В.Н.Телия (1996) бидний "бэсрэг хэллэг" хэмээн нэрийдэж буй иймэрхүү хэлцийг "үгийн сангийн задлаг хам бүтэц"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ж хэлц судлалын нэгжид багталцуулан авч үзсэнийг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аримтаар бас ийм бүтэц-утгатай нэгж байна гэж үзэх үндэстэй юм.

"Нэр - үйл" бүтэцтэй ийм "бэсрэг хэллэг"-ийн нэг гол бүрэлдүүлбэр буюу нэр үг нь их төлөв нэрлэхийн тийн ялгалд илэрч "өгүүлэгдэхүүн-өгүүлэхүүн" харьцаагаар үйл үгтэйгээ холбогдсон байдаг онцлогтой байна. Гэтэл "аминд орох", "голд орох", хэлд орох" гэх мэт нэр үг нь нэрлэхээс бусад тийн ялгалд байвал ийм хэлц нь "бэсрэг хэллэг" биш, харин “жинхэнэ” өвөрмөц хэллэг болдог шиг байна.

Иймэрхүү бүтэцтэй нэгжийн үйлийн утга нь суларч саармагшсан, нэр үг нь дагаврын аргаар үйл үг үүсгэж, нийлэг хэлбэрээр уг утгыг илэрхийлэх боломжтой байна.

Эдгээрээс үзвэл дээрх хоёр зүйл хэллэгийг толь бичигт ялгаж тайлбарлах үндэслэгээг боловс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ирнэ.

2. Хэлц нэгжийг толь бичигт оруулан тодорхойлохдоо, жишээлбэл, <u>ганзага дүүрэн</u> "их олзтой гэсэн санаа" "ганзага мялаах" гэхийг “-ан авлах", "ганзага хоосон"- гэхийг “ан ав, олз омоггүй" гэсэн санаа "(МХДТТ, 2008:474) гэсэн байдлаар журамлан тодорхойлж ирсэн байна.

Өвөрмөц хэллэгийн утгыг ийм маягаар тодорхойлсон нь тухайн хэллэгийн утгыг таньж мэдэхэд зайлшгүй чухал шийдэл мөн гэдэгт эргэлзэх зүйлгүй.

Гэвч "жинхэнэ" өвөрмөц хэллэг, зүйр цэцэн үг нь тухайн хэлийг төрөлх хэлээ болгосон үндэстний эдийн болон оюуны соёл, тэдний ертөнцийг таньсан танилт,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бүрэлдэн тогтож, улмаар сэтгэцэд нь хэвшин тогтсон хэв шинж зэргийн тусгал, илэрхийлэл, гэрч баримт болно(Баянсан, 2002) гэх үүднээс уг асуудалд хандвал зарим хэлц нэгжийн тайлбарыг түүнээс арай дэлгэрүүлэн өөрчлөх ёстой хэмээн үзэж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ганзага" хэмээх үг оролцож

бүтсэн "ганзага нийлэх". "ганзага хоосон", "ганзага дүүрэн", "ганзага мялаах", "гуяа ганзгалах", "гары нь ганзганд, хөлий нь дөрөөнд хүргэх", "ганзгы нь ямаа хивэх", "гар богино, ганзага татуу", “гар урт, ганзага урт" гэх мэт өвөрмөц, хэвшмэл хэллэг тус бүрийн утгыг нэг бүрчлэн тодорхойлсныгоо өөр хоорондн нь харьцуулан нарийвчилсны дүнд монголчуудын аж төрөх ёс, уламжлалын түүхэнд ан гөрөө, ан ав хийх зан үйл ямар онцлогтой байсныг сэргээн, дүр дүрслэлий нь санаандаа ургуулан тодруулсны үндсэнд “ганзага", "ганзгалах" гэдэг нь "олз омог", "сүлд хийморь"-той байх, эсэх, улмаар бэлэг сэлт зорьсон ажил хэрэг бүтэмжтэй байх, эсэхийн бэлгэдэлтэй холбоотой болох нь тодрох учиртай байна. Ингэхлээр дээрх хэллэгүүдээр илрэх утга нь "ганзага" гэдэг үгийг "эмээлийн хавтасны өмнө, хойдод бэхлэн унжуулсан сур" (МХДТТ: 474) гэсэн шууд утга "ан гөрөө, аян замын олз омог" (МХДТТ, мөн тэнд) гэсэн шилжсэн утгастай ямар учир холбоотой ямар зэргийн хийсвэрлэлтэй болохыг нягтлан толины тайлбарт тусган о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ж байгаа билээ.

Үүнчлэн "тос гүзээлэх гээд тугалаа гүзээлэх" гэдэг зүйрлэсэн хэллэг, "гүзээ шороодох" гэдэг өвөрмөц хэллэг "сүүгээ гашилгахгүйн тулд аргалаа сайн шавах хэрэгтэй" гэсэн энгийн өгүүлэмж зэрэг нь мал ахуй эрхэлж, малын ашиг шимийг ашиглаж, мал сү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 ажил үйл нь нүүдэлчин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амьжиргааных нь нэг үндэс болж дээрх хэллэг тус бүрийн цаана тус тус өвөрмөц үйл ажил, зан үйл байдгийг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лах нь хэл соёл судлалын (Маслова.2002:108-110) үүднээс чухал учир холбогдолтой болж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тос гүзээлэх гээд тугалаа гүзээлэх" гэхэд

- Боловсруулсан тосыг хонь, ямааны гүзээг цэвэрлэн хатааж, түүндээ хийж хурааж хадгалдаг;
- Тосыг хийхдээ сүүгээ хөөрүүлж, өрмий нь аваад, өрмөө ээзгийтэй хольж чанаж, хайрах аргаар тос боловсруулдаг;
- Арвин их тос хураах гэж шунаглаад тугал нь хөхөх сүүг шавхаад байвал тугал нь өсөн төлжиж тарга тэвээрэг авах нь байтугай өлдөж өлсөн, турж эцэн үхэхэд хүрнэ.

Ингэхлээр “тос гүзээлэх" гэсэн биш "тугалаа гүзээлэхэд" хүрнэ гэсэн санаа бүрэн ойлгох "дэвсгэр мэдлэг" (Е.М.Верашагин, В.Г.Костомаров нарынхаар "Фоновые знание") зайлшгүй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но.

Иймээс дээрх хэллэгийн утгыг "шунахаасаа хохирох", "хүсэл сэтгэл, хэрэг ажил хэмжээ хэрээсээ хэтэрвэл гай зовлон болно" гэх юм уу "Шунал ихэдвэл шулам болно" гэх зэргийн дүйлгэсэн тайлбар нь уг хэллэгийн ерөнхий утга санааг тодорхойлоход дөхөмтэй боловч тухайн хэллэг ямар мэдлэг туршил, ямар зан үйл, ухаарал ойлголтоос үүдэлтэй болохыг мэдэхэд учир дутагдалтай болдгийг тользүй нөхөн гүйцээх нь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гэж үзэж байна.

3. Хэлц нэгжийн тользүйн өөр нэг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бол ихэнх өвөрмөц хэллэг нь харилцааны явдад тэр чигээрээ сэргээн хэрэглэгдэх боломжтой, өөрөөр хэлбэл, бүрэлдүүлбэр нь тодорхой, хэвшин тогтсон байдаг бол зарим тогтвортой холбоо үг зөвхөн хэвшмэл хэллэ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л тохиолдохоос биш дангаараа хэрэглэгдэхгүй онцлогтой байдгийг бас авч үзүүштэй байгаа билээ. Жишээлбэл,

"Хутгаа билүүдсэн хүн мах иддэг

Хэлээ билүүдсэн хүн ял иддэг" гэсэн зүйрлэсэн хэллэгийн дотор "хэлээ билүүдэх (хэл амаа билүүдэх)" гэсэн тогтсон бүрэлдүүлбэртэй, энэ хэлбэр бүтцээрээ сэргэн хэрэглэгддэг хэллэгээс гадна "мах идэх" гэдэг холбоо үгийн адилслаар үүссэн “ял идэх" гэдэг болзмол хэллэг" үүссэн байна. "Ял идэх" гэдэг нь "ялд унах", "ялд орох", "ял амсах", "ял эдлэх" гэдэг хэллэгүүдтэй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ялангуяа "ял эдлэх"- ийн өөрчлөл бүтэц болж үүссэн байна. Ингэхлээр өвөрмөц хэллэгийн "ял" толгойтой хэллэг эсвэл "идэх" -тэй хэллэгийн алинд ч энэ "ял идэх" гэдэг хэллэг байхгүй боловч гагцхүү дээр жишээлсэн хэвшмэл хэллэгийн дотор энэ л хэлбэр бүтцээрээ тохиолддог учир түүнийг хэлц нэгжийн утга, үүргийн бүрэн тайлбарт оруулан жишээлэн тодорхойлбол зохисто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Тайлбар толийн дотор тохиолдох хэлц нэгжийн тайлбарт түүнийг харилцааны тодорхой орчин нөхцөл, зорилгод нийцүүлэн өгүүлэгчийн сэтгэл хөдлөлийн байдал, үнэлэмж, яруу илэрхийлэх чадамж зэрэг хамсмал утга

(коннотаци) – ийг давхар тэмдэглэн тодорхойло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Ингэхлээр тухайн өвөрмөц хэллэг, хэвшмэл хэллэгийг бичиг зохиол, аман ярианд хэрэглэх үүрэг зорилгыг зөв таних, зөв зохистой хэрэглэж сурах хэрэгт тустай болсо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Нөгөөтээгүүр, хэлц нэгжийн хэрэглээний үүргийг зөв тодорхойлох нь уг нэгжийг монгол хэлнээс гадаад хэлээр орчуулах, эсвэл гадаад хэлний тухайн хэлцийг монголоор зөв оноон орчуулах, утга үүргий нь зөв тодорхойлоход дөхөм болох юм.

Summary

Хэлц нэгжийн утга, дотоод хэлбэр, агуулга гэдэг бол үндэстнийг соёлын үүднээс товойлгон тодорхойлж болох дүр гэж үзвэл хэлц нэгжийн утгыг тайлахад тухайн хэлийг төрөлх хэлээ болгосон үндэстний бүтээн уламжилж ирсэн эдийн ба оюуны соёлын зүйл хэлээрээ яаж утгажин илэрдгийг харж болно.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 сэтгэлгээний дархлаа нь хэл, харин хэлний дархлаа нь хэл соёлын үнэ цэнэ тогтворжин шингэсэн хэлц нэгж байдаг гэж үзэж болно.

Тайлбар толийн дотор тохиолдох хэлц нэгжийн тайлбарт түүнийг харилцааны тодорхой орчин нөхцөл, зорилгод нийцүүлэн өгүүлэгчийн сэтгэл хөдлөлийн байдал, үнэлэмж, яруу илэрхийлэх чадамж зэрэг хамсмал утга (коннотаци) – ийг давхар тэмдэглэн тодорхойлох хэрэгтэй. Ингэхлээр тухайн өвөрмөц хэллэг, хэвшмэл хэллэгийг бичиг зохиол, аман ярианд хэрэглэх үүрэг зорилгыг зөв таних, зөв зохистой хэрэглэж сурахад тустай зүйл болно юм гэж үзэж байна. Нөгөөтээгүүр, хэлц нэгжийн хэрэглээний үүргийг зөв тодорхойлох нь уг нэгжийг монгол хэлнээс гадаад хэлээр орчуулах, эсвэл гадаад хэлний тухайн хэлцийг монголоор зөв оноон орчуулах, утга үүргий нь зөв тодорхойлоход дөхөм болох юм.

Ном зүй

1. Баянсан Ж. (2002) Соёл, хэл,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 Уб.,
2. Верашагин Е.М, Костомаров В.Г (1983)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Москва
5. Маслова В.А. (2001)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я. Москва
6.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толь (МХДТТ). (2008). Уб
7. Телия В.Н (1996) Рус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 Семантический, прагматическии и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Москва

Б. Хишигсүх

(B.Khishigsukh) MUIS

현대 몽골 문예에서의 칭기스칸의 모습

서론

문예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현자와 문호들이 “역사적 위인들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는 책임감이 높은 일이 그들 노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서 세계 “천년의 인물”로써 인정 되어진 위대한 위인으로서의 칭기스칸의 모습을 문학, 예술 작품으로 만나 볼 수 있게 된지 수 십 년이 지났다. 필자가 이번에 칭기스칸의 모습을 명확하게 집어내어 현대 몽골 문학과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그를 그려내고, 집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최근 20여 년 간에 몽골 문예에 칭기스칸을 어떻게 묘사하게 되어 왔는지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에 С.Лочин “집 터”, Ш.Нацагдорж “칭기스칸”, “칭기스칸의 이야기” 소설, О.Дашбалбар “후엘룬 부인”, Г .Мэнд-Ооёо “Найман шаргын амьдрал”, Д.Намсрай “Тэмүжин хөвгүүний өчил”, С.Пүрэв “Эзэн Чингис” 단편소설, Я.Ганбаатар “Чингисийн хэрмэн зам буюу дэлхийн бүслүүр”, Т.Мандир “хорин нэгэн хөрөг”, Ж.Дашдондог “тэмүжин дуурь”, Ш.Сандуйжав, Ч.Сангидорж“Чингис хаан” Ж.Саруулбуяны шүлэг, Т.Насанбуяны ая “Хаан Чингис” (1992), Т.Эрдэнэ-Очирын ая “Хас Зэндэр Чингис хаан” (2003),

Ц.Эрдэнэбатын "Чингис хааны суу билиг оршвой" (1998), Д.Төрбатын "Чингис" дуурийн цомнол (1999), С.Эрдэнийн "Тэнгэрийн хөвгүүний эцэслэл" (1997), Д.Чойжамцын "Мянганы хүн Чингис хаан" (2001), С.Товуудоржийн "Сүүн цацлагатай уул" (2003), П.Бадарчийн "Чингис" дуурийн цомнол (2003), Н.Нагаанбуу, Д.Энхдаваа нарын хамтын бүтээл "Чингис хаан" (2005) хүүхэд багач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гарын авлага, Д,Ившин "Тэмүжин Чингис хаан" (2006) зурагт тайлбар бүхий бүтээл, Д.Пүрэвдоржийн "Хархорин" дуурийн цомнол (2006), Б.Лхагвасүрэнгийн "Атга нөж" (2006) жүжиг, Дам.Жамъянгийн "Чингис хааны мэнгэ" (2006) роман, "Гэгээн Чингис хаан" (2006, найруулагч И.Нямгаваагийн хамт) кино зохиол, С.Жаргалсайхан, Л.Удвал нарын "Чингис хааны нууц түүх" (2006) роман, С.Цэрэндоржийн "Чингис хааны сүүлчийн зун" (2007), найруулагч И.Нямгаваа, Японы продюссор Кадаково Харүки нарын "Бөртэ чоно Чингис хаан" (2007) хамтын кино, Л.Эрдэнэбулганы "Үхэж үл болно" 영화 등 오늘날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은 소설, 시, 산문뿐만 아니라 오페라, 무대, 스크린 작품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 국내외의 적지 않은 작가와 학자들이 칭기스칸의 몽골과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과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써 왔으며, 그가 역사적인 위인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을 집필해 왔다. 또한 19세기 문학의 거장인 В.Инжаннаши 가 "их Юан улсын мандсан төрийн Хөх судар" (대원 제국 발달의 청사)라는 유명한 작품에서 묘사된 칭기스칸의 "예술적인 모습" 처럼 모든 측면에서 명료하게 묘사한 작품은 오늘날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 작품에서 예를 들어보면 나코 부자의 외아들이자 칭기스칸의 생전 친우인 대의회의 아를루드 보오르초를 이렇게 기술하였다.

Эрдэнээр цогцолсон цогт Сүмбэр уул мэт эзэн мину

보석으로 한데 모인 장엄한 Сүмбэр 산 같은 군주여
Эрхээр бүтсэн суут Сүн далай адил эзэн минy
권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Сүн 바다와 같은 군주여
Өдөр шөнийн одон гарагаар хүрээлсэн эзэн минy
밤낮의 별들로 둘러 싸여진 군주여
Эрхэм суут Богд Чингис хаан эзэн минy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칭기스칸이여
Хаан хүмүний гучин зургаан чухлыг хамгаалж
왕이 갖춰야 할 36가지의 품위를 지키고
Хас төрийн хууль ёсоон хурц чанга тэгшитгэж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국법으로 예리하고 엄중하게 다스리고
Хамаг улсын үр ачийг өргөн хүмүүжүүлэн сургаж
온 나라의 자손을 널리 교육시키고
Хамт бүхэн үлс иргэнээн амар энх бологтохуй ...,
모든 나라의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1957.1280)

라고 하였으며, 후에 칭기스칸의 군 원수, 뛰어난 장수들, 영웅인 토르곤샤르, 무칼리, 보으로초, 젤메, 하라 히로, 추 메르겐 등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기록에 의하면 작가는 비유적 표현과 점층적인 기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흥미롭다. 나아가서 칭기스칸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보름달 같이 흰 얼굴, 밝게 빛나는 용의 눈, 항 가루다 새의 두 눈썹처럼 넓고, 코는 성산처럼 높으며, 입술은 터키석의 언덕처럼 두껍고, 얼굴은 네모나며, 등은 길고, 귀는 크고, 가슴은 넓고, 열 걸음 뒤에서도 후광이 비춰졌으며, 향후 나라의 제왕이 될 덕목이 많다” 라고 기술했다. 이렇게 칭기스칸의 모습을 19 세기의 몽골 문학에서 특히 역사서나 예술 문학작품에서 예술적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끌어 올렸으며, 이 작품에서 표현한 기법들은 오늘날 몽골의 역사, 예술작품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또한 몽골의 현대문학 중 특히 Д.Пүрэвдорж 시인이 1962 년에 지은 “칭기스칸”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저술하고 있다.

Тэмүжин-нумын хөвчнөөс төрөөгүй юм
테무진, 그는 화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Тэмүжин-сумын зэвнээс гараагүй юм

테무진, 그는 화살촉에서 나오지 않았다.
Тэмүжин-Өэлүн эхээс төрсөн юм
테무진, 그는 후엘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Тэмүжин-өрлөг түүхээс тодорсон юм..,
테무진, 그는 위대한 역사에서 등장하였다.

이런 찬양의 시를 그는 지음으로써 역사적인 위인이자 몽골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군주임을

...Ямар ч байсан Чингис Хан-Гарьд шиг хальж
어떠하더라도 칭기스칸은 한 가루다 새처럼 죽었고
Ял гавьяа хоёроо хойч үедээ даатгасан юм
죄와 공적을 미래에 남기고 갔다.
Гал усанд элэгдсэн буурал замбуутивийн магнайд
불과 물로 헤진 회색의 세계의 우두머리에
Ган сэлэмнийхээ ирээр Монгол гэж бичсэн..,
강철의 칼날로 몽골이라고 새겼다.

라고 칭기스칸의 수 많은 업적과 역사에 대해 탁월하게 지음으로써 예술 작품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Д.Пүрэвдоржシ인은 "칭기스칸" 시에서 몽골 문학의 전통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였다.

Тулгар төрийн баганыг хорол тоононд өргөн
나라의 기둥을 게르 위에 받치고
Туурга тусгаар Монголын голомтыг тэр тулсан юм
독립된 몽골의 터를 그는 지탱하였다.
...Омог билгүүн төгс тэнгэр эзний жигүүрт
자부심이 넘친 하늘 군주의 날개에
Од мэт сарнисан овгийн өд гуурсалж
별같이 흩어진 씨족들의 깃털이 자라
Хөнөөх аюул нөмөрсөн ахуй цагийн үймээнд
외부의 위협에 감싸이는 위험 속에

Хөө хуяг нөмөрсөн их Монгол дэвссэн юм..,
그을린 갑옷을 덮은 대몽골이 깔았다.

또한 위와 같이 칭기스칸이 몽골제국을 통치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시기를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Хөх монголын дэвээн тэнгисийн шуургыг яржв
푸른 몽골의 움직임이 바다 물결을 헤쳐
Хөмхий зуусан ертөнц Чингисийн өмнө сөхөрсөн юм
입술을 깨문 세계가 칭기스 앞에 굴복하였다.
Хүлэг морьдын туурай өрнө Дорныг цөмлөж
군마들의 발굽이 서동을 뚫고
Хөл нүцгэн хорвоо халуун нурам гишгэсэн юм..,
맨발의 세계가 뜨거운 재를 밟게 되었다.

위와 같이 행에서 행, 절에서 절로 점층적인 기법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기술한 유명한 시인인 Д.Пүрэвдорж 의 “칭기스칸” 시구에 도달할 작품은 아직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며 예술적이다.

칭기스칸은 몽골인들이 수세기 동안 존경하여 하늘처럼 숭배하고, 후세에도 존경할만한 위대한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참된 현자였으며, 군대의 뛰어난 장군이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작품 속에서 칭기스칸의 모습을 영원히 그려 남기기 위해 그 파란만장한 그의 놀라운 삶의 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나. 산문에서의 칭기스칸의 외형

몽골의 현대 문학에서 소설, 중편소설, 자서전, 단편소설이 집필된 중 С.Лочин “Галголомт”(1989),Ш.Нацагдорж “Эзэн Чингис”(1989), “Чингис хааны цадиг”(1990), Д.Чойжамц“Мянганы хүн Чингис хаан”(2001), С.Товуудорж “Сүүн цацлагатай уул”(2003), С.Хишигсүрэн “Хулан хатан”(2003), Д.Жамъян “Чингис хааны мэнгэ”, С.Жаргалсайхан(2006), Л.Удвал “Чингис хааны нууц түүх”(2006) зэрэг роман, С.Эрдэнэ “Тэнгэрийн хөвгүүний эцэслэл”(1990) түүж, С.Пүрэв “Эзэн Чингис”(1990)өгүүллэг, Д.Намсрай “Тэмүжин хөвгүүний өчил”(1990) 등이 출판되어 학자들과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학자이자 작가인 С.Лочин 이 “Гал голомт”(집터, 1989) 소설에는 칭기스칸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역사 문헌에 근거하여 자무카와 칭키스칸 둘의 관계에 대한 혼란의 문제를 제기하고 칭기스칸의 모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무카를 흥미롭게 묘사한 것은 역사사실을 미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타이초 족에서 도망쳐서 부르칸 칼둔 산에 9일 밤낮으로 먹을 것 없이 숨어 살며 목숨을 근근이 이어갔었던 역사 사실을 근거로 테무진의 외형으로 (69,70) 그의 신중한 성격과 인내심, 사려 깊은 마음을 드러내, 주인공의 내세를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Ш.Нацагдорж 학자가“Эзэн Чингис”(1989) 장편소설에서 “몽골 비사”명작에 나오는 쿠쿠 초스가 한 시구를 인용하여,

... Хаан богд эцэг чинь
그대 칸 아버지가
Хамаг улсыг байгуулахдаа
온 나라를 통합할 때

Хар толгойгоо хайрлахгүй
목숨을 아끼지 않고
Халуун цусаа гамнахгүй
뜨거운 피도 아끼지 않고
Хамхих нүдээ ирмэхгүй
눈 감지도 않고
Гарын ханцуйг дэрлэж
옷소매를 베개로 삼고
Гадаад хормойгоо дэвсэж
입던 옷을 깔고
Шүлсний хөөсөөр ундалж
침을 삼키며
Шүдний махаар хооллож
치아의 찌꺼기로 먹이를 삼아
Магнайн хөлсийг гоожтол
이마의 땀을 흘리면서
Мацаж чармайж явахад
고생 속에 시달려 가는데
Улны хөлсийг урстал
손발이 지치도록
Улсаа хурааж явахад
나라를 세우며 싸우는데
Хайрт хаман эх чинь
사랑하는 그대 어머니가
Хамт зовж явээ..,
함께 고생하며 살았다. (1990.228)

그는 위 화제를 이용하여 “... 얼어붙은 눈을 발로 긁어 모으고, 땅에 깔개를 골반 뼈 위에 말리고, 치아의 찌꺼기로 밥을 먹으면서, 침으로만 목을 축이며 간다..,” 라고 하면서 В.Инжаннаши 의 “대원 제국 발달 청사” 에 기술된 것처럼 “칠린” 이라는 명성 있고, 지혜로운 영양에 대한 상징적인 기술의 화제를 (“청사” , 33-34) 인용하여 칭기스칸이 이 영양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칭기스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용맹함을 보여주었다.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의 외형을 그려내, 고대 문학작품에 전래되어온 기법들을 탁월하게 이용하여 기술하고, 주인공을 묘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В.Инжаннаши 가“Хөх судар”작품 속에 정확하게 증명하였다.(2005. 162)”한 것에 의하면 더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목민의 상류층들의 세계 정신문화에 기여한 작품 중의 하나는“몽골 비사”이며, 다음으로 작가 В.Инжаннаши의 “대원 제국 발달의 청사”라는 소설을 들 수 있겠다”(2005.162-163)고 본다.

Ш.Нацагдорж 학자의 “칭기스칸”(1989) 소설에서 칭기스칸의 외형을 이렇게 묘사했다. “찬 춘이 칭기스칸에 대해서 처음에 도리를 모르며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몽골의 제왕을 보고 그의 위엄에 대단히 위협을 받았다. 칭기스의 7척 정도되는 신정과 넓은 이마와 갈색 빛의 얼굴과, 희끗한 수염이 있는 모습과 위엄 있는 눈빛과 날카롭고 거칠지만 가끔은 매우 온화하고 특히 미소를 지을 때 두 눈꺼풀에 작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 유독 마음에 든다. 몸에는 노란색 견직물을 걸치고 머리에는 흰색 매의 모자를 쓰고, 보석이 박힌 황금 허리띠를 메고, 발에는 영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전해진다. 또 Ш.Нацагдорж 의 “칭기스 칸의 역사”(1990) 소설은 몽골역사의 근원인 “몽골 비사”에서 역사사실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소설이라기보다는 운문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에 칭기스칸의 모습을 미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본다.

칭기스칸의 모습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칭기스칸의 “상징성”이며 테무진이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난 것은 “하늘의 낙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티이초 족에서 도망쳐 부르칸 칼둔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집채 만한 돌”이 굴러 와 길을 가로막고, 이것을 하늘의 깊은 뜻이 아닌가 하여 번복하는 상황, 하나의 뿔이 있는 달아난 영양과 예감, 신앙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지침을 따라 저술한 작가 Д.Жамъян “Чингис хааны мэнгэ”(칭기스칸의 사마귀)(2006)는“예언적이며 직감”의 소

설이다. 이 소설에서 칭기스칸이 평범한 한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며“이때 하늘 오른쪽에 구름이 모았다. 우유거품 같은 구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칭기스칸 눈 앞에 구름 모습이 아버지 예수게이 바타르로 변하였다. 넓은 어깨와 광대뼈, 실눈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나게끔 만들자 칭기스가...“아버지의 영혼을 누가 불렀나”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2006.15) 고 기술되어 있고 나아가 아버지께 흩어진 백성들을 한 데 모아 살 것을 약속으로 말씀 드리자 아버지는 “늑대까지 무리를 이루지 않았나. 푸른 늑대의 흩어진 무리를 그림자 남지도 않도록 모으소... 칭기스칸의 흰 얼굴이 미친 듯 뛰어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띠고 그의 두뇌 속으로“늑대는 무리를 이루면 강해지지 않는가”라는 쏘다니는 말이 스며 들었다”(2006.16) 등등 부적절하며 묘사의미와 맞지 않은 부분이 다소 보인다.

이와 반대로 상징의 모습을 지닌 주인공 모습을 기술하는데 탁월한 В.Инжаннаши는 상당히 빨리 이를 이해하고,“몽골 비사”에서의 “알란 미인의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들”을 미적으로 확대하여 자신의“대원제국 발달 청사”에서 “우겔룬이 칭기스칸을 얻어 임신한 당대 묘사를 “하루는 밤에 게르의 천장으로 황금빛이 쏜살같이 들어와 난로를 명중하자 게르안에 흰 빛이 가득 빛나며 서로 합쳐서 수은처럼 반짝거리고 백마를 타고, 갑옷 투구를 쓴, 9척의 키와 다섯 타래의 수염, 달 같은 얼굴과 별 같은 눈, 또한 손에 은으로 만든 강철 창을 든 황금색의 하늘로 변하여 바로 우겔룬 부인의 침대로 올라가자 우겔룬 부인이 놀라서 깨니, 꿈이 아지랑이처럼 사라져...(1.1957.94) 라고 기술한 것을 보면 예수게이 아버지의 외형만해도 위와 전혀 닮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이는 점은 몽골의 문학 전통성과 주인공의 대화, 몽골인의 사고 특성과 역사 인물의 모습을 문학작품 속에 어느 정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 발생이 있음을 보여 준다.

장편의 산문을 중심으로 꼭 다루어져야 하는 소설 중의 하나는 С.Жаргалсайхан, Л.Удвал 이 공동 기술한 “칭기스칸

의 비사”(2006) 이다. 소설 전부를 보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칭기스칸에 대해 상업작품을 써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앞세워 더 유감스럽다. 작품 핵심은 칭기스칸이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묘사 하였다. 칭기스칸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첫째: 칭기스칸이 보르테에 대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테무진이 임신한 부르테를 날카롭고 사나운 눈길로 바라보며 적과 싸우려는 것처럼 칼을 들고 돌았다.”(2006.27) 라고 하였고 그의 이런 무섭고, 사나운 품성에서 충격을 받아 두려워한 보르테 왕비의 모습을 묘사할 때 “부르테는 속으로 이런 복수의 증오와 살육의 피로 물든 보르지긴 족에서 테무진을 떠나고 싶어했다.”(2006.28) 고 기술했다. 또한 부르테 왕비를 메르키드 씨족에게서 다시 되찾아 돌아왔을 때 임신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보오르초에게 맡기면서, “... 그 아이는 자라서는 절대 안 된다. 부르테가 울고 빌어도 그렇게 하라”고 테무진이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그 아이를 길 옆에 버리고 와라. 그 아이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2006.23) 라는 점은 테무진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짐승보다도 못난 성격을 가진 우둔하고 멍청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기술하려는 점이 아닌가? 저자들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여, 칭기스칸이 키아드 족의 귀족이자 초원의 영웅이었으며 용감한 에수게이 아버지가 정해준 부르테 왕비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말을 들어주었는지, 그리고 왕비 역시 칭기스칸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역사적인 세월을 동거동락하며 성장한 것에 관심을 쓰지 못한 점이 너무나 유감스럽다. **둘째:** 조치와 차아다이 둘의 문제는 “몽골 비사”를 비롯해 차아다이 와 조치는 “메르키드의 잡놈” 이라고 그들 출생에 대해 매우 거북스러운 말들을 던져,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칭기스칸의 아들 간의 갈등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 칭기스칸이 세운 대몽골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운명이 주어지지 않은 점은 이미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 이것을 확대시켜서 조치와 차아다이의 관계를 흑백논리로 하고 (자무카의 군영에서 조치가 “물고기 눈”의 타투 덕분에 차아데이가 동생과 함께 도망쳐 집에 온 것을 (2006.37) 제외하면) 임의적으로 조치를 차아다이보다 외모마저 강하게 보이기 위해 “키가 큰 초지와 말뚝같이 생긴 차아다이가 눈에 빛을 붉히며 부모 앞에서 있었다. “(2006.36)” 라는 기술은 묘사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셋째:**

성관계 면에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표현한 점이다. 작품 중 이 부분에 대해 과도하며 무례하게 표현하였고 이는 부르테 와 예수겐, 그리고훌란왕비를 통해 칭기스칸의 역할을 이에 끌어내려 망쳤다. 예를 들면, 초원의 귀족이자 학식이 높은 (B.Injinnash의 "대원 제국 발달의 청사"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동일한) 대 세첸의 딸 부르테를 성욕이 넘쳤을 뿐 아니라 비 정상적인 여자처럼 기술하고, "..미친 듯한 욕망에 빠져 오래 지나지 않아 부르테는 만족스러움을 느껴 소리 지르며 실신 하였다. "(2006.29) 라고 하며 "테무진은 부르테가 요구 한 대로 그들 눈 앞에서 예수겐을 능욕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극단적으로 테무진에게 또는 부르테에게 그리고 예수겐에게 예리한 성감을 불러 일으킴을 그 셋이 느꼈다. 조금 후에 정신을 되찾은 부르테가 그들의 관계를 몸으로 느꼈다. (2006.42-43) 라고 하였다. 나이가 든 부르테 가 후에 칭기스칸이 젊은 여성들과 놀아나는 것을 앞에서 보고 술을 홀짝거리는 일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만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간밤에 놀아난 여자들을 희생물로 바쳐 젊은 여성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등 위의 표현들이 너무나도 극단적이며, 질 떨어진 표현의 집합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저자들은 칭기스칸의 외모를 기술할 때 훌란 여인과 칭기스칸이 야외 군정에서 처음 만난 그 시기의 모습을 … " 키가 작으며 머리는 떡 졌으며 늙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정말 무서웠고 이마와 볼이 뚫어질 것만 같았다. 그 사람 몸에서 말의 땀과 불씨의 냄새가 났다." (2006.259) "다수를 감탄시키고, 협박시키고, 다수를 짓누르는 칭기스칸이라고 해도 너무나 못난 작은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 (2006.260-261) 라고 썼다. 계속해서 메르키드의 귀족 다이르 우순의 딸 훌란이 겁도 없이 칭기스칸의 옷을 벗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의 하녀가 눈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연관 있다는 식으로 저자들이 기술했다. 또 한 가지 후엘룬 어머니의 삶의 일부분이다. 예수게이 바트르가 타타르족에 피살 당하여 죽은 후 그는 한 동안 남자와 접하지 않아 정신병에 걸렸으며 뭉릭와 소치갈 둘의 남녀관계를 알게 된 후 " 눈을 감자마자 소치갈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눈 앞에 보이고 , 뭉릭의 건강한 몸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 시달렸다." (2006.158) 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자마자 뭉릭의 마음 속에서 예

수게이의 혼이 떠나 후엘룬의 부드러운 몸과 심장맥박소리만 느껴졌다. 후엘룬이 이리하여 뭉릭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2006.162) 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술 하였다.

“몽골비사” 등 역사기록 속에 남겨진 “현명한 후엘룬 부인”, “영리하게 자란 어머니” 라는 사료 속의 전통적인 묘사와 정반대의 모습을 띈다.

칭기스칸의 생애와 관련된 또 하나의 역사 인물은 일곱 콩코탄의 아들 중의 하나인 샤먼 쿠쿠추 텝 텡게리이다. 외 작품에서 그를 사람도 아닌 욕정이 넘쳐 짐승같이 보여,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람들로부터 숨겨 놓고 “북 쪽을 향한 산 바위에 작은 마구간 하나를 지어 암컷 말을 끌고 가서 관계하며 살아라” 라고 자기 아들을 임시적으로 고생으로부터는 피신시켰다. (2006.136-137) 라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무카가 뭉굴링 미인에 대한 행위, 보오르초가 “코가 높은 목소리가 큰 여자” 외국 여자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나이만의 구르베수 왕비를 칭기스칸이 강간하여 군인들에게 던져 준다는 것 등 본 작품 속에 역사 인물들 특히 칭기스칸의 측근들, 그의 어머니와 국가 대 왕비, 그의 친우들과 국가 샤먼까지 남녀관계가 문란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몽골 국가 전통의 3가지 보물의 하나인 왕비의 가치성을 격하시켜 몽골의 전통 신앙심인 샤먼 또한 무시 하고 , 나아가 그 것으로 인해 칭기스칸의 명예를 훼손 시킬 목적으로 위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겠다. 몽골 전통, 몽골 사고 방식, 몽골이라는 모든 것을 짓밟은 것은 아닌가? 달리 표현 할 말이 있을까? 칭기스칸은 위대한 역사인물인데 그에 대하여 이러한 작품을 쓴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미치광”임에 틀림없다. 하늘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둘. 무대, 스크린 작품에서의 칭기스칸의 서술의 문제

몽골 예술의 무대, 스크린 작품에 칭기스칸의 모습을 그려낸 가극대본 , 연극, 영화가 이미 대중화 되어 었다. 이에 J. Dashdordog의 '테무진” 가극 (1991), D. Turbat의 'Chingis' 가극 (1999), F. Badarch의 가극 대본, B.Sharav 의 음악'Chingis', D.Purevdorj의 'Harhorin' 가곡 대본 (2006) , D. Chinzorig 의 가극대본, S.Taraa의 음악 "칭기스칸 " 록 음악 (2006) B. Lhagvasuren의 "Atga nuj" (2006)연극, "Gegeen Chingis khaan " (2006, 감독 I.Nyamgawaa 공동 제작) 영화작품, 감독 I.Nymgawaa, 일본 감독 Kadakowo Haruki 와 함께 " 부르테 chono 칭기스칸" (2007) 공동제작 영화, 작가 L.Erdenebulgan 의 "Uhej ul bolno, 칭기스칸" (2009) 등 있다. 위 작품 중 "오페라 극장" 과 함께 공동 협작 한 F.Badarch 의 가극대본인 "Chingis" (2003) 가극은 각 오페라의 재산으로 새로 선보인 칭기스칸에 대한 최초의 가극이었다. 이 가극의 주연을 가수 Ts. Tuvchintugs 가 맡았고, 가극예술에 칭기스칸의 모습을 영리하고 용맹한 자로 표현했다. 본 오페라는 2막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대 몽골제국 건국 800주년을 맞이하여 2006년 05월 26일에 열린 B. Lhagvasuren의 "Atga nuj(핏덩어리 한줌)" 이라는 연극이 있다. 제작자는 이 연극을 "번성의 비극" 이라는 장르로 명칭하고 본 연극의 주인공인 Bogd 칭기스칸의 역에 배우 L.Sosorbaram 이 연기했다. 또한 무대를 제작 할 때 특이한 방법을 썼는데 예를 들면, 칭기스칸이 장악한 아시아, 유럽 대륙을 지리적으로 내보이는데 생동감 있게 장식하였으며, 당시 몽골제국이 지배한 국가의 이름을 써서 지도 모양으로 무대를 구성하는 등 꽤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그림-1. “핏덩어리 한 줌” 연극의 표를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주인공의 이름, 주연 배우의 사진, 이름을 매끄러운 철판 위에 세기고, 모양은 gerege 형태로 하였다.)

배우 L.Sosorbaram이 주연한 칭기스칸의 배역의 경우 경망스러운 동작과 표정은 물론 연기력이 떨어지며, 늙어 보이는 외관, 특히 18살의 테무진의 배역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배우 S.Bold-Erdene 이 연기한 우구데이 카한의 배역은 꽤 극적이며 호전적인 영리한 지도자의 역을 해냈다. "핏덩어리 한 줌" 연극은 몽골의 공연예술, 특히 오페라 드라마에서 칭기스칸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보여줌을 노력함으로써 더욱 흥미롭다.

몽골인들의 역사 중 가장 기적하며 복잡한 시기의 짐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 많은 시련을 겪어낸 생애의 모든 업적과 실수가 분명해진 위대한 지배자의 모습을 스크린에 표현한 작품은 2007년에 나온 일본의 감독 Kadakowo haruki 와 감독 I. Nymgawaa 가 공동 집필한 " 부르테 치노 칭기스칸 " 영화다. 너무나도 길고 귀한 기다림 끝에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훼손함은 문학작품이라는 이름을 모욕한 놀라운 사례임을 위 작품에서 필자는 보고 느꼈다. 본 영화에 보여지는 문제는, **첫째:** 영화 속의 조치 카한을 테무진의 자식이 아니며, 이에 의심하던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해" 라며, 금 나라 왕의 군정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바위 속에 갇혀 죽게 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두 번째:** 메르키드 귀족의 다이르 우순 (그러나 그는 연극에 나오지 않음) 훌란이란 아름다운 딸을 데리고 칭기스칸에게 보여 주기 위해 찾아 갔는데, 시련의 시기에 나나야라는 장군의 도움으로 훌란여인이 칭기스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의 사랑하는 왕비가 된 역사사실을 무시하여 그 여인을 “사무라이" 처럼 보여, 칼까지 휘두르며, 전쟁터에 전방에 서서 싸우는 사람으로 보였다. **세 번째:** 아버지 예수게이 바타르가 홍 케레이드 족에서 신부를 구하러 갈 때 대 세첸의 딸인 부르테가 10 살이었고, 14살의 테무진이 부르테를 왕비로 맞이 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케레이드의 옹 칸을 자다란 자무카가 죽이지 않았다. **다섯 번째:** 테무진이 어릴 때의 친구인 자무카를 목을 졸라 죽이지 않았다. 자무카가 원하던 대로

대접하여 귀족, 초원의 영웅의 관습으로 그를 피 흘리지 않게 죽인 사실이 있다. **여섯 번째:** 키아드 보르지긴 족의 예수게이 바타르가 후엘룬 부인을 길 도중에서 납치하여 왕비의 자리에 앉혔으며, 후엘룬 부인이 예수게이를 저주하고, 앙심 품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다.
일곱 번째: 테무진은 자신의 계보와 부르테 치노의 후손, 또는 예수게이의 맡아들임에 헷갈린 적이 없었다. **여덟 번째:** 키아드 계 보르지긴 족의 예수게이 바타르가 올코누드 족의 미녀 후엘룬 부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후손들이 역사 무대에서 빠지지 않고 대 몽골 건국 후에도 영원한 하늘을 숭배해 온 몽골인들에 있어서 당시에 운명적으로 만난 것으로 본다. **아홉 번째:** 칭기스칸을 낳고 키운 후엘룬 부인을 통해 그의 아들을 “부르테 치노의 후손들은 살인자”라고 저주하도록 한 것. **열 번째:** 대본 속에 몽골인들의 수천 년을 거쳐 만들어낸 초원 유목민의 어마어마한 전통 예술의 한 장면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도 없었는데도 이러한 스크린 작품이 낳게 되었다. 역사 진실을 왜곡하는 본 대본에 칭기스칸의 "성품" 은 인공적이며, 매우 죄를 범함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배역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제작하였기에 문학 작품성이 없다고 본다. 작가 D.Erdenbulgan의 "Uhej ul bolno 칭기스칸"(죽어서는 안 된다, 칭기스칸) 영화작품은 그 다음이다. 여기에 칭기스칸의 배역을 배우 Ts.Tumurbaatar가 맡았다. 그는 영화 초반에 (당대 부르테가 메르키트족에게 납치 당하였을 때) 운명으로 받아드린 것으로 나오지만, 굳건한 모습으로 키아드 계의 번창을 위한 사명감을 띄고, 배역에 있어서 심리적인 성장을 보여 나간다. 하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배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주의가 부족하였으며 배우의 연기력 외에 태도, 외관, 감정, 나이 제한 등은 스크린 방영에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임을 무시하여 만들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주인공 선정의 경우 칭기스와 자무카 둘의 모습 (배우 Ts.Tumurbaatar , D.Tserendagva) "노쇄해” 보였고, 옹칸과 (배우 H. Tsolmonbaatar) 그의 아들 셍굼 (배우 L.Demidbaatar) 들의 배역은 귀족 역할이기보다는 매우 조악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작품에 허구적이며 냉소적인 표현들이 꽤 나왔다.

3. 시공간 예술에서의 칭기스칸의 묘사

몽골에서 지금 칭기스칸의 모습을 시공간 예술의 장르 중의 하나인 조각으로 설립한 몇 개의 “동상”과 “기념비”가 있다. 첫째 동상은 1962년 칭기스칸 탄생 8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 시행령에 따라, 국가드라마극장의 화가 Л.Махвал (그는 상 페르르부르그 레핀 아카데미 졸업)이 헨티 아이막 다달 솜에 구르반 노르에 동상을 세웠다. 또는 헨티 아이막 다달 솜 중심에 칭기스칸의 박물관이 있는 광장에서 테무진의 어릴 때의 모습을 활과 화살을 든 것으로 세운 동상이 있다.

칭기스칸의 모습을 화가, 예술가들이 그려낸 것 중 T.Mandir 의 "21개의 초상화" (1990)에 그려진 칭기스칸의 초상화가 있으며 이 전에 화가 U. Yadamsuren의 "칭기스칸의 초상화" 는 초기 초상화를 바탕으로 본 받아 그린 보다 깊은 조사 끝에 만든 것을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다.

(그림 2. 화가 Ү.Ядамсүрэн이 그린 “칭기스칸의 초상화)

Ү.Ядамсүрэн이 그린 “칭기스칸의 초상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을 나타냈다. 화가는 칭기스칸의 초상을 40 여 년 동안 6 가지의 형태로 그렸다는 사실이 있으며 이제 대만에서 보관되어 있는 그림에서 본 떠 그린 그림으로 관습화 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몽골인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몽골인의 그림보다는 중국인의 모습에 가깝게 그려졌다고 보는 것에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위 초상화를 그려 남긴 시대의 경우 초상화 색의 조화와 화가의 능력부족 등 몇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화가 Ү.Ядамсүрэн이 그린, 흑백으로 전례 되어 온 “칭기스칸의 초상화”는 상당히 특수하고, 몽골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를 주시하면 “넓은 이마, 짙은 눈썹, 눈의 모양과 시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불과 같고, 튀어나온 광대뼈를 뚜렷이 그렸으며, 수염과 코끝, 그리고 굳게

다문 입술을 장엄하게 표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헨티, 다달 솜 소재 칭기스칸의 동상. 1962년)

대 몽골 건국 800주년과 칭기스칸 탄생 840주년 기념을 각 행사를 통해 기념하고, 정부의 법령에 따라 울란바타르시에서 칭기스칸의 기념비를 국회의사당 앞에 설립하였다.

(그림 4. 몽골 국회의사당 앞의 칭기스칸 동상)

툽 아이막 에르덴 솜 소재 촌진 볼독 에서“말을 탄 칭기스칸의 동상”휴양지가 설립되었다. 위 동상은 40m 높이의 전체 212헥타르로 매우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다. 거대한 이 동상 유적지는 250 톤 가량의 철로 제작되었고 건축 과장으로 Д.Эрдэнэбилэг이 활동하였다. 기념비는 2008년 9월 26일에 개관하였다. 칭기스칸의 위 동상의 특성은 “채찍을 든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부르칸 칼둔산”,”델리운 동산”,”케룰렌 쿠두에 섬”등 먼 곳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립하였다.

(그림 5. 툽 아이막 에르덴 솜 소재 촌진 볼독 휴양지)

어느 나라에서도 역사 위인의 모습을 그려내 실현한다는 것이 그것을 창조하는 예술가로부터 많은 경험과 연구를 요구한다. 위에서 우리는 현대 몽골 문학과 예술에서 칭기스칸의 모습을 어떻게 창조하고 집필해 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다.

현대 몽골 문예에서의 칭기스칸의 모습을 창조하고 있는 그간의 경험과 업적을 바탕으로 창조 묘사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독립된 몽골의 역사 번창의 사실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도록 하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정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

다. 부정적인 것은 몽골 선대들이 이룬 역사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후에 고쳐지기가 힘든 와류 속으로 끌고 갈 위험이 많다고 본다.

위 몇 가지의 지적한 점에 의해 결론을 내리면 아래와 같다.

하나. 칭기스칸을 묘사하는데 “과감하게” 기술하여, 역사 사료, 관련 진실을 무시하여 온 관계로 현재까지 논쟁 없이 전래된 몽골의 귀족들의 역사사료이자 800년 전의 “몽골비사” 명작 속의 불변 사실들이 이제 잊혀질 위험에 가까워졌다.

둘. 몽골의 현대문학 작품 속의 시와 서사시 (연극, 가극) 또는 스크린 작품에서의 “칭기스칸의 모습”을 실현하는데 너무 치우쳐, 흠이 하나도 없는 위대한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보여 주거나 아니면 그를 잔인하고 거칠고 방탕하며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여 “거래의 예술”의 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점에 너무나 안타깝다.

셋. 칭기스칸의 예술적인 모습을 창조할 때 조사 없이 경박하게 하는 관계로 그의 역사 인물이란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넷. 칭기스칸의 모습을 문예 작품 속에서 창조하는데 그의 생애 특히 당대 (후엘룬 부인, 보오르초 영웅, 부르테 카툰, 자무카, 옹 칸, 찬 춘 봄보, 어린 셍굼 등) 역사인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자유 사고력”이름 하에 나름대로 묘사하는 점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

다섯. 몽골의 현대문예 작품에서 다소 등장하는 특이한 묘사, 예를 들면 예언과 전설,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기법을 통해 칭기스칸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 주려는 탐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몽골비사”뿐만 아니라, “금사”, 사강 세첸의 “보물 같은 약사, “고대 몽골 카한의 대소설, “대원나라의 번창 청사” 등 작품 속의 묘사와 역사 사실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 외형을 더 실질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Б.Р.Зориктуев (Орос Холбоот Улс)

ЭРГҮНЭ ХУН ХААНА БАЙДАГ ТУХАЙ АСУУДАЛД

(Олон улсын "Эргүнэ-хун" экспедицийн судалгааны дүгнэлтээс)

Монгол судлалд одоо үед хачин байдал үүсээд байна. Үүнд судлаачид Хүннү, Сяньби, Жужааны түүхийг хангалттай мэддэг, түрэгүүдийн гарал үүсэл, угсаатны түүхийн тухай цэгцтэй мэдлэгтэй болсон атлаа монголчуудын эртний түүхийн тухай ямар ч мэдлэггүй байна.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угсаатны үндэс суурь хаана бүрэлдэн тогтсон, монгол хэмээх нэр хэзээ анх бий болсон, ямар утга агуулгатай үг болох нь одоо болтол тодорхойгүй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чуудын удам угсааны тухай домогт гардаг Бөртэ-чино, Хоай-марал нарын тухай, Чингис хааны дээд өвөг нар яагаад тэр хүмүүсээс үүсдэг нь ч тодорхойгүй байна. "Монголчуудын гарал үүсэл" хэмээх ухагдахуунд хамаарах эдгээр бүх асуудлын судалгаа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ч холбогдлоороо дэлхий дахины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нэг чухал асуудал болох Эргүнэ хунд тулж очдог.

Монголчуудын гарлийн үүссэн Эргүнэ хун хэмээх нутгийн тухай, энд монголчууд бие даасан үндэстэн болон бүрэлдэн тогтсон тухай хамгийн эртний мэдээ дэлхийн сонгодог сурвалж бичиг хэмээн зүй ёсоор үнэлэгддэг Рашид-ад-дины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байдаг билээ. Эрт балар цагт монголчуудын өвөг дээдэс түрэг овог аймгуудтай хийсэн дайнд ялагдаад, үлдсэн хэдхэн айл нь өндөр уулсаар хүрээлэгдсэн, хүрэхэд бэрх газарт очиж нуугдан амьд мэнд үлдсэн гэж тэр бүтээлд өгүүлсэн байдаг.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угсаатны эх үүсвэр болсон Дарлекин хэмээх омог үүссэн бөгөөд түүнтэй хамт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 үүсчээ.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эд Эргүнэ гэдэг газрын нэр бол орчин цагийн Хөлөн нуураас урсан гарч зүүн хойт хэсэгт Шилка голтой нийлж Амур мөрний эхэн болдог Эргүнэ гол мөн гэдгийг хөдөлгөөнгүй батласан байдаг.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Чингис хаан Ван-хан хоёр Койтен нутагт Жамухыг бут

цохиж Чингис хаан үлдснийг нь устгахаар Онон уруу ухарсан Тайчуудын Аучу баатарыг мөрдөн хөөжээ. Ван хан Эргүнэ рүү Жамухыг нэхэв" гэсэн байдаг [1, § 144]. Тэгэхээр Эргүнэ гэдэг бол Онон мөрөнд ойрхон орших одоогийн Эргүнэ гол мөн болох нь гарцаагүй.

Эргүнэ бол орчин цагийн Эргүнэ гол мөн гэдэг асуудлаар "Судрын чуулган" ч бас тодорхой төсөөлөл өгдөг. Чингис хааны төрсөн дүү Хасарын бэлчээр нутгийн тухай Рашид-ад-дин бичихдээ "түүний нутаг Монголын зүүн хойд хэсэг Эргүнэ ба Күлэ-наур, Киларын хооронд оршино" гэсэн байдаг [2, нүүр 52]. Күлэ-наур, Килар гэдэг нь Хөлөн нуур ба Хайлар гол байсан нь хялбар төсөөлөгдөж байна.

Ийнхүү Эргүнэ гэдэг нэр бол одоогийн Хөлөнбуир аймгийн дэвсгэрт оршдог Эргүнэ гол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айна. "Миний тэнд байх үед Эргүнэ хун нутгийг үзсэн, мэддэг монгол хүн олон байсан" гэж Рашид-ад-дин бичсэн байдаг [3, нүүр 154]. Энэ нь XIII зуунд Эргүнэ хун нууц биш байсныг ч гэрчилж байгаа юм. Эх сурвалжуудад *Эргүнэ* ба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хоёр нэрийг тусад нь хэрэглэдэг байсан нь эндээс тодорхой байгаа юм.Үүнд монголчууд Эргүнэ голд ойролцоо орших тодорхой нэг нутгийг *Эргүнэ-хун* гэж нэрлэдэг байжээ.

Рашид-ад-дины бүтээлд өгүүлэгдсэн мэдээлэл,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ийг анх удаа хэрэглэсэн Тан улсын үеийн хятадын он дарааллын бичгийн мэдээлэлтэй тохирч байгааг онцолж тэмдэглүүштэй. Тан улсын өмнөх үед *монгол* нэр, тэрчлэн монгол угсаатан бүр байгаагүй. "Цзю Тан шу" (945 онд зохиогдсон "Тан улсын хуучин түүх")-д *монголыг* "*Мэнъу шивэй*" гэж нэрлэсэн байна. Ийм нэртэй төстэй нэр бүхий омог Цзюйлуньбо нуураас эх авдаг Ванцзяньхэ голын өмнөд бие оршдог шивэй нарын дунд (үүнээс *мэнъу шивэй* гэдэг давхар нэр үүсчээ) байсан гэж эх бичгүүдэд дурдсан байдаг [4, 199 цзюань, нүүр 5356]. Цзюйлуньбо бол одоогийн Хөлөн нуур, Ванцзяньхэ бол Хөлөн нуураас гарсан Эргүнэ гол бөгөөд цаашаа Амар мөрөн болон томордог. Тан улсын үед энэ Эргүнэ ба Амур хоёр голыг Ванцзяньхэ гэдэг нэг нэрээр нэрлэдэг байсан учраас *мэнъу* гэдэг омог энэ хоёр голын чухам алиных нь

баруун биед оршиж байсан нь тодорхойгүй мэт эхлээд санагдаж болно. Гэвч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газрын н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үг нь Эргүнэ гэдэг учраас энэ голын баруун биед мэнъу нар нутаглаж байсан нь тодорхой. Энэ үзэл санааг судлаачдын ихэнх нь баримталдаг боловч Эргүнэ голын хавьдах чухам аль нутгийг Эргүнэ хун гэж нэрлэж байсныг тодруулах оролдлого хийсэн удаа нэг ч байхгүй билээ.

2004-2006 онуудт Оро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Сибирийн салбарын Монгол, Будда, Төвд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г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Хөлөнбуирын (БНХАУ, ӨМӨЗО) ардын музейн хамтарсан баг Эргүнэ-гийн баруун бие, Хайлар голын хөндийгөөр археологи-угсаатны зүйн өргөн хүрээтэй судалгаа хийсэн бөгөөд тэр багийн ахлагч нь үүнийг бичигч байсан юм.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ийн талаар хэд хэдэн материал нийтлэгдсэнээс гадна 2006 онд Улаанбаатарт болсон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дийн IX их хурал дээр сонсгол хийгдсэн болно [5, р. 275-276; 6, р. 165; 7, нүүр. 125-131; 8, нүүр. 17-23; 9, р. 86]. Энэ өгүүлэлдээ миний бие экспедицийн ажлын гол үр дүнгтэй хятадын уншигчдад танилцуулахыг хүслээ.

Манай экспедицийн урд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гардаг Эргүнэ хунтай газар орны байдал ерөнхий дүр төрхөөрөө төстэй газар нутгийг эрж олох, хэрвээ олдвол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уудаар мөн эсэхийг батлах зорилго байв. Мөн Эргүнэ гол чухам хаанаас эх авдагийг тодруулах явдал экспедиц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айлаа. Орчин цагийн газрын зураг дээр Эргүнэ, Хайлар хоёр голыг нэг мэтээр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ч гэсэн энэ бол хоёр өөр гол юм гэж Рашид-ад-дины мэдээлсэн нь үнэн болсон. Эргүнэ гол Хөлөн нуураас эх авдаг. Хайлар гол Их Хянганы нуруунаас эх аваад Хөлөн нуурын орчимд Эргүнэ голын баруун биеэс орж цутгадаг байна. Энэ асуудлыг тодруулах нь Эргүнэ хуны асуудлыг зөв шийдвэрлэхэд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айсан юм. Хайлар гол Эргүнэд ямар ч хамаагүй, тэгэхлээр Эргүнэ хун нэртэй газар Хайларын хөндийд байгаагүй нь ойлгомжтой болсон. Эргүнэ хун нь Хайлар голын эхэн хавьд байж магадгүй гэж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Х.Пэрлээгийн таамагласан нь ч худлаа болж таарлаа [10, нүүр 99-100]. Гэвч Пэрлээгийн таамагла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ном зохиолд хангалттай их бичигдсэн учраас манай экспедици түүний үнэн худлыг батлахын тулд Хайлар голыг өгсөн эхэнд хүрсэн. Экспедицийн гишүүдийн эргэлзээ зөв болж таарсан. Рашид-ад-дины өгүүлсэнтэй төстэй газар тэр хавьд огт байхгүйгээс гадна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т зүйлс олдоогүй зэрэг нь Хайлар голын эхэн хавьд хүмүүс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гэх үндэслэл байсангүй.

Тиймээс экспедици хамаг анхаарлаа Эргүнэ голын хөндийг судлахад чиглүүлсэн. Эргүнэ хотоос (Лабдарин нэртэй байсан) хойш Эргүнэ гол Шилка мөрөнд цутгадаг бэлчир хүртэлх газрыг урд нь Шивэй хэмээж нэрлэдэг байжээ. Шивэй нутгаар хэд хэдэн гол горхи урсан Эргүнэд цутгана. Тэдгээр гол горхидын дотроос хамгийн том нь Их Хянганаас эх авдаг Цзилюхэ гол бөгөөд хятадууд түүний нэрийг өөрчлөхөөс өмнө Мангу гэдэг нэртэй байжээ. Цзилюхэ гол Эргүнэд цутгадаг адгаас дээш 10-12 км зайтай дугуйрсан өндөр хад цохио, ширэнгэн ой байх бөгөөд түүний дотор талд хэсэг бүлэг багахан ой бүхий тэгш сайхан тал байна. Энэ тэгш тал нэг талаараа Цзилюхэ голд нөгөө талаараа Эргүнэ голд тулах бөгөөд Эргүнэ голын цаад талаас Оросын нутаг үргэлжлэнэ. Энэ Оросын нутагт тэгш тал байхгүй харин шууд л өндөр уулс, өтгөн их ой үргэлжлэнэ. Эргүнэ голын адаг хавийн өндөр уулс, ой модоор хүрээлэгдэн гадаад ертөнцөөс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энэ хэсэгхэн тэгш тал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гардаг Эргүнэ хунтай гайхалтай төстэй байлаа.

Энд 1991 онд Хятадын археологичдын олсон дундад зууны үеийн хотын туур, суурин газрын үлдэгдэл байна. Өндөрлөг тэгт дээр байрлах энэ хоёр туурийн нэг нь Эргүнэ голын эрэг дээр нөгөө нь Цзилюхэ голын хөндийд байна. Тэдгээрийн хооронд өндөр биш ч гэсэн эгц цавчим уул байх бөгөөд түүн дээр байгаа сууригийн үлдэгдэл нь хоттойгоо нийлсэн байдалтай боловч харуулын үүрэгтэй байсан хэмээн таамаглаж болмоор байна. Энэ хоёр тэгтийн ба уулын дээд талбай дээгүүр хамгаалалтын далангийн үлдэгдэл, орон байр байсан уу гэмээр дугуй хэлбэртэй өдий төдий

хотгор байна. Тэдгээрийн голдоч нь 5 метр хүрнэ. Харин уул дээрх орон сууц байсан гэмээр үлдэгдлүүд нь тэдгээрээс бага (3 метр голдочтой) байв. Орон сууц байсан гэмээр хотгорын дунд 1991 онд Хятадын археологичдын малтсан цооног байна. Их гүн биш гүнээс ваар савны хэлтэрхийнүүд, модны нүүрс, амьтны жижиг яс (шагай) олдлоо. Үүнээс үзвэл энд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хүмүүсийн амьдрал тэгт дээрх суурингаар хязгаарлагдаж байсан, тэд эндэх уугуул нутгийн хүмүүс биш Эргүнэд ирсэн хүмүүс байсан гэж үзэж болмоор.

Энэ цогцолбор газрын төв нь Цзилюхэ голын хөндийн туурь байсан бөгөөд тэнд энэ ирүүл хүмүүсийн удирдагчийн өргөө байсан байх. Үүнийг гэрчлэх баримтууд байна. Үүнд нэгд, орон байр байсан гэмээр олон үлдэгдлийн дунд нь хэмжээгээрээ хамгийн том (10 метр голдочтой) хонхор байна. Түүн дотор удирдагчийн өргөө байсан байх. Хоёрт, Цзилюхэгийн адгийн тэгт нь эргэн тойрон эгц эрэгтэй учраас хүрэхэд тун бэрх байгаа нь хамгийн найдвартай, удирдагчийн өргөө байрлахад тохиромжтой газар.

Тэгт дээрх тууриудад нэг угсааны бүлэг хүмүүс аж төрж байжээ. Энэ нь Хятадын археологичдын гурван туурьт хийсэн малтлагаар хоорондоо ижилхэн зүйлс (ваар савны хэлтэрхий, ясан эдлэл гэх мэт) олдож байснаар батлагдана. Түүнээс гадна эндээс олдсон зүйлс Хайлар хотоос баруун тийш орших Баруун Үзүүр гэдэг газраас олдсон бунханаас гарсан археологийн олдвортой (бөөрөнхий мод ухаж хийсэн авс, ваар савны хэлтэрхий, нум зэрэг) ижилхэн байлаа. Эндэх булшийг мэргэжилтнүүд манай эриний VII зууны сүүлийн үеийн эртний монголчуудын гэж нэгэн дуугаар дүгнээд Эргүнэ голын баруун биеийн тууриуд бол бас эртний монголчуудын бууръ хэмээх санал дэвшүүлсэн нь ч зүй ёсны хэрэг юм [11, нүүр 58-62]. Тэгэхлээр энэ бол Эргүнэ голын адаг хавьд байгаа газар бол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дурсагдасан Эргунэ хун мөн.

Хун гэдэг үгийн тухайд бол эртний монголчууд эгц цавчим бэлтэй, онцгой ганц өндөр уулыг хун гэж нэрлэдэг байжээ. Ямар уулыг тэгш нэрлэж байсан нь Чингис хаанаас зугтаасан найманyудын нуугдаж байсан Наху хун уулын тухай өгүүлснээс тодорхой харагдана. "Даян ханы цэргүүд бут

цохигдоод шөнийн харанхуйгаар зугтаахад Чингис хааны цэргүүд тэднийг нэхжээ. Асар их айж балмагдсан найманууд хүрэхэд бэрх ууланд гарч нуугдаж. Шөнө найманы цэргүүд Наху хун хэмээх эгц өндөр уулын бэл рүү халтирч унан унан цөм үхэж үрэгджээ" [2, нүүр 148] хэмээн Рашид-ад-дин бичсэн байдаг бол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Чингис хаан, наран орой болох хирд Наху хуний уулыг бүсэлж аваад хонов. Тэр шөнө найманууд буруулан дутаах гээд Наху хуний уулан дээрээс халтиран унаж, нурсан түлээ мэт бие биеэ даралцаж ясаа хэмхчиж үхэцгээв" [1, § 196].

Эргүнэ голын хөвөөнд орших хот суурингуудын туурь бүхий тэгт ба уул бол тийм эгц өндөр уулсаар хүрээлэгдсэн онцгой газар юм. Тийм өндөрлөг газрыг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чууд *хун* гэж нэрлэж байсан нь үнэн учраас тэр үг Эргүнэ голын нэртэй нийлээд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газрын нэр болон "Судрын чуулган"-д тэмдэглэгдэн үлджээ. Тэгэхлээр Эргүнэ голын баруун хөвөөнд байгаа тэр онцгой нутгийг Тан улсын үед түрэгүүдэд дийлдсэн монголчуудын нуугдаж байсан Эргүнэ хун мөн болжээ.

Энэ дүгнэлт бас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онцго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нэгэн чухал баримтаар нотлогдож байна. Эргүнэ голд цутгадаг Цзилюхэ гол хятадуудын нэрийг нь солихоос өмнө Мангу гэдэг нэртэй байсан гэж би дээр хэлсэн. Тунгусийн Мангу гэдэг үг хятадын Цзилюхэ гэдэг үгтэй адилхан "ширүүн урсгалтай гол" гэдэг утгыг илэрхийлжээ. Эргүнэ голын баруун талд Мангу хэмээх гол байгаа явдал бол эртний монголчууд тэнд нутаглаж байсны тодорхой баталгаа болж болох үндэс байна. Мангу голын адаг хавьд угсаатан болон бүрэлдэн тогтож байсан монголчуудын удирдагч сууж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ийн үндсэнд голын нэр орсон байх магадлалтай. Энэ нь тухайн газрын нэрийн хэлбэртэй гайхалтай сайн тохирч байгаа юм. Угсаатны зүйн холбогдолтой нэр томьёоны гарал зүйг тодруулах нь онц чухал гэдгийг хэлэх хэрэгтэй. Гарал зүй болон үгийн анхны хэлбэрийг тодруулахгүйгээр тэр нэр томьёоны жинхэнэ агуулгыг илрүүлэх боломжгүй. Энэ талаар монголч эрдэмтэд азтай улс юм. Тэдэн дотор монголчуудын өөрсдийн нь бүтээсэн, энэ бол онц чухал,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ын гарамгай

бүтээл -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байна. Энэ бүтээлийн монгол эхэд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ийг *мангол (mangγol)* гэдэг хэлбэрээр бичсэн байгаа нь XIII зуунд монголчууд энэ үгийн анхны хэлбэрийг хэвээр хэрэглэж байсны гэрч юм. *Мангол* гэдэг үг хоёр хэсгээс бүтжээ. Үүнд "*манго*" гэдэг нь Мангу хэмээх голын нэрээс үүссэн үндэс бөгөөд *-л* гэдэг нь хэсэг бүлэг хүмүүсийг илэрхийлдэг олон тооны дагавар юм. Энэ хоёр хэсэг нийлээд "ширүүн урсгалтай Мангу голд суудаг хэсэг бүлэг хүмүүс" буюу товчоор "Мангу голын хүмүүс" гэсэн утгыг илэрхийлсэн үг бүтээнэ.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ийг өөрөөр тайлбарлах боломжгүй.

Энд хийсэн монгол гэдэг үгийн тайлбар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газар хаана байгааг тодруулснаас гадна монголчуудын эртний түүхийн хөшгийг сөхөж харах боломж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Одоо судлагдсан бүх материалдаа тулгуурлан жужаны хаант улсын түрэг омгуудын холбоонд ялагдсан жужаны чино хэмээх омгийн хэсэг (өвгө дээдсээ хүндэтгэн тахих ёсны *чино* хэмээх нэр томьёо нь яваандаа хувьсан өөрчлөгдсөөр Эргүнэ хунаас гарч ирсэн, Хоай Марал эхнэртэй Бөртэ-Чино буюу Чингис хааны дээд өвгийн нэр болон хэрэглэгдэх болжээ. Монголчуудын удам угсааны тухай домог ихэвчлэн Бөртэ-Чиноос эхэлдэг билээ - Б.З.) хангалттай урт хугацаагаар эх нутгаасаа алс хол Эргүнэ голын баруун хөвөөгөөр шивэйн омгуудтай хутгалдан суухдаа шинэ угсааны омгийг үүсгэжээ. Алс холоос ирж Эргүнэ голд цутгадаг Мангу голын адаг хавийн хүн нэвтрэхэд бэрх Эргүнэ хун хэмээх газарт суурьшсан хүмүүсийг хөрш омог аймгууд нь *мангол* гэж нэрлэдэг байсан нь XIII зуунаас хойш хувирсаар *монгол* гэдэг одоогийн хэлбэртээ орсон байна.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 хэдийгээр *мангол* гэдгээс өөр дуудлагатай ч гэсэн түүнтэй ижил утгыг илэрхийлдэг.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газар Мангу (Цзилюхэ), Эргүнэ хоёр голын бэлчир хавьд оршино гэдэг таамнал Эргүнэ хуны тухай домогтой холбоотой *киян* гэдэг үгийн утгыг хөөж судлахад батлагдаж байна. Монголчуудын өвгө дээдэс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газраа өөрсдийн төрөлх хэлээр орчуулан нэрлэж байсныг бид бараг мэддэггүй. Тэгвэл монголчууд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Мангу

голыг төрөлх хэлээрээ *киян* гэж нэрлэж байсан нь тодорхой. Рашид-ад-дин бичихдээ "Монголоор киян гэдэг нь уулнаас доош буусан хүчтэй оволзсон "их урсгал" гэсэн утгатай үг" гэжээ [3, нүүр 154]. Энэ тайлбараас үзэхэд монголын *киян* гэдэг нь ширүүн урсгалтай уулын голын нэр ажээ. Тунгус хэлний Мангу гэдэг үг, бас хятад хэлний Цзилюхэ гэдэг үг ч ширүүн урсгалтай гол гэсэн ижил утгатай байна. Энэ баримтыг үндэс болгон монголын *киян* гэдэг бол Эргүнэ голд цутгадаг Мангу голын тунгус нэрийн орчуулга юм гэж хэлэн бүрэн үндэс бидэнд байна.

Мангу гэдэг нэр дээр олон тооны *-л* дагавар залгахад *мангол* гэдэг нэр үүссэн нь яваандаа *монгол* гэдэг хэлбэртэй болсонтой адилхан *киян* гэдэг үг дээр олон тооны *-д (-т)* дагавар залгахад *кияд* гэдэг үг үүссэнийг анхааралгүй өнгөрч үл болно. Рашид-ад-дин ч бас "Кияд гэдэг бол киян гэдгийн олон тооны хэлбэр юм" [3, нүүр 154] гэж бичсэн байдаг. *Киян* гэдэг үг дээр олон тооны дагавар залгахад "уулын ширүүн урсгалтай Киян голын хөвөөгөөр оршин суудаг хэсэг хүмүүс" гэдэг утгатай үг үүссэн нь *мангол* гэдэг үгийн утгатай яв цав нийцэж байгаа юм.

Мангу (Цзилюхэ) хэмээх голын нэр ба *мангол* үгийн монгол хувилбар нь *киян* ба *кияд* юм гэдэг нь энд толилуулсан материалаар нотлогдож байгаа бол монголчуудын өвгө дээдэс Эргүнэ голоос жаахан баруугаар Мангу голын хөвөөгөөр нутаглаж байсан нь гарцаагүй үнэн болж таарна.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бүрэлдэн үүссэн, монгол гэдэг нэртэй болсон газар нь Эргүнэ хун гэдэг нэртэй байжээ. Угсаатны хувьд одоо Монголд хамаарах болсон тэр цөөхөн хүнтэй омгийнхон "үржин олширсоор" Эргүнэ хундаа "багтахаа" болиод өргөн уудам тал нутагт гарсан хүмүүсийг одоо Монгол хэмээн нэрлэдэг болжээ. Баруун Үзүүрээс олдсон материалд тулгуурлан хэлэхэд монголчуудын Эргүнэ-хунаас гарсан хугацаа манай эриний VII зууний сүүлд хамаарах бололтой байна.

Ном зүй

1. Козин С. А. Сокровенное сказание. Монгольская хроника 1240 г. М.; Л., 1941.

2. Рашид-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Т.1, кн.2. М.;Л., 1952.

3. Рашид-ад-дин. Сборник летописей. Т.1, кн.1. М.;Л., 1952.

4. Цзю Тан шу. Пекин, 1959.

5. Zoriktuev B.R. Early Mongols and problem of Ergune-kun // The four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ngolian studies sponsored by Inner Mongolia University. Thesis abstracts. China. Huhhot. 2004.

6. Zoriktuev B.R. Ergune-kun in Mongolian histori // The international Simposium on Mongolian studies of China. Huhhot, China. 2005.

7. Зориктуев Б.Р. Эргүнэ хун хаана байдаг ба *монгол* нэрийн утга зүй тухай // Буриад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эдээч. Хэл бичгийн ухааны цуврал. 10 дугаар. 2009.

8. Зориктуев Б.Р. *Киян* ба *кият* нэр томьёоны утга зүй // Мункуевын уншлагууд-2. Н.Ц. Мункуевын 8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олон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хурлын материалууд. Улаан-Үд. 2004.

9. Zoriktuev B.R. The problem of location of Ergune-kun reconsidered // Илтгэлуудийн товчлол. Их Монгол Улс байгуулагдсаны 80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ан Монгол Улсын еронхийлогч Н. Энхбаярын ивээлд хийж буй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IX их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2006, VIII. 8-12).

10. Пэрлээ Х. Гурван мөрний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ан түүхийн мөрийг мөшгөсөн нь // Studia historica. T.8, fasc. 6. Ulan-Bator, 1969.

11. Чжао Юе. Кай ву суо танг. Хайлар, 2003.

Zoriktuev Bulat Radnaevich, Professor, Head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of Central Asia of the Institute of Mongolian, Buddhist and Tibetan Studies, Siberian Branch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 Doctor of Science (History).

몽골의 게세르 칸 (Geser Qan) 과
한국의 거슬한(居瑟邯)

B.Sumiyabaatar(Mongolia)

현재 한국인의 일부가 신라(新羅 Xīn-luó)의 후예(後裔)이다. 신라인들은 한국 및 중국의 많은 사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슬한(居瑟邯)의 여예(餘裔)들이다.

한국의 거슬한(居瑟邯)과 몽골 - 티벳(Töbed)의 게세르 칸(Geser Qan · Kejar)와 상호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우연성(偶然性)인지? 하여튼 이것이 몽골 - 티벳의 Geser과 나아가서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을 연구하는 데에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회피(回避)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 범위 내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몽골 석학(碩學) 체.담딩수렝 (Ц.Дамдинсүрэн) 님이 "게세르 서사시의 세 가지 특징" (Гэсэрийн туужийн гурван шинж. Улаанбаатар.1956.29–р тал)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7-13세기에 해당하는 중국과 티벳 사료들울 분석 연구한 결과 Geser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그 연대는 우리와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사서(史書)에 거슬한(居瑟邯)이 역사적 인물로 등장(登場)하고 있으며 그의 출생(出生)과 즉위(卽位) 연도(年度)에 대해 뚜렷이 지적(指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거슬한(居瑟邯 / 거서간 居西干 / 거세간 居世干)이 전한(前漢 Qián-hàn)의 선호제(孝宣帝) 오봉(五鳳)원년 4월 병진일(간혹 정월 15일) 13세로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始祖姓朴氏諱赫居世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 一曰正月十五日即位號居西干時年十三國號徐那伐). 전한(前漢)의 선제(宣帝)는 기원전 73-48년까지 통치했고 오봉(五風)원년(元年)이 기원전 57년이다. 이 때 거슬한(居瑟邯)이 13세이었다면 그의 출생 년도가 기원전 70년이 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거서간(居西干)이 재위 61년 3월 봄 하늘로 올라 갔다 ⇨ (...六十一年春月居西干升遐", "...理國 六十一年王升于天...)고 쓰고 있으며 이것은 서기 4년이다.

이번에 필자가 몽골-티벳(Töbed)의 게세르 칸(Geser Qan · Kejar)과 한국의 거슬한 (居瑟邯)과의 상호 관계 문제를 연구 대상(研究對象)으로 삼았다.

첫째. 몽골 - 티벳의 Geser Qan과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의 움성적 구조가 동일하다.

Geser "게세르"란 인명의 한국어와 중국어(고대, 현대) 발음을 도표로 보여 들이면 ⇩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발음	
		현대	고대 또는 방언
居世	Köse	Jushi	K̂iʷośiai, Kùşi, Kŭùşai
居西	Kösö	Juxi	K̂iʷośiei, Kùsi, Kŭùsai
居瑟	Kösïl, Kösïr	Juse	K̂iʷosət, Kùsə, Kŭùsət 이다.

居世를 赫居世라고 하며 현대 중국어로 Hejushi, 한국어로 혁거세로 읽는다. 赫은 "붉은, 타오르는, 번영하는, 유명 한"을 뜻하고, 뒤의 居世는 고유명사이다. 중국고대음과 한국어 발음이 Geser 에 아주 가깝다. 마감 "-r" 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고대 중국어와 광동어 발음의 끝 소리인 -śiai 음절이 "-r"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KösÏl / KösÏr 라고 쓴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居瑟이라고 나오며 瑟의 한국어 발음이 -sÏl / -sÏr 이다. 이 밖에 많은 경우에 居世, 居西, 居瑟이 干, 邯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간" , "한"과 함께 (거서간, 거세간, 거슬한) 나오는 데 그것은 몽골과 터키계 관직인 «칸 Qan»과 일치한다.

둘째. 거슬한(居瑟邯)이 국가를 세운 연도가 "대이동 (大移動)"의 시기와 일치

거슬한(居瑟邯)이 처음 국가를 세운 기원 전 57년이 "대이동 (大移動)"의 시기이며 이때 흉노가 한제국과의 싸움에서 패전(敗戰)함으써 북과 남으로 나뉘졌다. 남흉노가 한제국의 세력 밑에 속하게 되고 북흉노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선비에 의해 패배(敗北) 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 아시아에서 강력한 흉노의 지배가 무너지고 민족들이 갈라져 대이동을 시작했다. 동 흉노에 서기 전 50 년대에 Gusi라는 이름을 가진 부장이 있었는 바 기원전 58 년에 중앙 흉노에 대항(對抗)해 반란(反亂)을 이르켰다가 패하고 4-5 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로인가 살아졌다. 다음해 서기 전 57년에 한반도에 거세간이란 사람이 국가를 세웠다.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며 연도가 일년의 차이 있고 지역상 가깝기에 이상 역사적 사실들을 결코 결부(結付)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학자들이 사료를 검토(檢討)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期待)하여 전한서(前漢書) 기록과 로시아어 번역문을 인용고자 한다 ⇩

明年鳥桓擊匈奴東邊姑夕王頗得人民單干怒姑夕王恐卽與鳥禪幕反左地貴人共立稽侯
狦爲 呼韓邪單干發左地兵四五萬人西擊握衍月句鞮單干至姑且水北 [師古曰且音子余友]
未戰握衍月句鞮單干兵敗走使人報其弟右賢王曰匈奴共攻我若肯發兵助我乎。

브.에스.다스킨 (B.C.Таскин)씨의 로시아어 번역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58 г. до н.э.) ухуани напали на (владения) князя Г у с и,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восточных окраинах сюннуских земель, и захватили много народа, что разгневало шаньюя. Напуганный князь Г у с и вместе с Учаньму и знатными лицами левых земель возвел на престол под именем шаньюя Хуханье Цзихоушаня, а затем отправил из восточных земель 40 или 50 тыс. воинов, которые выступили на запад и напали на шаньюя Уяньцзюйди и дошли до местности к северу от реки Гуцзюйшуй.

Еще до начала сражения войска шаньюя Уяньцзюйди обратились в бегств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н послал гонца к своему младшему брату, занимавшему пост правого сянь-вана,сказать: "Сюнну, обьединившись, напали на меня, не согласишься ли ты прислать мне на помощь войска? (Материаы по истории Сюнну. Москва. 1973.стр.32)

엔.야. 비추린 (Н.Я.Бичурин)씨의 로시아어 번역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58 г. до н.э.) Ухуаньцы на восточной границе напали на Г у с и - князя и увели много народу. Г у с и - князь, для избежания опасности, пристал к Ушаньму (небольшое владение, лежавшее между владениями Усунь и Кангюй) и старейшинам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и с общего с ними согласия на престол возвел Гихэушян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Хуханье-Шаньюя, потом собрав от 40 000 до 50 000 войска, пошел на запад на Уянь-гюйди Шаньюя. Когда ж пришел на северную

сторону реки Гуцзюй, то еще до сражения войско Уянь-гюйди Шаньюя обратилось в бегство. Он послал гонца к младшему своему брату, Западному Чжуки князью с известием, что Хунны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ми силами напали на него, и просил его придти с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на помощь ему (Н.Я.Бичурин.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М.,1950.стр.86)
또 엘.엔.구밀료위 (Л.Н.Гумилев)씨가 이상 Gusi 왕에 대하여 쓰기를: " 58 г. до н.э. Опало Гуси-князя; Набег ухуаней на род Г у с и " (“Хунну”.М.,1960. стр.264.)
"Г у с и - хуннский род на востоке, около Ухуани (Ухуань-монгольская народность в южной маньчжурии во 2 веке до н.э. - 3 в н.э.; потомки Дунху) (“Хунну”.М.,1960. стр.249)

세째. 거슬한(居瑟邯)이 세운 나라 이름이 Syunnu (Hunnu)와 통함

거세 (居世)가 기원전 57 년에 즉위(即位)하고 호를 거서간(居西干)이라 하고 국가에 서나벌 (徐那伐) 이란 이름을 주었다 ⇨ (…居世…即位號居西干…國號徐那伐).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발음	
		현대	고대 또는 방언
徐	sö	xù	żia, şe, şə
那	na	nà, nei	'ňa
伐	pöl, böl	fa	b'iʷət, fa, fāt, fət 이다.

徐가 “조용한, 평화로운”의 뜻, 那 는 "어찌", 伐이 "자르다"의 뜻이며 모아 읽으려면 아무런 뚜렷한 개념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은 거서간 (居西干)에 의해 세워진 나라 이름의 한자 음역임이 틀림없다. 위에 열거(列擧)된 두 글자를 연음(連音)해 발음하면 흉노 Syunnu, Hunnu에 아주 근사(近似)하게 들린다.

네째. 거슬한(居瑟邯) 후예가 자신들을 “Sira", "Sara"라고 불렀다.

한자로 新羅라 썼고, 한국어 발음이 "신라 Sinla"이고, 중국어 발음이 Xīn-luó 이다.그러나 "新羅 신라"란 표기는 비교적 후대의 것이고 그 전에는 "斯羅 Sī-luó, 사라","斯盧 Sī-lú, 사로"로 쓰였다. 羅 의 현대 발음이 luó 이나 전에는 la, lo 였고 회화어에서 두 모음 사이에 ra, ro 로 발음했었다. 또 羅 의 일본어 발음이 ra 이며 현대까지 유행했던 한국의 “무단 꽃 붉게 피는 시라 무렌 찻'집... “(시라 무렌이 몽골어의 ᠰᠢᠷ᠎ᠠ ᠮᠥᠷᠡᠨ Шар мөрөн, 노란 강, 황해 이다) 노래 등을 총 고려(考慮)하여 이상을 연음(連音)하면 Sira, Siro, Siluo, Silo,Sara가 되고 몽골어의 ᠰᠢᠷ᠎ᠠ (Sir-a, Шар), ᠰᠢᠷ᠎ᠠ ᠤᠶᠢᠭᠤᠷ (Sir-a uyiɤur, Шар уйгур)와 결부(結付)시킬 가망성(可望性)이 호출(呼出)된다.

다섯째. 거슬한(居瑟邯) 족보에서의 중앙아시아적 요소

한국의 거슬한(居瑟邯)이 중앙아시아에 기원(起源)을 둔 사실을 그의 족보(族譜, zú-pǔ, ᠤᠭ ᠤᠨ ᠪᠢᠴᠢᠭ Uɤ-un bičig)가 신증(信證)해 주고 있다. 이제 혁거세(赫居世) 족보(머리 부분만)를 얼핏 살펴 보기로 한다 ⇩

5 6

1 2 3 ⇨ 파사(婆娑) ⇨ 지마(祇摩)

혁거세(赫居世) ⇨ 남해(南海) ⇨ 유리(儒理) ⇨⇳

⇩ 7 8

⇨ 일성(逸聖) ⇨ 아달라(阿達羅)

11 14

⇨ 골정(骨正) ⇩⇨ 조분(助賁)⇩⇨유례(儒禮) 15

⇧ ⇩ ⇨걸숙(乞淑) ⇨기림(基臨)

⇧ ⇩ 12

⇧ ⇨첨해(沾解)

4 9 ⇧ 10 16

탈해(脫解) ⇨ 구추(仇鄒) ⇨ 벌휴(伐休) ⇨⇧ ⇨ 이매(伊買) ⇨ 내해(奈解) ⇨ 우로,우노(于老) ⇨ 흘해(訖解)

13

⇨ 미추(味鄒) 17 19 20 21

구 도(仇 道) ⇨⇧⇨ 미구(未仇) ⇨내물 (奈勿) ⇨ 눌지(訥祇) ⇨ 자비(慈悲) ⇨ 소지(炤知)

⇩

⇩ 22 23

⇨ 모(某) ⇨ 습보(習寶) ⇨ 지증(智證) ⇨ 법흥(法興)

⇩

⇨ 입종(立宗)

혁거세(赫居世, 기원전 57-기원 3 년) ⇨ 남해(南海, 4-23년) ⇨ 유리(儒理, 24-56년) ↴

탈해(脫解, 57-79년) 파사(婆娑, 80-111년) 지마(祇摩, 112-33년)

일성(逸聖) 아달라(阿達羅, 154-183년) 벌휴(伐休, 184-195년)

내해(奈解, 196-229년) 조분(助賁, 230-246년) 첨해(沾解, 247-261년),

미추(味鄒, 262-283년) 유례(儒禮, 284-297년) 기림(基臨, 298-309년)

흘해(訖解, 310-355년) 내물 (奈勿, 356-401년) 실성(402-416년)

눌지(訥祇, 417-457년) 자비(慈悲, 457-478년) 소지(炤知, 479-499년)

지증(智證, 500-513년) 법흥(法興,514-539년)

상기(上記) 처럼 혁거세(赫居世)의 족보가 남자 인명(人名)의 집합(集合)일뿐더러 언어 연구대상인 신라 인명의 음성학적 및 형태부적 구조의 바탕 자료를 제공(提供)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라

이름이 성이 없고, 대부분 두 음절로 구성된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몽골(몽골비사에서의 인명), 만주, 터키 이름, 그리고 흉노를 통하여 구라파까지 분포(分布)된 중앙아시아 인명을 상기(想起)시키는 이름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달라(阿達羅, Атилла), 유리(儒理, Юри); 구추(仇鄒, Күчү) 미추(味鄒, Мичү); 눌지(訥祗, Нүлжи) 소지(炤知, Сожи), 벌휴(伐休) 등 등이며 다음 "여섯째"에서 계속됨.

여섯째. 거슬한(居瑟邯) 국가의 언어에 중앙 아시아 언어 요소가 있다.

➢• 최우선 중앙 아시아 언어란 개념에 몽골어, 터키(돌궐어)계 언어를 포함(包含)시켜 사료(史料)에 기록된 인명, 지명, 종족명과 일부 형태부를 응시(凝視)해 보자.

혁거세(赫居世)가 세운 나라의 인명중 -해(解 xiè)로 끝난 이름이 적지 않다. 이를터면, 기원 4 년부터 355 년까지 왕위(王位)에 있었던 사람들 중 5 명의 이름에 이상 -해(解 xiè)가 붙이어 있다. 이것은 몽골과 터키어(돌궐어)의 인명, 종족명에 들어 가는 -qai, -hai, -хай 형태부와 일치한다 ⇩

남해(南海, намХАЙ)
탈해(脫解, тарХАЙ)
내해(奈解, найХАЙ)
첨해(沾解, ч$_{х}$өмХЭЙ)
흘해(訖解, хылХЭЙ) 이다.

➢• 居西干 과 茀矩内의 뜻 규명(糾明)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거서간은 진어(辰語)로 왕 또는 귀인의 칭호" 라고 해석(解釋)하고 있다 ⇨ (居西干辰言王或云呼人之稱). 그리고 "赫居世王或作茀矩内王"이란 기록도 있다. 여기서 茀矩内王란 뒷부분이 주목(注目)할 만 하다. 茀矩内의 현대 중국어 발음이 fú-jŭ-nèi이나 고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발음으로는 fú-kiŭ-nèi 이며 고대 한국 및 중국 사가들이 이것을 중국 단어가 아니고 진어(辰語) 단어의 한자 음역(音譯)으로 보고 그 뜻을 辰言光明理世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허나 필자가 "赫居世王或作茀矩内王"과 呼人之稱 이란 기사의 역사•언어학적 고찰 분석에 입각(立脚)하여 茀矩内는 몽골어의 bükün-ü, бүхний (전체의, 모두의, 만물의)란 단어와 서로 의미와 음성학적으로 상통(相通)한다고 추리(推理)하고 있다. 居西干辰言王或云呼人之稱 과 赫居世王或作茀矩内王 이란 한국 기록이, 세계에서 분포(分包)된 많은 " 전체의왕(지배자), 모두의 왕 (지배자), 만물 지배자"들의 면모를 알게 해주었다. 즉 몽골의 Geser Qan, Гэсэр хан, 한국의 거서간(居西干), 거슬한(居瑟邯) , 티벳(Töbed)의 Kejar), 불란서의 ...Цезарь, 독일의 ... Кайзер, 이란의 ...Касур, 페르시아의 ... Герсаспа, 로시아의 Царь 의 내용이 같으며 고대 한국어의 하나로서의 진어(辰言)가 그 본 뜻을 우리에게 보존(保存) 전달(傳達)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상 문제 풀이의 바탕 및 배경적 증거가 다음 장으로 넘어 간다.

➢• 신라어의 " 飡찬"과 몽골어의 -tan, -ten 형태부

신라의 17 개 관직명을 구조상 분석해 보면 "飡찬[cān,sūn]"이 들어간 관직명이 9 개가 있다 ⇩

伊伐飡 이벌찬 [yī-fá,fā-cān,sūn]
伊飡 이찬 [yī-cān,sūn]
迊飡 잡찬 [yíng-cān,sūn]
波珍飡 파진찬 [bō-zhēn-cān,sūn]
大阿飡 대아찬 [dà,dài-ā,ȧ,ē--cān,sūn]
阿飡 아찬 [ā,ȧ,ē-cān,sūn]
一士飡 일사찬 [yī-shì-cān,sūn]

沙滄　사찬 [shā,shà-cān,sūn]

級伐滄 지벌찬 [jí-fá,fā-cān,sūn]　이다.

역사음성학적으로 재귀(再歸)하면 "ts,ch" 의 전신(前身)이 " t, t' "임을 한 언어 뿐만아니라 같은 계통의 언어들 그리고 차용어에(예: 茶 chá~ 차~tea)까지 널리 퍼져 존재하는 어음 현상이라고 세계 음성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한국, 일본, 월남 발음에서 그 실례(實例)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으며 (예: 天 tiān, 천; 帖 tiē,tié,tiě, 첩; 田 tián, 전; 丁 dīng, 정...) 그리고 몽골과 거란어 단어를 한자로 전사한 사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란 여자의 Tolin, 란 이름을 "초린' 이라고 전사한 것이 있고 몽골어의 dőrbelǰin, дөрвөлжин이란 자명(字名)과 책 이름을 帖月眞 첩월진 [tiē,tié,tiě-yuè-zhēn], 帖兒月眞 첩아월진 [tiē,tié,tiě-ér-yuè-zhēn] 이라고 전사한 한국기록이 있다.

아무리 시기와 인용 단어의 현존 의미상 차이는 있으나 "滄 찬" 의 고형(古形)과 형태부적 뜻이 몽골어의 -tan, -ten 형태부에 보존되었다고 필자고 보고 있으며 그 실례를 몽골비사에서 발췌(拔萃)하여 소개(紹介)고자 한다 ⇩

把阿禿舌兒壇 baγaturtan, баатартан(4–141–11)

木中合里壇 muqalitan, мухалитан(5–156–5)

太子壇 tayiǰitan, тайжтан (5–152–28)

赤舌來壇 čirayitan, царайтан (1–55–7)

斡孛黑壇 obuγtan, овогтан(11–263–4)

額舌兒迭木惕田 erdemüdten, эрдмэдтэн (4–139–7)

額勒赤田 elčiten, элчтэн (10–245–8)

客失克田 kesigten, хэшигтэн (7–187–4)

格舌兒田 gerten, гэртэн (12–266–2)

客列田 keleten, хэлтэн (10–245–1) 등등이다.

➢• 신라어의 角干 각간, 伊伐滄 이벌찬, 舒不邯 \ 舒弗邯 서불한, 舒發翰 서발한
한자 전사(轉寫)가 可汗, 中合罕, 角干; 邯, 翰, 干, 汗 建 등 등 약간 다르긴 하나 " qaγan хаан"과 " qan, хан"이란 칭호(稱號 chēng,chèn−hào,háo)가 몽골, 돌궐 그리고 신라에 대한 사료에 빈번히 나오며

王　東 土　得　君 之 子 孫 三 建 必矣

왕　동 토　득　군 지 자 손 삼 건 필 의

wáng,wàng−dōng−tǔ−dé,dė,děi−jūn−zhī−zǐ,zi−sūn−sān−jiàn−bì−yǐ

동방의 임금이 되려면 <건> 자 붙은 이름으로 자손까지 3 대를 거쳐야 한다(고려사 1-4,1-50)는 역사적 기록까지 있다. 이상 칭호의 분포를 보여 드리면

*Жоужань (Нирун)*에

4 세기말. Цюдоуфа　кэхань (-“-, Шэлунь 社崙 Shè−lún)
丘豆伐 qiū−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410 년. Айкугай　кэхань
藹苦蓋 Ǻi-kǔ-gài, gě　可汗 kě,kè-hán,hàn
(Вэйшоу.Вэй улсын бичиг 魏書 Wèi−shū 103,1a-22a. Хулуй 斛律 Hú−lǜ 이다)

≈420 년. Моуханьгэшэнгай кэхань (-“-, Датань 大檀 dà,dà−tán)
牟汗紇升蓋 Móu,mù−hán,hàn−gē,hé−shēng−gài,gě 可汗 kě,kè-hán,hàn

≈430 년　Чилянь　кэхань (-“-, Ути 吳提 Wú−tí,dī)

敕連 cè−lián 可汗 kě,kè−hán,hàn

≈444 년 Чу кэхань (-“-, Тухэчжэнь, Tǔ-hè-zhēn)

處 Chù,chǔ 可汗 kě,kè-hán,hàn

≈464 년 Шоулобучжэнь кэхань (-“-, Юйчэн 予成 Yú,yǔ−chéng)

受羅部貞 Shòu−luó−bù−zhēn 可汗 kě,kè−hán,hàn

≈485 년 Фугудунь кэхань (-“-, Доулунь 豆崘 Dòu− lún)

伏古敦 Fú−gǔ−dūn,duì 可汗 kě,kè−hán,hàn

≈500 년 Хоуцифудай кучжэ кэхань (-“-, Нагай 那蓋 nà,nā,nǎ,nǎi− gài,gě)

候其伏代 庫者 hòu,hóu−qí,jī−fú−dài kù−zhě 可汗 kě,kè−hán,hàn

≈500 년 Тахань кэхань (-“-, Футу 伏圖 Fú− tú)

他汗 tā−hán,hàn 可汗 kě,kè−hán,hàn

≈510 년 Доулофубадоуфа кэхань (-“-, Чоуну 醜奴 Chǒu−nú)

豆羅伏跋豆伐 Dòu−luó−fú−bá−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520 년 Миоукэшэгоу кэхань (-“-, Поломынь 婆羅門 Pó−luó−mén)

彌偶可社句 Mí−ǒu−kě,kè−shè−jù,gōu 可汗 kě,kè−hán,hàn

≈526 년 Чилянь тоубиндоуфа кэхань (-“-,Анагуй 阿那瓌 ā,à,ē−nà,nā,nǎ,nǎi−huí)

敕連 cè−lián 頭兵豆伐 tóu,tòu−bīng−dòu−fá,fā 可汗 kě,kè−hán,hàn

Цифу кэхань тодо моко

乞伏 Qǐ−fú 可汗 kě,kè−hán,hàn (Фан Сюаньлин. Цзиньшоу 房玄齡 Fáng−xuán−líng. 晉書 Jìn−shū , Жин улсын бичиг.125.1а-9а.) 있었으며,

Эртний солонгосын Силла(신라 新羅 Xīn−luó)에.

8 세기 각간 Qaɣɣan 角干 jiǎo,jué−gān,gàn.

豆恩坫 角干 Dòu−ēn−diàn jiǎo,jué−gān,gàn 두은점 각간.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高麗史고려사 1-156) 있었으며,

Түрэгт 돌궐에

553-572 년 Мухань кэхань (Линху Дэфэнь.Чжоу улсын бичиг. 周書 Zhōu−shū . 50.8а-10б)

木汗 Mù−hán,hàn 可汗 kě,kè−hán,hàn

≈712-716 년 Qaɣan (Тонъюкугийн хөшөөний бичээс 톤유쿡 비석)

732 년 Qaɣan (Куль-Тегиний хөшөөний бичээс 큘테긴 비석)

11 세기 Xaqan (Махмуд Кашгар 1072-1074 “Дӣванӯ луга̄т-ит-турк “Ш,157)

≈12-13 세기 Xaqan (Ташкент хото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араб үсгээрхи дурсгал 타스켄트시에 소장되어 있는 아라비아어 유물)

13 세기 Qaɣan (Огуз-хаганы домог. Парисийн Үндэсний номын санд 오구즈 각간 전설.파리시 도서관)

Altun qaɣan (Древнетюркский словарь – 405 고대돌궐어 사전)

Aj qaɣan (- ” -) ⇨ Baz qaɣan (- ” -) Bilgä qaɣan (- ” -)

Bögü qaɣan (- ” -) ⇨ Bökli (- ” -) qaɣan Bumȋn qaɣan(- ” -)

Eltäriš qaɣan (- ” -) ⇨ Inäl qaɣan (- ” -) Kül Bilgä qaɣan (- ” -)

Masar qaɣan (- ” -) ⇨ Oɣuz qaɣan (- ” -) Qapaɣan qaɣan (- ” -)

Urum qaɣan (- ” -) 있었으며,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д гардаг “Хаган” гэдэг үгс 몽골비사에 나오는 中合罕“Хаган”:

俺巴孩 中合罕 Ambaɣai <u>qaɣan</u> 52-32b(1103)

合不勒 中合罕 Qabul <u>qaɣan</u> 48-30a (1021)

中忽圖剌 中合罕 Qotula <u>qaɣan</u> 48-30a (1024)

成吉思 中合罕 Činggis <u>qaɣan</u> 59-40b(1226)

王 中合罕 Ong qaɣan/Wang <u>qaɣan</u> 150-9b(4531)

斡歌歹 中合罕 Őgedei <u>qaɣan</u> 269(11119)

中合罕 阿巴中合 qaɣan abaɣ-a 275(11415)

中合罕 阿中合 qaɣan aq-a 273(11314)

中合罕 安荅 qaɣan anda 200(7509)

中合罕 額赤格 qaɣan ečige 255(10510)

額遺中合罕 eǰen qaɣan

中合木渾 中合罕 qamuɣ-un qaɣan 53-33a(1112) 이다.

사료에 의하면 신라어의 "角干각간, 伊伐湌 이벌찬, 舒不邯서불한"이 동등(同等)한 관명(官名)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상 세 관명(官名)을 동일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伊伐 湌 一云 角 干 或 云 舒 不 邯

이 벌 찬 일 운 각 간 혹 운 서 불 한

yī-fá,fā-cān,sūn-yī-yún-jiǎo,jué-gān,gàn-huò-yún-shū-bù-hán

중세몽골어와 현대몽골문어에도 이상과 뜻 그리고 형태상 통하는 관명(官名)이 존재 한다. 필자가 위'문을 견주어 보고 " 角干 각간 "과 몽골어의 " qaγan хаан"을 같다고 주장하고(다음 글을 참조), " 伊伐湌 이벌찬 "과 몽골어의 " eberten, эвэртэн "이 상등(相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뉴안스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몽골인들이 높은 직위의 사람을 " eberten, эвэртэн " (tuγurayitan, туурайтан)라고 호칭(呼稱)하며 몽골어의 또 " 舒不邯 서불한 "의 뜻과 q~h~s 의 어음 대응(對應)법칙에 대한 상식(常識)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몽골비사에서의 " qabulqan, хабулхан "에 대한 아래와 같은

中合 木黑 忙 中豁 里中合 不勒中合 中罕 蔑 顛 阿 巴

합 목흑 망 활 리 합 불륵 합 한 멸 전 아 파

hé,gě-mù-hēi-máng-huō,huá,huò-lǐ-hé,gě-bù-lè-hé,gě-hǎn-miè-diān-ā,à,ē-bā

(Хамаг монголыг Хабулхан мэдэн аба1-52-1)란 기사(記事)에 입각하여 저자는 " 舒不邯 서불한 "과 " qabulqan, хабулхан "을 상대(相對)하고 있다. 그리고 외면상 몽골어의 " ǰebeten, зэвтэн " , " dayičing, дайчин ", " ǰiberiten, живэртэн" 과 대비(對比)할 수 있는 " 迊湌 잡찬,大阿湌 대아찬, 級伐湌 지벌찬 " 등 관직명이 더러 있으나 역사적 가록이 없는 이유로 이번에 해석(解析) 없이 그냥 넘어 간다.

➢• 신라어의 太大角干 태대각간

신라의 17 개 관직 이외에 특수 두개의 관직이 있었는바 그의 하나가 "太大角干 태대각간, **tài-dà,dài jiǎo,jué-gān,gàn**" 이다. "角干 각간"이 몽골어의 " qaγan, хаан"과 같다고 명증(明證)한 바가 있으며 "太大태대"가 의미, 형태와 발음상 중세몽골어의 " degedű, дээд"(몽골비사에 de'ere)과 대등(對等)한 관계속에 있다고 봐진다.이상 두 개의 단어를 합친 신라어의 "太大角干 태대각간" 이란 형태인 " degedű qaγan, дээд хаан "이란 표현이 몽골어에 그대로 존재하며 "太大角干 태대각간" 을 "舒發翰 Shū-fā-hàn, 서발한" , "舒弗邯 Shū-fú-hán, 서불한" 과 동일하다는 역사적 설명이 삼국사기(三國史記 Sān-guó-shǐ-jì,1958.pp.681)에 있다. . 그리고 몽골어의 " degedű дээд"과 동등(同等)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고구려(高句麗) 관명(官名) 구성에도 있다. 예를 들면:

太大對盧 태대대로

太大兄 태대형

太大夫使者 태대부사자 이며 그중 "太大對盧 태대대로"가 몽골어의

degedű teri(gűn), дээд тэри(гүүн)과 "太大兄 태대형"이 몽골어의 degedűsűn, дээдэс, дээдэhэн 아니면 degedű aq-a, дээд ах와 상등(相等)할 가능성이 높다.

- 신라어의 閼渼井과 娥利英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閼英井이란 이름이 나온다. 마감 井 이 "우물 정 [jǐng qudduɣ, худаг]"이다. 가로막을 閼 알[è,yān]과 꽃부리 영 [yīng]으로 구성된 것으로 봐서 閼英이 신라 단어의 한자 전사이며 우물 이름이 분명하다. 필자가, 알영(閼英)을 몽골 수명(水名), 지명(地名), 인명(人名) 및 인격(人格)에 잇달아 잦게 쓰이며 몽골비사에 "Ariɣ, Ari'un" (Ариг Усун, Ариун) 형태를 띠고 나오며 "깨끗하다, 순수(純粹)하다, 마음과 성질이 고분고분하다"의 뜻을 갖는 몽골어의 "· Ariɣun, Ариун"과 상관개념(相關概念)이라고 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상 閼英 우물 이름을 "아리영" (娥利英)이라고 쓰고 閼英井作娥利英井 라고 해석한 것이 필자의 주장을 확정해 주는 필기 사실이다.

- 신라어의 次次雄. 차차웅

12 세기의 유명한 사학가인 김 부식(金 富軾 Jīn-fù-shì, Ким Бүшиг)이 1145 년에 저작(著作)한 삼국사기(三國史記,Sān-guó-shǐ-jì, *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958. pp.78*)에 다음과 같이 썼다 ⇩

新羅王稱居西干者一次次雄者一麻立干者四. 日左漢中國史書也...匈奴語“撐梨孤塗” 等今記新羅事其存方言亦宜奂.

新 羅　王　稱　居西　干　者 一
신 라　왕　칭　거서　간　자 일
xīn-luó-wáng,wàng-chēng,chèn-jū-xī-gān,gàn-zhě-yī
次 次 雄　者 一
차 차 웅　자 일
cì-cì-xióng-zhě-yī
麻　立　干　者 四
마　립　간　자 사
má,mā-lì-gān,gàn-zhě-sì 이다.

필자가 여기에 나오는 차차웅(次次雄, cì-cì-xióng)의 어음구성과 “총명하다, 현명하다, 영리하다”란 뜻을 고려하여 몽골어의 Сэцэн, **sečen** / Цэцэн, **čečen** 과 연관(聯關)된다고 주장(主張)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Sān-guó-shǐ-jì, *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958. pp.6*)에서의

次 次 雄　云 慈　充
차 차 웅　운 자　충
cì-cì-xióng-yún-cí-chōng 이란 기록과 도발어(Тоба 어)에서의 “Чжичжэнь”(цэцэн)이 이상 설을 덧'입증한다. 이것은 귀인(貴人)의 옛 칭호(稱號)이며 몽골비사에 인명 뒤에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8-201-26)**

Тумбинай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1-47-2)**

Хойлдар **Сэцэн**, **sečen**(薛禪 xuē－chán,shàn, **6-171-3)**

Тумбинай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1-48-1)**

Дэ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2-94-1)**

Хойлдар **Сэцэн**ий, **sečen-ü**(薛禪訥 xuē－chán,shàn－nè, **6-185-26)**

Дэ **Сэцэн**ийг, **sečen-i**(薛禪泥 xuē－chán,shàn－ní,nì, **1-61-5)**

Дэ **Сэцэн**ээ, **sečen-e**(薛禪揑 xuē－chán,shàn－niē, **2-69-2)** 란 형태로 각각 수록된 실례(實例)가 있음을 참조(參照)하시기 바란다.

➢• 신라어의 麻立干 마립간

이상 인용(引用)한 김 부식(金 富軾 Jīn-fù-shì, Ким Бушиг)의 기록에 있는 마립간(麻立干, má,mā－lì－gān,gàn)의 음성구성과 기타 언어학적 사용 사항을 고려하여 몽골어의 Мэргэн, **mergen** (통찰력(通察力) 있는; 영특(英特)한; 명궁(名弓), 명궁수(名弓手); 점 잘치는)과관련(關聯)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고려사 (고려사 1-6,57)에 "신라 때는 님금을 마립간이라 하고 ..."란 기록이 있으며 기타 한국문헌에

訥祗麻立干 Nè-zhī má,mā-lì-gān,gàn, 눌지 마립간,

慈悲麻立干 Cí-bēi má,mā-lì-gān,gàn, 자비 마립간,

炤知麻立干 Zhào,zhāo-zhī má,mā-lì-gān,gàn, 소지 마립간,

智證麻立干 Zhì-zhèng má,mā-lì-gān,gàn, 지증 마립간이

각각 기사되어 있으며

몽골비사에

Мэргэн, **mergen** (篾舌兒干 miè－ér－gān,gàn, **2-74-3)**

Хоричар **Мэргэн**, **mergen** (篾舌兒干 miè－ér－gān,gàn, **1-2-1)**

Боржигидай **Мэргэн**, **mergen** (篾舌兒干 miè－ér－gān,gàn, **1-3-1)**

Добун **Мэргэн**, **mergen** (篾舌兒干 miè－ér－gān,gàn, **1-3-4)**

Хорилардай **Мэргэн**, **mergen** (篾舌兒干 miè－ér－gān,gàn, **1-9-1)**

Мэргэнд, **mergen-dür** (篾舌兒干途舌兒 miè－ér－gān,gàn－tú－ér, **1-10-1)**

Мэргэний, **mergen-ü** (篾舌兒干訥 miè－ér－gān,gàn－ nè, **1-2-2)**

Мэргэнийг, **mergen-i** (篾舌兒格泥 miè－ér－gé,gē－ní,nì, **1-17-1)**

Мэргэнээ, **mergen-e** (篾舌兒干揑 miè－ér－gān,gàn－niē, **1-8-3)**

Мэргэнээс, **mergen-eče** (篾舌兒格揑扯 miè－ér－gé,gē－niē－chě, **1-18-1)** 란 형태로 각각 전사(轉寫)한 실례(實例)가 있음을 참고(參考)하시기 바란다.

➢• 몽골비사의 [揑]兀舌里惕 와 한국어의 "누리"

몽골비사에 [揑]兀舌里惕 란 단어가 한번만 나온다(1-4-1). 학자들이 로마자로 ne'ürid 라고전사하고 뜻을 몽골어의 ne'ü- (negükü, нүүх,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로 해석하곤한다. 필자가 이것을 고대몽골어와 한국어 즉 알타이 어족(語族)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理由)는:

- 마감에 아래첨자로 쓰여진 惕 는 복수토이며 문제는 [揑]兀舌里 에 있다.
- 揑兀舌里惕의 번역이 단지 程 단위 정 [chéng - 길이의 단위, 도량형의 계량기, 법, 법도]이며 몽골비사에서의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의 번역과는 차이가 엄청나다. 즉 몽골비사에 "이동移動하다, 이사移徙하다" 를 耨兀惕坤 (, нүүдкүн, нүүгтүн, 2-72-1), 耨兀耶 (, нүүe, 3-118-3) 耨兀舌侖(нүүрүүн, 3-118-3, 8-208-13)라 번역했다.
- 몽골비사에 都蛙鎖中豁舌兒莽來敦荅中合黑察你都禿中忽舌兒班揑兀舌里惕

Duwa-Soqor mańlai dunda γaγča nidütü γurban neğürid

ᠳᠤᠸᠠ ᠰᠣᠬᠣᠷ ᠮᠠᠩᠯᠠᠢ ᠳᠤᠮᠳᠠ ᠭᠠᠭᠴᠠ ᠨᠢᠳᠦᠲᠦ ᠭᠤᠷᠪᠠᠨ ᠨᠡᠭᠦᠷᠢᠳ

Дува Сохор манлай дунд гагц нүдэт гурван нүүрид

中合札舌刺中合舌[槲]中忽不列額

γažar-a qaraqu büleġe

ᠭᠠᠵᠠᠷ᠎ᠠ ᠬᠠᠷᠠᠬᠤ ᠪᠦᠯᠡᠭᠡ

газараа харах бөлгөө 라고 기사되어 있다.

- 이상이 원본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마 가운데 눈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전설적 특별 존재(存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몽골 전설, 옛'설화, 영웅서사시에에 나오는 일목(一目 yī-mù) 존재 이야기와 몽골비사에서의 글귀를 종합해 보면 揑兀舌里惕 (neġürid, ᠨᠡᠭᠦᠷᠢᠳ ' нүүрид) 을 옛 한국어에 "세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누리", 현대 한국어의 "한 누리", "온 누리" 표현에 현존(現存) 사용되고 있는 "누리"와 연관(聯關)이 생존(生存) 유지(維持)되며 어원적으로 같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몽골어의 ᠨᠡᠭᠦᠷᠢ neġüri, 한국어의 "누리"가 약간 의미와 발음 차이는 있으나 알타이 어족의 공통어에 속한다는 향의(向意)다 .

关于成吉思汗大札撒原形的若干问题

—以分析《蒙古秘史》中的 jasaγ 记载为中心

朝克图（内蒙古大学）

一直以来，尽管国内外涌现出了一些关于成吉思汗大札撒[1]的研究成果[2]，但是在具体论述札撒的基本性质和基本概念方面，学者们的观点众说纷纭，至今还未能取得一致。比如；梁赞诺夫斯基和维尔纳德斯基对各种史书所留下的札撒若干零散记载进行近代法学理论分析之后，提出了“札撒是一个具有立法性质的完整法典”的观点[3]。阿亚伦对此前学者们曾作为札撒基本内容而所利用过来的马克里奇记载进行了文献学分析，发现了其中的一些疑难问题并提出了重新研究札撒的重要性[4]，接着在之后短短的几年之内，一些与札撒内容和性质相关的重要论文连续被发表。拉契内夫斯基曾认为“札撒并不是成吉思汗在某一时期所制定的法律和法典，而是在窝阔台汗时期编成的成吉思汗的命令和指令的汇编[5]”。摩尔根在否认札撒成文法典的存在的同时曾认为“札撒含义之中还包涵法律以外的指令（command）和命令（decree）等意义，史料中所见札撒的多数为指令（command）和命令（decree）”性的札撒。这些无法证明札撒成文法典的存在。应区分指令（command）和命令（decree）和法律性质的札撒”[6]。罗亦国则认为“札撒是指成吉思汗时期曾经存在的包括统治机关，军事指挥，审判制度，分配战利品等内容的规定，它具有宪法和永久法的性质。”宇野伸浩还认为“札撒之中不仅包涵大汗的命令和指令，而且还包涵着具有一定规则性质的札撒，其中后者很可能发展成为法律性质的札撒[7]”。归纳以上诸观点，我们可以认为在札撒之中，不仅有法律性质的札撒和命令性质的札撒，而且还包涵着具有政治制度性质的札撒。遗憾的是至今为止学者们仍未对政治制度性的札撒进行充分研究，这给我们在这方面作进一步研究和探讨留下了余地。

笔者在拙著“对成吉思汗·大扎撒内容的考察”，“波斯文史料中的成吉思汗大札撒[8]”等两篇论文中曾对拉施特《史集》、志费尼《世界征服者史》等伊斯兰史书中所记的成吉思汗大札撒内容进行研究，对波斯文史料中的札撒内容范围进行了一些探讨。

---

1 扎撒在波斯文史料和突厥文史料中经常以“yasa- yasaq- yasaγ”等不同的读音出现。而在蒙古文史料中的正确读音和拼写方法为“jasaγ”。

2 有关成吉思汗大札撒的研究成果从 1722 年 Petis de la Croix 的“*The History of Cenghizcan the Great*”开始到目前为止已经发表和出版了很多令人注目的论著。主要有：C. d'Ohsson（ 1834-1835）、de Sacy（1973）、别烈津（1863）、A.Riasanovsky（1937）、G.Vernadsky（1938）、田村実造（1971）、 D.Ayalon（1971）、P.Ratchnevsky（1974）、 D.O.Morgan（1986）、Saixial （1987）、 Namjil （1989）、I de Rachewiltz（1993）、张长利（1998）、奇格（1999）、宇野伸浩（2002）。

3 リャザノフスキー（1975），30 页。G.Vernadsky（1938），p.27.

4 D.Ayalon （1971）, pp. 94-140.

5 P.Ratchnevsky（1974）, pp.471-481.

6 D.O.Morgan（1986）.168-171 页。

7 宇野伸浩（2002）. 161-162 页。

8 チョクト（2003），朝克图（2007）。

但遗憾的是笔者在以上两文中未能对蒙古文史料中的札撒记载进行充分分析。众所周知《蒙古秘史》（以后简称为《秘史》）是 13 世纪用蒙古文写成的历史文献，其中可以见到一些札撒诸多固有形式。但时至今日，学者们还未对《秘史》中的札撒进行认真地分析。罗玉国先生虽然注意到了《秘史》记载的重要性，但也未作彻底地分析。本文拟就《秘史》所记的札撒各种形式进行一番分析，从而进一步了解札撒的一些基本特征。

自 1968 年吉田顺一先生对《秘史》的历史性提出疑义以来[9]，日本历史学界曾出现过重视《秘史》的文学性质而轻视其历史性的倾向。吉田先生在能不能把《秘史》当作编年体历史文献这个问题上的确采取了一些慎重的态度。尽管《秘史》中存在一些混淆年代方面的不足，但它对蒙古高原社会生活和民俗习惯方面的记载是无可怀疑的，从它所记的蒙古高原社会生活方面的记载中看不出受到任何外部文化影响。我们能够从《秘史》中看到一些蒙古高原上从自古以来传承下来的札撒固有形式。因此，《秘史》的记载与其他异文史料相比，还是比较可信的。《秘史》既不是详细叙述历史事件的编年体著作，也不是文学虚构作品，它真实地反映了成吉思汗建立大蒙古国时期蒙古高原上曾发生过的诸多重大社会变化。

一，《秘史》中的 jasaγ 一词与其汉文翻译

《秘史》虽然没有留下对札撒内容的系统记载，但伴随着发布圣旨 jarliγ 和强调对违者进行制裁之意，《秘史》中经常出现一些与 jasaγ 相关的词。其中不仅有其名词形式，动词形式，而且还有以 jasaγ 作词根而所组成的许多派生词。

首先，我们看一下《秘史》汉语转写中札撒一词如何被翻译和解释的情况。归纳《秘史》汉语转写，傍译和综译中的 jasaγ 一词为如下。

	原文（上段）/汉译（下段）	傍译	综译（上段）/场面（下段）
①	jasaγtan sečet bolba	法度有的	
74 节	成为英明的统治者们		也速该去世之后
②	jasaγlaju	法度做着	传了号令
81 节	发布札撒		泰亦赤兀惕部来袭时
③	jasaγ ügüleldürün	军法共说	先号令诸军
153 节	大家共同商讨札撒		与塔塔尔部的作战
④	jasaγlaldubai	共整治了	
153 节	大家共同制定了札撒		与塔塔尔部的作战
⑤	jasaγ ügüleldüqsen üges-tür	军法共说了的言语每里	犯军令
153 节	共同商讨的札撒里面		与塔塔尔部的作战

9 吉田順一（1978）。

⑥ 189 节	jasaγ qurča bolbi	法度锋利做了	法度严峻
	札撒变得严厉		与乃蛮部的作战
⑦ 193 节	jasaγ tungqabai	法度传了	
	公布札撒		与乃蛮部的作战
⑧ 197 节	jasaγ bolqaya	法度教做	闻了号令
	以札撒加以处分		与蔑儿乞惕部的作战
⑨ 199 节	jasaγlaju böet	法度着	
	制定札撒		与蔑儿乞惕部的作战
⑩ 199 节	jasaγ dabaqsad-i bariju nišituqai	法度越了的每行拿着打者	若有达号令者就那里典刑了
	凡违反扎撒者可以笞责		与蔑儿乞惕部的作战
⑪ 227 节	jasaγ könteesü	法度动着呵	
	如违反扎撒		怯薛的组建
⑫ 240 节	jasaγlarun	传号令时	令人
	传札撒		与秃马惕部作战
⑬ 257 节	jasaγ bolqan mököri’ülüye	法度做斩	达令欲废了
	以札撒加以处死		出征萨儿塔兀勒国时
⑭ 278 节	jasaγ könte’esü	法度动呵	
	如果动扎撒		窝阔台即位时

上表中与 jasaγ 相关的词共有十四个。这十四个词中均有其名词形式和动词形式。与傍译对这十四个词都作了相应的汉译相比，综译却只对其中一部分词进行了汉译。以一个同时拥有傍译和综译的词语的汉译文来看，它的两种译文之间存在着一定的不同之处。这说明当时在汉语中还没有形成对蒙古语 jasaγ 一词的统一的汉译名称。如上表所见，在《秘史》傍译对 jasaγ 一词的汉译中，我们多处见到“法度”一词。“法度”在辞书中有着众多意义，诸如：“法令制度”、“规范规格”、“格式”、“方法、方式”等[10]。而这里的“法度”一词仅表示汉语对蒙古语 jasaγ 的一种解释，它无法完整地表达出蒙古语 jasaγ 的全部含义。因为《秘史》傍译是一种单词解释，所以，它只能表达对该词某一种含义的解释。仅仅依靠《秘史》汉译我们无法看到 jasaγ 一词通过蒙古语法形态变化而所表示的一些特殊含义，更看不出它所显示的法律作用。因此，我们有必要对《秘史》原文中的 jasaγ 进行细致的分析，从而进一步了解其基本性质和法律职能。

二，《秘史》中的 jasaγ 与 jarliγ

jasaγ 与 jarliγ 的关系问题至今还未能得到充分的解释。有一部分学者认为 jasaγ 是通过忽里台而被制定的，而另一部分学者则认为 jarliγ 即能成为 jasaγ。如果承认 jasaγ 中含 jarliγ 内容这一观点

[10] 罗竹风『汉语大词典』第五卷、下册、p.1041.

的话，jasaγ 是通过忽里台而被制定这个观点就很难成立了。我们在《秘史》中经常见到当发布圣旨时把成吉思汗的圣旨写成为 jarliγ bolju 之后，为强调对违者进行制裁而使用 jasaγ 一词的例子。以下我们先看一下 jasaγ 与 jarliγ 两词同时出现的例子。

（例 1）

朵歹・扯儿必向成吉思合罕进言说：我们的人数少，既少又走的疲乏。可暂停在这里，把军马放饱。在撒阿里-客额儿旷野，要散布展开安营，每人要点上五起火。用火来惊吓（敌人）。听说乃蛮百姓人数众多，他们的罕却是未出过门的娇弱者。用众火使他们呆瞪间，我们的军马也放饱了。等军马吃饱再驱逐他们的哨望，按着杀到他们的中军，趁其忙乱冲杀。（合罕）以为如何？成吉思汗同意了这些话，降圣旨 jarliγ bolorun 向全军发布 jasaγ 道“就那样点起火”[11]。

以上，jarliγ 与 jasaγ 两个词同时出现在成吉思汗“降圣旨（jarliγ bolorun）向全军发布 jasaγ 道‘就那样点起火’”这一句中。这里 jarliγ 与 jasaγ 的内容同为成吉思汗所发布的“就那样点起火”这句话。对这里的“发布 jasaγ”一词，《秘史》傍译作了“法度传了”的解释。从以上内容看，这里作为“jasaγ”而被要求遵守的内容并非是一个长期性的法规，而是针对某一个具体事件而发布的临时规定。

（例 2）

就在这牛儿年，成吉思・合罕降旨：命速别额台率铁车军团，追袭脱黑脱阿的儿子忽都，合勒，赤剌温等。临行时，成吉思・合罕对速别额台降旨（jarliγ bolju），说：脱黑脱阿的儿子忽都，合勒，赤剌温等，边惊慌边走边回身射箭，好像带上套马杆的野驴，中了箭的鹿般的逃走了。如果他们生了翅膀，飞上天空，速别额台你要变成海青飞去扑拿。（中略）你要考虑路途遥远，在军马尚未消瘦之前，要爱惜军马，在行粮尚未用尽之前，要节省军粮。若军马消瘦之后，再加爱护也无济于事。如行粮耗尽告罄，即使节省又有何用？这般制定札撒（jasaγlaju böet）之后，凡违反 jasaγ 者可以笞责。凡违背我圣旨 jarliγ 者，若是我认识者，你就解给我处，若是我们不认识的，就可以就地斩首。[12]

以上是成吉思汗派速别额台追击蔑儿乞惕残部时，向他降圣旨并说明进军方法的记载。此处出现的与 jasaγ 相关的为“这般制定札撒之后，凡违反札撒者可以笞责。”这句话。其蒙古文原文为“jasaγlaju böet” 和“jasaγ dabaqsad-i bariju nišituqai”[13]。从以上记载的结构来看，成吉思汗在向速别额台发布应如何进军方面的圣旨之后，为了表示对违者进行制裁的强调时才说出了“凡违反

---

[11]《秘史》193 节。关于《秘史》以上记载此文引用阿尔达扎布汉译基础上进行了一些修改。以下如同。

[12]《秘史》199 节

[13] 关于“jasaγlaju böet”，“jasaγ dabaqsad”这两个词学者们曾进行了如下解释：Cleaves（1982）“making ordiance”“who shall have transgressed th ordiance”（p.134）、de Rachewiltz （2006）“thus,making this a matter of law,whoever then transgresses it”（wo/1, p.127）、村上（1972）“かく定めあったにも拘わらず、法度越えるものあらば”（318 页）、小沢（1987）「法定めありて」「法を犯せし者」（23-24 页）、余大钧（2001）“立下这样纪律，违令者杖责”，（318-319 页）。其中 Eldentai Ardajab（1986）对“jasaγ dabaqsad”一词的解释为“违反法令”。（639 页）

jasaγ 者可以笞责。”这句话。这里成吉思汗虽然没有提 jasaγ 内容，但从上文“jasaγlaju böet”一词不难看出，他所指的 jasaγ，应该是指 jarliγ 内容。可见，这里 jasaγ 已具备对违者进行制裁的具有强制性的法规性质。

（例 3）

宣布入值的圣旨说：“值班的时候，各班那颜应检点人数，自己带领轮值的扈卫们入值，三天一轮换，应入值者如缺值，要把他责打三柳条子。这个扈卫如在脱第二班，责打七条子，若是这个人身体无病又无该班那颜的许可，三次脱了应值的班，责打三十七条子，他既然不愿意在咱们这里行走，就驱逐到遥远的地方去吧。又降旨说“各班的首长在各班之内，要再三向属下扈卫们宣谕此旨。若不宣布，则该班首长要受惩罚。听了圣旨仍犯者，就按圣旨的规定，处罚脱班的扈卫。各班首长，不得借为首长的地位，未经我的许可，对属下入值者加以申斥，如有违反 jasaγ 者，要禀报于我”应斩的，我们就斩决，该打的，就应卧地责打[14]。

以上成吉思汗降旨发布了各班长官的任务和对脱班者的惩罚内容之后，又强调说“听了圣旨仍犯者，就按圣旨的规定，处罚脱班的扈卫”这样具有强制性的话，把自己发布的圣旨内容当做 jasaγ，并公布了对违者的惩罚方式。这里 jarliγ 与 jasaγ 两个词围绕扈卫的入值而联系在一起，其内容成为一个必须坚持的对违者进行制裁的强制性的规章制度。我们在窝阔台汗的圣旨里也能看到与以上内容相似的规定。《秘史》278 节中，窝阔台称汗以后，在重申对以前成吉思汗所制定的宿卫、扈卫、散班等人的入值规定的有效性之后，又通过降旨发布了一些新的规定。

（例 4）

有降旨说“值班者应入值时，若有脱班，仍按照以前的圣旨，惩戒三枚。这应值班的同一人，若在此脱班，惩戒七枚。仍是此人，既无病疾缘故，有未许可而第三次脱班，这样的人显然不愿为我效劳，要惩戒三十七枚，把他流放到眼睛看不到的地方。又降旨说“各班长官们要再三再三的，在入值之时，换班之时，把这道圣旨晓谕所有扈卫，听了圣旨，扈卫门如果在脱班，要按圣旨规章治罪？” 又降旨说“各班长官们对于同一入值的我的扈卫们，为得到我的同意，切勿以首长自居，而施惩罚，如有违者 jasaγ 者，须先向我奏报，理应处死的，我们来处死他，理应惩戒的我们来惩戒他[15]。

在以上窝阔台汗的圣旨内容中，除了重申成吉思汗所发布的扈卫入值规定和对违规者的制裁内容之后，还包括一些与以上内容相关的新内容。这里值得注意的是窝阔台汗颁布的扈卫入值规定与此前成吉思汗所发布的入值规定基本相同。可见，窝阔台汗颁布的入值规定不是针对某一个具体事件而发布的临时性的规定，而是在继承成吉思汗时期扈卫入值规定的基础上，增加了一些新的内容而构成的一个长期坚守的新的法规。例 4 中，jasaγ 一词仍是在强调对违反圣旨者进行制裁的时候才能被提到。

通过以上对《秘史》中 jarliγ 与 jasaγ 两个词同时被提到的几个例句的分析，我们对 jarliγ 与 jasaγ 的关系及 jasaγ 的出现形式有了一个初步的认识。从以上分析看，这里 jasaγ 这个词表示对违

[14]《秘史》227 节
[15]《秘史》278 节

者进行制裁这个概念是无疑的。对札撒概念有了这样的认识，我们就不必要像以往学者那样围绕札撒的内容和性质去进行各种各样的猜测了。这里 jasaγ 一词并不是指某一个具体内容，而是强调对违者进行制裁时候才被提到。这意味着圣旨 jarliγ 中虽然包含着指令、规定、法令制度等各种各样的内容，但表达对违反圣旨者进行制裁这个概念时它即称为 jasaγ。如果对 jasaγ 的概念有了这样的理解，那我们对曾在例 1 中看到的“发布 jasaγ”这一词的概念也可以做一个新的解释。

三，《秘史》中的 jasag 概念

以上，我们对《秘史》中的有关 jarliγ 与 jasaγ 两个词同时出现的例子进行了分析，对 jasaγ 的概念提出了新的看法。除以上几个例子之外，《秘史》中还能见到一些与 jasaγ 有关的例子。为了进一步了解《秘史》中的 jasaγ 概念，接着我们对以下几个例子进行分析。

（例 5）

当那些蔑儿乞惕百姓被掳时，豁阿思・蔑儿乞惕的答亦儿・兀孙，正带着他的女儿忽阑・哈敦来，要献给成吉思・合罕。途中被军人拦着，遇见了巴阿里・纳牙阿・那颜。答亦儿・兀孙说：“我是来要把我这个女儿献给成吉思・合罕的。于是，纳牙阿・那颜就停止前进说：我们一同把你的女儿献上吧。”因而就留住了三昼夜。局势平静后，纳牙阿・那颜才领忽阑・哈敦和答亦儿・兀孙来见成吉思・合罕。成吉思・合罕对纳牙阿说“你为什么停下？在盛怒之下，正要仔细的严格审问，以札撒加以处分（jasaγ bolqaya）的时候…

以上是关于那牙・那颜带领豁阿思・蔑儿乞惕的答亦儿・兀孙的女儿忽阑・哈敦来见成吉思汗的时候，成吉思汗为他们在途中停留了三昼夜的事情而盛怒，说了这句“加以处分（jasaγ bolqaya）”的记载。这里成吉思汗为什么对那牙・那颜说这样的话，是值得我们考虑的问题。根据我们在上节的分析中所理解的 jasaγ 概念，笔者认为这里那牙・那颜是违背了成吉思汗的意愿而落到了不得不受到 jasaγ 制裁的地步。这里 jasaγ 一词仍是表达对违者进行制裁的意义。

（例 6）

成吉思・合罕闻知秃马惕百姓杀死孛罗忽勒，异常震怒，要亲自出征，孛斡儿出，木和黎二人劝止了成吉思・合罕。排朵儿边氏的朵儿伯・多黑申之时，降旨说：“从严治军，祷告上天，试收秃马惕百姓。” 朵儿伯调度军队，现在进军路上和对方哨所把守的各隘口处，虚张声势。传札撒大军循着野牛踏出的路径前进。命所有兵丁要每人背上十根条子，以备责惩胆怯不前进者[16]。

上文“传令大军”这段话原文为 jasaγlarun[17]。jasaγlarun 是从 jasaγ 这个词派生出来的动词。这里应该表示“当朵儿伯向大军发布 jasaγ 时”之意。以动词形式出现的该词仍然表示“以备责惩胆

---

[16]《秘史》240 节。

[17] 关于 jasaγlarun 一词学者们曾进行了如下解释：Cleaves（1982）“made an ordinance unto the soldies”（p.175）、de Rachewiltz（2006）“he issued an ordinance”（p.165）、村上（1976）“軍に伝令を放ち”（318 页）、小沢（1987）“軍兵たちを整え”（82 页）、余大钧（2001）“传令军中”（398 页）。

怯不前进者”等惩罚内容。

这里值得注意的另一个问题是关于关朵儿伯发布 jasaγ 的问题。jasaγlarun 这个词虽然出于朵儿伯之口，但仔细读原文后可以发现，朵儿伯是按成吉思汗的圣旨出征的。成吉思汗本来想亲自出征，后在孛斡儿出，木和黎二人的劝告下才派朵儿伯出征秃马惕。成吉思汗向朵儿伯传的圣旨中有“从严治军，祷告上天，试收秃马惕百姓”等内容。这里朵儿伯发布的 jasaγ 应该是指他传了成吉思汗圣旨之意。如果这样理解的话，朵儿伯发布的 jasaγ 还是跟成吉思汗圣旨联系在一起的。《秘史》傍译中 jasaγlarun 这个词被汉语译成为“传号令时”之意。这无疑是把朵儿伯发布 jasaγ 的活动理解为传成吉思汗圣旨的。

（例 7）

塔儿忽台・乞邻秃黑把贴木真捉去，向自己的部族百姓发布扎撒（jasaγlaju），逐户留家轮宿一夜。时值初夏既望日，泰亦赤兀惕们在斡难河上举行宴会，日落而散[18]。

以上是关于塔儿忽台・乞邻秃黑捉拿贴木真后应如何惩治，而向自己的百姓发布 jasaγ 的记载。这里应该如何理解 jasaγlaju 这个词的意义呢？目前在《秘史》的一些译著中对该词的意义主要有两种不同的解释。一些著作中把它理解为“发布命令”之意[19]，而另一些著作中则把它理解为“制定规章制度[20]”之意。如果同意前一个理解的话，给人们一个错误的想法，将使塔儿忽台・乞邻秃黑成为 jasaγ 的发布者了。如果塔儿忽台・乞邻秃黑成为 jasaγ 的发布者，那就很容易令人们联想起在成吉思汗称汗之前，塔儿忽台・乞邻秃黑就曾经发布过 jasaγ 了。但是如果按照我们的理解，把该词理解成为表示对违者进行“惩罚，制裁”之意义，这里就无必要把它理解成为“发布命令”，而是只表示“对违反塔儿忽台・乞邻秃黑关于惩罚贴木真的指令者进行惩罚”之意就更为合理一些。

（例 8）

那年过了冬，狗儿年秋天，成吉思・合罕在答阑・捏木儿格思地方，征讨察阿安・塔塔儿，阿勒赤・塔塔儿，都塔兀惕和阿鲁孩・塔塔儿等诸塔塔儿部。交战前，成吉思・合罕与众议定了 jasaγ。说“战胜敌人，不得留于财物上。一战胜，那些财物归于我们，大家可以分份。倘若厮杀不利，被敌人赶退，就要再行反攻到原阵地。凡是不反攻到原阵地者，处斩。”“如此共同定立了 jasaγ”对于共同所议定的 jasaγ，阿勒坛，忽察儿，答里台三人没有按照所说的做，逗留在战利品那里。因为没有照所说的去做，就命者别，忽必来两个人，把他们所俘虏的马群等财物，全都没收了[21]。

18《秘史》81 节。

19 村上（1970）, 124 页。余大钧（2001），83 页。

20 小沢（1985），109 页。

21《秘史》153 节。

这里连续出现与 jasaγ 有关的①“jasaγ ügüleldürün”②“jasaγlaldubai[22]”③“jasaγ ügüleldüqsen üges-tür”等三个词。在①②中记载了交战前，成吉思汗与大家共同商讨作战方法和重申包括“凡是不反攻到原阵地者，处斩。”等内容在内的对违者的惩罚规定。③中记载了对没有按共同定立的 jasaγ 去做的阿勒坛、忽察儿、答里台等三人进行制裁的情况。这里①的“jasaγ ügüleldürün”和②的“jasaγlaldubai”中都包含着蒙古语动词互动态词尾“ldu”形。蒙语中互动态是表示大家共同完成某一事件和行为之意的。从“jasaγ ügüleldürün”这一词的语法形态形式所表示的意义看，这里发布和制定 jasaγ，不是成吉思汗一个人而为，而是经过大家共同商讨而来的。此外，在“jasaγ ügüleldürün”和 “jasaγ ügüleldüqsen üges-tür”这两个例子里还有“ügüle”一词，这也同样可以说明 jasaγ 不一定必须从汗的圣旨 jarliγ 里来，在有些情况下，它还可以通过汗与大家之间的共同商讨而被制定。

（例 9）

生来有胆识的兀真母亲，养育了福分的孩子们。拿起削尖的衫木橛，奔跑在斡难河畔，挖掘地榆根，狗舌草，日夜辛劳为糊口，养育孩子们成长。母亲兀真以野韭，山葱养育的儿子们终将成为合罕。耐心的兀真母亲，用山丹根养育的儿子们，终将成为英明的统治者们（jasaγtan sečet bolba）[23]。

这是关于也速该・巴阿秃儿去世之后，夫人诃额仑・兀真及孩子们过着艰苦生活方面的记载。这里出现了“jasaγtan[24]”一词。“jasaγtan”是在 jasaγ 这个词根上加表示名词复数的后缀“tan”而所构成。那么，该词这里表示什么意思呢？从其语义看，它是可以表达“执行扎撒的人们”“发布扎撒的人们”之意的。上文“母亲兀真以野韭，山葱养育的儿子们终将成为诸汗们（qad）。耐心的兀真母亲，用山丹根养育的儿子们，终将成为英明的统治者们（jasaγtan sečet bolba）”这句话所表示的也是这个意思。这里“qad”和“英明的统治者们 jasaγtan sečet”两个词的意义基本相同。从以上“jasaγtan”一词所表示的意义看，jasaγ 这个词是与继承汗位问题有着直接关系的。过去，在一部分学术著作中曾提出自清代以来蒙古语 jasaγ 一词词义中被包含着“统治”、“政治制度”等意义的主张。可是如果仔细分析《秘史》“jasaγtan”这个词，我们有理由认为自从《秘史》成书时代起，该词就已经表示这个意义了。

（例 10）

---

[22] 关于“jasaγ ügüleldürün”“jasaγlaldubai”两个词学者们曾进行了如下解释：村上（1972）“軍令を申し合わすよう”“軍法を定めあった”、 小沢 “軍令を話合っていうのに”“軍規を定め合いぬ”（卷二，209 页）、Cleaves（1982）“spoke an ordiance with[this soldiers]”“he made an ordiance with them”（p.81）、de Rachewiltz（2006）“jointly issued the folloing degree”“so he decreed with them”（p.165）、余大钧（2001）“议定军令”“而不反攻者处斩”（209 页）。

[23]《秘史》74 节。

[24] 关于 jasaγtan 一词学者们曾进行了如下解释。村上 1970“法持てる”（108 页）、小沢“規もてる”（卷二，38 页）、Cleaves（1982）“lawgivers”（p.21）、de Rachewiltz（2006）“became lawful ”（p.19）、余大钧（2001）“成为有法度的”（74 页）。

亦难察·必勒格·罕曾说过“我妻尚年轻，夫我已老。举行求子祈祷，生的塔阳。哎？可怜我的儿子生来懦弱，将来能够同下我的下贱的百姓吗？如今狗的吠声更是不祥之兆了。我们古儿别速·合敦的扎撒变得严厉。我的懦弱的塔阳·罕过于柔弱，你处了放鹰，狩猎两者外，没有什么心志和技能了[25]。

以上记载为进一步了解 jasaγ 一词的基本意义提供了又一个重要的史料。这里出现的与 jasaγ 相关的词为“jasaγ qurča bolbi[26]”。在以往的研究中把这一词的意义理解为“法律变得严厉了”之意的情况较多。只有罗亦国先生曾指出“这里 jasaγ qurča bolbi 一词所表示的意义，不是指法律变得严厉了，而是指“统治，权力变得严厉了”之意”[27]。笔者赞同罗玉国先生的观点。现代蒙古语中“jasaγ”一词至今表示“行政机关，政权，政治制度”等意义，我们经常能见到与 jasaγ 相关的“qataγu jasaγ” “qurča jasaγ”等词。我们虽然不能断言“秘史”中的 jasaγ 和现代蒙古语的 jasaγ 完全相同，但现代蒙古语中该词仍保留着“惩罚”“统治”“政权”等意义。《秘史》中 jasaγ 一词虽然以上面多种意义出现，但笔者认为表达对违者进行惩罚和制裁是它的主要意义。

通过以上笔者对《秘史》中有关 jasaγ 的记载进行的一番粗略的分析和探讨，我们对《秘史》中的 jasaγ 有了一些新的认识。据以上分析，笔者认为蒙古帝国时期的蒙古语中 jasaγ 一词并不是指某一个具体的圣旨内容，法规，规章制度等，而是只表达对违者进行惩罚和制裁之意。除此之外，jasaγ 一词词义中还包含着“统治”“政权”“权力”等意义，从这些意义派生出了现代蒙古语该词的意义。《秘史》中 jasaγ 一词虽然表示一些与法律相关的内容，但笔者认为它所表示的法律概念与近代法学理论中的“法律”概念还是有一定区别的。

但是，在蒙古帝国时期的有些异族人所著的一些著作中，他们无视该词在蒙古文中的意义而把它描写成为具有具体意义的法律条文的记载是常见的。后来的学者们未对以上记载进行任何史料分析，却以此为依据为揭示 jasaγ 的基本性质而做了一些徒劳地努力，结果当然是事倍功半。综上，从以上《秘史》所记的 jasaγ 内容可以看出，这里所记的 jasaγ 与以往学者们所认为的“成吉思汗大札撒”内容之间存在一定区别。

因此，我们在对“成吉思汗大札撒”进行研究之时，不仅要充分注意包括《秘史》在内的其他蒙古文史料中的有关 jasaγ 记载，还要正确掌握当时蒙古文史料中的 jasaγ 诸形式，这将对进一步深入研究蒙古帝国时期的法律起到莫大的推动作用。

参考文献

阿尔达扎布 2005『新译集注蒙古秘史』内蒙古大学出版社，呼和浩特。

25《秘史》189 节。

26 关于 jasaγ qurča bolbi 一词学者们曾进行了如下解释。村上 1970“軍律が厳しくあってきました”（233 页）、小沢“規律は厳しくなれり”（卷七，246 页）、Cleaves（1982）“ordiances”（p.117）、de Rachewiltz（2006）“the rule of our queen Gürbesü became harsh ”（p.111）、余大钧（2001）“统治方式锋锐”（287 页）。

27 I de Rachewiltz（1993），P. 97.

宇野伸浩 2002「チンギス・カンの大ヤサ再考」『中国史学』12
乌 蓝　2000『蒙古源流研究』辽宁民族出版社，沈阳。
小沢重男 1984-86.1987-89『元朝秘史全釈』全 6 巻、風間書房
栗林均、確精札布 2001『「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単語、語尾索引』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田村実造 1971「チンギス・ハンの札撒」『中国征服王朝の研究（中）』東洋史研究会
チョクト 2003「チンギス・カンの大ジャサの内容に関する考察」『史滴』24
朝克图 2007「波斯文史料中的成吉思汗大札撒」『内蒙古大学学报』2008 年第二期。
ドーソン 1968.1971.1973.1976.1979『モンゴル帝国史』全 6 巻、佐口透（訳注）、東洋文庫
ベレジン 1863.『术赤ウルスの内部組織考（1）』、播磨楢吉（訳）、『蒙古学報』2
村上正二 1970.1972.1976『「モンゴル秘史」1-3、チンギス・カン物語』、平凡社、
リャザノフスキー 1975『蒙古法の基本原理』 青木富太郎（訳）、原書房，東京。
吉田順一 1978「元朝秘史の歴史性――その年代記的な側面の検討」『史観』78
余大钧 2001『蒙古秘史』河北人民出版社，石家庄。
张长利　1998『关于成吉思汗大札撒的若干问题』『民族研究』1998 年、第 6 期
奇　格　1999『古代蒙古法制史』辽宁民族出版社，深阳。
吴海航　2000『元代法文化研究』北京师范大学出版社，北京。
罗竹风『汉语大词典』第五卷，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
Eldentai Ardajab 1986. *mongγul-un nigγča tobučiyan*. öbür mongγul-un arad-un keblel-ün qoriy-a. kökeqota.
Yeke Mingγatai Irinčin 1987. *mongγul-un nigγča tobučiyan*. öbür mongγul-un yeke sorγaγuli-yin keblel-ün qoriy-a. kökeqota.
Lubsangdanjin　*Altan tobči,* Ulaγanbaγatur, 1990.
Namjil 1989　*Činggis qaγan-nu jasaγ ba bilig*, öbür monγul-un soyul-un keblel-ün qoriy-a.
Saixial 1987　*Činggis qaγan-nu tobčyan*, öbür mongγul-un arad-un keblel-ün qoriy-a,
Sečenčoγtu 1990　*mongγul üges-ün ijaγür-ün toli* . öbür mongγul-un arad-un keblel-ün qoriy-a. Kökeqota.
Rashid al-Din 1373/1995, M. Roushan, M. Mūsavī(ed.), *Jāmi'al-Tawārīkh*, Tehran.
Francis Woodman Cleaves. 1982.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C. d'Ohsson. 1834-1835. *Histoire des Mongols* 1, La Haye et Amsterdam.
Petis de la Croix. 1722. *The History of Cenghizcan the Great*, London.
de Sacy. 1973. *Chrerstomathie Arabe*, 3vols, 2ed.
G.Vernadsky. 1938. "The Scope and Contents of Chinghis khan's Yas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
D.Ayalon. 1971-73. "The Great Yāsā of Chingiz Khān; A reexamination," *Studia Islamica* 33;34;36;38.

P.Ratchnevsky. 1974. “Die Yasa(Jasaq) Činggis Khans und ihre Problematik,” *Schriften zur Geschichte und Kultur des Alten Orients 5: Geschichte und Kultur der altaischen Vŏlker*, Berlin.

I de Rachewiltz. 1993. “Some Veflection on Chinggis Qan’s Jasar,” *East Asian History* 6.

I de Rachewiltz, Igor. 2006.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2vols, Leiden-Boston. Printed in The Netherlands.

D.O.Morgan. 1986. “The Great Yāsā of Chingiz Khan’ and Mongol Law in the Ilkhānat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9.

몽골족 기원에 대한 한 가지 가설*

복 기 대**

1. 들어가는 말

한국인은 몽골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유전적으로 같은 계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상대방 민족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은 종교, 언어, 문화 등의 일부에서 친연성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한 것 같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몽골에 과도할 만큼의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심지어는 몽골족의 터전인 바이칼 지역에서 한민족이 기원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국학계도 그 견해를 외면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시베리아 기원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지는 않고, 한반도 자생설이나 남방기원설, 또는 남북혼합설 등의 다양한 학설을 내놓고 있다. 한국학계나 몽골학계에서는 학계의 이런 견해에 대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은 것 같다.[1]

그런데 글쓴이는 2009년부터 몽골에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을 진행하면서 몽골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많은 몽골학자들이 "몽골의 조상은 흉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족사나 국가사의 기원은 그 시대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최고까지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몽골사의 경우는 그 상식을 벗어나 흉노로 그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몽골의 흉노 이전에 대한 역사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2] "몽골의 조상은 흉노"라는 것은 흉노 이전의 각 민족사에 나타난 흉노의 조상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몽골의 기원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몽골비사』에 기록된 몽골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흉노와의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민족의 기원을 밝힐 때, 몇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몽골족 기원에 관한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10-AGC-2101)
** 국제뇌교육대학대학원 국학과 교수
1) 일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2)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흉노', '투르크', '부리아트(코리)' 등이다.

2. 몽골대륙에 대한 이해

'몽골'이라는[3] 지명이 붙은 곳은 지리적으로 북위 40°부터 52°까지 지역, 경도 85°부터 125°까지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도로 볼 때 서고동저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서남쪽은 사막지대가 발전하였으며, 동쪽은 동남쪽은 초원이 형성되어있고, 북쪽은 산지가 형성되어있다.

이런 자연 지리가 형성된 몽골은 연간 평균기온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정도로 각 지역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남, 동, 서쪽 지역의 강수량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고, 북쪽은 생활이 안정될 정도의 비는 내린다. 몽골이 이렇게 극심한 건조지역이 된 이유는 서남쪽은 인도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증기를 히말라야 산맥이 막고 있고, 서쪽은 우랄알타이 산맥이, 동쪽으로는 대흥안령산맥이 막고 있어 비구름이 몽골 지역에 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그러나 동남쪽은 비교적 낮은 연산산맥이 막고 있어 발해만의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초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내린다(그림1).

그림1. 몽골지도

이렇게 혹독한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몽골의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나마 자연환경이 좋을 때는 여러 민족들은 서로 모이고, 몽골초원에서 세력다툼도 한다(그림2,3). 하지만 자연환경이 나빠지면 모두를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지역에서 생존이 가능한 일부의 사람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특징에 근거하여 "유목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이 생겨났다.[4]

---

3) 이 의미는 이른바 몽골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골을 합친 지역이다. 두 지역으로 나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4) '유목민족'이란 말은 민족적인 사유체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경제단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는 '유목집단'이라고 불러야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이렇게 유목집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 흔적들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몽골지역은 어느 특정인들이 역사의 맥을 이어가면서 살아 온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민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선사시대에 세석기와 채도를 만들었던 사람들, 3000년 전에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5], 청동검을 휘둘렀던 흉노, 연나라 진개에게 쫓겨 간 동호, 북방민족에게 한이 맺혔던 한무제의 후예들, 날이 추워서 급히 내려온 선비족, 어딘가를 헤매던 실위, 돌궐, 거란, 금 등등 몽골민족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몽골 땅에 살았다가 사라졌다.

그림2. 다리강가 부근에서 채집한 채색 질그릇	그림3. 다리강가 부근 신석시시대 경작지

이런 민족들 중에 오늘날 몽골이라고 불린 몽골족도 그 여러 민족 중의 하나였다. 몽골족은 지금까지 몽골초원에 나타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몽골인들이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후예이고, 자신들이 바로 '순수한 몽골족'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칭기즈칸의 조상을 밝히는 데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거론된다. 그렇다면 현재 몽골이라는 나라의 민족 기원을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몽골국 안의 여러 민족 중 몽골족의 기원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이유로 글쓴이는 실위, 돌궐, 선비, 흉노를 찾는 것보다는, 바로 몽골국 내의 여러 민족 중 몽골족의 기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3. 몽골족 기원에 대한 검토

몽골족의 기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몽골비사』이다. 이 책의 1권에는 몽골족의 영웅이자 오늘날 몽골공화국의 터를 닦은 칭기즈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는 칭기즈칸의 선조인 버르테-치노와 그의 부인인 코아이-

5) 2011년 한몽공동연구단이 몽골동부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경작지, 그리고 질그릇, 세석기들을 찾았다. 이 발견은 공식적으로 몽골학계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라 하였다.
이 조사를 할 수 있게해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감사드린다.

마랄부터 시작하고 있다.[6] 이때부터 시작하여 25대에 이르러 칭기즈칸이 태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다. [7] 처음 몽골족이 일어난 지역은 오늘날의 광대한 몽골 땅은 아니고, 작은 지역에서 부족을 이루며 살았던 작은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징키스칸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현재 몽골 동부지역의 패자가 되었고, 이 지역을 바탕으로 몽골 제국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몽골족은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 견해로 나뉜다. 이것은 『몽골비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8] 몽골족의 기원지에 대한 언급은 『집사』에 기록되어 있다. 연대기에는 몽골족의 기원지가 에르구네 쿤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고대 몽골이라 불렸던 이 종족에게는 다른 투르크 족들과의 불화가 생겼고, 전투와 전쟁으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종족들은 몽골에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은 몽골인들을 몰살했고, 각각 두 명의 남자와 여자만 살았다. 공포에 떨었던 이 두 가족은 산과 숲 언저리에 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 이곳의 명칭이 바로 에르구네 쿤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은 누쿠즈 (Нукуз)와 키얀(Киян)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과 오랜 세월 이 곳에 살았고, 대대손손 번창해갔다. 이 민족들은 나날이 번창했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다른 유목지로 옮겨 갔고, 그 좁은 곳을 나와 스텝의 공간으로 갔다. 그 곳을 나온 사람들 중에 존경할만한 족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부르테 치네 (Буртэ-чинэ)였다. 그는 몇몇 종족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그에게는 코아이 마랄 (Коай -марал)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바타치 카아안 (Батачи-Каан))이었고, 족장의 아들 중에 가장 총명하였다."[9]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몽골족의 기원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지명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먼저 '어르군네 쿤'의 뜻은 산, 또는 산맥이라는 말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며 '어르구네 칸'이라는 뜻의 산 또는 산맥을 찾으면 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해석한 결과 두 설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서부기원설과 동부 기원설이다.

서부기원설은 지금 몽골 공화국의 북서부 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인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회의적이다. 그 지역은 현재 러시아 령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몽골족기원과 관련한 전설이나 땅 이름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부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

이와 반대로 몽골 동부 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

6) 『몽골비사』의 번역본은 몇 본이 있다. 그중에 글쓴이는 민속원에서 출판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참조: 박원길, 김기선, 최형원: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민속원, 2006년.
늑대를 설명하면서 '잿빛 푸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해봐도 맞지 않는다. 하나의 짐승에 두 빛이 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푸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른은 한자로 '靑'으로 볼 수 있다. 이 靑은 때로는 검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면 '검푸른 이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7) 유원수 역주:『몽골비사』 제1권, 사계절, 2004년
참조: 위 책 마지막 페이지의 칭기스칸 조상들의 계보 표
8) 만약 어렴풋이라도 1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몽골족의 기원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9) 라쉬드 아드 딘 『집사』1952a: 153-154; 19526 : 9

이 동의를 하는 편이다. 동부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는데 바이칼 남동부의 아르군 산맥도 발음으로 분류해볼 때 어르군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음과 비슷한 지명과 산맥은 동부 지역에 또 있다. 현재 내몽고 지역의 어얼구나지역도 발음과 지형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10] 이런 지명들을 볼 때 몽골족의 기원지는 몽골동부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몽골비사』에 기록된 몽골족 계보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 살필 것은 몽고족의 연대 문제이다.『몽골비사』에 나와 있는 칭기즈칸의 조상은 24대이다. 이 연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칭기즈칸이 태어난 연대가 12세기 시기라 한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에 올라가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1대는 30년 전후한 시기이다. 이 기간을 산정하여 24대를 계산해보면 약 700년쯤 된다. 이 연대를 칭기즈칸이 태어난 시기가 12세기 경이라고 하는데[11] 이 연대를 거꾸로 올라가보면 칭기즈칸 가문은 서기 6세기부터 시작한다.[12]

이 시대의 지금의 몽골 동부 지역의 역사를 보면 실위[13], 돌궐, 거란, 고구려 등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다.[14] 그 후 7세기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특별한 정치체제가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916년에 거란이 건국되면서 이 지역은 다시 통일되기 시작한다.『요사』에 기록된 거란은 거란족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구려에 의지하면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은 기원 5세기 이후 거란의 대부족은 어떤 형태로든 고구려에 복속된 것을 의미하는데,[15] 이때 고구

---

10) 현재 중국 내몽고 동북부에는 '어얼구나'라는 지명과 강 이름이 존재한다.
11) 이 계산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평균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는 편차가 크게 날수도 있다.
12) 이 계산은 절대적으로 믿을 것은 못된다. 그 폭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13) 실위를 몽골족의 조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실위라는 뜻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렇게 이런 뜻으로 쓰인 실위는 매우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몽골실위를 몽고족의 조상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족은 숲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지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애초 풍습부터가 다르다. 그러므로 실위가 몽골족의 조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다만 훗날 몽골족이 대규모 정복전쟁을 치루면서 실위가 거주하던 산지들도 몽골에 정복당하여 편입되면서 몽골족의 조상으로 여겨진 것이 아닌가 한다.
14) 이때에 고구려가 이 지역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는 거란이 고구려에 의지하여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는 기록과 광개토대왕비에 전해지는 기록을 볼 때 고구려의 세력이 이곳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와 투르크가 이곳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광개토왕비문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王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 오년 을미년에 왕이 비려가 □사람을 □하지 않자, 몸소 이끌고 가서 정벌하였다. 부산을 지나, 산을 지고, 염수위에 이르러, 그 세 부락 육칠백령을 깨뜨려, 소, 말, 양을 수 없이 얻었다. 돌아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 역성, 북풍에 와서, 왕이 □을 준비 시키고 경치를 즐기며 사냥하면서 돌아왔다.'
15) 『遼史』卷三十二, 志第二, 營衛志中, 行營
部族上.
"奇首八部為高麗蠕蠕所侵, 僅以萬口附于元魏。 生聚未幾, 北齊見侵, 掠男女十萬餘口。繼為突厥所逼, 寄處高麗, 不過萬家。 部落離散, 非復古八部矣 。"
"기수 팔부는 고구려와 유연의 침입으로 겨우 만 명으로 원위에 귀부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제의 침입을 받아 남녀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어 돌궐의 침략을 받아 1만가에 불과한 인구로 고구려에 의

려의 서쪽에는 거란이 있었고, 그 서쪽으로는 돌궐이 있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고구려와 돌궐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돌궐인들이 몽골지역을 공격하여 몽골족의 선대인들을 몰살시켰는데 그때 남자 둘, 여자 둘 만이 살아남아 어르군네 쿤으로 피신하여 살아남아 훗날 몽골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연대기의 기록을 볼 때, 이 몽골족의 조상들이 피신한 곳이 고구려령 거란 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돌궐에게 몰살당한 사람들이 다시 돌궐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 돌궐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곳에 거란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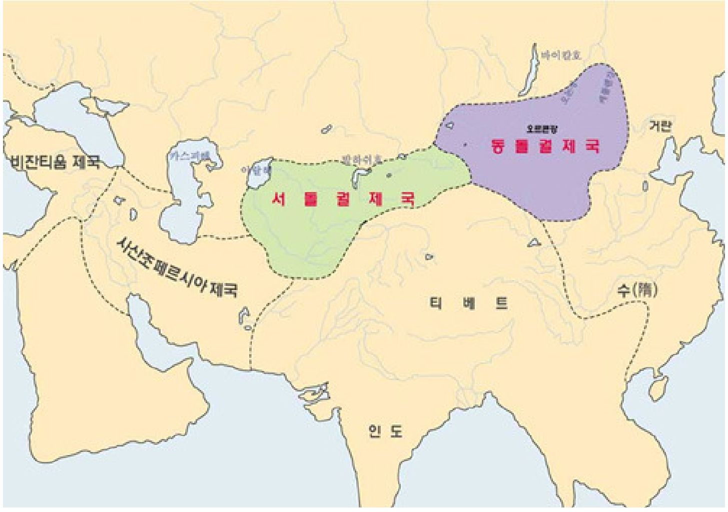


그림4. 6세기 경의 몽고지역지도

위에서 『몽골비사』에 전해지는 칭기즈칸의 세계표를 근거로 하여 버르테-치노의 연대를 확인해보고 그 연대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몽골동부지역은 어느 세력권이었나 하는 것을 확인해보았다.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버르테 치노 시기의 동몽골은 고구려령 거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6)]

다음은 칭기즈칸 가문의 종족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대부터 8대까지는 버르테치노와 코아이 마랄계이고 그 다음 9대는 몽골진 고아, 10대는 보로고친 고아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12대 도본 메르겐과 알란고아가 맺어진 후로 칭기즈칸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큰 틀에서 전반기 세력과 후반기 세력으로

지하여 살았다. 그 후 오랫동안 부락이 나뉘고, 흩어져 8부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는 고구려와 말갈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헌기록에 보면 말갈은 분명 고구려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볼 때는 별도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란도 그런 예가 아닌가 한다. 큰 틀에서 고구려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반독립적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국사기 등에서 빈번하게 거란이 등장했을 것이다.

16)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하였을 때 모든 행정을 거란에게 맡겼을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직계 중 일부가 왔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적어도 일부는 고구려의 직계가 이동하여 행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기 세력 중 4대 코리차르 메르겐이 출현한다. 이 코리차르 메르겐은 ‘코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고리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7] 만약 부자상속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르테 치노부터 코리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추대 형식이라면 코리는 단독으로 추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몽골비사』에는 부자상속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계통은 코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5. 민족의 이동에 대한 분석

코리는 고리족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몽골 경내의 몽골 기원 사료에는 고리족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세력이 작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세력은 어디선가 이동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 가능성은 광개토대왕이 초원지대를 정벌하면서 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고구려 세력 중 일부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옮겨진 세력이 고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고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글쓴이는 이 글을 쓰면서 고리에 대한 흔적을 추적해보았다. 그러던 중『요사』지리지에 그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사』「지리지」의 상경도의 봉주조에 이르기를,

> 봉주(鳳州)
> “고리국(槀離國)의 옛 땅이자 발해의 안녕군(安寧郡) 지역이며 남왕부의 5장이 나누어 받은 땅이다.
> 한주(韓州) 북쪽 2백리 지점에 있으며 서북으로 9백리를 가면 상경에 다다른다. 호수는 4천이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지리적인 표기를 하는데 ‘고리국’은 한주(韓州) 북쪽 2백리 지점에 있으며 서북으로 9백리를 가면 상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거리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5).

이 계산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상경’이다. 이 상경은 지금 중국 내몽고 적봉시 임동현을 말한다. 거꾸로 임동현에서 동남으로 9백리를 가면 어딘가 하는 것이다. 9백리는 약 3백km 정도 된다.[18] 임동에서 동남으로 300km면 지금의 요녕성 부신시 인근이다.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200리를 가면 요녕성 조양시 부근이다. 이 부신지역에 고리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광개토대왕의 서정로와 비슷하다.

---

17) 코리와 고리를 연결시킨 것은 몽골의 수미야 바타르 교수의 견해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18) 이 거리는 같은 책 동경도에 동경에서 철산까지 거리를 860리라 하였는데 이 거리는 요녕성 요양에서 대련까지를 말한다. 이 거리는 약 300km 정도이다.

그림5. 고리국 위치도

이 사람들을 광개토대왕이 서북쪽 멀리 옮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옮겨갔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옮겨간 초기에는 작은 세력만 옮겨서 현지 세력들과 결혼하여 정착을 하였지만 큰 무리 속에서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코리족이 몽골족의 형성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의 연대가 대략 5세기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 시기이다.

다음은 후반기 세력의 유입에 관한 분석이다. 후반기는 알란 고아세력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몽골비사』에는 알란 고아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알란 고아는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 셋을 낳았다. 햇빛이 알란 고아의 몸을 쫓아다녔고, 그런 이후에 아들들을 잉태하게 되었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는 부여의 유화부인이 애를 낳는 장면과 유사하다. 이런 알란 고아 세력이 나타나는 시기는 약 10세기 경이다. 이 시기는 야율아보기에 의하여 거란이 건국된 시기이다.

거란 태조는 건국 초기 모든 세력을 모아 발해를 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발해를 치면서 발해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 정책에서 발해나 부여의 후예들이 가장 많이 이주된 곳은 바로 요 상경성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사』「지리지」상경도에 의하면,

장태현(長泰縣)
“본래 발해국 장평현(長平縣) 백성들이다. 태조가 대인선(大諲譔)을 정벌할 때 먼저 이 읍(邑)을 함락시키고서, 그 백성들을 상경의 서북쪽으로 옮겨서 한인(漢人)들과 섞여 살게 하였다. 호수는 4천이다.”

정패현(定霸縣)
“본래 부여부 강사현(强師縣) 백성들이다. 태조가 부여를 함락시키고 그 백성들을 상경의 서쪽

에 옮겨서 한인들과 섞여 살게 하고,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통화 8년(990)에 여러 궁의 제할사(提轄司) 소속의 민호를 살게 하고 장녕궁(長寧宮)에 예속시켰다. 호수는 2천이다."

보화현(保和縣)
"본래 발해국 부리현(富利縣) 백성들이다. 태조가 용주(龍州: 길림 農安縣)를 격파하고 부리현 사람들을 전부 옮겨 상경 남쪽에 흩어져 살게 하였다. 통화 8년(990)에 여러 궁의 제할사 소속의 민호를 살게 하고 창민궁(彰愍宮: 경종)에 예속시켰다. 호수는 4천이다."

역속현(易俗縣)
"본래 요동의 발해 백성이었는데, 태평(太平) 9년(1029)에 대연림(大延琳)이 요동의 이족(夷族)들과 짜고 반란을 일으켜 포위한지 한 해가 지나서야 항복하자 주민 모두를 상경 북쪽으로 옮기고 현을 신설하여 살게 하였다. 이 해에 또 발해 반란인들의 가족을 옮겨 배치하였다. 호수는 1천이다."

천요현(遷遼縣)
"본래 요동 여러 현에 발해인들이 거주하였는데 대연림이 반란을 일으키며 지모와 용맹이 있는 자를 뽑아 좌우에 배치하였다. 후에 성 전체가 항복하자 이들을 죽이고 그 가족을 상경의 동북 지역에 옮겼으므로 천요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수는 1천이다."

발해현(渤海縣)
"본래 동경 사람들인데 대연림의 반란으로 그들을 옮겨 배치하였다."

흥인현(興仁縣)
"개태(開泰) 2년(1013)에 설치하였다."

부여현(扶餘縣: 巴林左旗)
"본래 용천부(龍泉府)였다. 태조가 발해 부여현에서 항복한 민호들을 이곳에 옮겨 살게 하였고 세종 때 현을 두었다. 호수는 1천 5백이다."

현리현(顯理縣)
"본래 현리부(顯理府) 사람들이었다. (요나라) 태조가 발해를 치고 그 왕 대인선을 사로잡고서, 그곳 백성들을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고 세종 때 현을 두었다. 호수는 1천이다."

이상에서 볼 때 거란의 황도인 상경성의 동서남북은 발해계와 부여계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그전부터 그 지역에 살던 선대인들과 섞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들은 비록 이주를 당하였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풍습은 그대로 지키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부여와 발해의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부여-고구려- 발해로 이어진다. 이런 시대적 계승관계는 전대의 문화를 그대로 전승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대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 조상들이 형성되는 과정은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란 건국 초기에 형성된 상경 임황도의 행정구역은 거란이 점점 커지면서 그대

로 외연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거란은 전성기에 이르러는 그 영역이 서쪽으로는 중국 섬서성 북단을 지났고, 북으로는 몽골 공화국 중부지역까지 이르렀다. 몽골족은 이런 거란의 세력판도에 들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경도로 이주된 부여 및 발해계의 유민들과 먼저 도착한 고리계의 사람들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도본 메르겐은 거란 때 옮겨간 부여, 발해계의 여자 알란 고아와 결혼 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동명왕의 탄생설화와[19] 비슷한 알란 고아의 보돈 차르의 잉태기와 성장기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하는데 현재 동몽골에 남아 있는 전설도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20] 뿐만 아니라 할인골지역에 전해졌다는 주몽석상은 이런 전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그림6).[21]

---

19) 『삼국유사(三國遺事)』권1 기이(紀異),고구려 동명왕.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혹 지금의 화주(和州)니 성주(成州)니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다.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시조 동명왕의 성은 고씨(高氏)요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보다 앞서, 북부여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고, 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발水)에서 만나 물으니,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다. 동생들과 놀러 나 왔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며 여기에 귀양 보냈다. "고 하였다.

금와가 이상히 여겨 유화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좇아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들이나 되었다. 왕이 버려서 개·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 가고,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이 깨뜨리려 해도 깨어지지 않으니 도로 어머니에게 주었다. 어머니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하였다.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주몽과 같이 놀면 그 재주가 늘 따라가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조금씩 먹여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니, 왕은 살찐 것을 타고 여윈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의 어미가 왕의 다른 아들들이 여러 장수와 함께 주몽을 장차 해치려 함을 알고,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주와 모략으로 어디로 간들 좋지 않겠는가, 속히 일을 꾸며라. " 하였다. 이에 주몽이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의 벗과 엄수(淹水)에 이르러 고하되,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하고 있는데 뒤쫓는 자가 따라오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주몽이 건너자 다리는 사라지고 쫓아오는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하였으니 미처 궁실을 짓지 못하여 비류수(沸流水) 위에 초막을 짓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고씨(高氏)로 성을 삼았으니, 그때 나이 12세였다.

이외도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료들은 많이 있다.

20) 글쓴이가 2011년 몽골 동부지역에 답사를 하는 중에 보이르 호수가에 간적이 있었다. 보이르 호수가의 호텔 주인에게 그 지방의 전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은 '아주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이 이곳(보이르 호수지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은 전설만 남아 있고 흔적은 없다. 그 고구려인들이 머물렀다는 곳은 보이르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가끔 한국 사람들이 이곳으로 고구려인들을 찾으러 온다는 얘기까지 덧 붙여주었다.

21) 할인골지역의 주몽석상은 현재 몽골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대략 13세기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울란바타르로 옮겨왔다. 적어도 800년 이상 동몽골 초원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모습을 보면 원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석상과 관련된 전설은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그림6. 주몽석상

이렇게 시기적으로나 민족 이동경로를 볼 때, 몽골족의 기원은 현재 동몽골 동남 지역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몽골족의 형성 배경 및 시기

기록이나 전해지는 전설, 그리고 일부 유물들이 의미하는 시대는 코리, 또는 부여, 고구려일수는 있다. 하지만 몽골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들은 그저 이름만 전해지고 실질적인 문화는 당시 문화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족이 형성되는 시기는 몽골제국 형성 이전인 거란시기가 될 것이다. 어떤 민족의 기원을 밝힐 때, 영역적으로 그들의 주된 거주지가 거란 땅에서 형성되었고, 시대적으로 거란시기에 살았다면, 그 민족은 당연히 거란계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거란을 형성하는 여러 민족들 중 고리, 부여, 고구려계들의 전통이 거란민족들의 전통과 혼합하여 새로운 몽골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제 형태도 가축을 기르는 구조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구려와 몽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몽골족은 유목경제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는 정주 경제 형태이지 이동 경제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란은 이동 경

제 형태라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경제 형태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정주형태의 경제 형태를 갖은 사람들이 점점 유목경제를 배워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란과 몽골의 문화적인 공통성은 다음 몇 가지의 공통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첫째는 종교이다. 거란의 제사형식과 몽골의 제사형식은 매우 유사하다. 제사 장소는 신전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수목을 이용해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간단한 살림도구만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따로 신전 지을 건축 재료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때그때 자연에서 제의 장소를 찾던 습속의 유습인 듯하다. 신주수목(神主樹木)에 희생을 매달고 제사를 지내는 형식은 신간(神竿)을 세우고 그 위에 고기를 달아 하늘에 바치는 고대 몽골의 주겔리(Jügeli)[22]나 만주족의 소모(Somo, 索莫)제,[23] 자작나무를 잘라 세우고 희생을 바친 타브가치[탁발선비]의 제의 양식[24]과도 비슷하다. 현재 몽골의 고대 유습이 많이 남아 있는 다고르(Dagur)에서 동물의 심장과 폐, 간을 나무에 걸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는 점을 참조하면 고대 몽골의 주겔리나 거란의 제산의는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 신앙은 거란뿐 아니라 그 앞 시대인 돌궐과 후대 몽골에서도 뚜렷하며, 세 제의의 형식과 내용이 몽골의 제화(祭火, Gal-un takilga) 의식과 매우 비슷하여 몽골의 불 신앙은 거란으로부터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25]

하늘신인 천신과 그에 대비되는 지신, 천계의 신성한 존재인 해, 달, 북두칠성, 노인성(老人星, 남극성), 태백성(太白星, 금성), 형혹성(熒惑星, 화성), 세성(歲星, 목성), 병란·재앙·생사 등을 맡아 다스린다는 태을성(太乙星, 태일), 산악 및 산신 숭배를 나타내는 목엽산신과 흑산신, 황하신 등 수신, 시조신, 조상신, 용 및 흰색 수조(獸鳥), 동물신, 병신(군신) 등이 있었다. 이는 지금 한국의 샤머니즘과도 매우 비슷하다.

통상 거란의 샤머니즘은 몽골 샤머니즘과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제문화요소가 거란 때 한번 크게 통합, 정리되어 몽골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사장을 만들고 신목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두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26]

둘째는 머리 모양이다. 몽골에 남아 있는 그림 중에서 몽골인들이 머리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칭기즈칸의 초상화나, 석인상의 머리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머리 모양을 알 수 있는데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묶거나 땋지 않고 풀

22) 『몽골비사』43절 방역(傍譯)에 주겔리는 "以竿懸肉祭天"이라 하여 기둥에 고기를 달아 하늘에 바치는 제사라고 하였다.
23) 소모는 만주족의 신간(神竿, spirit’s pole)이다. *Shamanism: an encyclopedia of world Beliefs, Practices, and Cultures* (www.abc.clio.com), 2004, 584쪽.
24) 『魏書』卷一百八之一「禮志四之一」斬樺木立之, 以置牲體
25)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민속원, 2001, 396-406쪽.
26) 이인숙: 「『요사』에 나타난 거란의 샤머니즘」, 제3회 역사연구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국제뇌교육대학원 역사연구회, 2011.12.17

어 놓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란족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거란족의 경우는 머리카락을 잘라 낸 모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풀은 머리였다.

셋째는 옷이다. 거란과 몽골의 전통 의상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몽골박물관에 전시된 무덤 그림 속의 옷과 거란족 무덤에서 확인된 옷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옷의 형태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7.8).

그림7. 거란 복식(거란 무덤그림)	그림8. 몽골복식(국립 몽골박물관)

이런 문화현상들을 볼 때 몽골족의 기원에 거란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몇 가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몽골족 기원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리족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고리족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 후대 『몽골비사』에 나타나는 푸른 잿빛 늑대이야기, 「집사」에 나타나는 어르군네 쿤으로 쫓겨나는 몽골인들의 후예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기로 한다.

수미야바타르로부터 시작된 코리와 고리의 연관성에 대한 강조로 몽골족은 바이칼지역의 코리 부리야트에서 남쪽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다. 이 설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바이칼호 주변에 남아 있는 많은 코리부리야트 관련 자료들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 볼 것은 바이칼호 주변의 고대 유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기 전후한 시기부터 서기 6, 7세기까지의 유적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대규모 군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27] 이런 현상은 사람이 살만한 지역에서는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칼호에서 동남으로 왔

27)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바이칼호부근의 부리야트에 대한 인식은 16세기경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는 것은 다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요사』에 기록된 고리국의 위치는 그동안 바이칼호로부터 이주설은 연구방향을 전향적으로 바꿔봐야 할 것으로 본다.[28)]

둘째, 잿빛 푸른 늑대와 관련이다. 잿빛 푸른 늑대에 관한 전설은 몽골족보다 투르크족에 대한 토템이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설은 순수한 몽골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29)] 그러므로 이 문제는 투르크족의 전설이 중국인들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집사」에 나타나는 것은, 투르크인들에게 어르군네 쿤으로 쫓겨난 4사람의 이야기이다. 지역적으로 어르군네는 오늘날 중국의 최북단에 속한다. 이것은 근데 붙여진 지명으로 보여진다.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큰 산 밑으로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큰 산이라면 대흥안령을 말할 수 있는데 대흥안령수계는 서쪽보다 동쪽으로 더 발달되어 있다. 이곳으로 피난 온 원몽골땅의 사람들은 훗날 고리족의 후예들과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힘을 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버르테 치노와 결혼동맹이 맺어지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8. 맺 음 말

이상에서 글쓴이는 몽골족의 기원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을 제시한 이유는 글쓴이가 평소 가까이하던 몇몇 사료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요사에 기록된 고리국의 위치는 지금까지 묻혔던 고리국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 기록뿐만 아니라 요사지리지에 기록된 부여, 발해 유민들의 이동경로는 이 글을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몽골족이 '맥족의 후손이다, 또는 흉노계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구려도, 흉노도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 많은 시간동안에 다른 문화와 새롭게 융합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 전개 과정을 볼 때 몽골족은 거란시기에 형성된 민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거란에 소속된 민족이었는데 거란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독자성을 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가르침을 바란다.

---

28) 최근 러시아 학계도 몽골에서 바이칼로 이주하였다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실제 국내에서 발간된『몽골비사』번역본에는 잿빛 푸른 늑대 이야기가 실린 것과 안 실린 것이 있다. 실린 책은 명나라 때 편찬된 한문본이고, 안 실린 본은 몽골어로 된 것이다. 이 두 본을 보면 전자는 중국들 특유의 교주를 붙이는 것이고, 후자는 원문을 그대로 전한 경우라 하겠다. 그러므로 글쓴이의 견해는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

참고문헌

葉隆禮 撰,『契丹國志』, 上海古籍出版社, 1985.
(元)脫脫 等撰,『遼史』, 北京: 中華書局, 1991.
Shamanism: an encyclopedia of world Beliefs, Practices, and Cultures(www.abc.clio.com), 2004.
Xu Elina-Qia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e-Dynastic Khitan*, University of Helsinki, 2005.
江上波夫,『コウラシア 古代北方文化: 匈奴文化論攷』, 東京: 山川出版社, 195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北史』.
김선자,『중국 소수민족의 신화기행』, 안티쿠스, 2009.
김위현,「거란의 전쟁의식(儀式)」『北方文化硏究』제2권 1호, 단국대학교북방문화연구소, 2011.6
김화경,『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島田正郞,『遼朝官制の硏究』, 東京: 創文社, 1978.
島田正郞,『遼朝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1979.
동북아역사재단 편,『舊唐書 外國傳 譯註』(下), 2011.
동북아역사재단 편,『舊五代史·新五代史 外國傳 譯註』, 2011.
동북아역사재단 편,『北史 外國傳 譯註』(上), 2010.
동북아역사재단 편,『史記 外國傳 譯註』, 2009.
동북아역사재단 편,『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2009.
동북아역사재단 편,『新唐書 外國傳 譯註』(中), 2011.
동북아역사재단 편,『周書·隋書 外國傳 譯註』, 2010.
동북아역사재단 편,『漢書 外國傳 譯註』(上), 2009.
동북아역사재단 편,『後漢書 外國傳 譯註』, 2009.
동북아역사재단 편,『魏書 外國傳 譯註』, 2010.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 필립 윌킨스 저, 주민아 역,『기호와 상징』, 21세기북스, 2010.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이윤기 역,『샤마니즘-고대적 접신술』, 까치, 2007.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이재실 역,『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박원길,『북방민족의 샤마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1998.
박원길,『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마니즘』, 민속원, 2006.
박원길,『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 민속원, 2001.
박원길,「몽골비사에 나타난 몽골족 기원설화 분석」몽골학 13호.

장지우허,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2009년, 북방사 연구팀.
주채혁, 「몽골의 맥(貊), 고구려 기원(起源)문제」
주채혁,「朝鮮·鮮卑의 ‘鮮’과 馴鹿遊牧民-몽골유목기원과 관련하여1-」동방학지.
白鳥庫吉,『白鳥庫吉全集』(1), 東京: 吉川弘文館, 1969.
유초하·김성환·이덕진·조남호·윤승용·정승모,『한국인의 생사관』, 태학사, 2008.
이재성,『고대 동몽고사연구』, 법인문화사, 1996.
윤은숙,『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09년.
몽골국립박물관, 『몽골국립박물관 도록』.2010년.
위키소스(http://zh.wikisource.org),『史記』,『漢書』,『魏書』,『南齊書』,『宋書』,『北史』,『周書』,『隋書』,『後漢書』,『舊唐書』,『新唐書』,『東齋記史』,『東都事略』,『舊五代史』,『新五代史』.『宋史』.
이평래 외 지음,『동북아 활쏘기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전북대 인문학연구소,『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2000.
정학유 지음· 허경진 옮김,『시명다식(詩名多識)』, 한길사, 2007.
내몽고자치구문물고고연구소, 손건화 편저, 『내몽고요대벽화』,문물출판사, 2009년
타임라이프, 김석희 옮김,『여명기의 영웅들－켈트신화』, 이레, 2008.
ウノハルヴア 著 · 田中克彦 譯,『シャマニズム :アルタイ系諸民族の世界像』, 東京: 三省堂, 1971.

추모왕의 홀본부여는 동몽골 할힌골에서 개국

최기호(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총장)

1. 머리말

몽골과 한국은 오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몽골족과 한민족은 바이칼호수와 만주대평원과 흥안령산맥 부근 등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깊은 교류가 있었고 같은 문화를 이룩하였다.

13세기에는 칭기스칸이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몽골제국을 세웠으며 그 때에 고려도 몽골제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몽골제국과 고려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려사> 이장용열전에는 쿠빌라이칸의 어록이 있다. ‘나는 고려를 일가로 보고 있다. 고려에 어려움이 있다면 짐이 어찌 구하지 않겠는가?(今朕視爾國猶一家,爾國若有難,朕安敢不救乎)’

또 <고려사> 김취려열전에는 카치온(哈眞)과 잘라(扎剌) 장군이 조충과 김취려와 형제동맹을 맺으며 말하기를 ‘두 나라는 영원한 형제가 되었나니, 만세 뒤의 자손들이 오늘을 잊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1)]

그리고 <고려사> 충혜왕전에도 ‘형제의 동맹을 맺었나니 자손 대대로 오늘을 잊지 말라.(結兄弟之盟,世世子孫無忘今日)’고 하였다.

이처럼 몽골과 고려는 사돈의 나라, 형제의 나라로서 가장 넓은 몽골제국이 세계를 경영할 때 서로 협력하였다. 고려 여인 기황후는 몽골제국 원나라의 마지막 황후이며 북원 소종황제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양국은 황실 간에 결혼이 이어졌고 많은 인적, 물적 문화교류가 있었다.

---

1) 哈眞札剌請沖就礪同盟曰 兩國永爲兄弟,萬世子孫無忘今日 <고려사> 김취려 열전

그리하여 고려에는 몽골풍(蒙古風) 즉 몽골 패션이 유행하였고 몽골에는 고려양(高麗樣) 즉 고려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류 열풍이 최초로 몽골제국에 생겨난 것이었다.

2. ‘추모/주몽’의 여러 이름과 그 의미

추몽(朱蒙, BC58~BC19)은 B.C. 37년에 고구려를 세워 시조가 되었고 사후에 시호를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고 칭하였다. 추몽은 천제 해모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 유화이다.

추몽의 이름이 역사적 자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지금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현(集安縣) 퉁거우(通溝)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서 찾을 수 있다. <광개토대왕비>는 414년에 세워졌는데 비문의 첫머리가 ‘주몽의 탄생담’으로 시작하고 있다.

‘옛날에 시조인 추모왕이 나라를 건립할 때에 그의 부친은 북부여 천제의 아들이며 모친은 하백의 따님으로 알을 깨고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나자 곧 성덕이 있었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郞, 部卵絳世, 生而有聖德,○○○○○命駕)’ <광개토대왕비>1면1행 2)

그런데 5세기 초(414)의 <광개토대왕비>에서 ‘추모’라고 기록하였는데 훨신 뒤에 간행된 12세기 중엽(1145)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주몽’이라고 기술하였고 13세기 말(1281)의 문헙인 <삼국유사>에도 성이 고(高)씨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라고 하였다.3)

그리고 <광개토대왕비>보다 약 150년이나 뒤인 6세기 중반에 편찬된 중국 사서인 <위서(魏書)>에도 ‘추모’라고 하지 않고 주몽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다른 사서 <주서(周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수서(隋書)> 등에도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朱蒙)’이라고 되어 있다.

그란데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도 이름이 ‘추모(鄒牟)’로 나타나

2) 이 비문은 고구려 당대의 최고 문장가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지은 문장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이것은 김부식이나 일연이 <광개토대왕비>는 보지 못하고 중국의 사서에 의지했기 때문에 ‘추몽’을 ‘주몽’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있으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 ‘추모(鄒牟)’라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추모(鄒牟) 또는 상해(象解)라는 이름도 나타난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王曆)에는 ‘추몽(鄒蒙)’이라는 특이한 이름도 나타난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의 조서(詔書)에는 ‘중모(中牟)’라는 이름도 있다. 또 <일본서기(日本書記)> 등에는 ‘중모(仲牟), 도모’라는 이름도 나타난다.[4]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고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주몽’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은 성이 고(高)씨이고, 이름이 주몽(朱蒙)이다. 그의 나이 일곱 살이었을 때에 남달리 뛰어나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몽골어에도 있다. 몽골어 ‘메르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로서 부여어 ‘주몽을 선사자(善射者)’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히 일치한다.

중국 사서 <위서>에도 ‘그가 커서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부여어로 주몽은 활을 잘 쏜다는 말이다.(其長也字之曰朱蒙其俗言朱蒙者善射也)<魏書>’라고 하였다. 또 <논형>에서도 ‘부여어로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한다’고 하였다.[5]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도 나온다. ‘지금 만주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릴무얼(卓琳莽阿)이라 하니 주몽은 곧 주릴무얼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 정신은 고분벽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

4) 주몽위 이름을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등 일본문헌에는 ‘도모(都慕: 일본어로 쓰모)’라고도 하였다.
5) (夫餘謂善射曰朱蒙,) (論衡)’

이것은 중국 길림성 집안현 여산에 있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다. 5세기말~6세기 초경에 그려진 이 수렵도는 ‘주몽’의 후예답게 험한 산악에서 수렵하는 박진감이 넘치는 명사수를 묘사하고 있다.

동명성왕의 이름을 이렇게 ‘주몽(朱蒙), 추모(鄒牟), 추몽(鄒蒙), 중모(中牟), 중모(仲牟), 도모(都牟), 상해(象解)' 등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몽의 의미는 부여어로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주몽]이라는 발음을 구성하는 한자에는 ‘활 잘 쏘는 사람’이란 의미는 없다. ‘주몽(朱蒙)’이라는 글자는, 부여어로 [주몽]을 그대로 발음한느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음차(音借)해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모왕이 유명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의 여러 문헌에서 추모완을 역사적 위인으로 다루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사서의 저술자나 역사적 관점과 시대에 따라 ‘추모(鄒牟)’를 다른 한자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에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다른 한자로도 같은 이름을 표기했기 때문이다.[6]

6) 한편 중국문헌인 <위략(魏略>, <후한서(後漢書)> 부여전과 <양서(梁書)> 등에는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라 되어

그런데 ‘주몽(朱蒙), 추모(鄒牟), 추몽(鄒蒙), 중모(仲牟)’라는 이름에서 거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것은 최초의 이름을 한자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자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몽골어로 ‘촐몽(Цолмон)’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은 샛별(동명성, 금성)이라는 단어인데 추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촐몽’을 한자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주몽(朱蒙), 추모(鄒牟), 추몽(鄒蒙), 중모(仲牟)’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모왕의 시호가 동명성왕(東明聖王)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7]

서기전 19년에 동부여에서 첫 부인 예씨(禮氏)와 왕자 유리(類利)가 도망하여 오므로 태자로 삼았다. 이해에 왕이 돌아가니 용산(龍山)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 하였다.

3. 천제의 아들 추모왕과 고구려 국호

3.1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인가 ‘해의 아들’인가.

추모가 북부여에서 탈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부여 염리대수를 만나 나루에 이르러 왕은 ‘나는 황천(천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고 나는 추모왕이다.’라고 외쳤다.(□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 言曰‘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광개토대왕비>1면2행

추모는 ‘천제의 아들(天帝之子)’이라고 극존칭을 쓰고 있다. 또 추모는 ‘나는 황천의 아들(皇天之子)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즉 추모는

있다. 그리고 <위서(魏書>, <주서(周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수서(隋書)>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이라고 되어 있다.

7) 이것은 우실하 교수(항공대)가 2011년 8월 9-11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국제몽골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사석에서 구두로 한 말인데 탁견으로 보인다.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1145년(인종 23)경에 김부식(金富軾)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나는 천제의 아들 하백의 외손이다.’ 라고 하였다.

또 1281년(충렬왕 7)경에 일연(一然)이 편찬한 사서인 <삼국유사>에서 추모를 ‘천제의 아들’ 로 기술하고 있다. 즉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모두 추모를 ‘천제(天帝)의 아들’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추모왕이 ‘천제의 아들’ 이라는 것은 이미 5세기 고구려의 문장가에 의해 잘 다듬고 정열을 쏟아 기록한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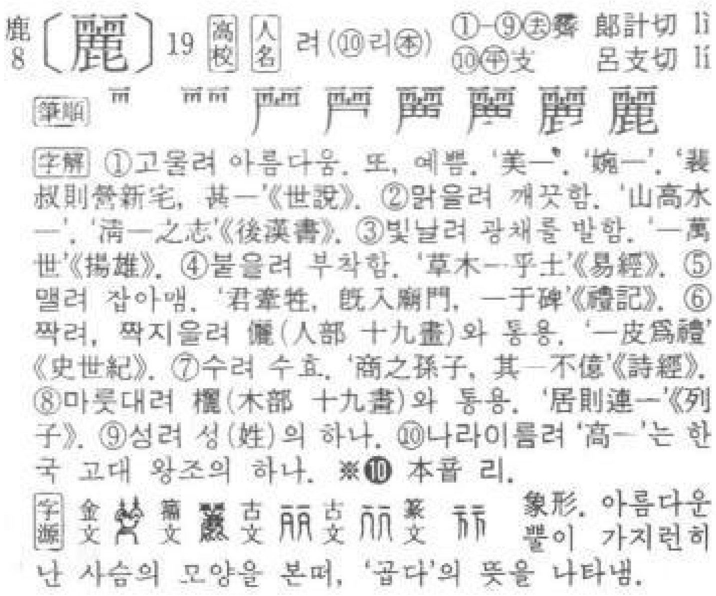
그러나 <광개토대왕비>보다 약 150년 뒤인 6세기 중반에 편찬된 중국 사서인 <위서(魏書)>를 보면 추모왕을 ‘천제의 아들’ 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해의 아들(日子)’ 라는 말로 한 계단 낮춰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사가들이 추모왕을 ‘천제’ 가 아니라, 고의로 추모왕을 낮춰서 ‘해’ 로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술은 고구려 국호에서도 나타난다. <논형>에서는 ‘고구리(高句麗)’ 를 낮춰서 ‘하구리(下句麗)’ 로 기록하고 있다.

3.2 ‘고려(고리/구리)’ 와 ‘고구려’ 국호

<삼국사기>에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라고 했다. 여기서 ‘고구려(高句麗)’ 라는 국호는 실은 '구려(句麗)'라는 국호에 추모왕의 성 '고(高)씨'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고구려(高句麗)’ 라는 글자를 읽을 때 [고구려]라고 발음하고 있으나 실은 [고구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한자사전에서 있는 것처럼 ‘려(麗)’ 자는 나라이름일 경우에는 [리]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호 ‘고구려(高句麗)’ 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로 읽어야 한다.


鹿8 〔麗〕 19 高校 人名 려(⑩리本) ①-⑨去霽 郎計切 lì ⑩平支 呂支切 lí

筆順

字解 ①고울려 아름다움. 또, 예쁨. '美一'. '婉一'. '裴叔則營新宅, 甚一'《世說》. ②맑을려 깨끗함. '山高水一'. '淸一之志'《後漢書》. ③빛날려 광채를 발함. '一萬世'《揚雄》. ④붙을려 부착함. '草木一乎土'《易經》. ⑤맬려 잡아맴. '君牽牲, 旣入廟門, 一于碑'《禮記》. ⑥짝려, 짝지을려 儷(人部 十九畫)와 통용. '一皮爲禮'《史世紀》. ⑦수려 수효. '商之孫子, 其一不億'《詩經》. ⑧마룻대려 欐(木部 十九畫)와 통용. '居則連一'《列子》. ⑨성려 성(姓)의 하나. ⑩나라이름려 '高一'는 한국 고대 왕조의 하나. ※⑩ 本音 리.

字源 金文 籒文 古文 古文 篆文 象形. 아름다운 뿔이 가지런히 난 사슴의 모양을 본떠, '곱다'의 뜻을 나타냄.

그러니까 동명성왕이 '고구리' 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고(高)' 는 추모의 성이고 나라 이름은 '구리(句麗)' 였다는 것이다. '구려(句麗)' 는 한자 음으로 [고리/구리]로 발음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 사서 <논형>에서는 '고구리(高句麗)' 를 낮춰서 '하구리(下句麗)' 로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하구리(下句麗)로 기록 한 곳은 <삼국지(三國志)>를 비롯하여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양서(梁書)> 등 여러 곳이 있다.

또 <위서>, <북사>, <구당서>, <당서(唐書)> 등에는 아예 '고리(高麗)' 로만 표기하고 있다. 한편 <자치통감>에도 광개토대왕, 장수왕 연간 이후에는 '고구려' 를 모두 '고려' 로 기록하고 있다.[8]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왕건이 건립한 '고려' 와 구분하기 위해 앞에 기록한 기록에 등장하는 '고구려' 와 '고려' 를 모두 '高句麗' 로 통일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9]

---

8) 연가7년명(延嘉七年銘), 고구려 불상 광배(光背) 뒷면의 조상기에 '고려국' 으로 기록되었고, 「중원고구려비문(中原高句麗碑文)」에도 '고려' 로 기록되어 있다.
9) 몽골 오르혼강가에 있는 돌궐제2제국의 빌게가한과 퀼테킨을 기린 두 개의 옛 돌궐비에서 고구려를 배크리(Bökli)라 기술하였다. 튀르크어에서 B음과 M음이 상호전환 될 수 있으므로 배크리는 매크리(Mökli)이다.또 범어잡명(梵語雜名)과 돈황문서(敦煌文書) 등에서 고려를 '무구리(畝久理)' 'Mug-lig' 라 하였는데. 이도 맥구리(貊句麗) 즉 '맥족(貊族)의 구리' 를 기술한 것이다.

4. 알랑 고아(Алун гуа) 신화와 추모왕 신화

4.1 알랑고아 신화

 햇빛으로 소녀가 감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성장하자 다른 아이들로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이라는 것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형식의 신화가 아메리카 이디안에 퍼져있는 햇빛 임신신화이다.

이런 형식의 신화는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하여 피지, 톤가, 사모아 제도 등 태평양 일대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 여성이 햇빛이나 기타 자연물에 감응하여 임신한다는 형식의 신화를 햇빛 임신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시조나 성인, 영웅의 탄생담에 많이 나타나는 신화 형태인데 세계 각 지역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햇빛 임신신화가 몽골의 알랑고아 신화와 고구려의 추모왕 신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몽골의 사서 <몽골비사> 8-9장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있다. '알랑-고아(몽골의 시조 어머나)는 코릴라르타이-메르겐의 딸이다. 밤마다 밝은 햇빛(황금 빛)이 게르의 어르흐(Өрх, 게르 위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의 배를 비춰서 임신을 하였다. 뱃속의 아이는 하늘의 아들이다.'

알랑 고아는 천장에서 황금 햇빛이 내려와 배에 스며들어서 아기를 가졌데. 그가 칭기즈칸의 조상 버든차르라는 것이다. 버든차르는 오형제 중에 막내인데 형들과 아버지가 달라 형제들에게 배척당해서 집을 떠나 새로운 씨족을 형성한다. 이것이 알랑고아 신화의 요점이다. 햇빛 임신 신화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4.2 추모왕 신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에 관한 건국신화는 주인공인 동명성왕의 이름을 따서 ‘추모왕 신화’라고도 한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있다.

어느 날 유화는 햇빛을 받고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다. 그 알에서 남아가 나와 성장하니 이가 곧 ‘朱蒙’이다. 주몽이 7세 때 이미 활을 잘 쏘는 등 영특하고 총명하였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대소가 ‘후환이 두려우니 제거함이 옳다’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10]

그는 날센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둔한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니 왕이 살찐 말을 골라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러나 대소 등 왕자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유화부인이 ‘멀리 도망가서 큰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였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으로 데리고 엄수(淹水) 또는 엄리대수(奄利大水)에 이르렀다.[11]

이때 주몽이 강물에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인데 오늘 도망하다가 뒤쫓는 군사가 닥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주몽이 건너자 곧 흩어져 뒤쫓는 군사들은 건널 수 없었다.[12]

---

10) 동부여 금와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하백의 딸 유화(柳花)를 만났다. 유화는 말하기를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자기를 유인하여 육체관계를 갖고는 돌아오지 않아 부모에게 쫓겨나 우발수에 살고 있다 하므로, 금와왕은 유화를 데려다 궁중에 유폐시켰다.

11) 여러 문헌에 淹遞水, 또는 蓋斯水, 掩遞水로도 기록되어 있다.

12)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주몽 신화가 있다. 금와(金蛙)가 이상히 여겨 유화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좇아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들이나 되었다. 왕이 버려서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 가고,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왕이 깨뜨리려 해도 깨어지지 않으니 도로 어미에게 주었다. 어미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하였다. 부여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금와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주몽과 같이 놀면 그 재주가 늘 따라가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니, 만약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 조금씩 먹여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것을 타고 여윈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의 어미가 왕의 다른 아들들이 여러 장수와 함께 주몽을 장차 해치려 함을 알고 말하였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도망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이에 주몽이 오이(烏伊)등 세 사람의 벗과 엄수(淹水)에 이르러 고하되,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백(河伯)의 손자다. 오늘 도망하고 있는데 뒤쫓는 자가 따라오니 어찌하리오?” 하니,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주몽이 건너자 다리는 사라지고 쫓아오는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또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주가 달려 있다. “본성은 ‘해’씨였으나 지금 스스로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는 까닭에 스스로 ‘고’로서 성씨를 삼았다.(本姓解氏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5)

4.3 알랑 고아 신화와 추모왕 신화의 공통점

위의 몽골 알랑고아 신화와 고구려의 주몽 신화는 그 내용과 구성이 일치한다. 알랑고아는 몽골 민족의 조상여인으로 여기서 ‘고아’는 ‘곱다’는 뜻이 있다. 한국어의 ‘곱다, 고와’라는 말과 음과 뜻이 일치한다.

알랑고아의 아버지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다. 몽골어 ‘메르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로서 부여어 ‘주몽을 선사자(善射者)’라고 하는 어휘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릴라르’는 몽골의 유명한 사학자 가담바에 의하면 코리(호리) 부리야드(Хори буриад)에서 갈라져 나온 부족의 명칭이라고 하였다.

추모왕이 ‘고리/구리’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코리(호리) 부리야드 족의 ‘코리(호리)(Хор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오는 알랑고아는 몽골민족의 시조모이다. ‘알랑’은 우리의 아랑 설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아’는 ‘곱다’는 뜻이다. 그리고 알랑-고아의 12대 손이 바로 칭기즈칸이 된다는 것이다.

울란자타르대학교 대학원장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에 의하면 ‘몽골어 메르겐’과 신라의 ‘마립간[(麻立干=마루(宗) + 칸(汗)]’이 관련성이 깊다고 한다.

5. 추모왕이 비류골 홀본에서 졸본부여를 개국.

5.1 엄리대수(奄利大水)는 아무르(Амур)강이다.

주몽은 어머니 유화 부인의 명을 받고 수레를 타고 순행하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에이르러 왕이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고 추모왕이다.’ 라고 외쳤다.(□□□□□□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삼국사기>에는 이 ‘엄리대수’가 ‘엄사수(淹㴲水)’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의 소주(小註)에 “일명 개사수(蓋斯水)니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 <삼국유사>에는 엄수淹水라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중국 <양서> 동이전에는‘엄리대수’가‘엄체수(淹滯水)’로 나타난다. <북사(北史)> 백제전에도 엄체수(淹滯水)로 나오고 <수서(隋書)> 백제전에는 엄수(淹水)라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엄리대수(奄利大水)나 엄사수(淹㴲水), 개사수(蓋斯水), 엄수(淹水), 엄체수(淹滯水)는 왜 그렇게 다른 이름이 많고 그 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3에 실린 동명왕편에는 ‘남으로 가서 엄체수에 이르렀다. 일명 개사수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에 있다.’고 하였다.(南行至淹滯水一名盖斯水, 在今鴨綠東北)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주몽이 건넜던 강을 엄사수(淹㴲水)라고 적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삼국시대 지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후대 사가들은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송화강 또는 요하라고도 하고, 시라무렌 강이라고도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도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병도는‘개사수가 압록강의 동북쪽에 있다는 설은 주몽의 본국(本國)을 동부여(東夫餘)로 잘못 안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부여(北夫餘)의 위치가 지금의 농안(農安) 부근이었으므로, 여기의 대수(大水)는 지금의 송화강(松花江)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하였다.<國譯三國史記> 217쪽 주> 그러나 이병도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이제 <광개토대왕비>에 최초로 기술한 ‘엄리대수(奄利大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엄리(奄利)-’는 강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의 어근이고 ‘-대수(大水)’는 보통명사로 큰 강물이라는 말로 풀이 된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엄체수(淹滯水), 엄사수(淹淲水), 엄수(淹水) 등 모든 어휘에서 공통된 ‘엄(淹)-’이나 ‘엄리(奄利)-’는 강 이름을 표현하는 고유명사이다. 그리고 -대수(大水)나 -수(水) 등은 강물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엄(淹)-’이나 ‘엄리(奄利)-’는 어느 강일까?

<삼국사기>에는 이 엄리대수가 “일명 개사수(蓋斯水)니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일명 개사수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에 있다.’고 하였다. 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큰 강은 북부여의 아무르강이다.

아무르(Амур)강은 중국어로 헤이룽강(黑龍江)이라고 부르며 만주어로 사할리안 울라(Sahaliyan Ula)라고도 부른다. 아무르강은 상류의 실카강과 오논강을 포함하여 총 길이 4,444㎞나 되는 큰 강이다. 아무르강은 몽골,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세계 8위의 긴 강이다.

필자는 이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금의 ‘아무르(Амур)강’이라고 본다. 김부식이나 이규보의 ‘엄리대수(奄利大水)’ 위치를 지칭하는 것도 압록강의 동북쪽에 있는 아무르강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강이름 [엄리(奄利)-]의 음운구조와 [아무르(Амур)]의 음운구조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엄(奄)-]은 [아무(Аму)-]와 대응되며, [-리(利)]는 [-르(-р)]와 대응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아무르(Амур)]를 한자로 전사한 것이 [엄리(奄利)-]이기 때문에 <광개토대왕비>의 엄리대수(奄利大水)는 지금의 ‘아무르(Амур)강’이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엄리대수(奄利大水)는 주몽의 피난 동선이나 추모왕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에서 개국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아무르(Амур)강이 확실하다.

5.2 비류곡 홀본(졸본)에서 ‘홀본부여’를 개국

<광개토대왕비>에는 추모왕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에서 도읍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엄리대수를 건넌 후에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하였다.(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광개토대왕비>

즉 추모왕이 북부여 대소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서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을 묘사한 기록인데, 남하한 동선을 보면 엄리대수를 건넌 후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에서 도읍한 것이다.

그런데 5세기의 <광개토대왕비>보다 150여년 뒤의 문헌인 중국의 사서 <위서(魏書)>에는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이 아니고 ‘보술수(普述水)’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 흘승골성(紇升骨城)에 이르렀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그라고 고려의 12세기 문헌인 <삼국사기>에는 비류곡 홀본이 아니라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다. 재사(再思)는 마의(麻衣) 삼베옷을 입었고, 무골(武骨)은 납의(衲衣) 중옷을 입었으며, 묵거(黙居)는 수조의(水藻衣) 마름옷을 를 입고 있었다.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각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러 개국했다는 것이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수(沸流水)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이때 추모(주몽)의 나이가 22세였다.[13)]

그러면 추모왕이 북부여 대소에게 쫓기어 남쪽으로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건너 비류곡 홀본에 도읍하였다고 하는데 이곳은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

지금까지 나온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수(沸流水)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광개토대왕비>---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위서(魏書)>---보술수(普述水), 흘승골성(紇升骨城)<삼국사기>---모둔곡(毛屯谷), 졸본천(卒本川), 비류수(沸流水)

<주서(周書)>---흘두골성紇斗骨城)

다시 유형별로 정리하면 <광개토대왕비>에 비류곡(沸流谷)은 비류수(沸流水), 보술수(普述水)가 있고, 모둔곡(毛屯谷)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다.

비류곡(沸流谷)은 비류수(沸流水), 보술수(普述水)에서 '비류-(沸流-)'의 어근과 '보술-(普述-)'의 이형태가 나타난다. 여기서 보술수(普述水)는 비류수(沸流水)를 다른 한자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비류수'는 할힌골의 '부이르' 호수와 그 호수로 흐르는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둔곡(毛屯谷)이라는 특이한 형태는 무엇일까? 몽골어나 여진(女眞)어로 [모드]가 '나무'인데, 모둔곡(毛屯谷)은 나무가 많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동몽골 부이르노르에는 끝없는 초원이 끝나는 지전에 높은 산이 있다. 이 산을 비칙올이라고 한다.

그리고 <광개토대왕비> 나오는 홀본(忽本)은 졸본(卒本), 졸본천(卒本川)이 있고 흘승골성(紇升骨城), 흘두골성紇斗骨城)이라는 표기도 있다. 홀본(忽本)에서 홀(忽)은 성(城)을 뜻하는 고구려어이다.[14]

그래서 홀본(忽本)은 도성(都城)을 말하는 것인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졸본(卒本)지역에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여 '졸본천(卒本川)'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류수(沸流水)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기록으로 볼때 졸본천(卒本川)은 비류수(沸流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15]

---

14) ' 부여어에서 성(城)을 '구루(溝漊)' '홀(忽: khol)'이라 하였다. 이는 읍(邑), 동(洞), 곡(谷) 등을 나타내는 '고을'과 통하는 말이다. 부여어의 '-忽'은 買忽(水原), 召忽(仁川), 奈兮忽(安城), 沙伏忽(陽城), 馬忽(提川)등의 지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루, 忽, 骨, 谷' 등이 통하는 말이다.

15) <삼국사기>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주몽은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그) 왕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왕이 죽자 주몽은 왕위를

여기에 나오는 '흘승골' 은 지금 동몽골 도르너드 아이막(Дорнод аймаг) 의. 할힌골(Халхын гол) 을 중국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고구려는 서기 3년(유리왕 22)에 도읍을 졸본에서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다

필자가 1992년부터 수 차례 답사해온 할인골 부이르노르와 다리강가 일대에는 고려(고구려)성터를 비롯하여 석인상이 많이 남아있다. 석인상을 몽골어로 훈 촐로(Хүн чулуу) ' 라고 하는데 다리강가에는 30여기가 남아 있다.

할인골에는 '고리왕(추모왕) 훈 촐로(Хүн чулуу) ' 라고 부르는 석인상이 2기가 있다. 하나는 부이르 호수와 하인골 강 사이에 펼쳐진 삼각주 지역에 있다. 그곳에는 한국 시골 주거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름나물을 비롯하여 초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그 가운데 석인상 한 기가 파손된 채 서 있다.

다른 하나는 13세기 경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석 석인상인데 고려성터 부근에 있었는데 1999년에 울란바아타르의 몽골국립역사박물관 2층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할인골에는 옛날에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조개묻이가 골짜기에 있어서 한국인 선조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몽골 여인과 고구려 여인이 몽골 초원에서 만나서 손을 흔들녀 반갑게 인사하였다는 전승 설화가 채취된 곳도 이곳 할인골 일대이다.

초원에서 여인들의 '말을 볼 때(소변을 볼 때)' 에 고려 여인은 동쪽으로 가고 봉골 여인은 서쪽으로 가서 일처리를 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얘기가 전하고 있다. 대초원지대로 소변을 볼 때 말을 타고 멀리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증거는 추모가 할인골에서 졸본 부여를 개국하고 고구려로 이름을 바꾸고 세력을 확장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이제 깊이 있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자세히 연구해야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논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원래 이름은 ‘주몽’ 이 아니고 ‘추모(鄒牟)’ 이다. <광개토대왕비>에 ‘시조 추모왕(始祖鄒牟王)’ 이라고 기록한 대로 ‘추모(鄒牟)’ 라고 불러야 한다.

2), 추모왕의 이름이 ‘추모(鄒牟), 추몽(鄒蒙), ‘주몽(朱蒙) 중모(仲牟)’ 라는 여러 이름은 <광개토대왕비>에 있는 ‘추모(鄒牟)’ 왕을 여러 문헌에 한자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표기한 것이다.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이름 ‘추모’ 는 몽골어 ‘촐몽’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실하 교수의 견해는 탁견이라고 본다. 몽골어 촐몽은 ‘동명성, 샛별, 금성’ 을 뜻하는데 ‘추모(鄒牟)’ 와 음운구조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모왕의 시호가 동명성왕(東明聖王)으로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5세기 초의 <광개토대왕비>에는 추모왕을 ‘천제의 아들’ 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6세기 중반의 중국 사서인 <위서(魏書)>에는 ‘해의 아들(日子)’ 이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중국 사가들이 고의로 추모왕을 낮춰서 ‘해’ 로 기술한 것이다.

4) ‘고구려(高句麗)’ 라는 국호는 [고구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래 추모왕이 졸본부여를 세우고 나라이름을 ‘구리(句麗)[고리/구리]’ 라고 하였다. 코리(호리) 부리야트와 ‘구리(句麗)[고리/구리]의 관련성도 연구할 과제라고 본다.

5) 몽골 알랑고아 신화와 고구려의 추모왕 신화는 그 내용과 구성이

같으며 햇빛 임신신화 형태도 같다. 알랑고아는 몽골 민족의 조상여인으로 여기서 '고아' 는 '곱다' 는 뜻이 있다. 알랑고아의 아버지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다. 몽골어 '메르겐' 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라는 뜻의 단어로서 부여어 '주몽을 선사자(善射者)' 라고 하는 어휘와 일치한다.

6)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엄리대수(奄利大水)는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남쪽으로 피난하는 동선이나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에서 개국하는 것으로 보아 엄리대수는 지금의 '아무르(Амур)강이라고 본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추정하는 '엄리대수(奄利大水)' 의 위치로 보아도 아무르강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엄리(奄利)-]의 음운구조와 [아무르(Амур)]의 음운구조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아무르(Амур)]를 한자로 전사한 것이 [엄리(奄利)-]이다. 대수(大水-)는 큰 강물을 이르는 말이다.

7) <광개토대왕비>에는 추모왕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하였다고 하였다.(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위서(魏書)>에서는 '홀본(忽本)' 대신에 '흘승골(紇升骨)' 이라고 기록하였다. <주서(周書)>에는 흘두골성(紇斗骨城)이라고 기록하였다. 추모왕은 흘승골에 이르러 홀본(졸본)부여를 개국한다.

추모왕은 BC 37년에는 비류수(沸流水) 위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 라 하였다. 서기 3년(유리왕 22)에는 도읍을 졸본성에서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다

8) 흘승골(紇升骨)' 은 지금 동몽골 도르너드아이막의 '할힌골' 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비류수(沸流水)' 나 '보술수(普述水)' 도 할힌골의 '부이르' 호수와 할힌골(강)을 지칭하는 한자 전사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1982, <韓國民俗大觀> 고려대 民族文化硏究所

김열규, 1980, <韓國의 神話(>, 一潮閣

김용선, 1980, 高句麗 瑠璃王考<歷史學報> 87

이홍식, 1959, ‘고구려의 흥기’ 1 <국사상의 제문제>

장덕순, 1978, <韓國說話文學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천관우, 1962,<人物로 본 韓國古代史> 정음문화사,

알타이 어족설을 통해 본 한국인의 기원 연구

이성규(단국대 몽골학과)

차례

1. 서론
2. 알타이 어족설
3. 역사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 관련 기록
4. 역사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민족의 기원을 찾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우며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이동이 심한 유목민이나 주변과 교류가 빈번한 민족의 기원을 찾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수준이 나아질수록 그 욕망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현재의 한국인들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려면 인종, 문화, 역사, 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DNA 분석 방법을 통하여 고도로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는 시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자료나 후대의 자료를 통하여 추측해 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한 민족이나 국민의 기원을 찾아보는 문제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리적 위치, 문화적 동질성, 인종적 동질성도 중요한 분석의 지표가 되지만 언어는 다른 지표보다 한층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가 다른 지표보다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언어를 통하여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기원을 찾아보자면 우선적으로 알타이족설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알다시피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주변 국가의 언어들 즉,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학자들은 이들 4개 언어가 보여주는 유사점에 착안하여 언어학적으로 유사하며 지정학적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투르크어, 몽골어, 만주어, 한국어 등을 한 무리로 묶어서 알타이어족으로 불러왔다.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이들과 많은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 언어들이 언제 형성되었고 언제 분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5,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 말기에 갈라졌다는 가설이 존재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졌으며 갈라질 때 언어적 특징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분석된 것이 많지 않다[1].

최근 중국 동북지방과 한국, 몽골 등지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고고 유물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 상고시대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역사학계도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상고시대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재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역사학계의 새로운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실들에 근거하여 서력기원 이전시기의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가 민족의 기원을 분석하는 중요 기재가 되기 때문이다. 또 막연하게만 언급되어지던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알타이어족설

알타이어족설이 제기된 지도 어언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타이어족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렇게 알타이어족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알타이어족 언어라고 불리는 언어들 간의 공통된 특징들이 지정학적으로 인근에 위치하여 언어 간의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알타이어족설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지만 람스테트, 포페, 이기문, 성백인, 송기중, 정 광 등의 학자들을 거치며 더욱 연구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기원과 형성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알타이어족설은 매우 설득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페의 도표(그림 1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타이어족설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어가 분리되고 다시 투르크어와 만주어가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가 구체적으로 언제 분리되었으며 당시 역사적 사실이나 고고학적 기록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또 투르크어와 몽골어가 분리된 시기와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이것은 물론 당시의 역사 고고학적 지식으로는 기술이 불가능하였을 지도 모른다. 다만 람스테트가 알타이어족이 처음에 흥안령 산맥 남쪽

1) 이성규(2009)에서는 광물 명칭을 통해서 알타이어족이 신석기 말기에 분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적봉과 열하 지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鳥居龍藏의 홍산후 유적조사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을 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1> 포페의 알타이어족 분류포(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백과사전)

3. 역사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 관련 기록

알타이어족에는 투르크어, 몽골어, 만주-퉁구스어, 한국어가 속하며 이들 언어들이 사용되었던 지역은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해당된다[2]. 투르크어의 경우는 현재 투르크어족에 속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중앙아시아와 터어키국에서 사용되지만 과거 투르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조상들이 지금의 몽골국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 몽골어, 만주-퉁구스어, 투르크어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들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지역인 중국 동북부 지역을 살펴보아야 한다.

알타이어족설을 창시하다시피 한 람스테트의 의견에 의하면 알타이어족은 지금의 중국 동북부 요녕성, 하북성, 내몽고 자치구 등의 지역에서 처음 출발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지역, 요녕성의 서부지역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치와 일치하는 이른 시기의 문화는 대개 적봉과 요서 지역의 문화라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에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문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홍산문화(紅山文化)가 존재한 지역과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적봉 지역과 요서 지역의 고고문화 유물에 근거한 도표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지역과 요서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이른 시기부터 문화가 발

2) 알타이어족에는 일본어도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어는 알타이어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생하고 존재하였다. 특히 요하 유역의 고태산(高台山) 문화, 요녕성 본계 지역의 묘후산(廟後山) 문화,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雙砣子) 문화 등은 청동기 시대 알타이어족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들이다. 또 송눈(松嫩) 평원의 백금보(白金寶) 문화, 길림지역의 서단산(西團山) 문화 역시 알타이어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들이지만 본고에서는 논지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하려고 한다.

<표2> 적봉·요서지역의 고고학 시대구분

<table>
<tr><th rowspan="2">도구</th><th rowspan="2">연대[3]</th><th colspan="2">고고문화</th></tr>
<tr><th>적봉지역
(노노아호산 서부)</th><th>요서
(노노아호산 동부)</th></tr>
<tr><td rowspan="5">신석기</td><td>BC70-65</td><td colspan="2">소하서문화</td></tr>
<tr><td>BC64-52</td><td colspan="2">흥륭와문화</td></tr>
<tr><td>BC55-45</td><td colspan="2">조보구문화</td></tr>
<tr><td>BC45-30</td><td colspan="2">홍산문화(알타이어족 단일체)</td></tr>
<tr><td>BC30-25</td><td colspan="2">소하연문화(알타이어족 단일체)</td></tr>
<tr><td rowspan="3">청동기</td><td>BC20-15</td><td colspan="2">하가점 하층문화(알타이어족 단일체)</td></tr>
<tr><td rowspan="2">BC13-7</td><td rowspan="2">하가점 상층문화
(투르크-몽골-만주 단일체)</td><td>위영자문화
(원시 한국어)</td></tr>
<tr><td rowspan="2">능하문화(12대영자문화)
(고조선어)</td></tr>
<tr><td rowspan="3">철기</td><td>BC7-4</td><td>동호문화
(공통 몽골-만주어)</td></tr>
<tr><td>BC4-2</td><td>동호문화</td><td>위만조선</td></tr>
<tr><td>BC108</td><td></td><td>위만조선 멸망</td></tr>
</table>

한편 적봉과 요서 지역에는 이른 시기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한 부족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기록이 중국의 사서와 한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족에 대한 기록 중에서 알타이어족의 분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민족은 산융, 동호, 고조선 등이며 이들에 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산융(山戎)
桓公曰, 寡人北伐山戎過孤竹(管子, 封禪編)
齊桓公北伐山戎, 山戎走(史記, 匈奴列傳)

3) 연대는 于建設 等(2008), 紅山文化概論,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에 근거하였다.

동호(東胡)
燕北有東胡山戎, 各分散居谿谷(史記, 匈奴列傳)
秦昭王時,....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史記, 匈奴列傳)

고조선(古朝鮮)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尊爲王, 欲興兵逆擊燕而尊周室,....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三國志, 烏桓鮮卑列傳)

古記云, 昔有桓國, 庶子桓雄 數意天下,....時爲桓雄天王也,....號曰檀君王儉,....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封於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三國遺事, 古朝鮮)

4. 역사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

1) 알타이어족 형성기

고고학계의 연대 구분과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해 알타이어족의 발생과 분화의 과정을 연결해 보고자 한다.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봉과 요서 지역에는 지금부터 약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홍산 문화 이전 시기의 문화들인 소하서, 흥륭와, 조보구 문화는 문화의 범위가 넓지 않고 유물도 많지 않아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이들 문화의 터전 위에서 홍산문화가 나타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홍산문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존재하였던 문화로 발굴된 유적과 범위가 매우 넓고 많아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홍산 문화에 대한 기록을 람스테트가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논문에서 고고학적 유적에 의하여 알타이어족이 흥안령 남쪽과 열하 지역 사이에서 출발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홍산문화가 알타이어족 학설의 성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4].

홍산문화는 잘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6500년-5000년 전에 존재하였던 문화로 제사유적, 신전, 집단 거주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초기 국가의 형태로 존재

4) 1895년 일본의 인류학자 鳥居龍藏이 처음 적봉과 열하 지구를 방문한 이후 1907년의 조사를 거쳐 1914년에 <考古學民俗學硏究·東蒙古의原居民>으로 동경제국대학의 과학잡지(상)에 발표하였다.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하량, 동산취 등의 유적에서 발굴된 많은 유적들은 이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문화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화는 5,000년 전 소하연 문화가 나타나면서 소멸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대개 급격한 기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홍산문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문자나 부호로 보이는 유물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홍산문화와 비슷한 시기의 산동의 대문구 문화나 서안 앙소문화의 반파유적에 보이는 부호는 이 시기에 이미 문자의 초기 단계인 부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홍산문화와 알타이어족과의 관련성은 중국 기록보다는 우리나라의 기록인 삼국유사의 기록이 흥미를 끈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BC 24세기)에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고학의 연대와 연결하여 보면 하가점 하층문화시기와 연결되며 홍산문화 시기는 환웅시대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시기는 포페의 분류표에 의하면 알타이어족 단일체가 형성되는 단계이거나 초기 단계로 보여진다.

홍산문화 이후에 이 지역은 소하연 문화를 거쳐 하가점 하층문화로 연결되는데 이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4,000-3,500년 사이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문화 역시 홍산문화와 비슷하게 매우 발달된 문화였으며 내몽고 자치구의 적봉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성(城)이 나타나며 그릇에 보이는 독특한 문양은 이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고조선의 초기문화로 보고 있는데 언어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알타이어족 단일체 시기와 일치한다.

2) 1차 분리(원시 한국어의 분리)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여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시기는 대개 BC 12세기 무렵인데 이 시기는 노노아호산(魯奴兒虎山)을 경계로 하가점 상층문화와 위영자 문화가 갈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위영자 문화는 노노아호산 동쪽에 주로 분포하는 문화인데 고고학에서는 대개 이 문화를 고조선의 문화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시한국어는 대개 이 시기에 알타이어족 단일체에서 갈라져서 원시한국어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사 기록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고조선 조에 보이는 은(상)의 기자세력이 요서 지역 서부로 이동해 옴에 따라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또 이 시기는 중국에서 상왕조가 주왕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의 유민들이 북방 알타이어족 거주 지역으로 들어옴에 따라 하가점 하층문화도 변화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노노아호산 서쪽과 동쪽이 분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노노아호산 서쪽과 동쪽이 분리됨에 따라 서쪽에 남아 있던 사람은 유목에 종사하고 동쪽 사람들은 그 지역에 맞는 농경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2) 2차 분리(투르크어군의 분리)

중국 상주 교체와 주 무왕의 조선지역 기자 분봉에 영향 받아 알타이어족 공동체에서 분리된 원시 한국어는 지금의 요서, 요동, 한반도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원시 한국어와 분리된 투르크-몽골-만주 퉁구스어군은 BC 7세기에 들어와 분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분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춘추시대 오패의 하나였던 제환공의 산융정벌이다.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산융(山戎)은 연(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BC 7세기 무렵 세력이 강성해져 남쪽의 연과 제(齊)를 침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융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한 연이 당시 중국의 실질적 지배자인 제의 환공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제의 환공이 산융을 공격하면서 산융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연의 북쪽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역사 기록에서 산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융은 흥안령 이남 적봉지역에서 흥안령 서부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부족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삼국유사 고조선의 기록에 보이는 단군이 1908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을 단군조선이 1900년 동안 유지되었다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이 시기는 BC7세기 무렵이 되어 제 환공의 산융정벌과 시대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3) 3차 이동(동호계의 이동과 고조선의 이동)

1차 분리 때 노노아호산 동부로 갈라져 나온 원시 한국어는 이 시기에 이르러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의 요서 침략으로 인하여 BC 4세기까지 요서 지역에도 거주하였던 고조선이 2천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됨에 따라 지금의 요동반도와 한반도 지역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진개는 고조선뿐만 아니라 동호도 1천리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 시기에 적봉지역은 이미 서쪽으로 산융이 물러난 이후 새로 성립된 동호(東胡)가 존재하였는데 진개의 침략으로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흥안령 산맥 남쪽에 주로 거주하던 동호계의 부족들 중 일부가 흥안령 산맥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일부 세력이 부여나 고구려와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5. 결론

어떤 한 민족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연구기법이 적용되면서 역사 기록이 없는 시기까지 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의 기원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언어를 통한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에 속하며 이것은 말이 인종, 문화보다 더 문화적 동질감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퉁구스어와 더불어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어 왔고 한국어의 기원과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학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학설이 제기되고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알타이어족의 구체적인 분화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 업적이 축적된 문헌 역사학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원 이전시기의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을 추적하여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알타이어족은 BC 40세기 무렵의 홍산문화 시기에 이미 어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는 포페의 분류에 의하면 알타이어족 단일체에 속한다. 그리고 이 알타이어족 단일체는 홍산문화 이후의 하가점 하층문화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BC13-12세기 무렵 중국에서 상왕조가 무너지고 주왕조가 나타나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문화도 영향을 받는다. 또 상왕조의 유민인 기자 세력이 요서지역으로 이동해 오면서 알타이어족 단일체를 유지하였던 알타이어족은 한국어의 직접적인 조상어로 추정되는 원시 한국어가 분리된다. 그리고 이 분리된 원시 한국어는 노노아호산 동쪽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BC 7세기 무렵 제나라의 환공이 산융을 정벌함에 따라 투르크어-몽골어-만주·투구스어 단일체에서 투르크어군이 분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4) BC 4세기 무렵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와 조선을 밀어냄에 따라 동호의 일부 세력이 흥안령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까지 요서 지역에 거주하였던 고조선도 지금의 요하 동쪽으로 이동하며 언어의 중심지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알타이어족설이 제기된 이후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알타이어족의 분화과정을 고고학과 역사학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화과정에 맞추어 알타이어족의 언어의 변화 과정도 살펴보아야 되지만 시간과 지면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金芳漢(1983),『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복기대(2002),『요서지역의 청동기 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복기대(2004),「기원전 7-4세기 遼西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하여-秦開 동정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제21호, 韓國文化史學會.

서영수(2007),『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동북아역사재단, 학연문화사.

成百仁 외(1996),『韓國 民族의 起源과 形成(下)』, 한림과학원총서48, 도서출판 소화.
孫進己(1992),『東北民族源流』, 東文選 文藝新書64, 林東錫 옮김, 東文選.
송기중(2003),『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于建設 等(2008),『紅山文化概論』,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李基文(1981),『韓國語形成史』, 三星文化文庫160, 三星美術文化財團.
李基文(2007),『新訂版 國語史概說』, 太學社.
이성규(2009),「광물 이름의 비교를 통한 알타이어족의 분화시기 연구」,『몽골학』27, 한국몽골학회.
이정훈(2009),『발로 쓴 反동북공정』, 지식산업사.
정 광(2011),『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 박문사.
朱永剛(1997),「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 단계와 문화 계통」,『博物館紀要』12, 檀國大學校 中央博物館.
Poppe,N.(1965),『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Ramstedt, G.J.(1928),「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e'moire de la Socie'te' Finno-Ougrienne 58.

인류의 기원과 한국인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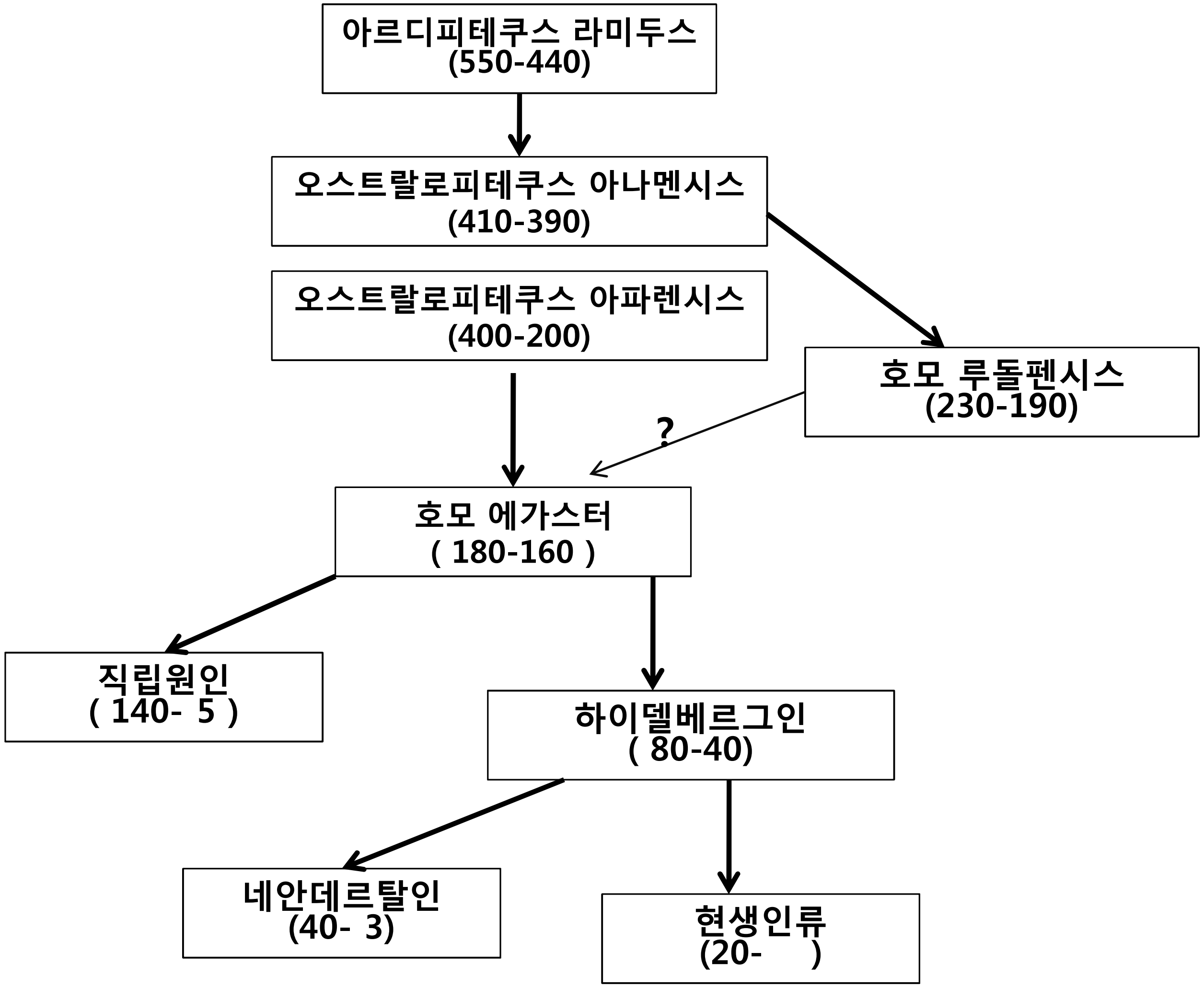
고고학, 유전학, 언어학, 역사의 통섭(統攝)

Consilience; 틈새없이 이어짐

을지대학 내과
이 홍 규

배경

- 찰스 다윈: 유인원에서 기원 추정 (아프리카)
- 인골의 발굴: 루이스 리키, 리차드 리키, 도널드 조핸슨 등 많은 고고학자들의 노력
- 도구에 관심 (석기): 구석기- 중석기- 후기구석기- 신석기 시대- 청동기 - 철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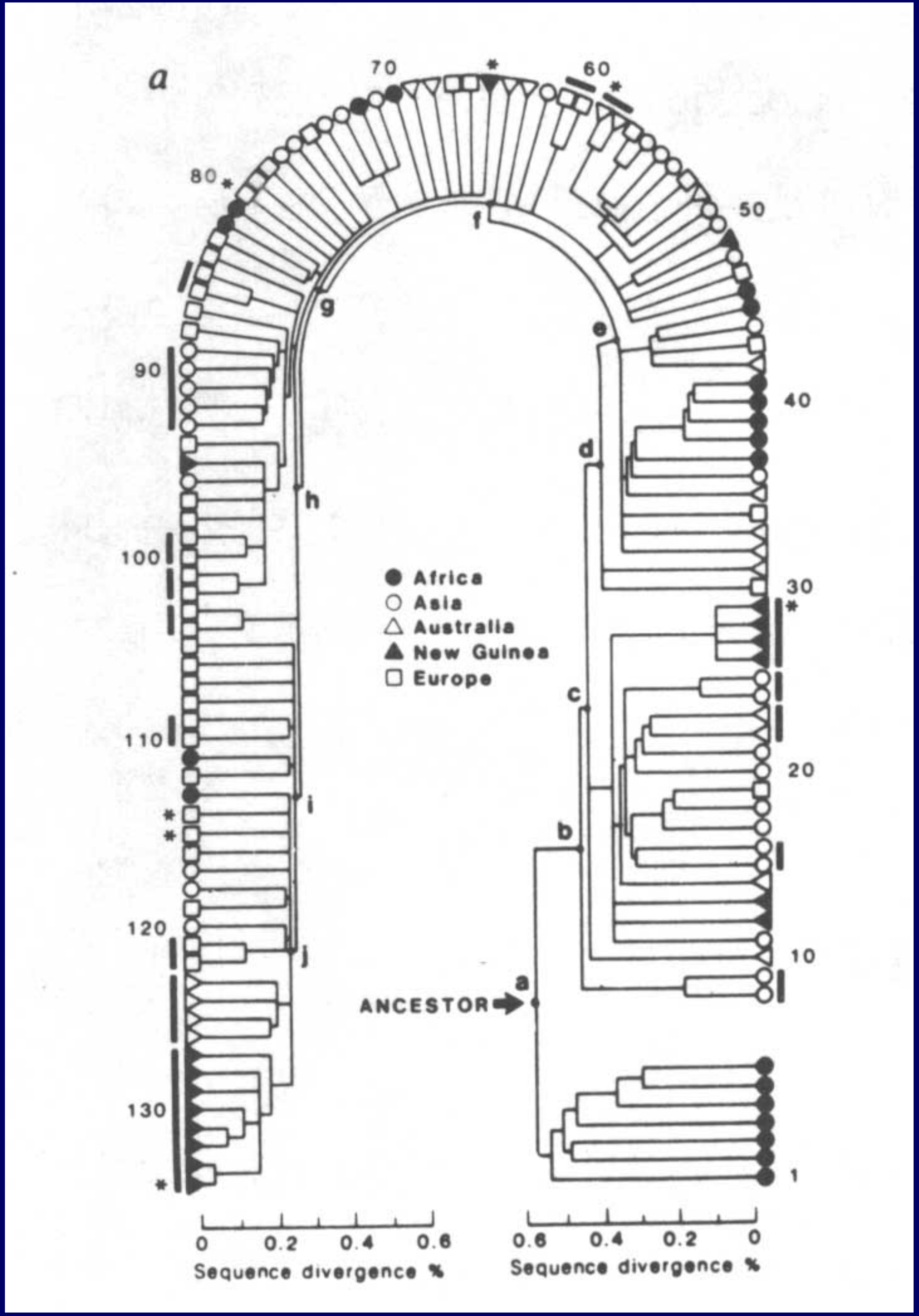


인골의 변화로 본 인류의 진화과정
장 자끄 위블랭, PNA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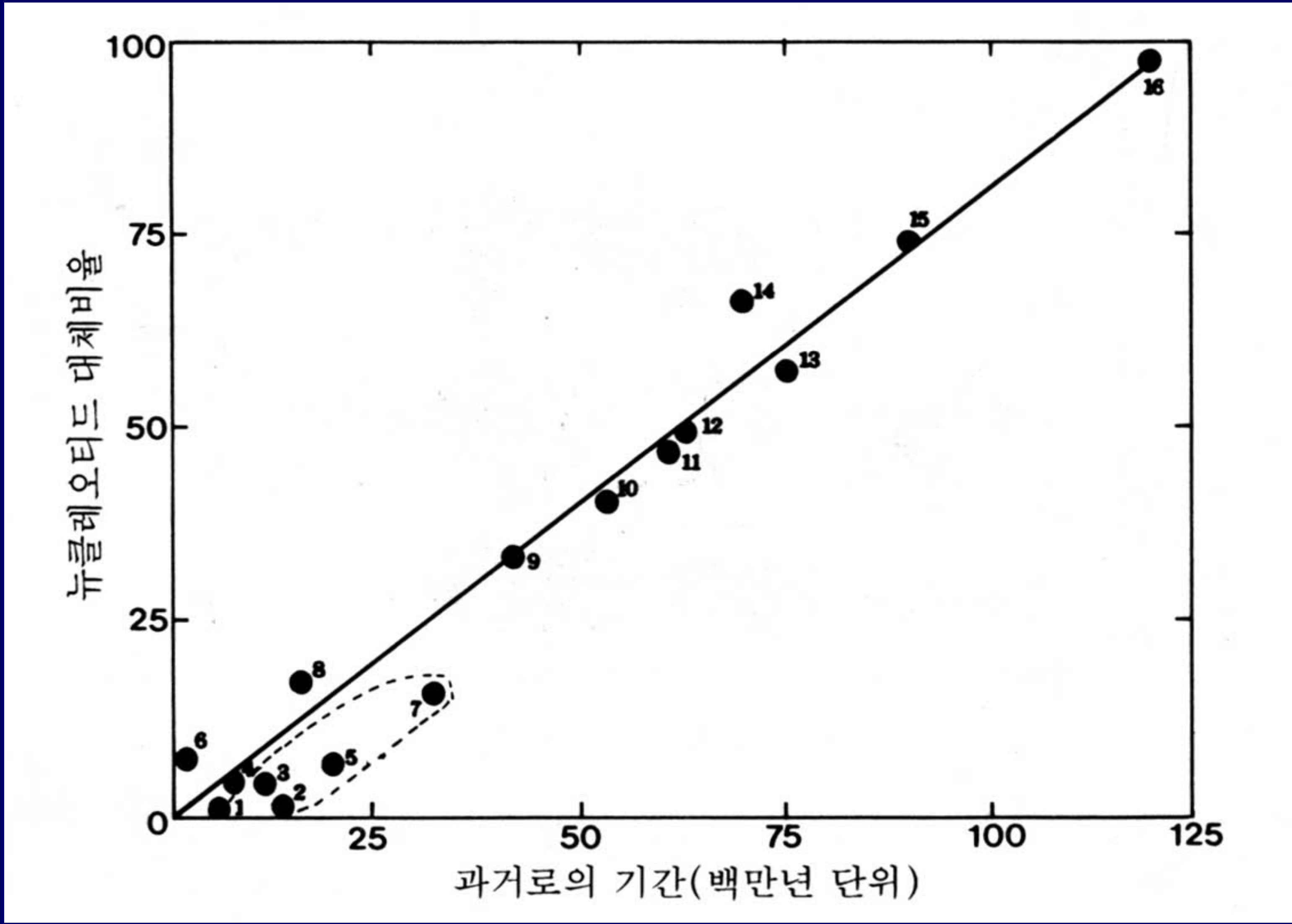
전 세계에 있는 **147**명에 서 얻은 **133**개의 **mtDNA** 형을 염기의 치환, 결실, 삽입의 결과로 이해하여 재구성한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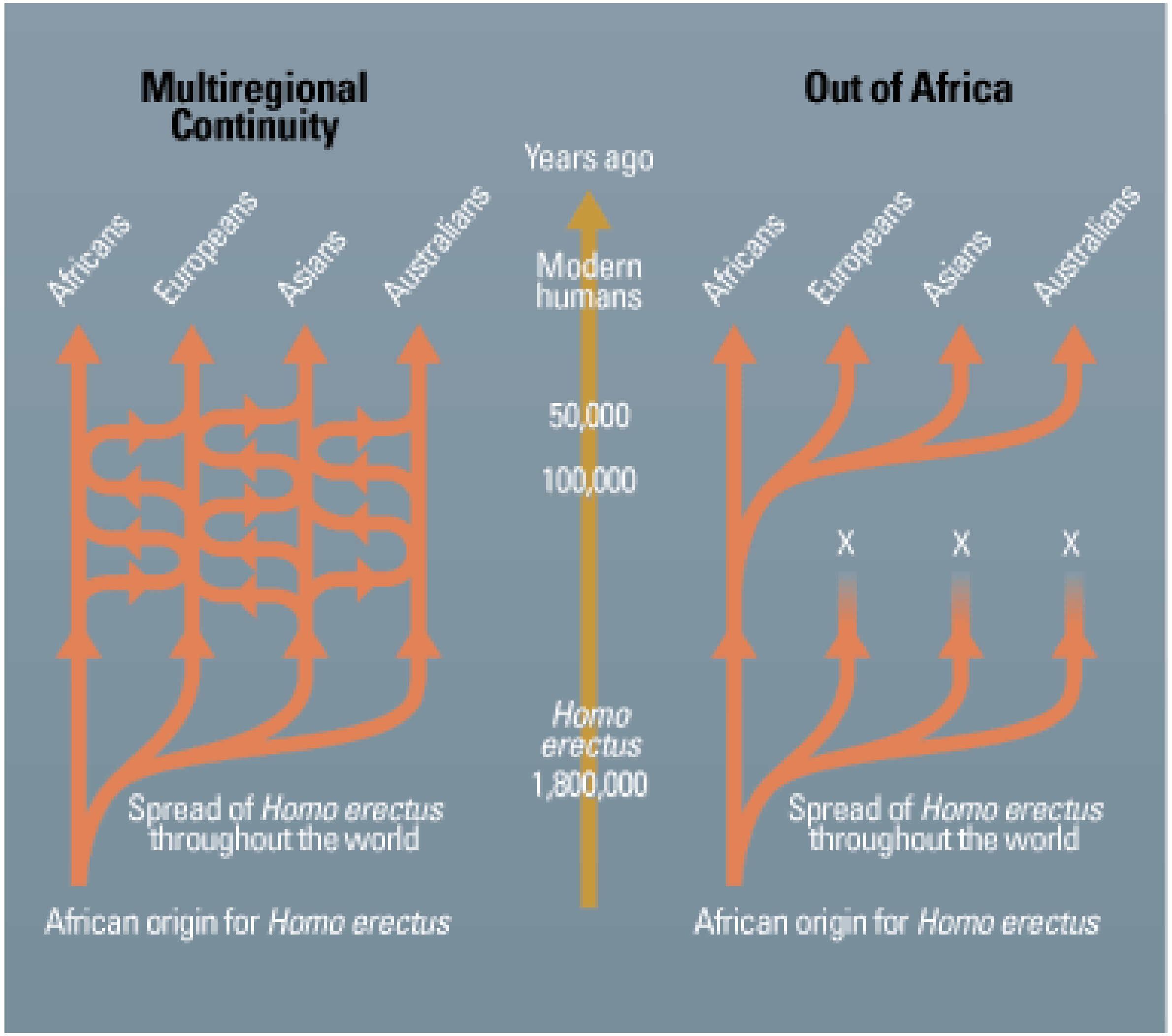
- 총 염기배열의 차이가 **0.57%**임
- 아프리카에서 가장 변이가 큼
- 유럽인과 동양인의 차이는 훨씬 적음
- **14.7** 만년 전에 살던 한 사람의 가상적 선조**(ancestor)** 에서 유래

Cann, Stoneking, Wilson. 1987



시간에 따른 유전자(핵산)의 변화 (분자 시계, *Fitch & Langley, 1976*)





Changing views. Two models of modern human origins (*left*) are be
challenged by new insights based on ancient DNA (*right*), which sug
some limited interbreeding between modern and archaic populations

크리스 스트링거:
아프리카 단일기원론

밀포드 월포프:
다지역 기원설
(지역적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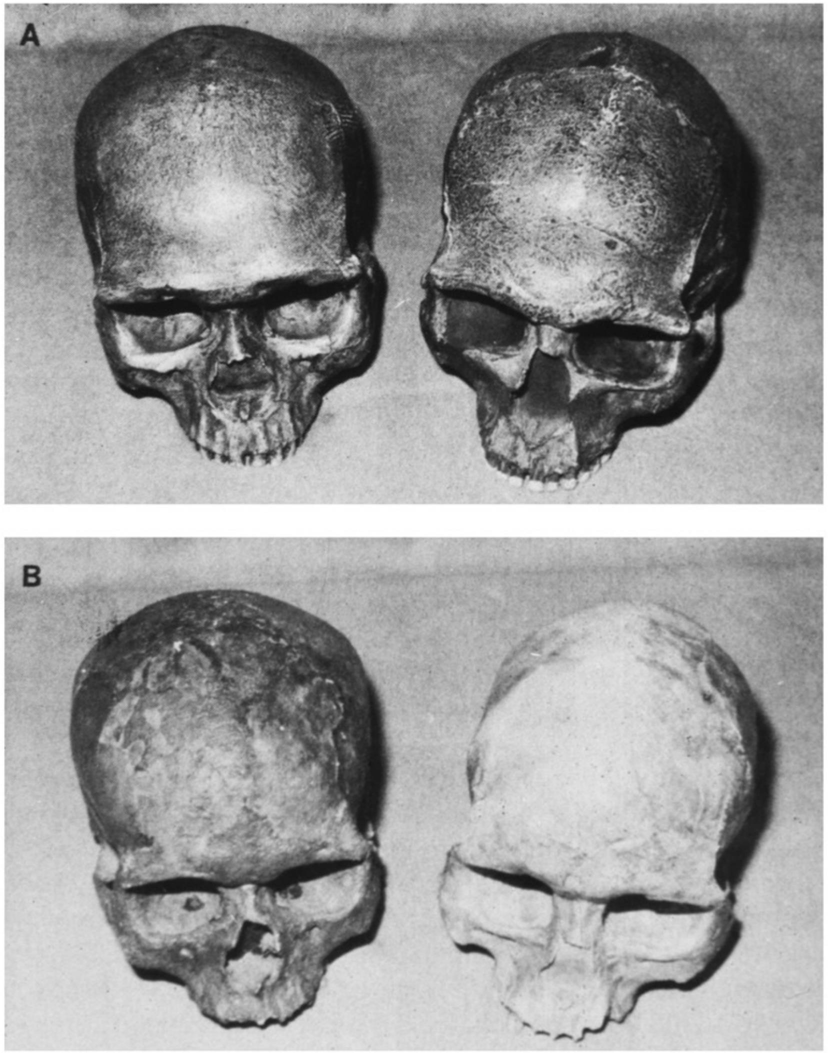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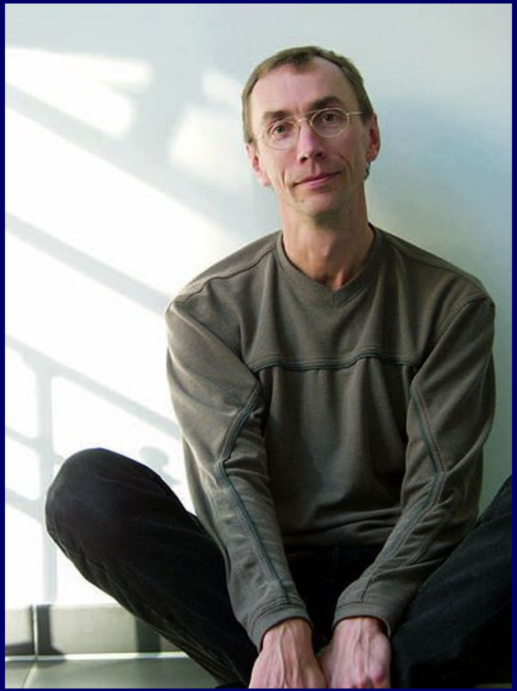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s of late Pleistocene *Homo sapiens* crania from Czechoslovakia and China. (**A**) Casts of male crania from Predmostí (right) and Zhoukoudian Upper Cave. (**B**) Assumed female crania from Mladeč (left) and Zhoukoudian Upper Cave. Under the multiregional model, the marked morphological and metrical similarities of these geographically distant crania are explained as the result of parallel evolution from distinct middle Pleistocene ancestors, together with gene flow. From the recent African origin model, the similarities are explained by descent from a common ancestral population that had originated in Africa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late Pleisto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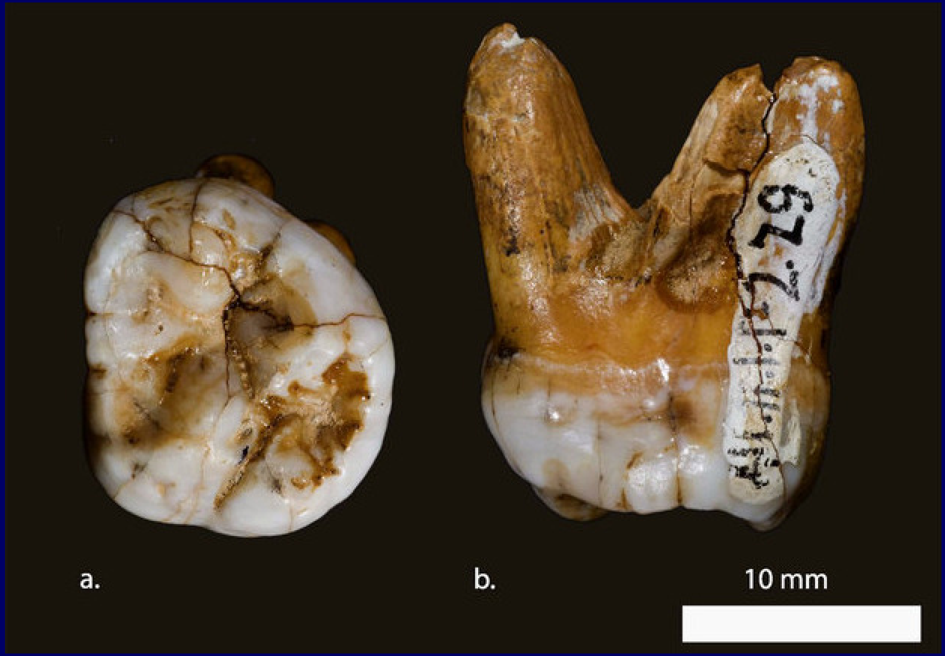
네안데르탈인 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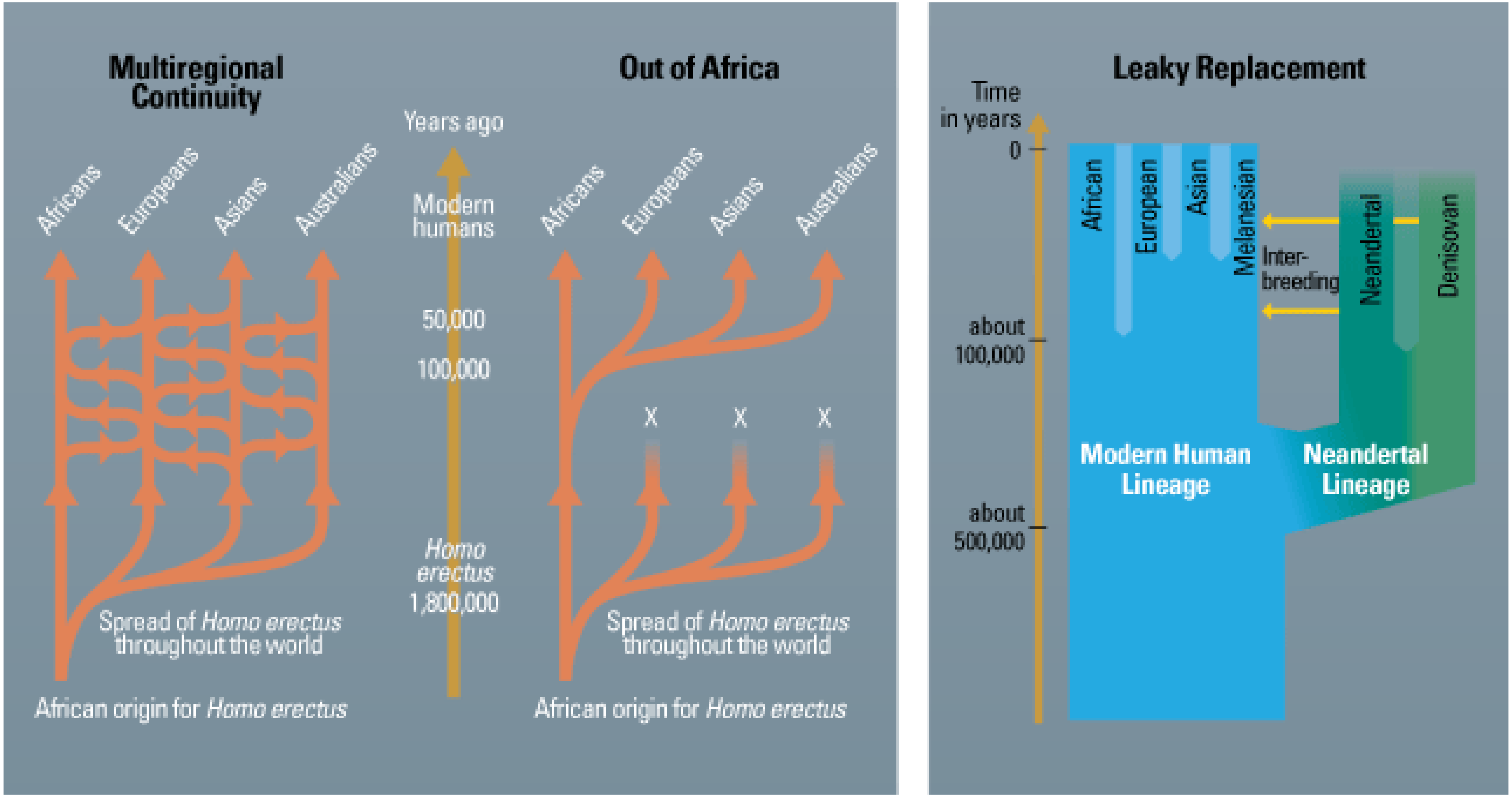
Ancient abode. A finger and molar (*inset*) of a new type of human were found in Denisova Cave, Siberia.

Ancient DNA 연구



- 1984, 2,400-year-old mummy
- 2009 the first draft of the Neanderthal genome
- 2010, the first Denisovan gen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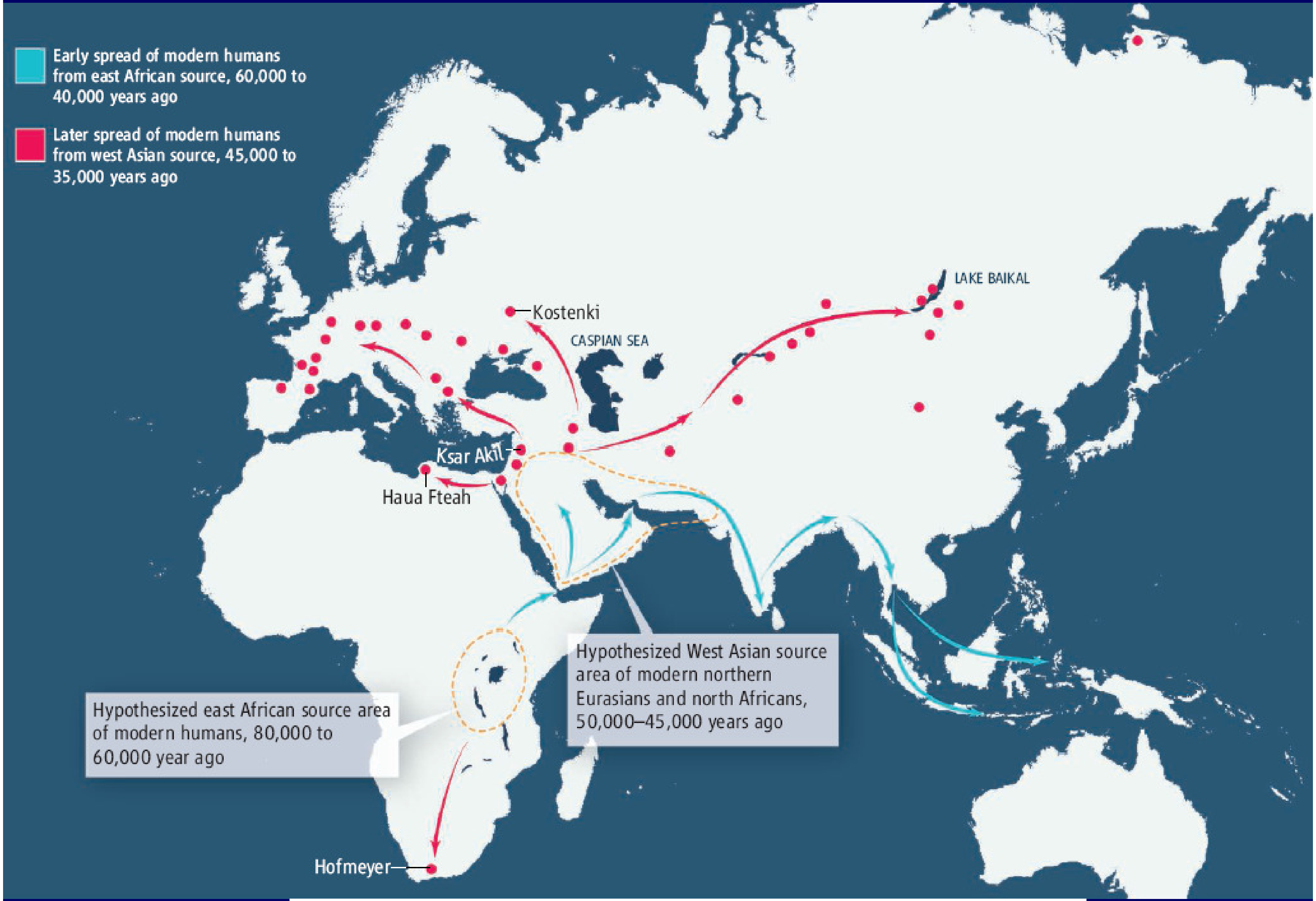




Changing views. Two models of modern human origins (*left*) are being challenged by new insights based on ancient DNA (*right*), which suggest some limited interbreeding between modern and archaic populations.

중기구석기 문화에서 후기구석기 문화로의 전환 (약 4만년 전)

- 중기구석기 (Mousterian) 문화: 네안데르탈인
- 후기구석기 (Aurignacian) 문화- H. sapi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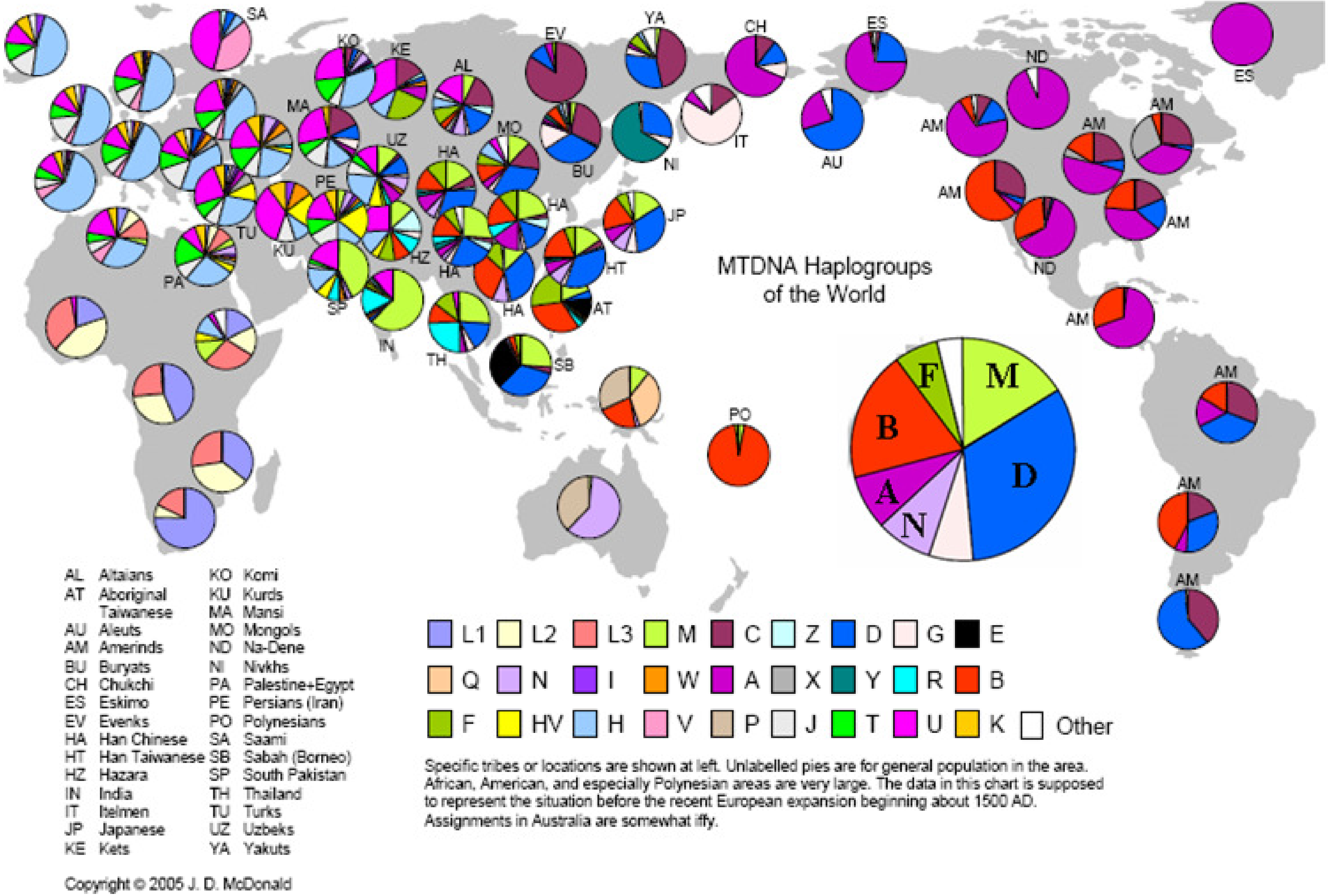
Goebel T, Science, 315:194, 2007

현대적 모양 (anatomically modern)의
신인류(H. sapiens)
(아프리카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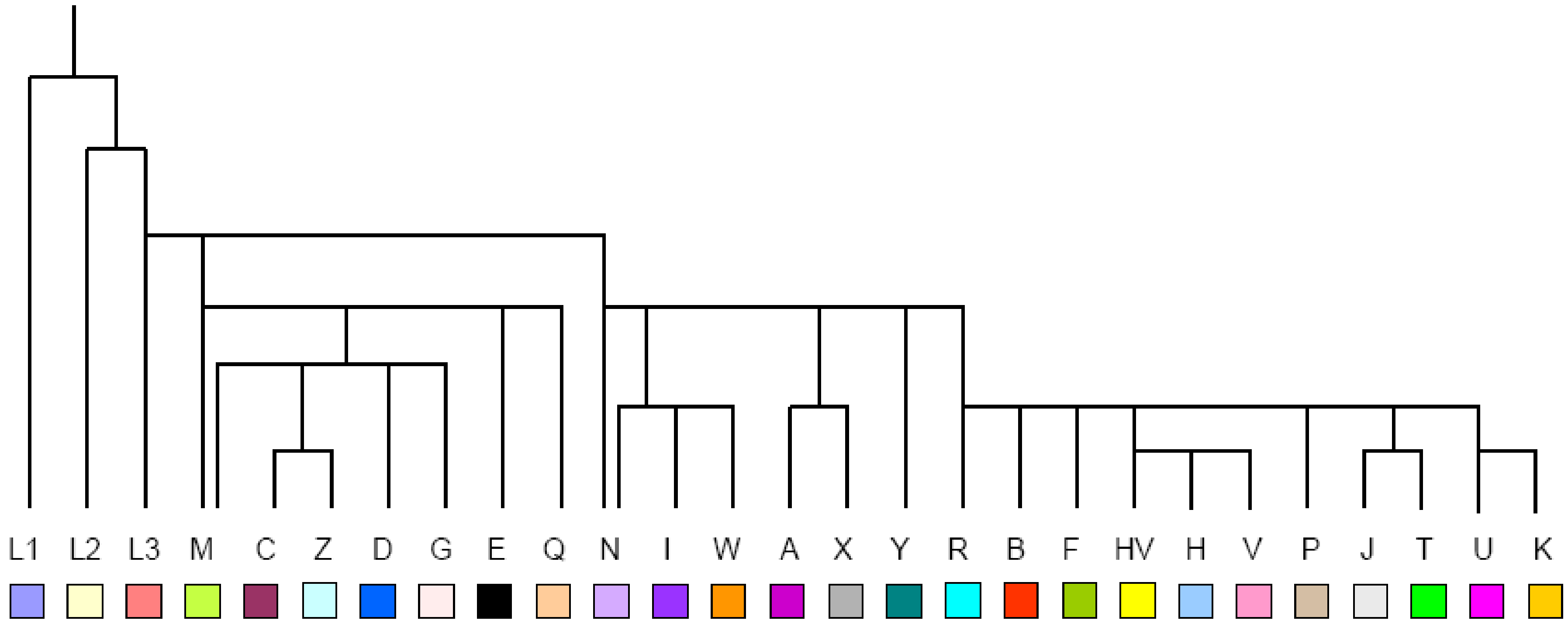
↓

현대적 행동 (behaviorally modern)
의 신인류 (H. sapiens sapiens?)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의 혼혈?)

한국인 유전자:
이동 경로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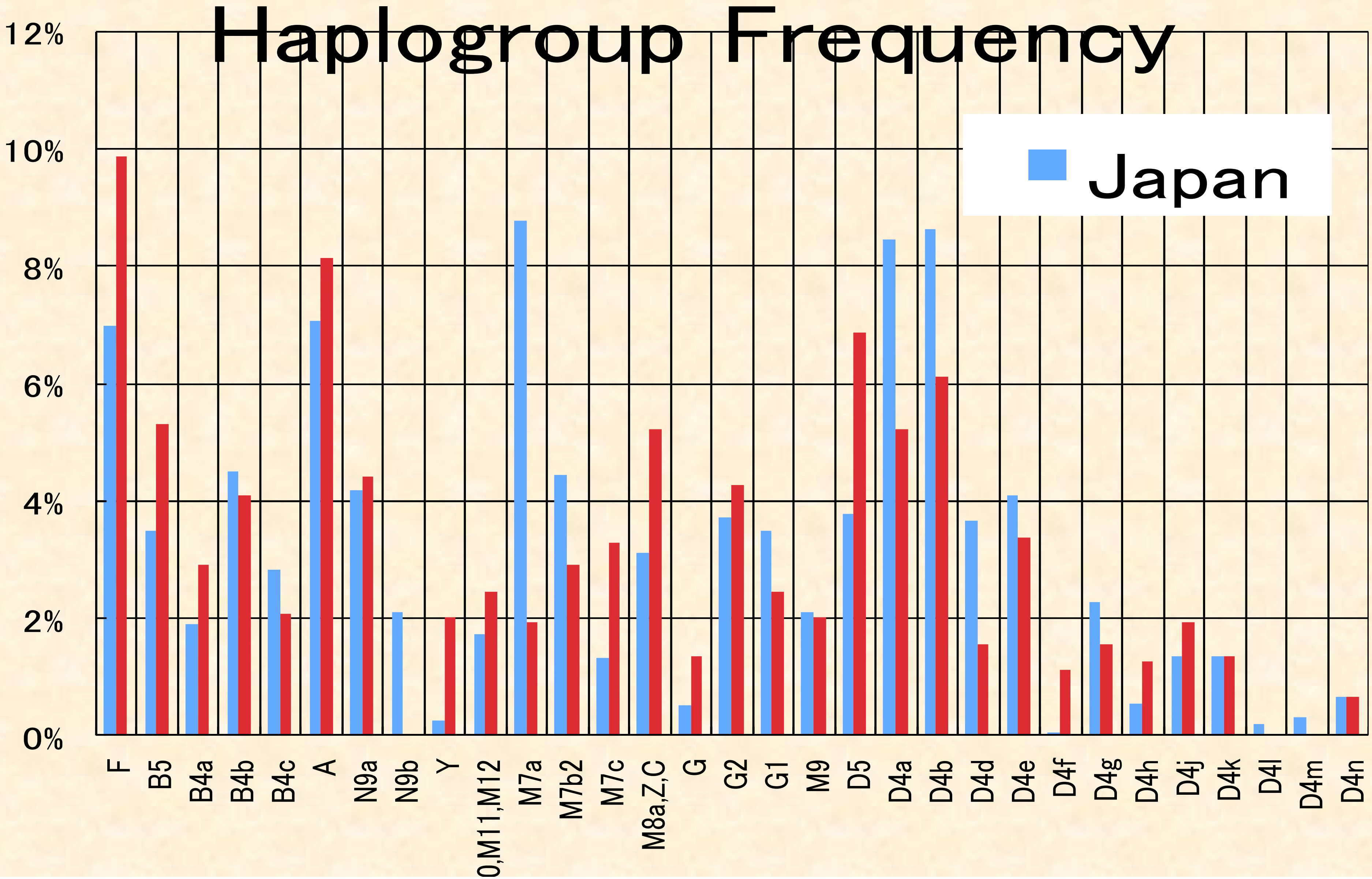

MTDNA Haplogroups
of the World
AL Altaians
AT Aboriginal Taiwanese
AU Aleuts
AM Amerinds
BU Buryats
CH Chukchi
ES Eskimo
EV Evenks
HA Han Chinese
HT Han Taiwanese
HZ Hazara
IN India
IT Itelmen
JP Japanese
KE Kets
KO Komi
KU Kurds
MA Mansi
MO Mongols
ND Na-Dene
NI Nivkhs
PA Palestine+Egypt
PE Persians (Iran)
PO Polynesians
SA Saami
SB Sabah (Borneo)
SP South Pakistan
TH Thailand
TU Turks
UZ Uzbeks
YA Yakuts
L1 L2 L3 M C Z D G E
Q N I W A X Y R B
F HV H V P J T U K Other
Specific tribes or locations are shown at left. Unlabelled pies are for general population in the area. African, American, and especially Polynesian areas are very large. The data in this chart is supposed to represent the situation before the recent European expansion beginning about 1500 AD. Assignments in Australia are somewhat iffy.
Copyright © 2005 J. D. McDona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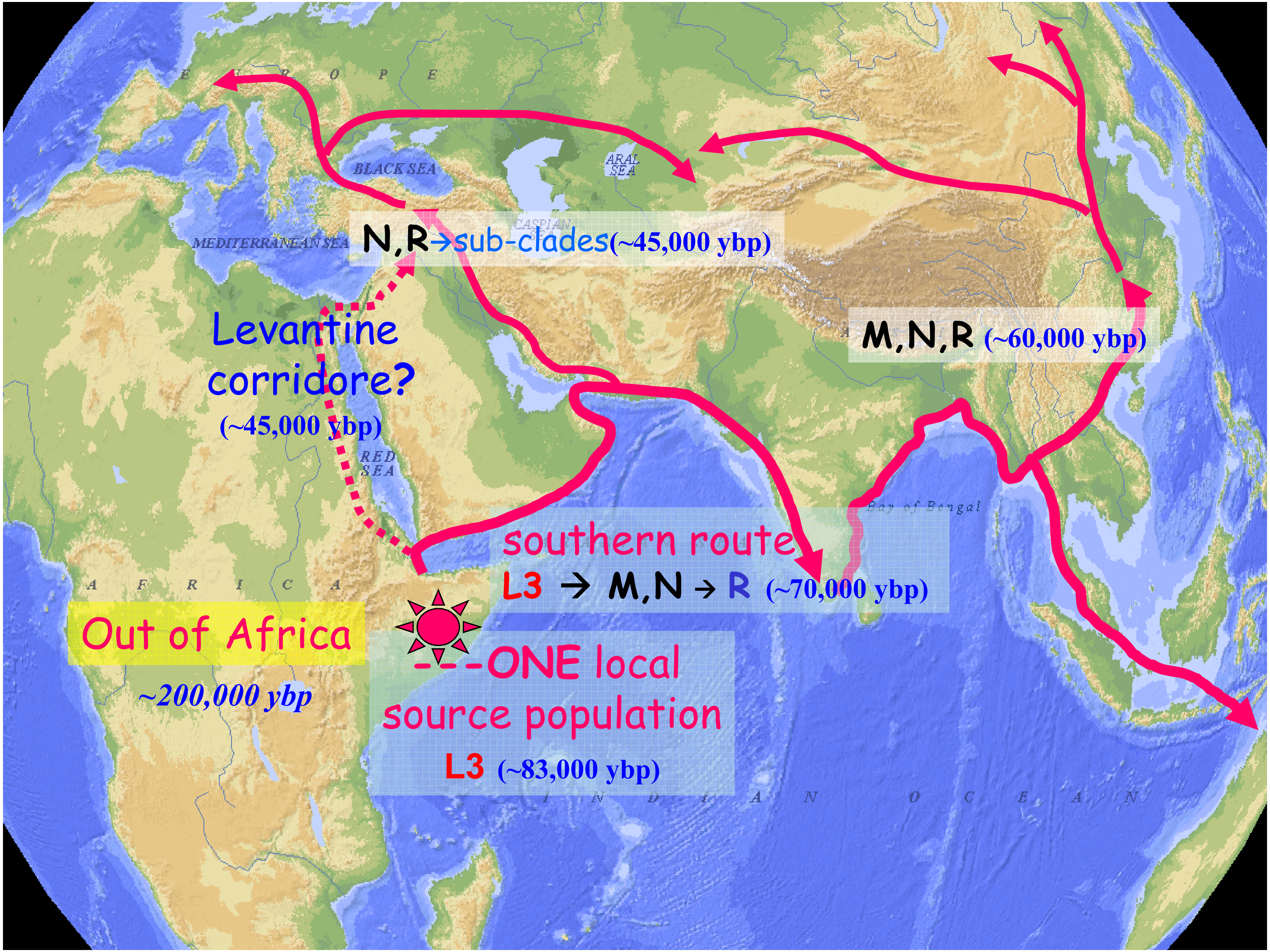
발전: mtDNA하플로 타입의 계통수 – 전 세계



Note that unlike the Y-Chromosome Haplogroups, the ones for the Mitochondrial DNA are not related in a simple way to alphabetical order. This is due to the historical nature of their definition. The Native American groups A, B, C, and D were put together alphabetically. They are, as seen above, not closely related in the tree. M, N, and R are called "Superhaplogroups" as indicated. Note that M and N are in fact somewhat heterogeneous.

Japanese and Koreans are simi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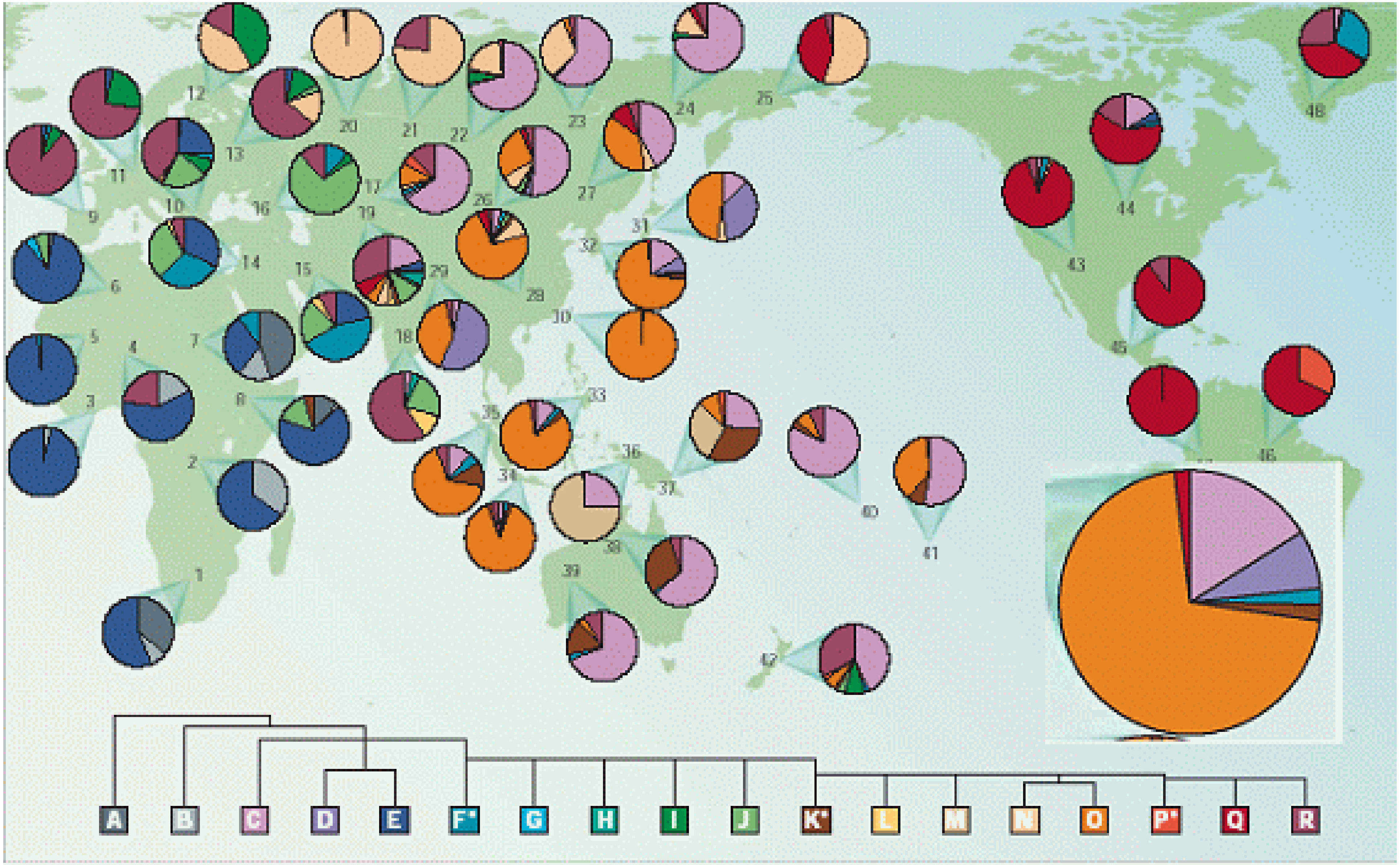

E U R O P E
BLACK SEA
ARAL SEA
CASPIAN SEA
MEDITERRANEAN SEA
N,R→sub-clades(~45,000 ybp)
M,N,R (~60,000 ybp)
Levantine corridore?
(~45,000 ybp)
RED SEA
Bay of Bengal
southern route
L3 → M,N → R (~70,000 ybp)
A F R I C A
Out of Africa
~200,000 ybp
---ONE local source population
L3 (~83,000 ybp)
I N D I A N O C E A N

강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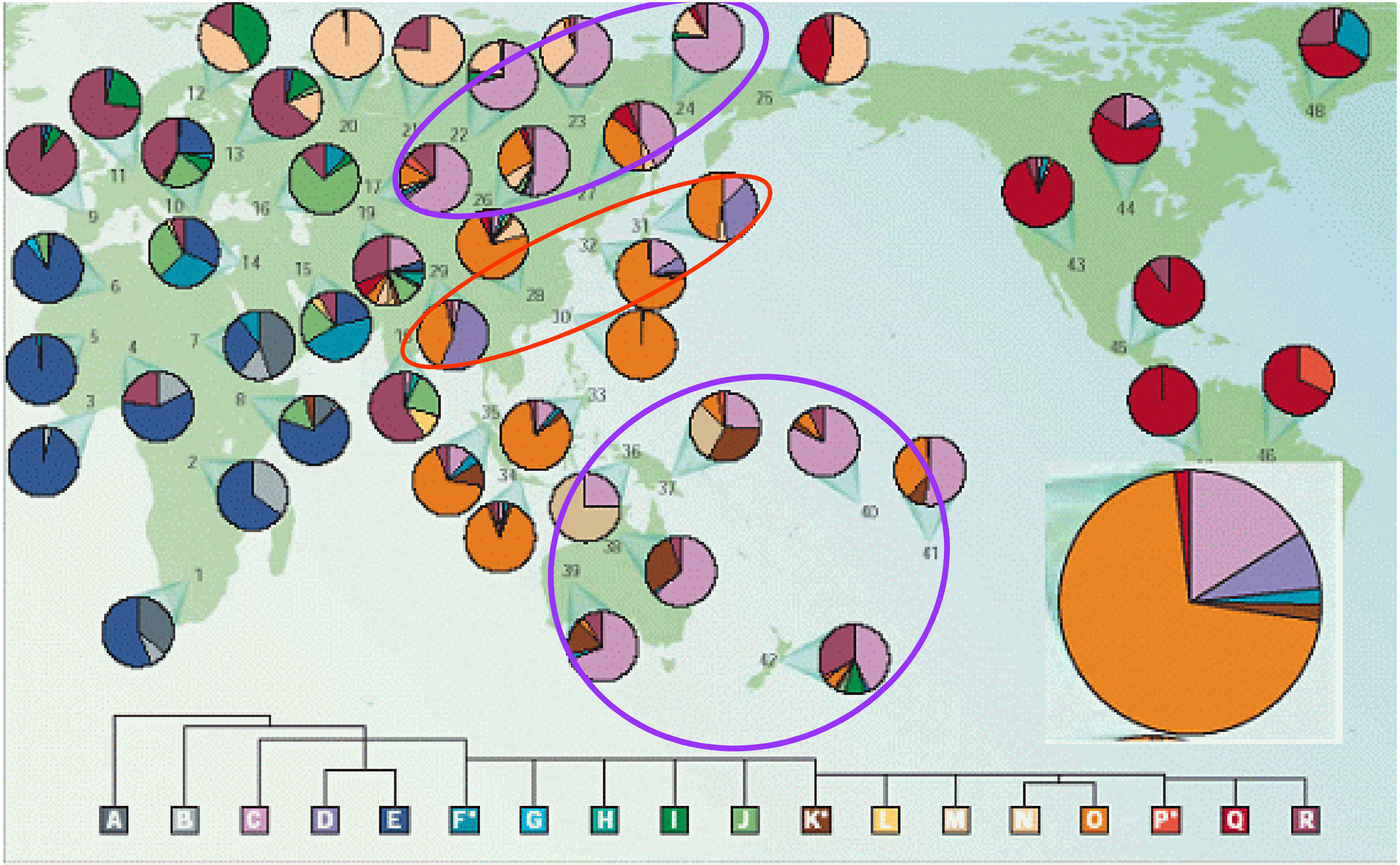
1. 유전학, 유전자
2. 하플로타입
3.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들

   Y 염색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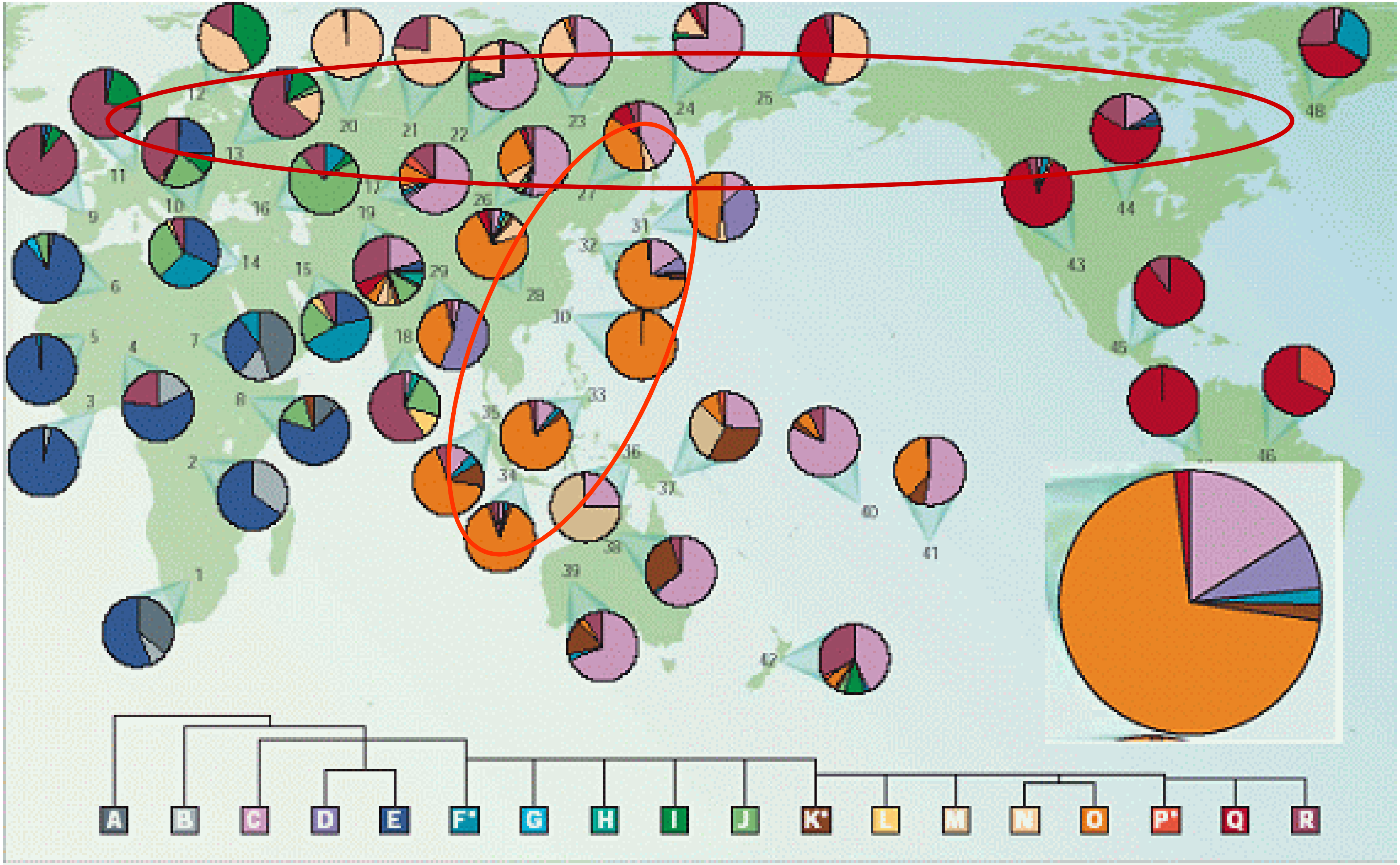
4. 네안데르탈인과 후기구석기 문제
5. 언어와 유전자
6. 인도 유럽어와 기마민족
7. 한민족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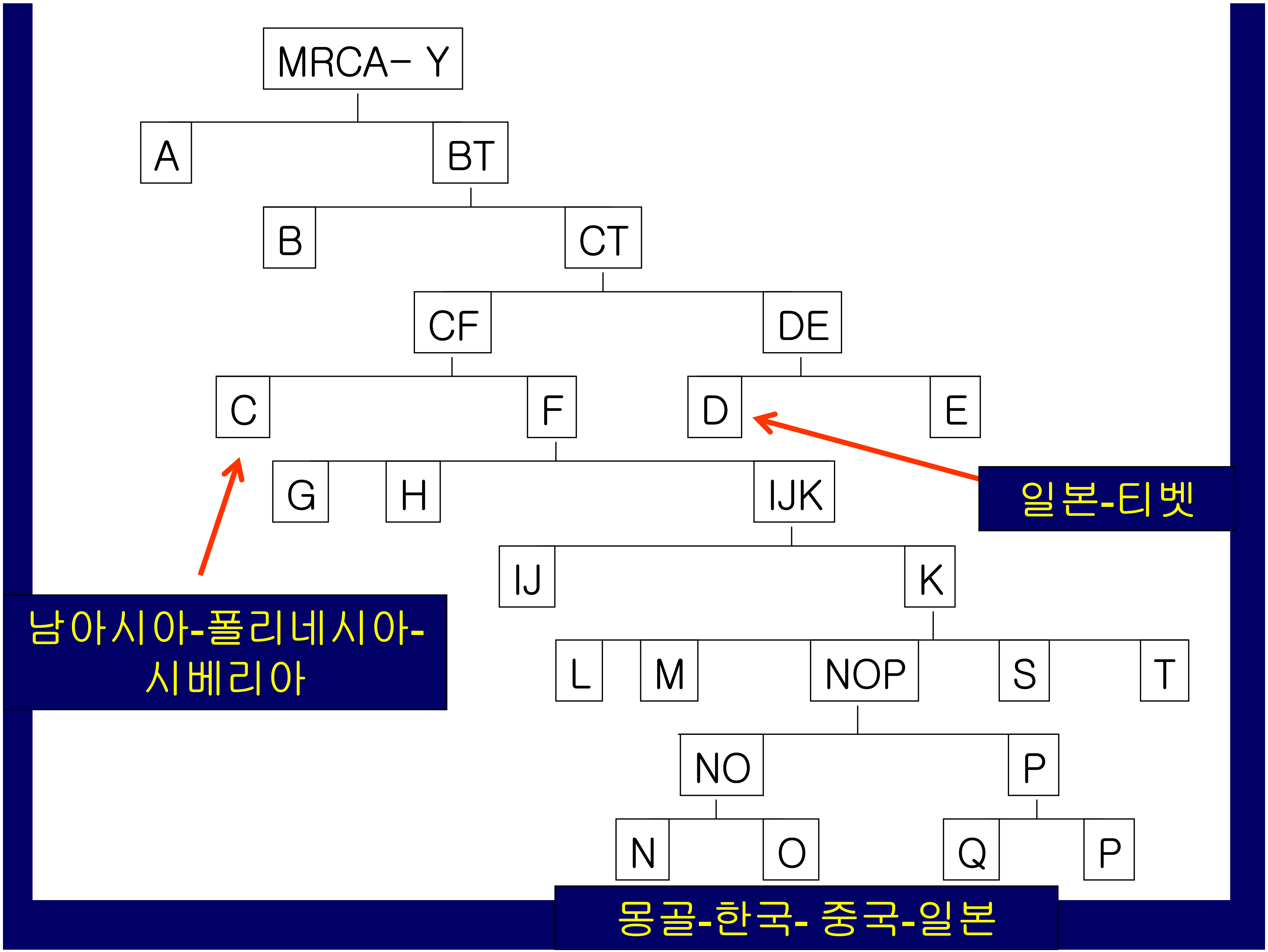
Jobling MA, Tyler-Smith C. Nature Rev Genetics, 2003
(Y 염색체 컨소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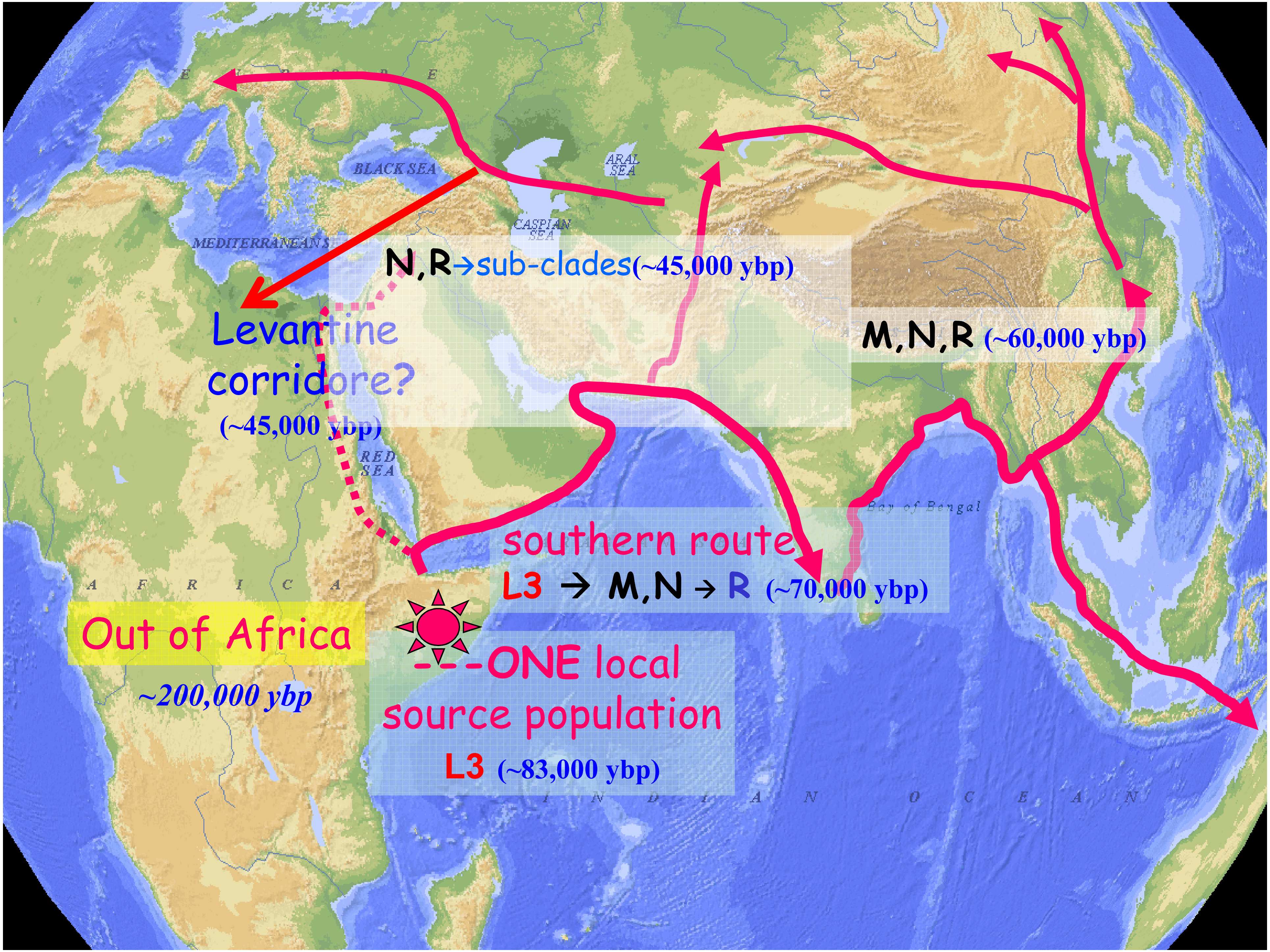


Jobling MA, Tyler-Smith C. Nature Rev Genetics, 2003
(Y 염색체 컨소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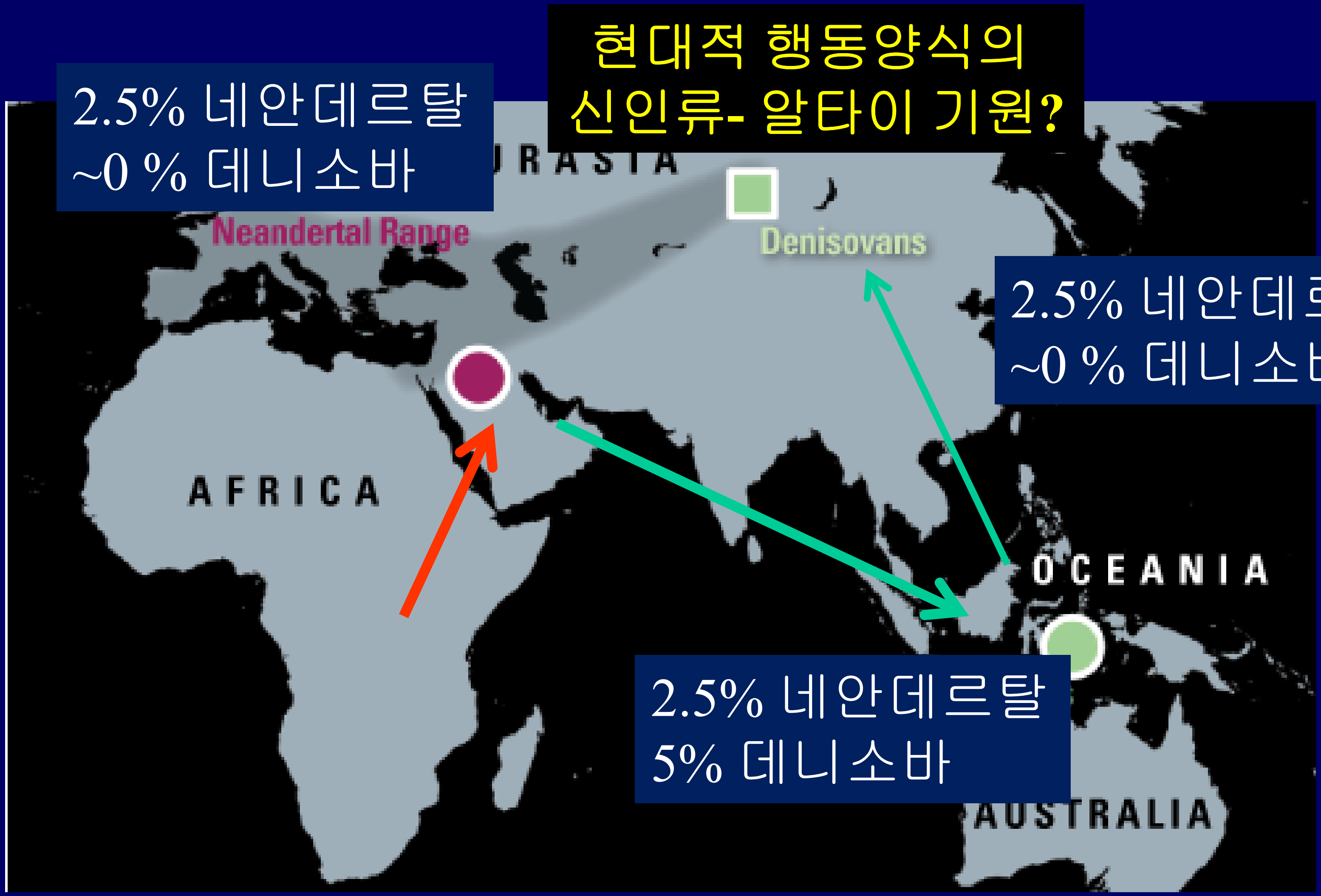


Jobling MA, Tyler-Smith C. Nature Rev Genetics, 2003
(Y 염색체 컨소시움)


MRCA- Y
A
BT
B
CT
CF
DE
C
F
D
E
G
H
IJK
IJ
K
L
M
NOP
S
T
NO
P
N
O
Q
P
일본-티벳
남아시아-폴리네시아-
시베리아
몽골-한국- 중국-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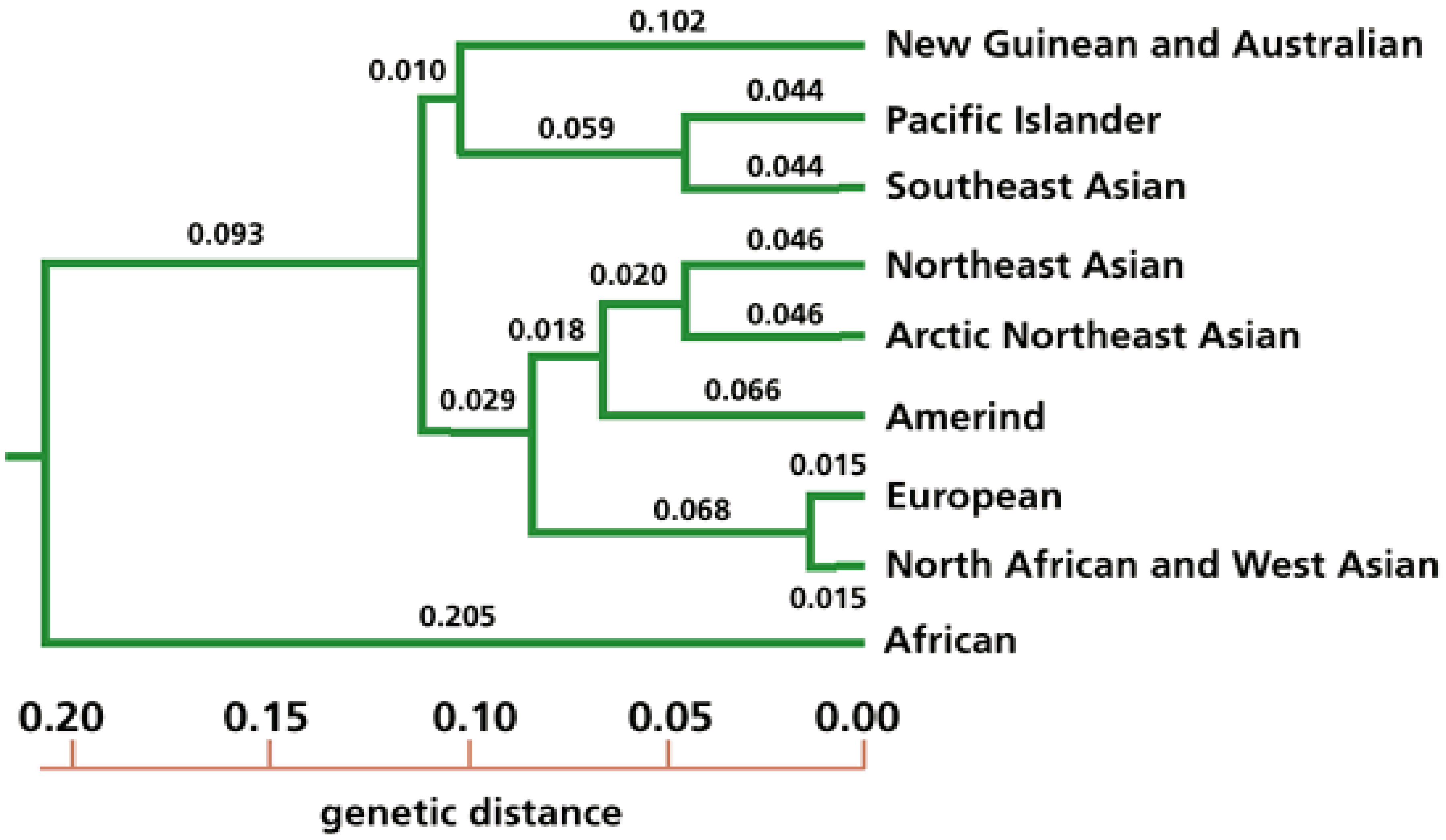
N,R→sub-clades(~45,000 ybp)
Levantine corridore?
(~45,000 ybp)
M,N,R (~60,000 ybp)
southern route
L3 → M,N → R (~70,000 ybp)
Out of Africa
~200,000 ybp
---ONE local source population
L3 (~83,000 ybp)
BLACK SEA
ARAL SEA
CASPIAN SEA
MEDITERRANEAN SEA
RED SEA
Bay of Bengal
A F R I C A
I N D I A N O C E A N



A New View Of the Birth of *Homo sapiens*

Science *28 January 2011:* ***vol. 331 no. 6016*** *392-394*

중기구석기문화에서 후기구석기 문화로의 전환: mtDNA및 Y염색체형과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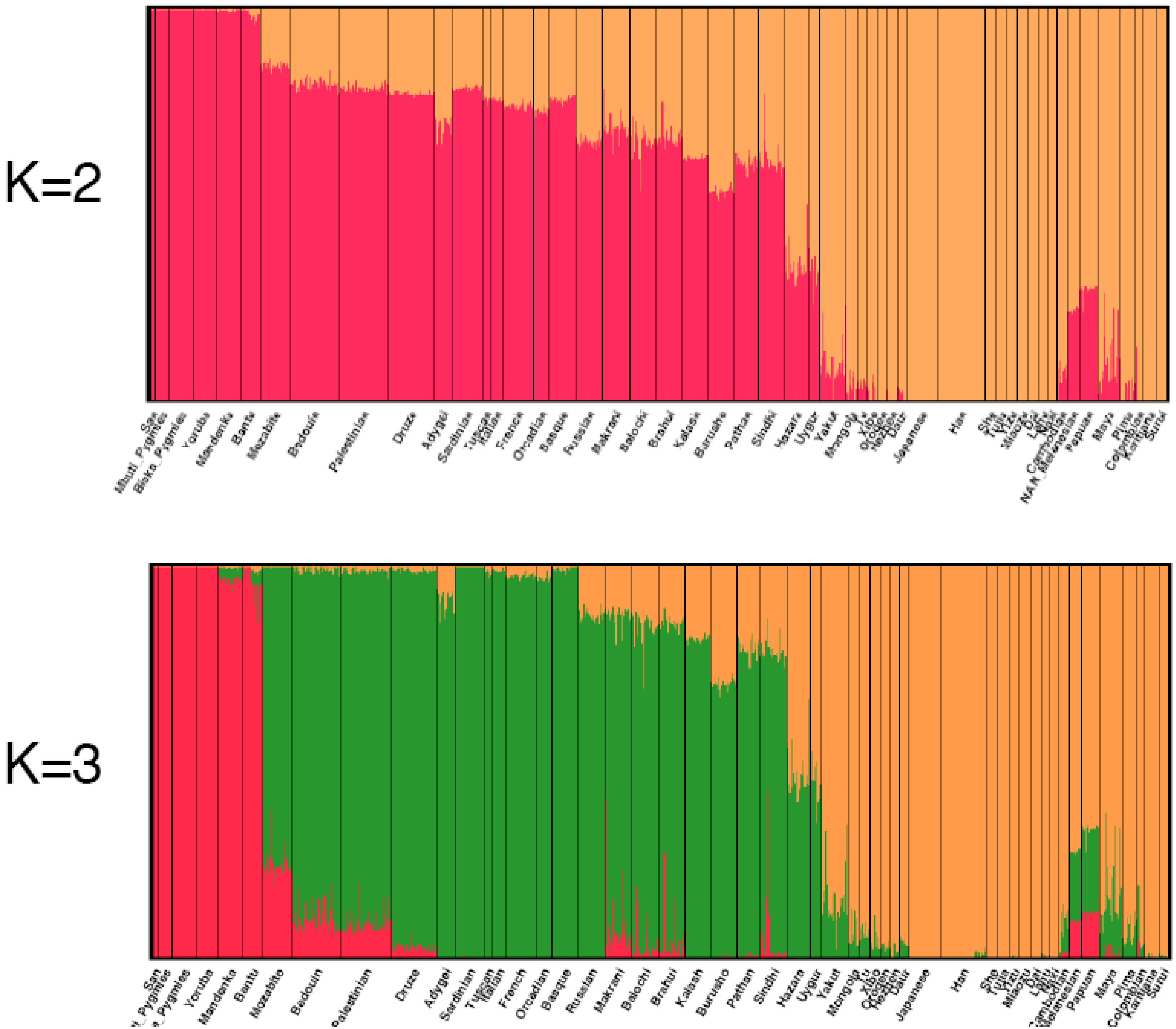
The application of molecular genetic approaches to the study of human evolution L. Luca Cavalli-Sforza & Marcus W. Feldman
Nature Genetics **33**, 266 – 275 (2003)

HapMap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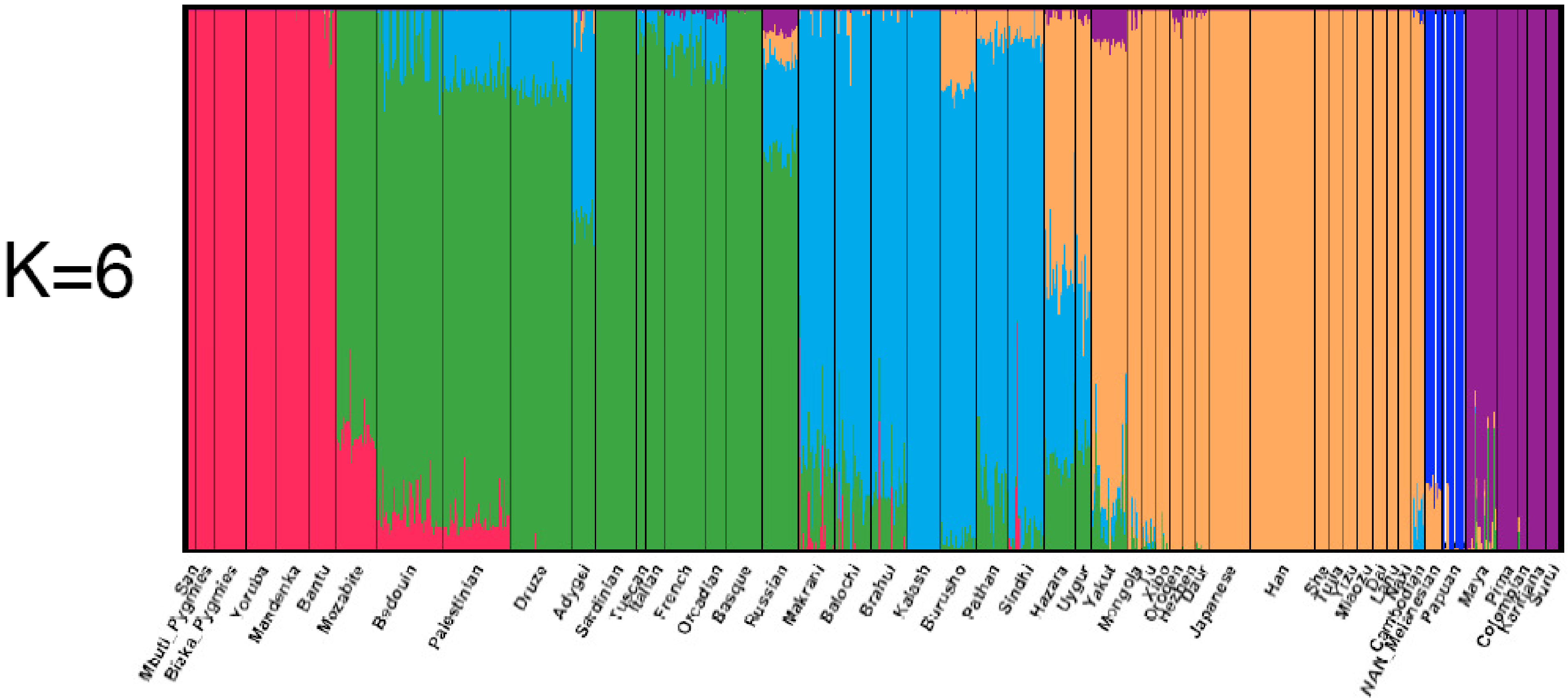
PLoS Biol. 4: e94, 2006

-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의 SNP연구: 질병 감수성 유전자를 찾기 위함
- 북경 주민과 동경 주민들의 유전적 차이는 거의 없음: 아시아인으로 통합 분석함
- 많은 유전자들이 최근에 자연선택된 증거들을 찾음
- 6-7,000년 전에 선택이 집중
- 농경/정착생활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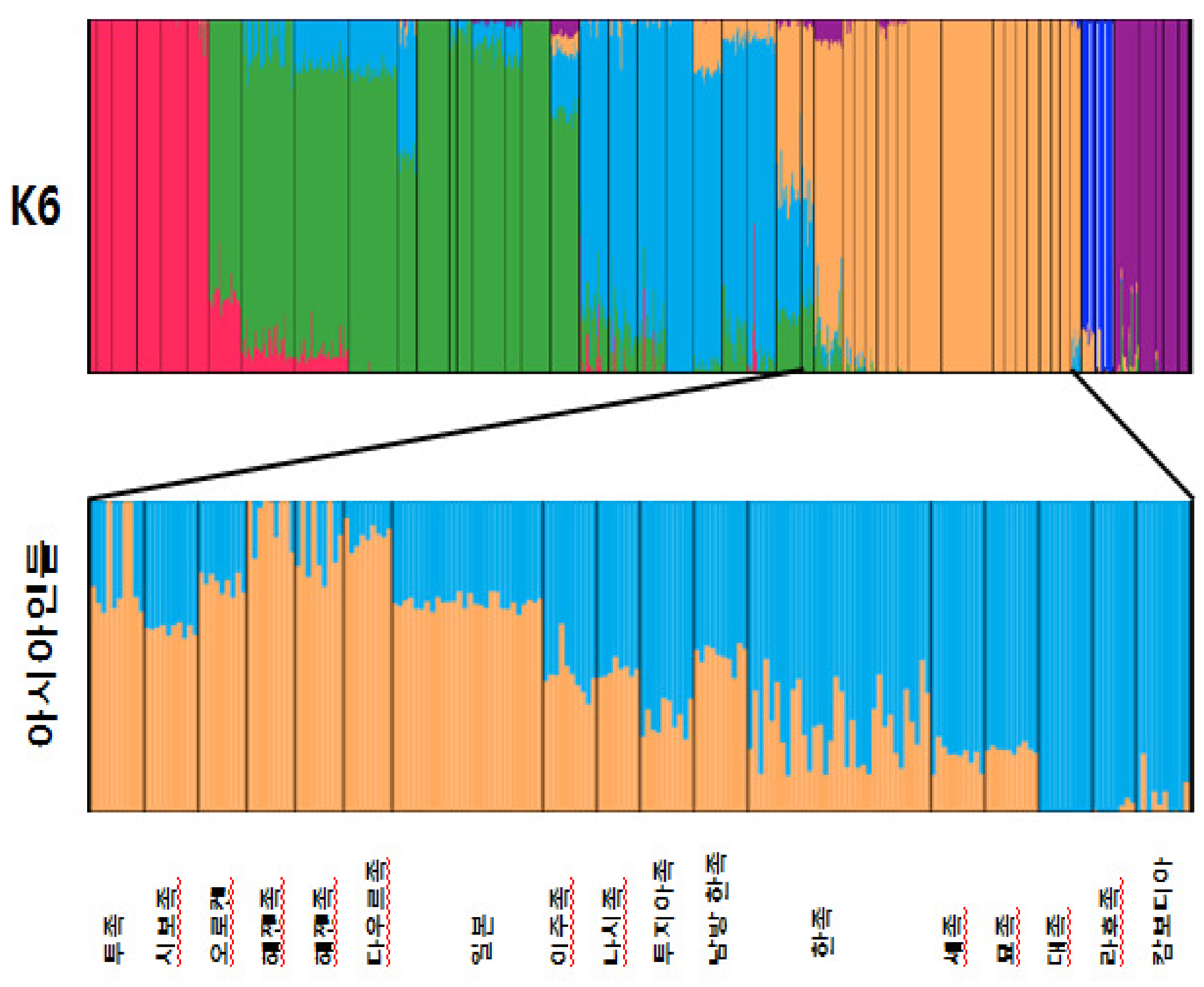
Figure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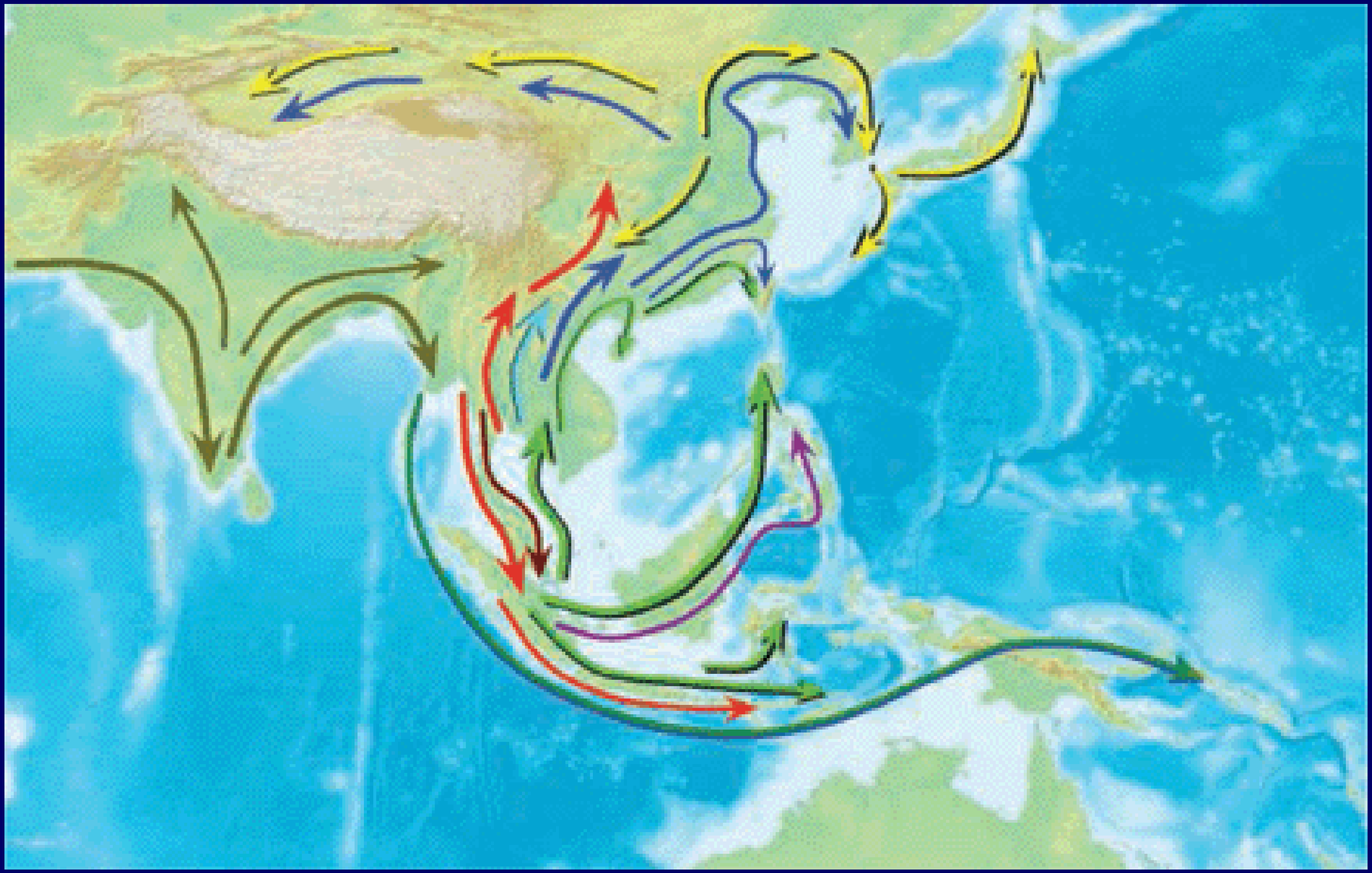
Science
Feb 22,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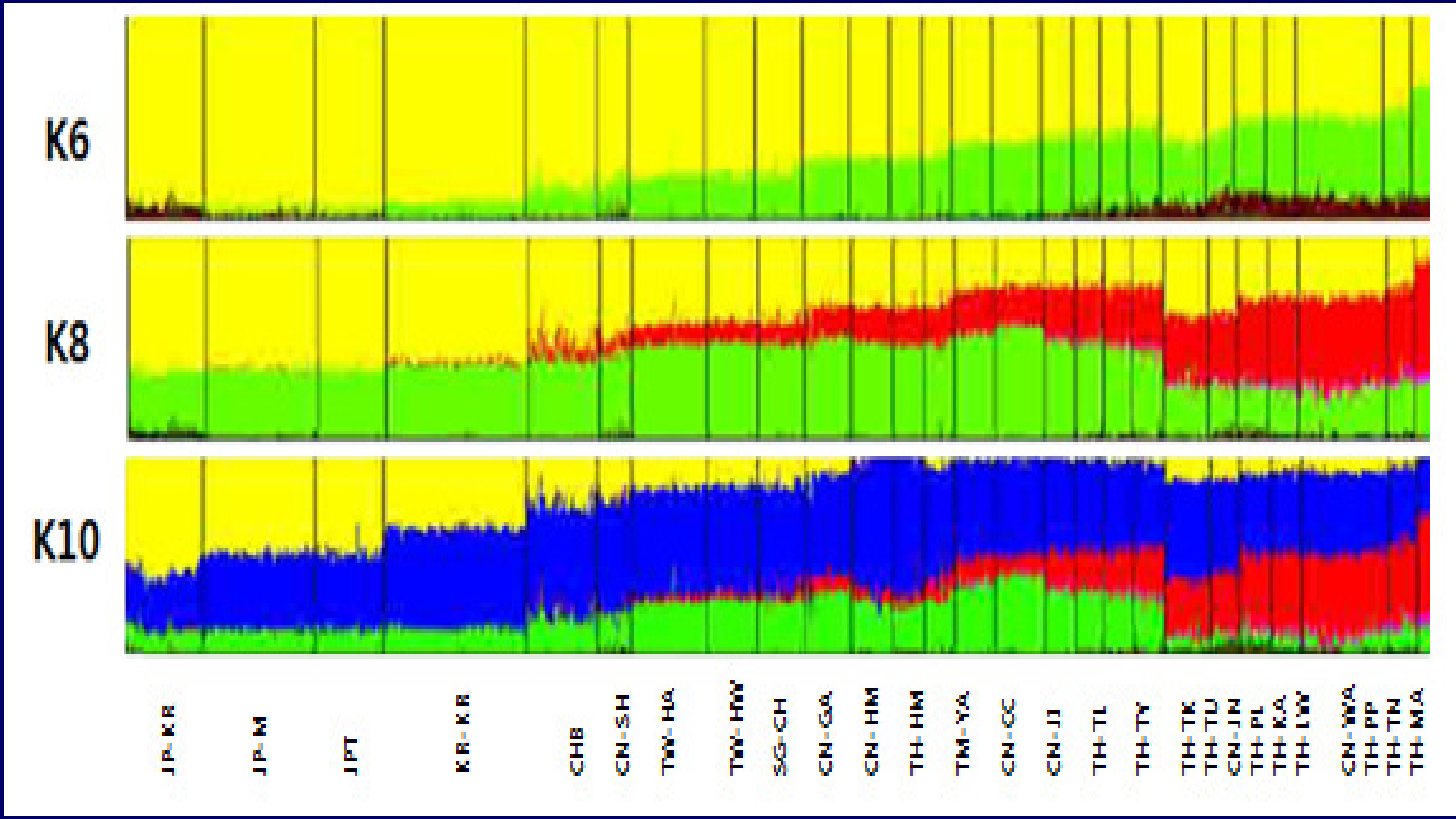
Science
Feb 22, 2008


K6
아시아인들
투족
시보족
오로첸
헤제족
헤제족
다우르족
일본
이족
나시족
투지아족
남방 한족
한족
서족
묘족
대족
라후족
캄보디아

HapMap 동아시아 컨소시움



D. Normile Science 326, 1470 (2009)


K6
K8
K10
JP-KR
JP-M
JPT
KR-KR
CHB
CN-SH
TW-HA
TW-HW
SG-CH
CN-GA
CN-HM
TH-HM
TW-YA
CN-CC
CN-JJ
TH-TL
TH-TY
TH-TK
TH-TU
CN-JN
TH-PL
TH-KA
TH-LW
CN-WA
TH-PP
TH-TN
TH-MA

북방인의 이동과 남하
고고학적 증거들

-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주: 14,000년 전
- 중국 북부 신석기 시대 유적의 최고 연대: 11,000년 전
- 중국 북부 신석기 시대 시작: 7-8,000년 전
- 일본에서 아이누인의 정착: 12,000년 전
- 대만을 통한 인도네시아인 정착 5,000년 전

북방세력의 남하/출현 시기

슬기인 파라독스 Sapient paradox

(콜린 렌프루)

- 45,000년 전까지 현생 인류는 어디 있었나?
- 후기구석기 문화를 만든 후, 왜 마지막 빙하기 이후(1만년 전)에 와서야 신석기 문화가 세계 각처에 모습을 드러내나?

왜 12,000년 전인가?

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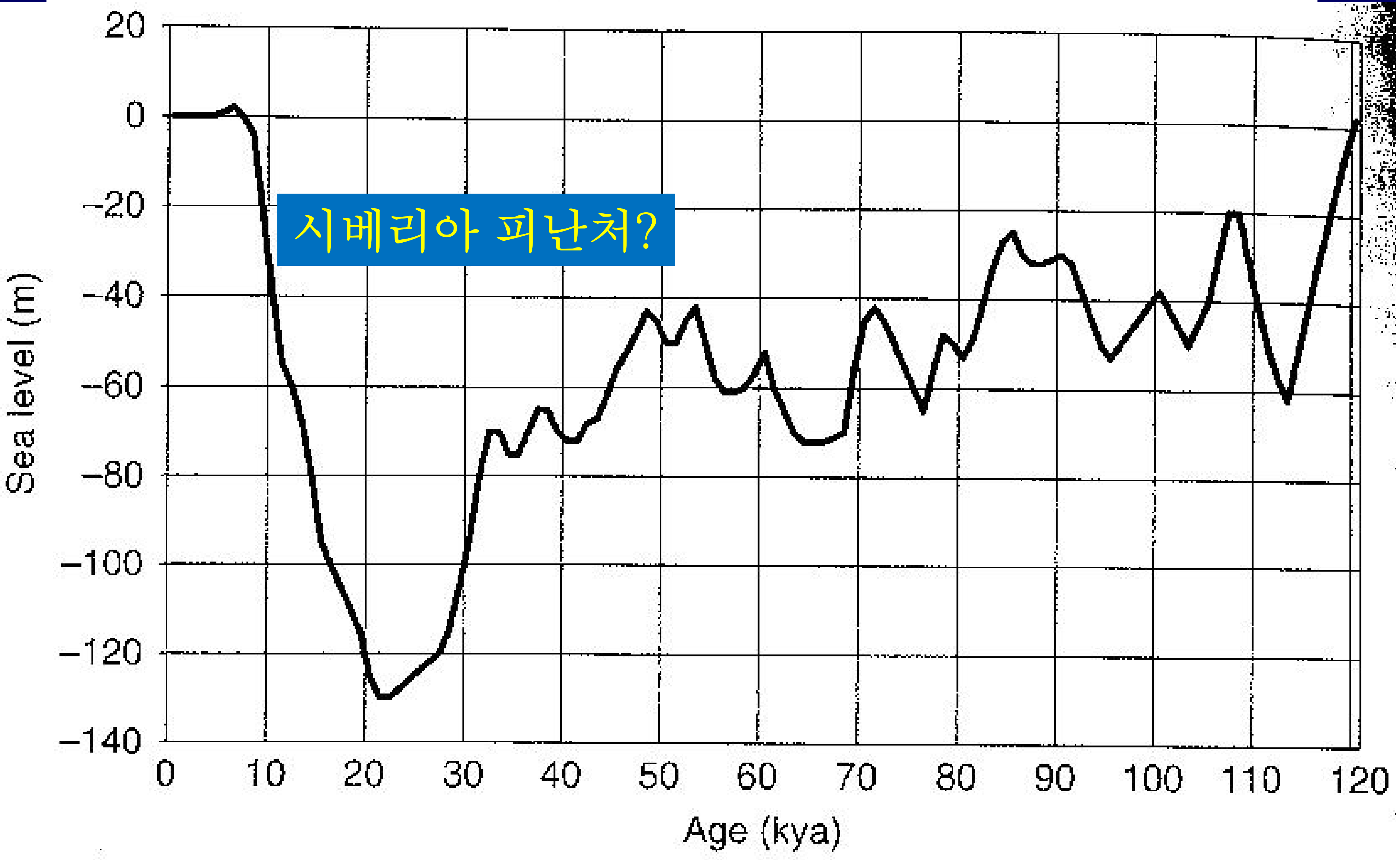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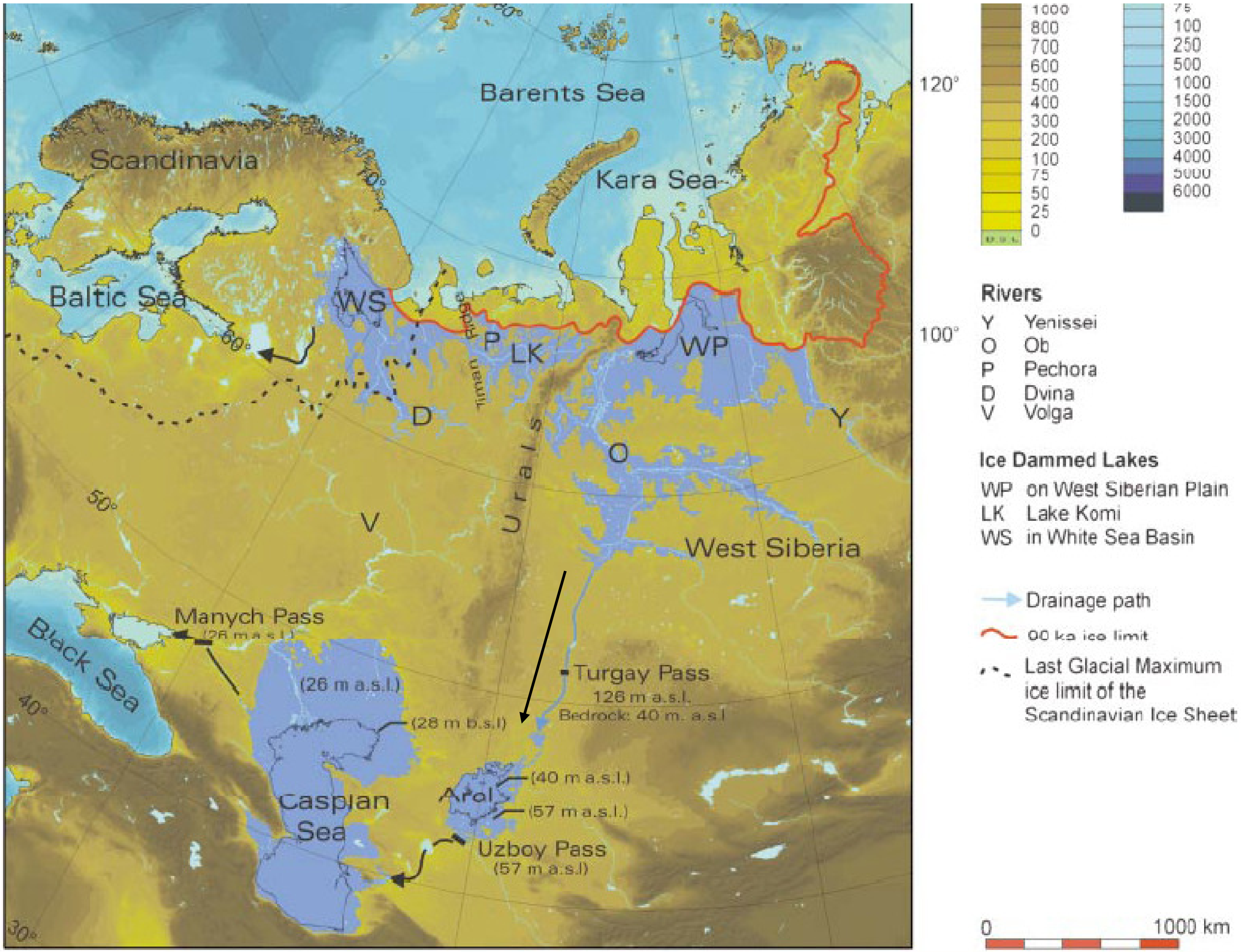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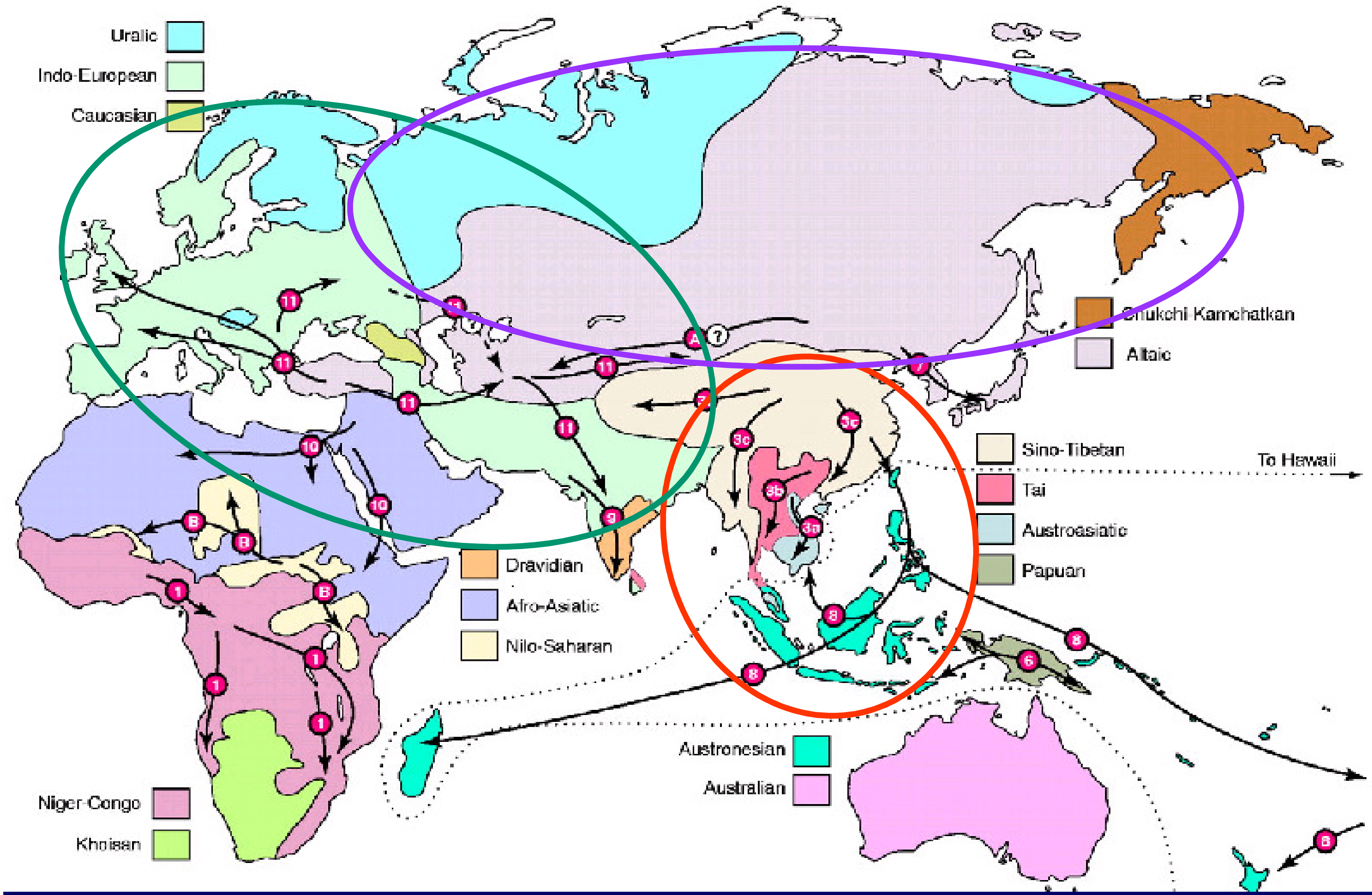


FIGURE 2.10. Changes in sea level during the last 100 kyr, based on Mix, Bard and Schneider (2001), Lambeck *et al.* (2003), and Lambeck and Chappell (2001).

Center for Paleoclimatology, Boulder, Colorado, USA.)


Barents Sea
Kara Sea
Scandinavia
Baltic Sea
WS
P
LK
WP
D
Y
O
V
Urals
West Siberia
Black Sea
Manych Pass
(26 m a.s.l.)
(28 m b.s.l)
Turgay Pass
126 m a.s.l.
Bedrock: 40 m. a.s.l
Caspian Sea
Aral
(40 m a.s.l.)
(57 m a.s.l.)
Uzboy Pass
(57 m a.s.l)
0°
20°
50°
40°
30°
120°
100°
60°
10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75
50
25
0
75
100
250
500
1000
1500
2000
3000
4000
5000
6000
Rivers
Y Yenissei
O Ob
P Pechora
D Dvina
V Volga
Ice Dammed Lakes
WP on West Siberian Plain
LK Lake Komi
WS in White Sea Basin
Drainage path
Last Glacial Maximum ice limit of the Scandinavian Ice Sheet
0 1000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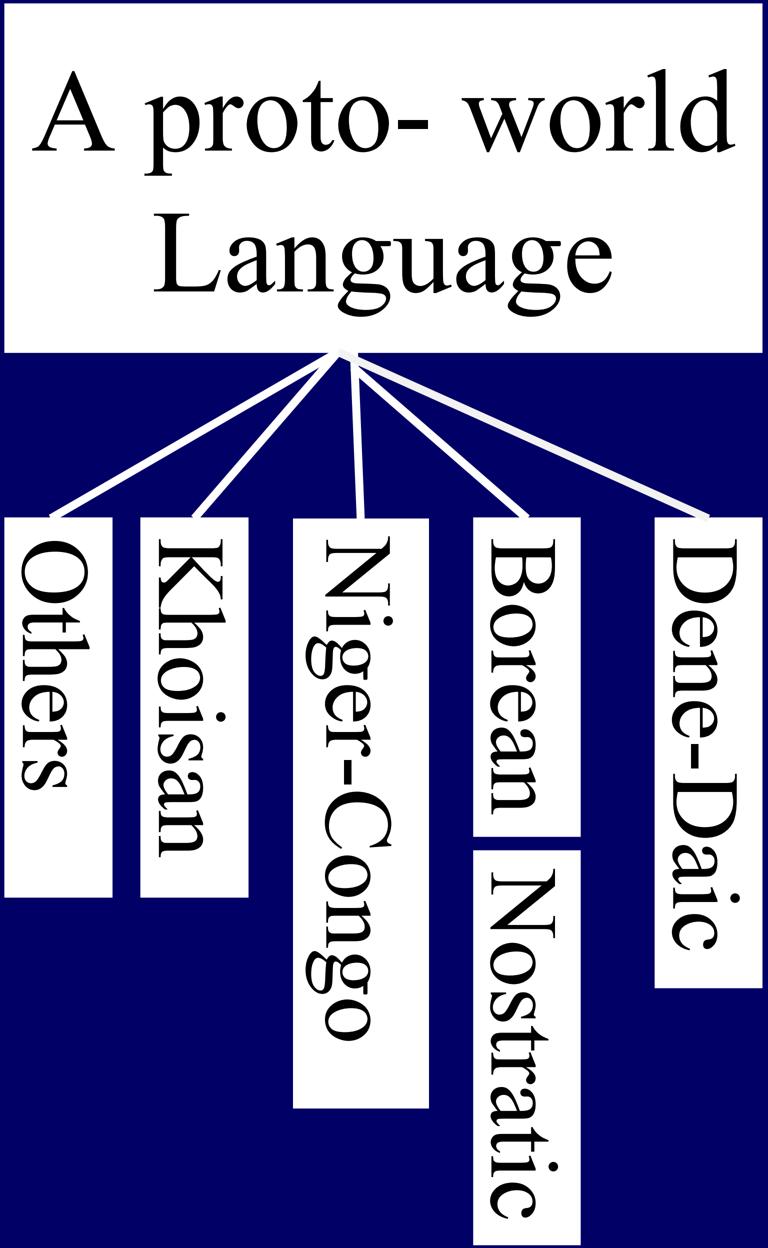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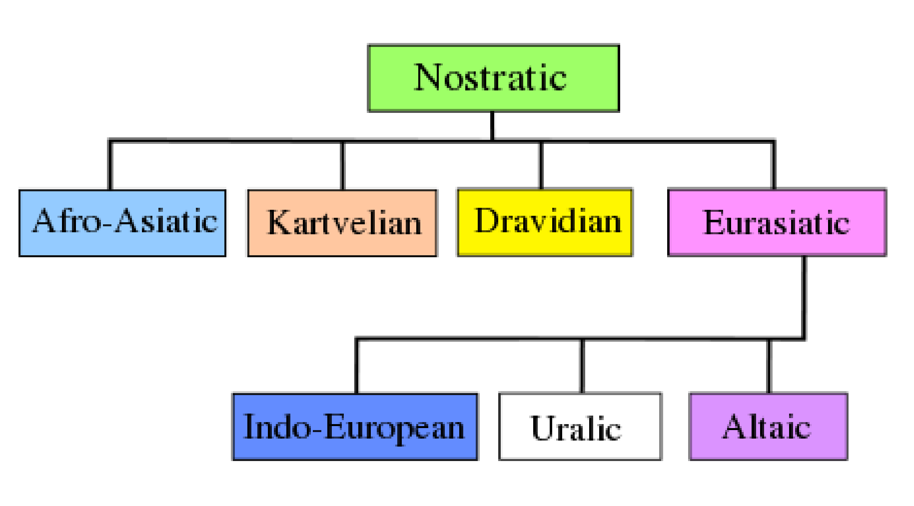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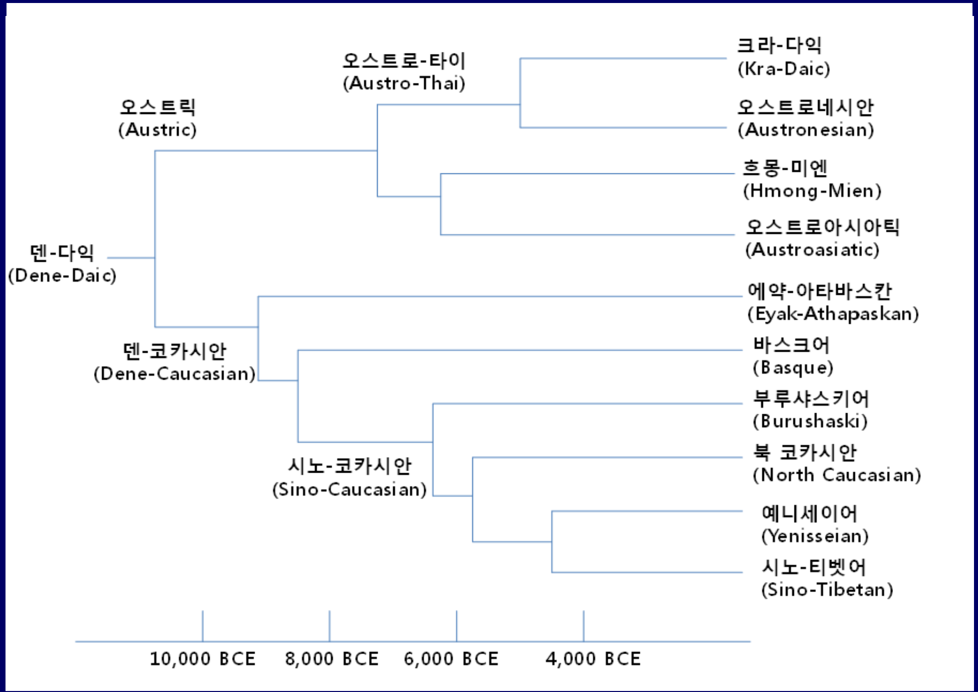
Farmers and Their Languages: The First Expansions

Jared Diamond and Peter Bellwood· Science 300:597, 2003

산타 페 연구소 : 바벨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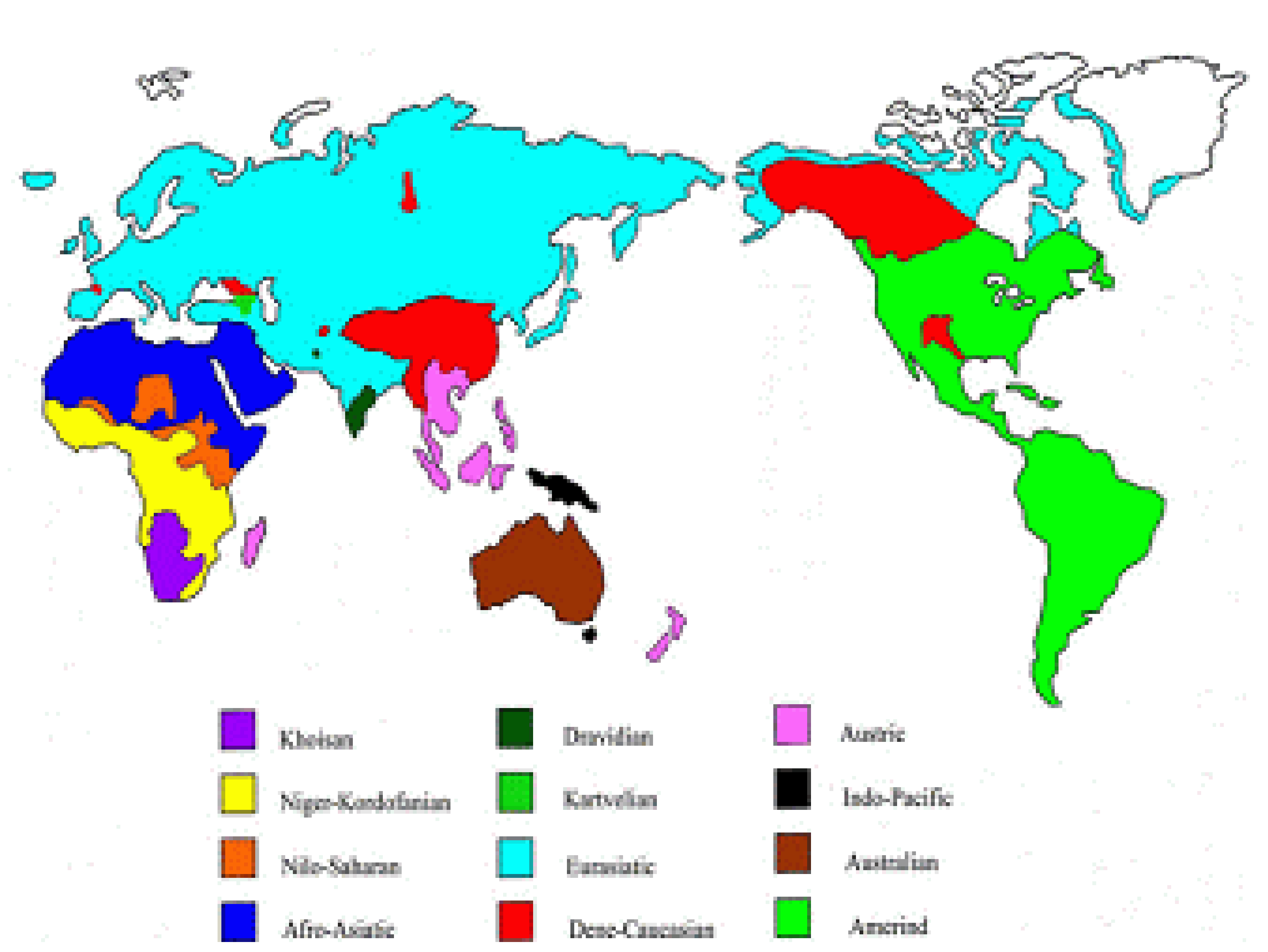






Tone vs non-tone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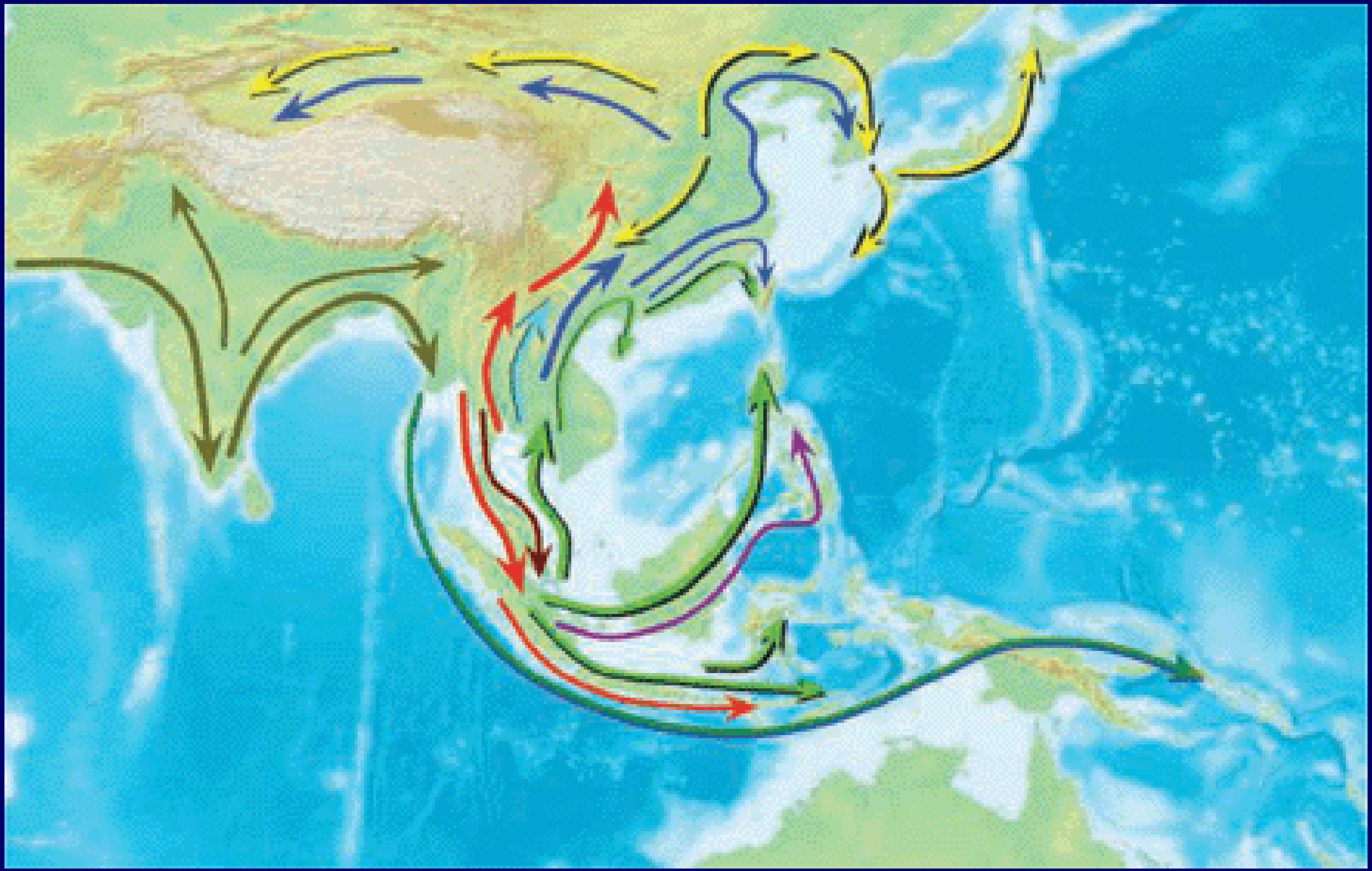
- 모든 언어는 consonants(자음)과 vowels(모음), pitch (음조)를 사용
- Tone languages is the norm in sub-Saharan Africa and are very common in continental and insular southeast Asia. e.g., Chinese. Relatively common in Central America, the Caribbean, and the Amazon basin, and occur sporadically elsewhere among the aboriginal languages of the Americas.
- Non-tone laguage is norm in the rest of Eurasia, North Africa, and Australia. e.g., English.
- The majority of the world's languages are either tonal or not, but Japanese, Swedish/Norwegian, and Basque are typologically intermediate.



산타 페 연구소가 만든 세계인류 언어의 진화 기본 지도.

http://ehl.santafe.edu/par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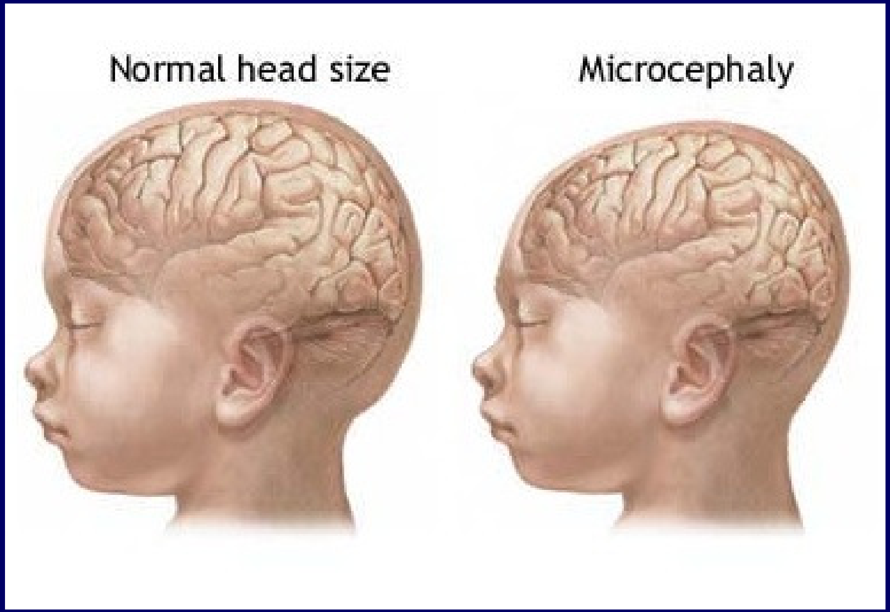
HapMap 동아시아 컨소시움



D. Normile Science 326, 1470 (2009)

언어 문제

유전자 변이와 언어능력의 발달



Microcepha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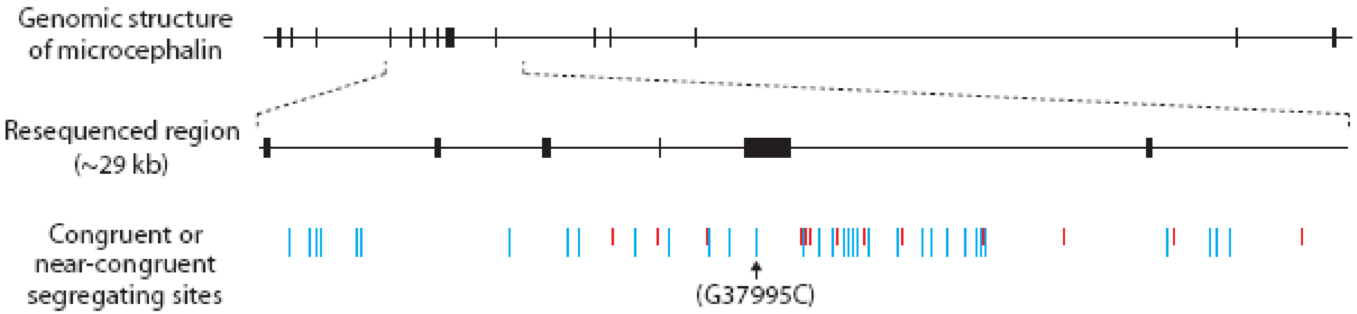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congruent or near-congruent segregating sites in the 29-kb resequenced region of *microcephalin*. Congruent sites are defined as showin consistently different alleles between D and non-D haplotypes; near-congruent sites are defined as having no more than four differences from congruent site Sites for which the D chromosomes are characterized by the derived allele are indicated by long blue lines, whereas sites for which the D chromosomes ar characterized by the ancestral allele are indicated by short red lines (for exact positions of these sites, see Table 1). Also indicated is the G37995C nonsynonymou site used to define the D chromosomes (bearing the derived C allele) and the non-D chromosomes (bearing the ancestral G allele).

Evidence that the adaptive allele of the brain size gene microcephalin introgressed into Homo sapiens from an archaic Homo lineage.

Evans PD, Mekel-Bobrov N, Vallender EJ, Hudson RR, Lahn BT. PNAS U S A. 2006, 103:1817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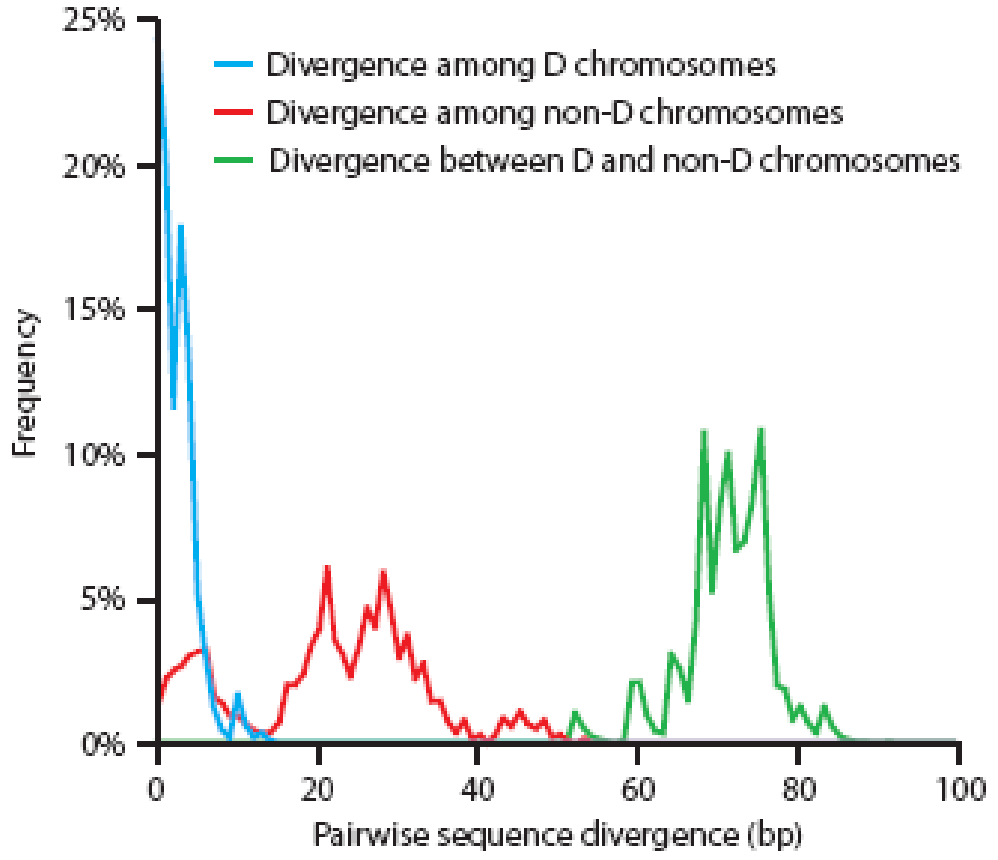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pairwise sequence divergence between and within D and non-D chromosomes at the *microcephalin* l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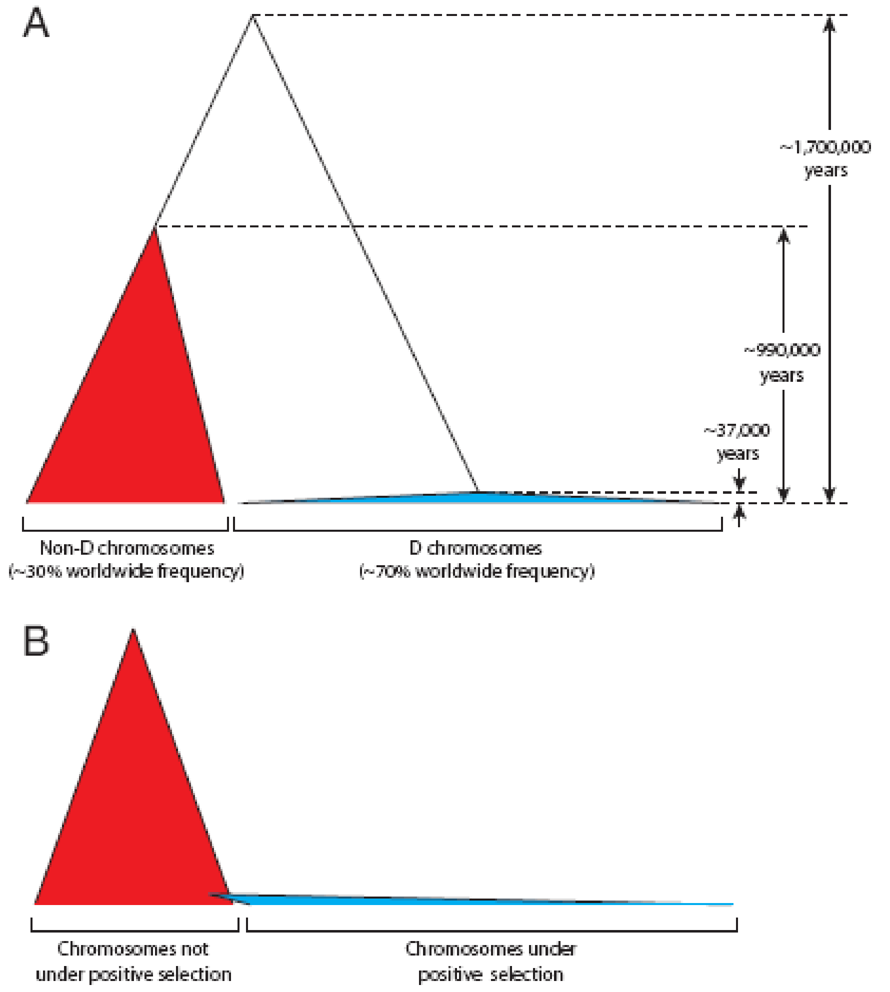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of the *microcephalin* genealogy with an idealized genealogy. Each filled triangle represents a genealogical clade, with the width of the triangle representing frequency in the population. (*A*) The genea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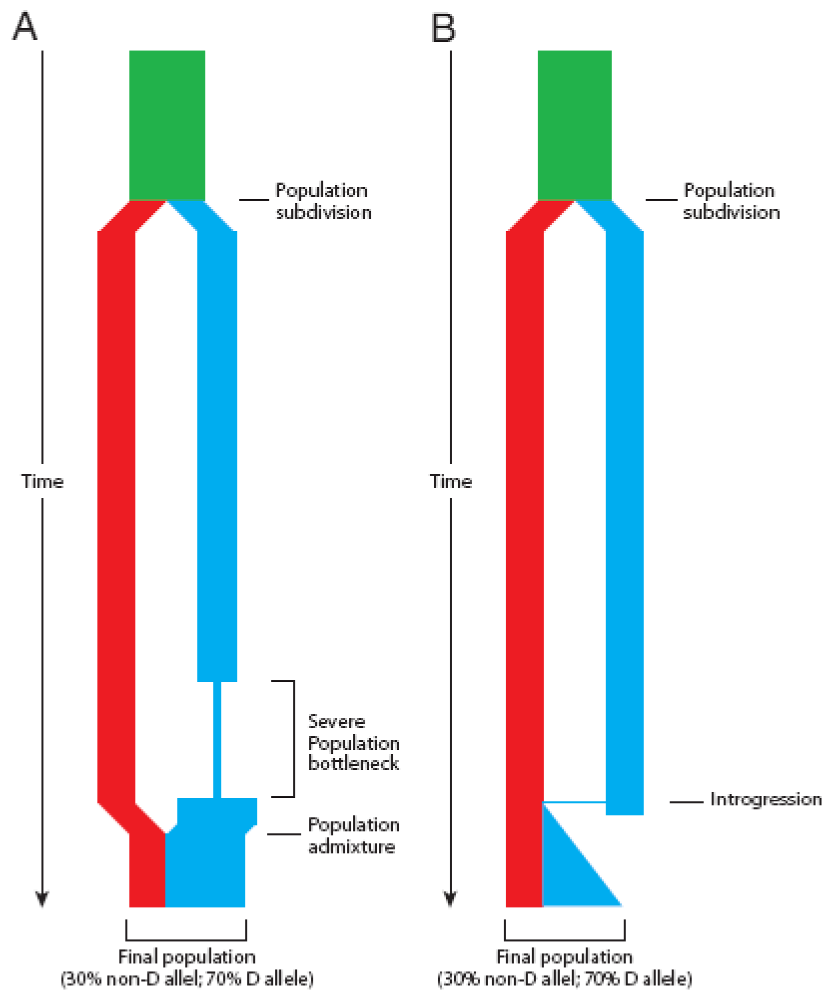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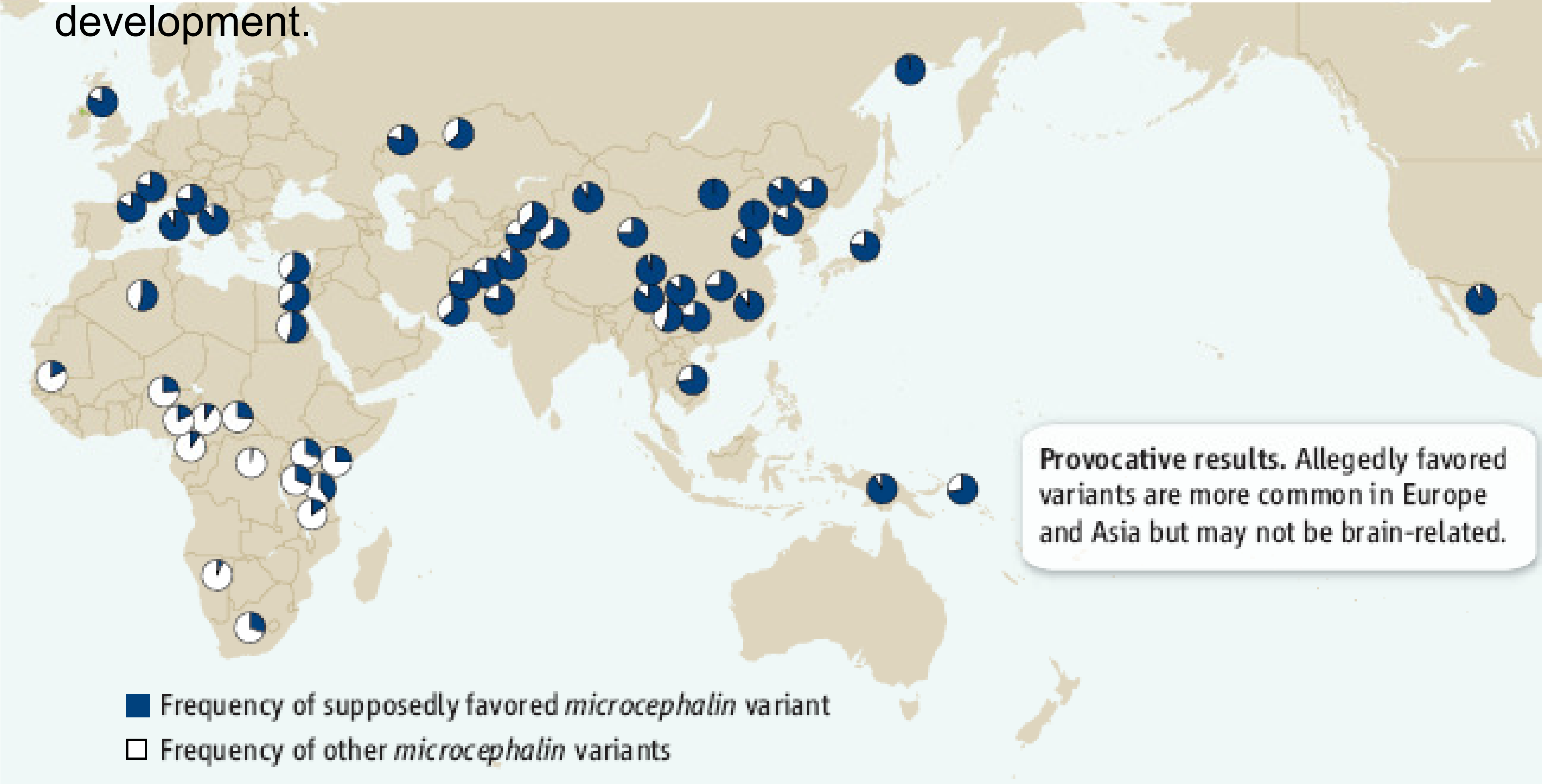
Fig. 4. Schematic depiction of two demographic scenarios compatible with the observed genealogy of the *microcephalin* locus. In both scenarios, an ancestral

결론

MCP는 100만년 전 나뉜 어떤 인류에서 있던 유전자인데, 37,000년 전 현생인류로 이입(移入, introgression)된 유전자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The *microcephalin* variant was dated to about 37,000 years ago, when the first art and symbolism showed up in Europe, key events in human cultural development.



Lahn had hypothesized that the variants might influence brain growth in normal people and might be involved in some more subtle neurological function: a brain-related function is still the most likely target of selection. If the variants aren't boosting IQ scores, what are they doing? (Science 2006)

데니소바인?과 현생인류의 혼혈

→

새로운 언어능력을 가지게 하고

후기구석기 문화를 발달

인류 모습의 변화: 현대적인 두개골의 인류

니콜라스 웨이드, 2006

- 현대적인 두개골을 가진 가진 인류의 유적은 홀로세 (빙하기 이후)에 처음 나타난다.
- 몽골리안과 유럽인의 선조가 시베리아에서 발달?
- 시베리아가 인류 제 2의 고향?

몽골리안이 추위에 적응된 모습

- 눈꺼풀의 지방층이 두 층이다.
- 팔다리가 짧고 몸체가 상대적으로 길다.
- 흑인보다 피부가 희다.

몽골리안의 유아적인 모습
(몬태규의 지적)

- 적은 근육량
- 잇빨크기가 작고 늦게 자란다.
- 털이 적고, 땀샘도 적다.
- 뼈도 가늘고, 팔다리가 짧고, 체격도 작다.
- 뇌의 용량은 크다 (MCP?)
- 두개골이 넓고 얼굴이 넓적하고 눈이 나와있다.

Neoteny (유아화)

중기구석기문화에서 후기구석기 문화로의 전환: mtDNA및 Y염색체형과 합성

언어 문제

유전자 변이와 언어능력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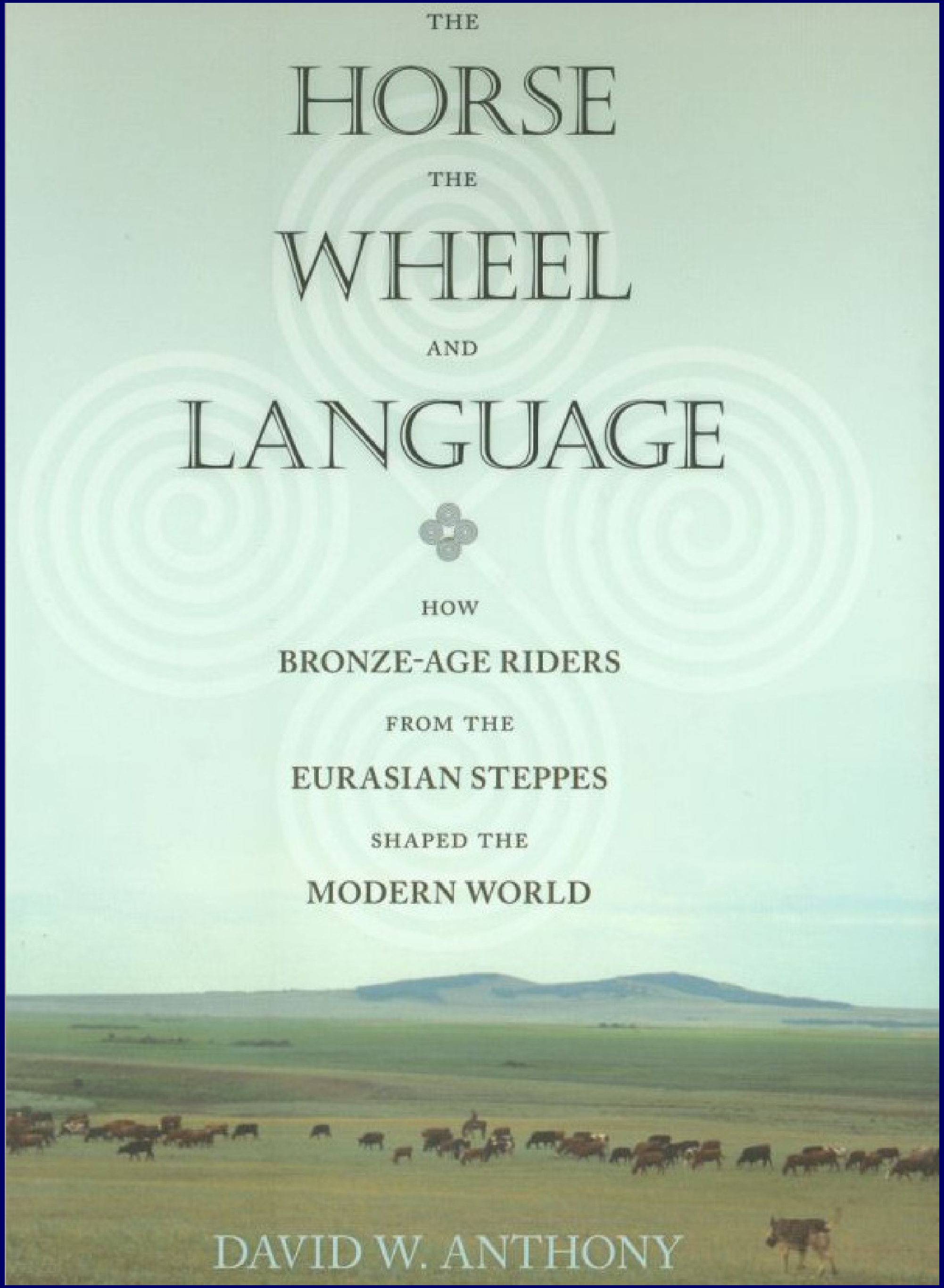
문화의 형성?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세르게이 스타로스틴의 언명

Past Human Migration in East Asia, Matching archaeology, linguistics and genetics
알리시아 산체스-마자 등 편집, Routledge, USA, 2008

- 원-알타이어는 약 8,000년 전에 터어키-몽골어, 퉁구스-만주어, 한국-일본어로 나뉘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최근 나뉘었다.
- 고대 중국어과 원-알타이어에는 공통된 말이 많다.
- 그런 특성의 중국말은 원-시노-티벳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 그런 특성의 중국말은 한국-일본어에서 항상 발견되고, 이 두 언어의 (공동)조어에서 나온 것이다.
- 즉 고대 중국어에는 한국-일본어 또는 유사한 다른 알타이어에서 빌려간 것이 많다.
- 그런 말들의 어의를 살펴보면 말을 빌려가는 과정이 절대 평화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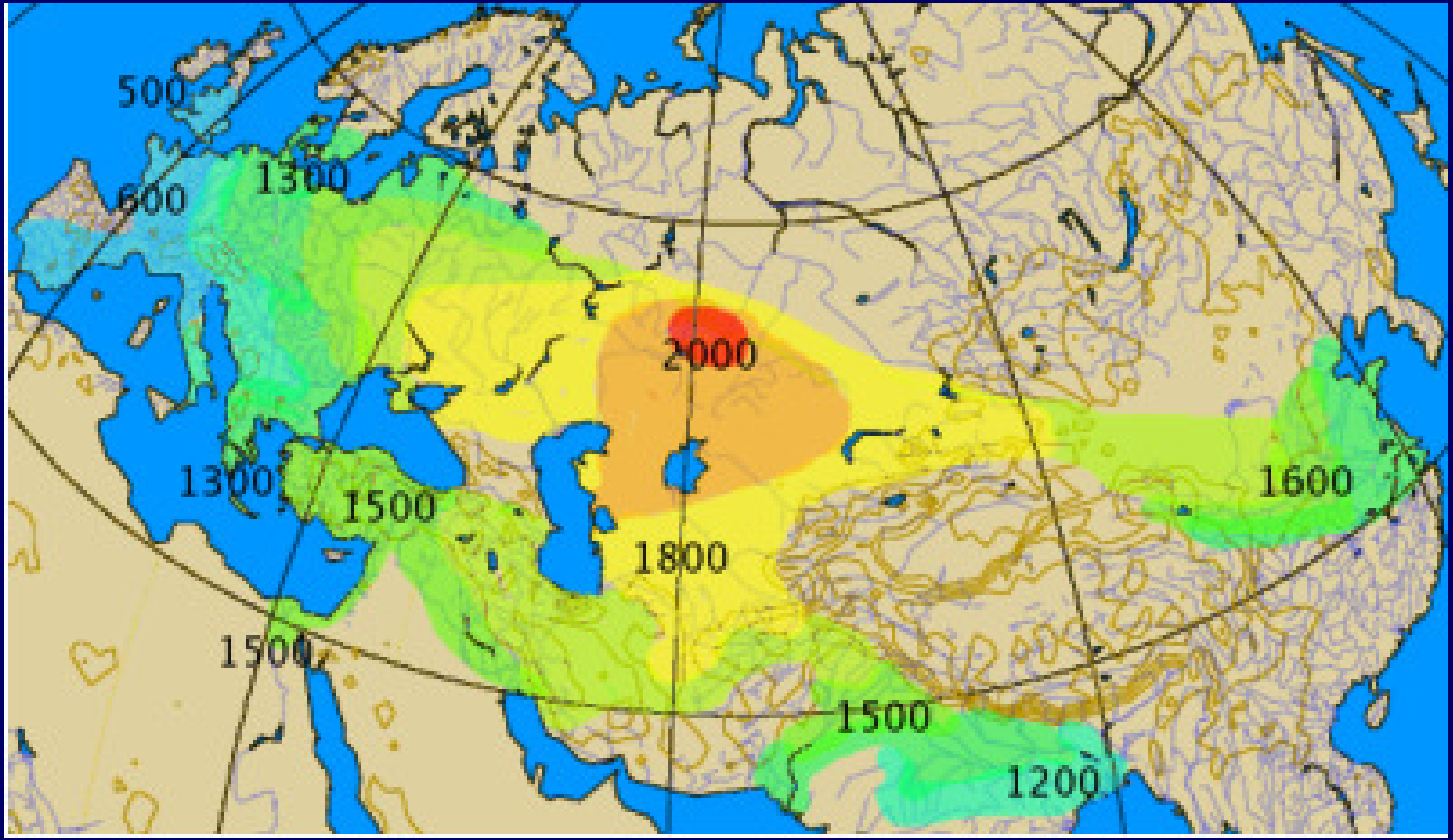
보레안, 원알타이어
북방 문화
개의 가축화
기장(millet)의 재배
(8,000~BCE)
샤오허시(小河西) 문화
(7000-6,500 BCE)
싱룽와(興隆洼)문화
(6,200-5,200 BCE)
차하이(査海)문화
(5,600 ~ BCE)
푸허(富河)문화
(5200-5,000 BCE)
자오바오거우(趙寶溝)문화
(5,000-4,400 BCE)
홍산(紅山)문화
(4,500-3,000 BCE)
알타이어
요하문명
페이리강 문화
(7,000-5,000 BCE)
오르도스 문화
황하 문명
한국어, 한글
중국어, 한자
양샤오(仰韶)문화
(6,000~ BCE)
양주 문화
(7,000-5,000 BCE)
쌀의 재배
(8,000~BCE)
남방 문화
덴- 다익



인도 유럽어
의 형성과

기마 민족

4000년 전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마차를 발명한 사람들의 언어



Linguistic tone is related to the population frequency of the adaptive haplogroups of two brain size genes, *ASPM* and *Microcephalin*

PNAS USA 2007

Dan Dediu and D. Robert Ladd[†]

Schoo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Language Sciences, University of Edinburgh, 14 Buccleuch Place, Edinburgh EH8 9LN, 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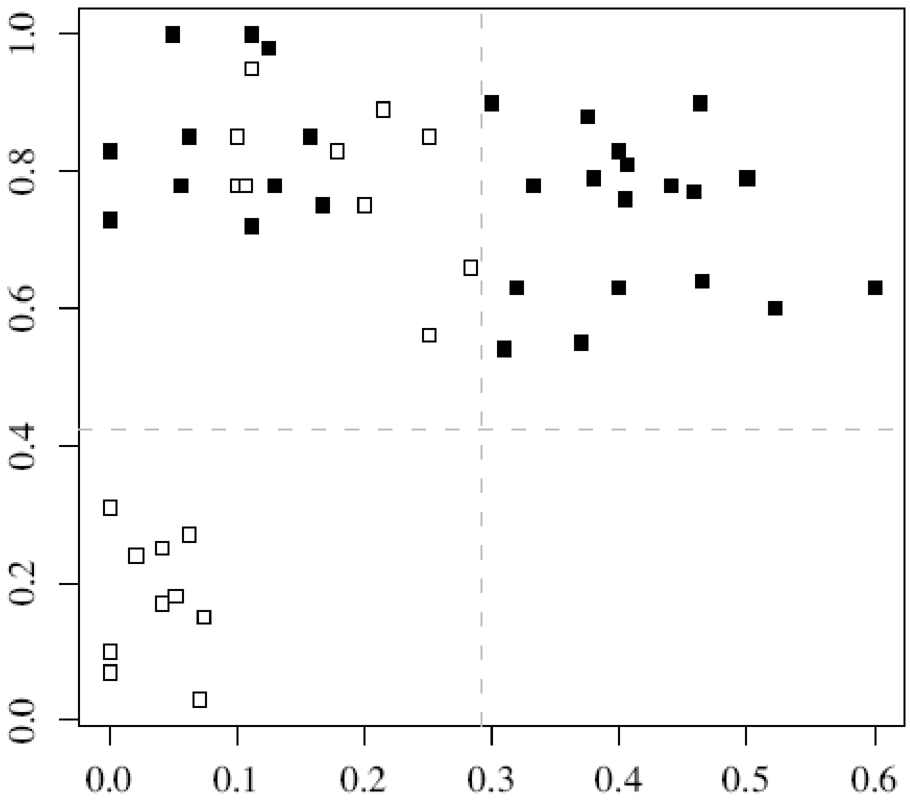


Fig. 1. Linguistic tone versus the population frequency of the adaptive haplogroups of *ASPM* and *Microcephalin*.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frequency of *ASPM-D*, whereas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frequency of *MCPH-D*. Filled squares represent nontonal languages and open squares tonal languages. Gray dashed lines correspond to 0.292 *ASPM-D* and 0.425 *MCPH-D*.

ASPM- D evolved around Pakistan-central Asia about 5,800 BP.

현대적 모양 (anatomically modern)의 신인류
(아프리카, 네안데르탈인/데니소바인과의 혼혈
아라비안 반도 및 인도네시아)

↓

현대적 행동 (behaviorally modern)
의 신인류 (재결합, 진화- 시베리아?)

현대적 두개골 (with modern cranium)
의 신인류 (지능? 신석기문화?)

↓

APM 돌연변이- 언어능력

표 1. 시베리아 원주민, 고대 바이칼 지역 주민, 한국인의 mtDNA 유전형 분포 (Schurr 및 Starikovskaya)

Population	n	A	B	C	D	F	M	OTH
Kitoi	24	12.5	0.0	4.2	29.2	54.2	0.0	0.0
Serovo-Glazkovo	30	30.0	0.0	30.0	13.3	13.3	13.3	0.0
Altayans	28	3.6	10.0	35.7	14.3	3.6	7.1	25.7
Mongolians	103	3.9	9.7	13.6	18.4	8.8	20.4	25.2
Mongolians	41	4.8	1.2	11.9	19.0	7.1	26.2	35.7
Tuvans	36	5.6	13.9	36.1	16.7	8.3	13.8	5.6
Tuvans	43	0.0	11.6	39.5	25.6	4.7	14.0	4.7
Buryats	40	5.0	5.0	20.0	25.0	5.0	32.5	7.5
Buryats	25	0.0	0.0	44.0	16.0	0.0	16.0	24.0
Avg. Baikal Popn	53	3.8	7.3	28.7	19.3	5.4	18.6	18.3

Population (No.)	A	B	C	D	G	Y	Other[a]
Tungusic:							
Evenks (51)	3.9	.0	84.3	9.8	.0	.0	2.0
Udegeys (45)	.0	.0	17.8	.0	8.9	.0	73.3
Linguistic isolate:							
Nivkhs (57)	.0	.0	.0	28.1	5.3	64.9	1.8
Paleoasiatic:							
Itel'men (47)	6.4	.0	14.9	.0	68.1	4.3	6.4
Koryaks (155)	5.2	.0	36.1	1.3	41.9	9.7	5.8
Chukchi (66)	68.2	.0	10.6	12.1	9.1	.0	.0
Eskimo-Aleut:							
Siberian Eskimos (79)	77.2	.0	2.5	20.3	.0	.0	.0
St. Lawrence Eskimos (99)	76.0	.0	7.0	14.0	.0	.0	3.3
Old Harbor Eskimos (115)	61.7	3.5	.0	34.8	.0	.0	.0
Ouzinkie Eskimos (41)	73.2	.0	4.9	14.6	.0	.0	7.1
St. Paul Aleuts (72)	25.0	.0	1.4	66.7	.0	.0	6.9
한국인(164)	9.15	20.7	0.6	34.75	6.7	1.2	26.9

(F 4.9 M* 1.8, M7 7.9, M8a 5.5, M10 1.2, N* 5.5)

감사드립니다.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Д.ОТГОНЦЭЦЭГ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1. Оршил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одоогоос яг хоёр жилийн өмнө, 2010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26-ны өдөр Сөүл хотноо болж энэ хуралд олон орноос, тэр дундаа Монгол Улсаас арав гаруй эрдэмтэд, тэдний дотор одоо энэ хуралд мөн уригдан ирээд байгаа эрдэмтэн Б.Сумьяабаатар багш хүрэлцэн ирж илтгэл тавин оролцож байсан билээ.

Тэр хурлын гол хоёр илтгэлийн нэгийг монголын талаас Б.Сумьяабаатар доктор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 Солонгос нь номын садан орон" гэсэн судалгаа шинжилгээний олон чухал санааг багтаасан, маш сонирхолтой сэдвээр хэлэлцүүлсэн бөгөөд уг илтгэлийн эхэнд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г дан ганц өрсөлдөөн сөргөлдөөн, маргаан мэтгэлцээн, хардалт сэрдэлт, үймээн самуун, дайн дажны талбар байсан мэтээр үзэх, тэр талыг дөвийлгөх нь туйлаас өрөөсгөл.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д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онцгой байр эзэлнэ. Оюутан суралцуулах, багш мэргэжилтэн илгээх, ном судар солилцох, бичгийн хэрэгсэл авч өгөх, хамтарч ном судар бичих, орчуулж хөрвүүлэх, хэлмэрч орчуулагчдын хөдөлмөр зүтгэлийг ихэд үнэлж өндөр хэргэм зэргэ хүртээх, байнга бичиг захидлаар харилцах, урлаг соёлын тоглолт хийх, урчууд хатгамалчин, эмч домч, бөө удган солилцож байсан зэрэг хэзээ ч үнэ цэнээ алдахгүй, элж хуучрахгүй, мөнх сайхан дурсагдах түүхэн хуудас энд хамаарна"[1] хэмээ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ний өнө эртний харилцааны олон талт байдлыг маш оновчтой хураангуйлан товчоолоод улмаар 995 онд Солонгосоос (Гуулин улсаас) монголын өвөг дээдэс болох Хятанд 10 оюутан илгээж байсан тухай, 1219 онд Солонгост (Гуулин улсад) 40 гаруй монгол оюутныг солонгос хэлнээ суралцуулж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ээг[2] түүхэн баримтаар нотлон дурдсан байдаг.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оёр орны ард түмэн хэлээ харилцан сурч улмаар оюутан сурагч илгээлцэж байсан энэхүү түүхэн уламжлал 10 зуун жилийн дараа өнөө үед хэрхэн сэргэж, шинэ үед яаж өргөжин дэлгэрснийг товч боловч товчоолон авч үзэх зорилгоор миний бие энэхүү бэсрэг илтгэлийг бэлтгэсэн болно.

---

[1] B.Sumiyabaatar. The Mongolian – Korean correspondence relation and International Mongolianology. 20th anniversary of Korean-Mongolian diplomatic relations. KAM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omo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of Korea-Mongolia.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20th annivesary. Seoul., 2010.3.26. - Conference book. pp.15-43.

[2] Б.Сумьяабаата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Уб., 1975. "13-14-р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Тэргүүн дэвтэр. Уб., 1978. "Дундад зууны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Сөүл., 1992.

2.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эдүгээ 20 гаруй жил өнгөрчээ. Энэ 20 илүү жил хэдийгээр түүхэ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 боловч хоёр орны ард түмэн бие биеэ танин мэдэж,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лыг гүнзгийрүүлэхэд онцгой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олон салбарт маш хурдан өргөжин хөгжсөн тийм чухал он жилүүд байлаа.

Үүний тод жишээ нь хоёр орныхоо хэл соёлыг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омоохо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албан ёсны тэнхим байгуулан тогтолцоотойгоор заан сургаж байгаа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юм. Монголд Улса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антурын түвшинд явуулдаг арваад их сургууль, бакалаврын зэрэгтэй сург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арван тава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байна. Харин БНСУ-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нь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д төвлөрч, харин Сөүл Их Сургууль,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 зүйн хичээл сонгон суралцах хэлбэрээр орж, тодорхой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 хийгдэж байна. Эдгээр сургууль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товч танилцуулъя.

1)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ь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ийг анх 1993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1-нд байгуулж анхныхаа элсэгчдийг хүлээж авсан байна.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ь бол БНСУ-д хамгийн анх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 байгуулсан,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г төлөөлөх сургууль юм.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 нь одоогоор 100 гаруй оюутантай, нэг хичээлийн жилд 30 оюутан элсүүлдэг.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ь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нийг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түвшинд бэлтгэдэг бөгөөд бакалаврын түвшинд л гэхэд 108 багц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ичээл үзэж судалдаг байна. 1 дүгээр ангид голдуу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эл зүй, яриа бичиг,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хичээлүүдийг заадаг бол, 2 дугаар ангид яриа бичгийн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түүх,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ичээл ордог байна. Харин 3 дугаар ангид монгол зан заншил, аман болон бичгийн орчуулга, эх зохиох найруулах хичээлүүд нэмэгддэг байна. 4 дүгээр ангийн сургалтанд орон судлал, хэвлэл мэдээллээр дамжуулж өнөөгийн монголын байдалтай танилцах, ажил дээр гарах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монгол хэл зэрэг хэлний дадлагын чанартай хичээлүүд багтдаг байна. Энд ярьсан зүйлийг хураангуйлж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ийн 2012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1-р улирлы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г дараах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ья.[3]

---

[3] http://hompy.dankook.ac.kr/mongol/

курс	ангилал	цаг	багц цаг	хичээлийн нэр
1	үндсэн	2	2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ухай ойлголт
1	үндсэн	2	2	Монгол хэл 1
1	үндсэн	2	1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урь яриа, дадлага1
1	үндсэн	2	2	Монгол хэл, давтлага 1
1	үндсэн	2	2	Монгол хэлний ойлголт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Нүүдэлчдийн түүх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хэл, анхан шат 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хэл, анхан шат, давтлага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4	3	Монгол хэл, анхан шатны ярианы дадлага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тухай ойлголт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ардын зан заншил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ичгийн болон аман орчуулга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хэл, дунд шат 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4	3	Монгол хэл, дунд шат, ярианы дадлага 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нхан шатны эх зохиох өгүүлбэр зохиох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Монголын газар зүй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Зүүн хойд нутгийн хүн судлал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4	3	Монго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яриа 4 ба дадлага 2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Ажил дээр гарах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Монгол хэл 1

2)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Дорно Дахины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ийг 2009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1-нд байгуулж анх 20 оюутантайгаар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ичээлийг эхэл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бол солонгостоо төдийгүй Азид хамгийн олон орны хэлээр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ж гаргадаг, нийт 45 орны хэл соёлыг зааж БНСУ-ын хэлний бодлогыг үндсэнд нь бүрэн тодорхойлдог сургууль юм.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нгид нийт элссэн 77 оюутнаас одоогоор 59 нь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жил бүр 20 оюутан элсүүлж авдаг. Энэ онд анхны төгсөлтөө хийх гэ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нь зөвхөн бакалаврын түвшинд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оюутан суралцах хугацаандаа монгол хэлний 88 багц цагийн хичээл үзэж судална. 1 дүгээр ангид голдуу хэл зүй, ярианы хэл,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хичээлийг зааж байгаа бол, 2 дугаар ангид хэл зүй, ярианы хэлний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түүх, зохион бичлэг, эхтэй ажиллах, эхэд дүгнэлт хийх хичээлүүд орж байна. Харин 3 дугаар ангид гүнзгий шатны ярианы хэл, зохион бичлэгийн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түүх, уран зохиол, орчуулга гэсэн хичээл нэмэгддэг. 4 дүгээр ангид орчуулгын дадлага, ярианы хэлний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оюутан монгол хэлээр чөлөөтэй санаа бодлоо илэрхийлж сурах мэтгэлцээн гэсэн хичээл, мөн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хэвлэл мэдээллээр дамжуулж өнөөдрийн Монголын байдалтай танилцах зэрэг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ичээл түлхүү заагдаж байна. Энэ бүхнийг эмхлэн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эл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ийн 2012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1-р улирлы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г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ья.[4]

[4] http://mongolian.hufs.ac.kr/

курс	ангилал	цаг	багц цаг	хичээлийн нэр
1	үндсэн	2	2	Монгол хэл зүйн үндэс(1)
1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Хэлний дадласын үндэс(1)
1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ын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1)
1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екстийн уншлага(1)
1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үндэс(1)
1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3	3	Анхан шат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яриа бичиг(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Анхан шат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зохион бичлэг(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үүх(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екстийн анализ(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Хэрэглэ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эл зүй(1)
2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Хэрэглэ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длага(1)
2	үндсэн	3	3	Дунд шат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яриа бичиг(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Гүнзгий шат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яриа бичиг(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ман орчуулга(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ын түүх(1)
3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Хэрэглэнйи монгол хэлний зохион бичлэг(1)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хэлний орчуулгын дадлага(1)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 хэлээр мэтгэлцэж сурах(1)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1)
4	мэргэжлийн сонгох	2	2	Монго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3) Их сургуулиуда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тусгай лекц

1. Сөүл Их Сургууль

Сөүл Их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 ба соёл” гэсэн нэртэй хичээлийг хэл шинжлэлийн тэнхэмийн 1-р ангийн оюутнуудад 2006 оны 3 дугаар сараас эхлэн одоо хүртэл сонгон судлах хэлбэрээр зааж байна. Тус сургуулийн докторант Д. Уртнасан гэдэг монгол багш уг хичээлийг заадаг байна. Энэ хичээл нь 3 багц цаг, долоо хоногт 1 удаа дадлага болон семинарын цаг тай. Үүнийг доор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ья.

No	Хичэээл ангилал	курс	Хичээлийн нэр	кредит	цаг	Тайлбар
1	Сонгон судлах (хэл судлал)	1	Монгол хэл ба соёл	3	3-1 (лекц-дад лага)	Долоо хоногт 1 цаг LAB хичээл тусгайлан сонсох

2.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д мөн “Монгол хэл ба соёл” гэсэн нэртэй хичээлийг 2010 оны 3дугаар сараас эхлэн одоо хүртэл сонгон судлах хэлбэрээр зааж байна. Энэхүү хичээлийг Ю Вон Сү (유원수) багш заадаг. 3 багц цагтай, долоо хоногт 1 удаа 3 цагаар хичээллэдэг. Мөн Гурё Их Сургуулийн Ардын уламжлалт зан занши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Соёлын сургуульд “Ма нж хэл,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лал1” гэсэн хичээлүүдийг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докторант Ким Гён На(김경나) багш 2010 оноос зааж байна. Үүний зэрэгцээ Гурё И х Сургууль нь Гурё Их сургуулийн ***Cyber University-тай хамтра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 ийн е-сургалт компанит ажлыг (http://ecamp.cyberkorea.ac.kr/) 2009 оны 10 дугаар сарын 22 -ноос эхл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дараах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ья.

No	Хичээл ангилал	курс	Хичээлийн нэр	багц цаг	цаг	тайлбар
1	Сонгон судлах		Монгол хэл ба соёл	3	3	

3. Гүүкмин Их Сургууль

Гүүкми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Хууль зүйн сургуулийн бакалаврын дараах сургалтын оюутн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нэгүй сургалтыг 2009 оноос яв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хичээлийг Хууль зүйн сургуулийн бакалаврын дараах сургалтанд татварын хуулийн чиглэлээр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Э. Анхтуяа гэдэг хүн зааж байна.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нхны алхам” гэдэг сурах бичгийг голлон хэрэглэж хичээлээ заадаг байна.

4) **Их сургуулиас бусад байгууллагы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1.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байгууллага:

①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өв (www.mongolcenter.org)
※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төвөө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Монгол хэл -ний хичээлийг долоо хоногт 2 удаа, үдээс хойш 15-17, орой 19-21 цагийн хооронд явуулах бөгөөд анхан, дунд, гүнзгийрүүлсэн шатны сургалт нь тус тус 3 сарын хугацаатай байдаг.
※ Монгол хэлний интернет хичээл (www.mongolstudy.co.kr):
*Анхан, дунд шатны хэл зүйн хичээл, анхан шат нь 18, дунд шат нь 20 цагийн хичээлтэй. Төлбөр нь 10,000 вон.

② EBS lang (www.ebslang.co.kr)

*Интернет хичээ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урь мэдлэг олгох зорилготой. Тус бүр 20 цагийн хичээл бүхий 2 шаттай. Төлбөр нь 42,000 вон.
http://www.ebslang.co.kr/ebs/flz.AlcCourseViewList.laf?clscd=903130000&pid=1471

2.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тай байгууллага

① Монгол сургууль (http://www.mongolschool.com/02ms-frame-a2.asp)
*Монгол сургуулийн интернет хичээл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урь мэдлэг олгох зорилготой 20 цагийн хичээл заадаг. Төлбөр нь 18,000 вон.

② Сунгюусү гадаад хэлний дамжааСунгюусү гадаад хэлний дамжаанд 2008 оноос эхэлж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уулж байна. http://songlang.hompee.com

Үүнээс үзэхэд Солонгос улс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нь одоогоор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ь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д төвлөрч, харин Сөүлийн Их Сургууль,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ичээлийг сонгон суралцах хэлбэрээр зааж байна. Данкүүг Их Сургууль нь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төдийгүй эх бичиг, сурвалж судлал, эртний болон дунд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алгаагаар дагнасан бол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нь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аман зохиол утга зохиол, үгийн сан-утга судла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онолын судалгаагаар дагнасан байна. Сөүлийн Их сургууль орчин үеийн утга зохиол,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Гурё Их сургууль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 алтай хэлний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лалаар тус тус дагнаж монгол хэл соёлыг заан судалж байна.

3. БНСУ-ын Их Сургууль,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хэрэглэж буй сурах бичиг гарын авлага

Солонгос Улс н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бакалаврын 4 жилийн, магистрын 2 жилийн, докторын 3 жилийн сургалт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тогтмол, эрчимтэ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гаа, дэлхийн цөөхөн улсын нэг юм. Солонгос Улс дахь монгол судлал нь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ны томоохо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Данк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эм болон тус сургуулийн дэргэд 2008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тэрчлэн мөн бусад хувийн ба улсын сургуулиудын эрдэмтэн, багш, судлаач нарын эрдэм оюуны хүчинд түшиглэн анх үүсэн хөгжиж өнөөдрийг хүрч ирлээ.

Илтгэлийн энэ хэсэгт Солонгосын Их Сургууль болон бусад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өргөнөөр хэрэглэж байгаа сурах бичиг, гарын авлагуудыг монголын ба солонгосын багш нарын бичсэнээр нь хоёр хуваан жагсааж, үүнд тодорхой ажиглалт хийхийг оролдсон болно.

Сурах бичиг, гарын авлагатай холбогдуулан дараах зүйлийг хэлж болох юм.

Ихэнх сурах бичиг нь дүрэм дээр туулгуурласан, хэлний дадлага давтлагыг хэдхэн өгүүлбэрээр хязгаарласан механик аргатай. Тухайн хичээл дээрээ сургахыг зорьсон дүрэм нь эх доторх цөөн өгүүлбэрээр тайлбарлагда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оюутан гараад шууд ярьж чадах хэлний дадлага болохгүй байна.

Эхийн агуулгад монгол орны соёл, нийгмийн байдал, ахуй амьдрал, монгол залуучуудын амьдрал, монгол хүмүүсийн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 зэрэг сонирхолтой, монгол орны талаар мэдлэг, мэдээлэл хангалттай олж авахуйц зүйл орж чадаагүй учраас оюутны сонирхлыг төдийлөн татахгүй байна.

Оюутны сурах сонирхлыг шууд татаж, урам зоригийг нь сэргээсэн зураг, бичлэг, видео хуурцаг болон техник ашиглаж гэрээрээ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ч болох зүйлүүдийг сурах бичгүүдэд хангалтгүй бүрэн оруулаагүй байна.

Сурах бичгийн дасгал ажлууд боловсронгүй болж чадаагүй, үгийн сан, дүрэм нь гэнэт хүндэрсэн, оюутан бие дааж хийхэд хэцүү, зөвхөн унших бөглөх дасгалууд зонхи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зураг зэрэг зүйлийг хараад шууд сонгох, нөхөж бичих, орлуулж тавих сонирхолтой дасгалуудаас бүрдэж чадаагүй байна.

Сурах бичигт хэлний дөрвөн чадавх болох ярих, сонсох, унших, бичих чадварыг нэгэн зэрэг хөгжүүлэх арга зүй алдагдсан байна. Одоогийн сурах бичгүүдэд сонсоод бичих, нэг хичээлээр уншаад ойлгосноо ярьж чадаж байгаа эсэхийг оюутан өөрөө шалгаж болох аргуудыг харгалзаж чадаагүй байна. Дасгал ажил дотор эхийг уншаад ойлгосон эсэхийг асуусан асуултаар л хязгаарласан бол тухайн сэдвээр ойлгосноо оюутан буцаагаад ярьж чадах, өөрөөр хэлбэл, ангиас гараад монгол хүнтэй ярьж чадах чадварыг нь хөгжүүлж өгч чадахгүй юм байна.

4. БНСУ-ын их сургуулиуд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н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Илтгэлийн төгсгөлд Монгол улс ба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22 жил болж байгаа өнөө үед Солонгосын Их Сургууль болон бусад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уй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асуудалтай тал, тулгарч буй бэрхшээл, цаашид авч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талаар дараах хэдэн зүйлээр товчлон өгүүлэх болно. Үүнд:

1)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2) Сурах бичиг, гарын авлага

3)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агш нарын заах арга, ур чадвар

4) Монгол хэлний цахим хуудас, онлайн сургалт

5) Гүнзгий шат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Present State of Mongoli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Otgontsetseg DAMDINSÜREN, 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Mongoli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Historically, Mongolic was first taught in Korea (Koryŏ 高麗) in 995 A.D. After this point in time, there is no clear evidence regarding the teaching of Mongolian in Korea. During the Chosŏn 朝鮮 period (1392-1897), we have information on a regular exchange of teachers and students from and to Mongolia. After this period,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e teaching of Mongolian in Korea.

In 1990, Mongolia became a democratic country. Not long after March, 26, 1990—the date that Mongoli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Mongoli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began again anew.

This paper will largely focus on post-1990 Mongoli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Beginning in the early 1990s to the present, vario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ave established Mongolian language programs, including Dankook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thers.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иг соёлын түүхийн асуудалд

Д.Таяа

Агуулгын товч: Зохиогч “Торгуудын дайчин хаанаас Оросын Цагаан хаан Алексей Михалович Романовад илгээсэн бичиг”-т суурилж эрдэмтдийн маргаантай байсан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зохиогдсон цаг үе,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үүсэл бүрдэлийн цаг хугацаа, жич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гавьяа зүтгэлийг үнэлэх асуудлын тухай өөрийн үзэлтээ дурдав.

Түлхүүр үг: ойрад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гийн түүх,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Ойрад монгол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 үсэг бичигтэй байсан эсэх,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чухам аль онд зохиогдсон,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 нь аль үед бүрэлдэн тогтносон,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гавьяа зүтгэлийг хэрхэн үнэлэх зэрэг асуудал нь хэдийгээр аль эрт шийдвэрлэгдсэн гэдэг боловч бас л маргаантай байсаар...

Олны мэдээжээр,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тод монгол үсгээр туурвин бичсэн дурсгал бичиг үлэмж олон боловч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х үед холбогдох үсэг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 тун ховор. Зарим эрдэмтэд “Дөрвөн ойрад, Монголыг дарсан тууж”, “Монгол Ойрадын цааз бичиг” зэрэг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үг хэлний онцлогийг л үндэслэж,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ээ хэрэглэж байлаа гэж таамагладаг боловч түүнийг аван доор нотломоор он жил, цаг хугацааг нь тодорхой баримт сэлт хараахан байсангүй. Иймээс эрдэмтэд “тод бичгээс урьд Дөрвөн Ойрад худам бичиг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эшлэгч), дөрвөлжин бичиг, хятад бичиг зэргийг зохих хэмжээнд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атал, өв соёлын хувьд үлдэж хоцорсон үнэт дурсгалаар хомс” ［1］(p.50)гэх буюу эсхүл “тод үсгийг зохиож хэрэглэснээс урьдах ойрадчуудын үсэг бичиг хэрэглэсэн байдал ба бичиг соёлын байдлыг одоохондоо тоочиход бэрхтэй” гэх мэтээр өгүүлдэг［2］(p.120).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зохиохоос өмнө үеийн ойрад монголын үсэг бичгийн хэрэглээний байдлын хоосон орыг нөхвөрлөсөн үсэг бичгийн чухал нэгэн дурсгал бол Орос улсын үндэстний архиваас олдсо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н үсэн бийрийн гар бичмэл болох юм［3］(p.62)［4］(p.316). Тус бичиг нь 1661 онд Торгууд хаант улсын хаан Шүхэр дайчингаас Цагаан хаант оросын Алексей Михалович Романова хаантай хамсаж Крим хаант улсыг гэнэдүүлэн дайрахаар болзсон нууц захидал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 болно［5］. Энд тус бичгийн агуулга хэлбэрт суурилж эрдэмтдийн маргаантай байсан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зохиогдсон цаг үе,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үүсэл бүрдлийн цаг хугацаа, жич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гавьяа зүтгэлийг үнэлэх асуудлын тухай өөрийн үзэлтээ ярья.

Нэг.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зохиогдсон цаг үе

Олонх эрдэмтэд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1648 онд зохиогдлоо хэмээн нотолсоор ирсэн билээ. Гэтэл зарим эрдэмтэд "XV зуун дундажаар, тухайлбал Юань улс мөхсөний хойно, ойрад тусгаарлаж Юаны хаант төрийг сэргээхээр зүтгэж байсан Эсэн хааны үе (төр барьсан жил нь 1439-1454 он) буюу түүний хойнох нь ойрадын тусгаарлах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цээнд тохируулан, уйгуржин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урин дээр ойрад аялгуунд зохицуулан тод үсэг үсгийг зохиож", "Мингийн түрүүчийн үе, даруй XV зууны үед тод үсгийг ойрад монгол ба Мин улсын хоорондох албан ёсны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захидал чимээ зэрэгт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6｣ гэх буюу эсхүл "тод үсгийг 1648 онд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зохиосон биш, харин түүний багш Цагаан Номин хан гэдэг хутагт 1600-1605 оны хооронд зохиосныг хожим нь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засвар оруулан сайжруулжээ" ｢7｣ (p.82) гэх мэтээр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зохиогдсон цаг үеийг 1648 оноос хол урагшлуулан ярьдаг. Цаашид "Торгуудууд оросын Ижил мөрний хөвөөнд нүүн очихоосоо өмнө нэгэнт тод үсгийг өргөн дэлгэр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мөртөө Ижил мөрөнд хүрсний дараа ч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хэмээн үздэг ｢6｣. Гэтэл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ээс харахад, зарим эрдэмтдийн "1648 оноос хорин жилийн өмнө Шиньжианаас аялаад Ижилд хүрсэн торгуудчууд" ｢7｣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гэх үзэлт нь эндүү таамаглал болохыг нотолсон мөртөө торгуудчууд Ижил мөрний хөвөөнд хүрсний дараа ч албан харилцаанд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биш, хари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хэргийг тодорхойлов. Даруй 1648 онд зохиогдсон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тод үсэг нь 1661 оны үед Торгууд хаант улсад хараахан түгээмэлжээгүй (албан харилцаанд хэрэглэгдээгүй)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Оросын архивын материалаас үзэхэд, Алтай уулын орчмоос Ижил, Зай хоёр мөрний хөвөөнд хүрсэн торгуудчууд XVII зууны эхнээс 70-аад он хүртэл Цагаан хаант орос улстай албан харилцаанд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1689 оноос хойш, даруй Аюух хааны үеэс эхлэн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сэн гэдэг нь ч тодорхой болсон юм ｢8｣ (p.371).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гэдэг нь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эд ч тодорхой. "Хошууд ноён баатар Увш түмний туурвисан дөрвөн Ойрадын түүх" гэх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дартં "Цагаан номын хааныг залж Дөрвөн Ойрадад эх үсэг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 -эшлэгч) заалгаж, төвд зам явах зам хаалга сайн, Барахөл хоёроор хайлгаж зам хаалга гаргаж" ｢9｣ (pp.198 235) гэдэг. Энд Цагаан номын хаан гэдэг нь Майдар хутагт (Бодь Очир дарь хутагт)-ыг зааж, тэр 1604 онд ар халхад хүрээд тэндээсээ ойрад монголд залагдаж ном бичиг дэлгэрүүлсэн явдлыг өгүүлж байх юм.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тухайн үед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эх үсэг" хэмээн нэрийдэж

байжээ.

Хоёр.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үүсэл бүрэлдэл

Өнгөрсөнд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иг хэл буюу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ний үүсэл бүрэлдэлийн тухай эрдэмтдийн үзэлт танилт нь их төлөв нэгдэлтэй байж, цөм XVII зууны сүүлчийн хагасаас эхэллээ гэдэг. Өөрөө хэлбэл,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үүсэл бүрэлдэлийн цаг хугацааг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сон цагаар баримталж,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урь дээр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 бүрэлдэн тогтносон хэмээн үздэг. Төлөөлөх чанартай хэдийг дурдвал, Монгол улсын эрдэмтэн Бямбын Ринченээс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г "Дөрвөн Ойрадын бичиг үсгийг буй болгож, ойрад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суурь тавьсан" ｢10｣ (p.6) гэж, Халимаг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Павлов нар "Зая бандида (1599-1662) "тод үсэг" гэдэг шинэ бичилт болон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 тогтоосон" ｢11｣ (p.5) хэмээн, Өвөр монголын Вэнь Ин нар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урь дээр ойрад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хэл бүрэлдсэн" ｢12｣ гэх мэтчилэн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1648 онд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аас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сны дараа сая бичгийн хэл буюу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тэй болсон хэмээн ойлгож ярьдаг. Эдгээр үзэлт нь эвгүйтвэл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 үсэг бичиг, утга соёл, ухаан мэдрэлээр балай дорой иргэд байсан гэдэг эндүү нотлолтонд ч хүргэдэг. Өөрөөр хэлбэл, алтан ургтны хойчис, жич тэдний харьяат албатаас 400 гаруй жилийн хойно үсэг бичиг, утга зохиолтой болсон "хоцронгуй" ястан гэх үр дүн ба ойлголт танилтыг буй болгодог байна. Зарим эрдэмтэд ч ийнхүү ухааран таньж "олны мэдэж байх ёсоор XVII зууны эхнээс өмнө Шиньжианы монголчууд хүн амаар олон байсан боловч үг хэлэнд нь зохицсон үсэг бичиггүй, түүний хамт цөөн бус монголчууд ислам шашныг шүтсэн зэрэг шалтгаанаас болж, үг хэлээ мартаж оюун санааны талаар бүдэг балархай болж, байн байн уйгур, узбек, хасаг, төвд зэрэг үндэстэнд бага багаар хайлан шингэсэн" ｢13｣ (p.3) гэж өгүүлдэг. Цаашид Шиньжиан ойрадын нэг хэсэг хүмүүсээс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ойрад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 үсэг" хэмээн бодоод,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ар үсэг" хэмээн гадуурчлахаар дамжиж "ойрад монгол" хэмээх адилшилыг цогцлох хандаш гарч байна. Учир нь тэдний ойлголтоор бол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 нь тэдний эртний дээд үед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буюу эсхүл сүүлийн үед дуртай хүлээн авсан үсэг биш, хари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дотночилдог хүмүүсээс "албадлага"-аар хүртээсэн үсэг мөн хэмээн үздэг. Шиньжиан ойрад дахь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н хэрэглэдлийг ойрад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н эрх мэдлийн буурал доройтол хийгээд алтан ургтны улс төр, соёл боловсролын мандал сэргэлээр боддог. Иймээс нэг хэсэг эрдэмтдээс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ын алдар гавьяаг харьцуулшгүй өргөн магтаж, түүнийг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иг соёлын суурилагч" ｢14｣ (p.18) хэмээн үнэлдэг. Нөгөө талаар, Шиньжиан ойрадын зарим хүмүүс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тэнгэрлэг”, “язгуур”, “том” үсэг хэмээн өргөн магтаж,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өчүүхэн”, “шинэ”, “бага” үсгээр сэтгээд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хаяж байхаа “давшингуй” ажиллагаагаар бодож байх юм. Ингээд ерийн нэгэн үсэг бичгийн асуудал нь аяндаа Шиньжианы ойрадын улс төр, нийгэм соёлын асуудал болон хувирч, монголчуудын хоорондох их эе нэгдлийг нөлөөж байх үзэгдэл ч буй. Гэтэл бид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ээс харахад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зохиохоос өмнө, ойрад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гийн балай этгээд байсан биш, харин алтан урагтны хойчис тэдний харьяат албаттай адилха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мөртөө утга соёлын өндөр боловсролтой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Мөн ч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 нь хамаг монголын үсэг бичиг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тодруулж байх юм. Үүний тодорхой жишээ гэвэл:

- Бичлэгийн тэг: Тус бичгийн бичлэгийн тэгийг унгарын эрдэмтэн Д.Кара “туркстан” маягын тэгтэй ойролцоо бөгөөд өвөр, ар монголын үсэг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д адилхан бичлэгийн тэг харагдана гэв「15」(p.55). Үнэндээ зарим зурлага нь турфаны уйгуржин монгол үсгийн олдвортой ойролцоо байна. Бид тус бичгийн бичлэгийн тэгийг Торгууд хаант улсын Дайчин хаанаас хожуу үеийн торгуудын хаад ноёдын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зарлиг захианы бичгийн бичлэгийн тэгтэй харьцуулж үзэхэд арай өөр. Тухайлбал, торгуудчууд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х үедээ бичлэгийн тэгийн хувьд зүүн монгол бичгийн мэргэдтэй адилавтар бичлэгийн тэ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наа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хийг дагалдаж бичлэгийн тэгийн талаар бага өөрчлөлт гарсан байна「8」「9」.

- Хэлний зүй: Тус бичиг нь хэлний зүйн талаар монгол хэлний онцлогийг нэлээд хадгалсан юм. Даруй гийгүүлэгч үсэг γ ба n-ийн дусалыг үл бичих (“ ”, “ ”, “ ”, “q ”, “q ”, “ ”, “ ” гэх мэт), гийгүүлэгч č-г үгийн эхэнд дунд “j” хэлбэрээр бичих (“ ”, “ ”, “ ”, “ ”, “ ”, “ ” гэх мэт), үгийн дунд орсон гийгүүлэгч d-г “ т ” хэлбэрээр бичих (“ ”, “ ” гэх мэт) зэрэг нь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онцлогтой юм. Нөгөө талаар, заахын тийн ялгалын “I” хэлбэрээр харьялахын тийн ялгал(“q q ”, “ q q ④ ”, “ ” гэх мэт)-ын утгыг илтгэх үзэгдэл ба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зарим сурвалж бичигт харагддаг нэлээд эртн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зэгдэл болох юм.

- Албан бичгийн хэвшил: Захидал зарлигийн бичгийг “ом сайн амгалан болтугай” хэмээн эхлэх хэвшил нь сүүлийн үеийн торгууд хаадын бичигт харагдахгүй「8」「9」. Гэтэл эртний монголбн хаадын зарлиг захианы бичигт харагддаг. Жишээлбэл, Харчи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ламын эе эвийг тусад Манжийн

хунтайжид илгээсэн бичигт “ном сайн жаргалан болтугай” гэж「16」(p.88), 1645 он 4 сарын шинийн гуравнаа Өөлдийн Гүүш хааны хөвгүүн Дорждалай баатраас Эеэр засагч хааны амрыг эрсэн айлтгал бичигт “Ом сайн жаргалан болтугай” 「17」(p.97) хэмээн, Гарма Дайчин хошуучийн айлтгасан бичигт “Ом сайн амгалан болтугай” 「17」(p.123) гэж гардаг. Иймээс тус өгүүлбэр нь эртний монголын хаад ноёдын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албан бичгийн эхлэлийн хэвшилийн нэгэн зүйл болох юм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ойрад монгол нь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иг хэрэглэхээс өмнө, хамаг монголын эл угсаа ястан цөм адилха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ижилхэн бичиг соёлын язгуур уламжлалтай байжээ.

Дээрхийг хураангуйлбал,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 доорх мэт хэдэн зүйлийн бичиг соёлын асуудлыг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на.

-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 нь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XVII зууны 70-аад он хүртэл бусад

монголчуудтай адилха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ямар ч эргэлзээгүй болгосон мөртөө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1648 онд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суурь дээр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зохион дэлгэрүүлсэн гэдгийг улам нэг алхам нотолсон байна. Иймээс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 нь алтан ургтны л үсэг биш, харин ойрад монголыг багтаасан хамаг монголын үсэг мөн гэдгийг ойлгон чухалчл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Шиньжианы ойрадчуудаас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 бол ганц өвөр монголчуудын л үсэг бичиг биш, харин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ч үсэг бичиг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тодорхой ойлгох чухалтай байна.

- Олны мэдээжээр, ямар нэгэн үсэг бичгийг эхлэн хэрэглэгчид бичгийн хэл (буюу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 бүрэлдэн тогтнодог биш, харин дүрэмжин боловсронгуй үсэг бичгийн уламжлалтай болох үед л сая бичгийн хэл бүрэлддэг. Бид тус бичгийн бичлэгийн зурлага, хэлний зүй, албан бичгийн хэвшил зэргээс үзэхэд,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тод үсгийг зохиохоос аль эрт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нь утга зохиолын өндөр боловсролтой болсон гэдги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Даруй ойрад монголчууд XVII зуунаас хол өмнө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эрэглэсээр ирсэн мөртөө зүүн монголтой адилхан боловсронгуй бичгийн хэл(буюу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ний уламжлалтай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тодорхойлж байна. Энэ талаар эрдэмтэн Лувсандэндэвийн “1648 онд Намхайжамц “тод үсэг” зохиох хүртэл ойрадчууд үсэг бичиггүй байв.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ээ боловсруулж амжаагүй, соёлын талаар ард хоцорсон, өвөр монголчуудаас олон зуун жилээр хойно хоцорсон байв гэдэг нь үнэн байдалд огт нийцэхгүй. Харин ойрад, халх хоёр соёлын хир хэмжээгээрээ адил байсан нь маргаангүй” 「18」(p.71) гэх саналыг нотлууштай байна.

- “Дайчин хааны бичиг” нь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иг соёлын суурилагч бол ганцнэгэн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биш болохыг илэрхий болгосон юм. Цаашид XVII-XVIII зууны үеийн тод монгол үсгийн дурсгал нь үгсийн сан, хэлний зүйн байгуулал, авиалбарын систем, жич түүний онцлог зэрэг талаар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тэй ойролцоо байсан явдал бол зарим эрдэмтдийн ярьдаг шиг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аас “зүүн монголчууд тод бичгийг сурч хэрэглэх зүг шилжихэд дөхөм үзүүлэхийг хичээж байсан”「19」-ы учир биш, харин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үсэгт суурилсан бичгийн хэлнээс тод монгол үсэгт суурилсан бичгийн хэл өөд шилжиж байсан шат үеийн ул мөр байжээ. Иймээс Зая бандида Намхайжамц бол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иг соёлын анхны үүдэн бүтээгч байсан биш, харин XVII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чиг соёлын өөрчлөн хөгжүүлэгч хэмээн үнэлүүштэй байна. Нарийсгаж ярьвал, тэр бол тод монгол үсэг, жич түүнд суурилсан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бичгийн хэлний бүрэлдэл тогтнолын суурь тавьсан хүн хэмээн хэлж болно.

зүүлт:

「1」Эрдэнэбаяр, Дөрвөн Ойрадын бичгийн соёлын толта товчоо, “Үүрийн цолмон” сэтгүүл, 1990 оны 7 дугаар хугацаа, 50-р тал

「2」Т.Булга, Монгол хэлний ойрад аялгууны судлал, Шиньжаны ардын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2005, 120-р тал

「3」А.И.Моисеев И.И.Моисее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алмыцкого народа (XVII-XVIIIвв.), Калмыц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Элиста, 2002, стр.62 ; Валентин Бембеев, Ойраты. Ойрат-Калмыцки. калмыки, Элиста, 2004, стр.316

「4」Валентин Бембеев: “Ойраты.Ойрат-калмыки.калмыки”, Элиста. 2004г.

「5」Д.Таяа, 17-р зууны торгууд түүхийн чухал нэгэн дурсгал бичиг – “Торгуудын Дайчин хаанаас Алексей Михалович Романовад илгээсэн бичиг”-ийн тухай, Өвөр монго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этгүүл, 2010 оны 4-р хугацаа

「6」М.Өнө-Улаан, Тод үсэг зохиосон тод үсгийн тухай ажиглалт, “Монгол хэл бичиг” сэтгүүл, 1983 оны 3 дугаар хугацаа

「7」Ку Куеэ, Тод үсгийн зохиогдсон цаг үе ба түүний зохиогчийн тухай шинээр судлах нь, “Өвөр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 сэтгүүл, 1986 оны 3 дугаар хугацаа, 82-р тал 5-р зүүлтийг үзнэ үү

「8」Сусеева Данара Аксенова, Письма хана Аюки и его соверменников (1714-1724 гг.), Элиста, 2003, стр.371

「9」Гедеева Дарья Бадмаева, Письма наместника калмыцкого ханства Убаши (XVIIIв), Элиста, 2004, стр.198-235

「10」<Монгол> Б.Ринчен, Рамжамба Зая бандидын тууж “Сарны гэрэл хэмээх оршив”-ын оршил, “Хан тэнгэр” сэтгүүл, 1983 оны 4 дүгээр хугацаа, 6-р тал

「11」Павлов Д.А, Цеденова С.Н, Тодо бичиг, Элиста, 2002, стр.5

「12」文英，托忒蒙古文与卫拉特蒙古研究初探，卫拉特研究（蒙文）杂志， 2002 年第四期

「13」Тү.Жамц, Тод үсгийн дүрэм, Өвөр монгол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техник мэргэжлийн хороо, 1999, 3-р тал

「14」То.Булга, Монгол үсэг бичгийн түүхэн дэх тод үсгийн байр суурь, “Хэл ба орчуулга” сэтгүүл, 1994 оны 4 дүгээр хугацаа, 18-р тал

「15」D.卡拉著，蒙古人的文字与书籍，内蒙古人民出版社, 2004 年，第 55 页

「16」Арван долдугаар зууны өмнө хагаст холбогдох монгол үсгийн бичиг дэвтэр, Өвөр монголын багачууд хүүхдийн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1997, 88-р тал

「17」Чин улсын дотоод нарийн бичгийн яамны монгол данс эвхмэлийн эмхэтгэл (нэгдүгээр эмхэтгэл), Өвөрмонголын ардын хэвлэлийн хороо, 2004, 97-р тал

「18」<Монгол> Лувсандэндэв, Тод бичгийн учрыг дахин бодох нь, “Ойрадын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991 оны 1 дүгээр хугацаа, 71-р тал

「19」<Орос> Павалын Дорж, Тод үсэг хийгээд халимаг утга зохиолын хэлийг зохион үйлдэгч Зая бандида, “Үүрийн цолмон” сэтгүүл, 1990 оны 1-2 дугаар хугацаа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АЛД

Ж.Бат-Ирээдүй (МУИС)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н хоч нэрийн судалгааг нэрийн хэмжээнд тусгайлан судласан нь их түгээмэл биш юм. Бид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н хоч нэрийг түүвэрлэн,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 хоч нэрийн сан" номыг 2009 онд (ISBN 99929-0-960-9) хэвлүүлсэн билээ. Энэ санд 400 орчим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250 гаруй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 багтсан юм. Энэхүү номын агуулгад түшиглэн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н хоч нэрийн талаар зарим санаа хэлэхийг энэ илтгэлийн зорилго болгов.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уудын нэр бол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нэгэн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юм"[1]. Ерөөсөө хүний нэр бол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хээ,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хээ тусгал болж ахуй байдал, түүх, ёс заншил, соёлоо шингээж үлддэг нэг ёсны түүх бичлэг юм. Энэ нэр хаана үлддэг вэ гэвэл уран зохиолд үлддэг. Тэр дундаа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хамгийн нийтлэг болоод ховор нэрүүд уран зохиолд мөнхрөн үлддэгээрээ онцлогтой. "Нэр – хэмээх хэдэн үсэг авианы цаана бүхэн бүтэн хувь хүний амьдрал дахин давтагдашгүй заяа төөрөг байдаг билээ."[2] "Ертөнцөд эрдэнэт хүний биеийг олж төрөөд, дуудуулах нэртэй болно гэдэг чухал хэрэг. Аливаа хүний нэр гэдэг гүн ухаан, ёсзүйн учир утгатай эрхэм соёл мөн."[3] Профессор Б.Пүрэв-Очир хүний нэр гэж юу вэ гэдгийг доорх байдлаар тодорхойлжээ. Тэрбээр "Хүний нэр нь тухайн улс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ний онцлог, соёл иргэншил, зан үйл,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бэлгэдэх ёсон, шашин шүтлэг, зөн билэг, хүн-нийгмийн харицлаа, мэдээлэл дамжуулах арга, эх хэл, эрхэлдэг аж ахуй, амьдрах ухаан зэрэг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тодорхой орон зай, цаг хугацааны дотор, ямар нэгэн шалтаг, шалтгаантайгаар үүсэж, нийгмий ба хувь хүний хэрэгцээг даган хувьсан хөгжиж ирсэн оюуны соёлын нэгэн хэлбэр юм."[4] гэсэн нь хүний нэрийн агуулгад багтах бүхнийг хамарсан хамгийн өргөн тодорхойлолт болжээ гэж үзэлтэй.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г судалсан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эрдэмтэд олон бий. Тухайлбал, монголч эрдэмтэн Д.Поуха, И.Шуберт, Ж.Крюгэр, Ф.В.Кливиз, Л.Бэшэ, Н.Поппе, Юү Вон Сү, А.Г.Митрошкина, Л.В.Шулунова, В.В.Денисова, профессор Ч.Содном, П.Бямбасан, Н.Жамбалсүрэн, Ж.Төмөрцэрэн, А.Дариймаа, Ж.Сэржээ, Д.Энхбат, Г.Эрхэмбаяр, Б.Пүрэв-Очир, Н.Нансалмаа, Ц.Сувд, нар тусхайлан судалж олон арв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үгүүлэл, ном товхимол, гарын авлага, толь бичиг туурвижээ. Харин зөвхө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судалгааг хийсэн хүн олонгүй боловч монгол хэл шинжлэлийн түүх бичлэгт нэг сэдэвт зохиол хүртэл гарах хэмжээнд судлагдсан билээ.

Аливаа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 нь дү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нэг чухал хэсэг болдог. Дүрийг нэргүйгээр, нэрийг дүргүйгээр сэтгэхэд хэцүү. Дүр нь зохиолын үзэл санаа, агуулга, зохиомжтой уялдан бий болдог зүйл. Нэр нь дүрийг амьдруулж, уншигчид илэрхийлж ойлгуулах тэмдэг болох юм.

[1] Ж.Бат-Ирээдүй,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 хоч нэрийн сан", Уб., 2009, 4 х.
[2] Д.Энхбат, "Хүмүний зохист нэр", Уб., 2004, 84 х.
[3] А.Дариймаа,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ль", Уб., 1986, 3 х.
[4] Б.Пүрэв-Очир, "Ардын уран зохиолч Ц.Дамдинсүрэн гуйн зохиол бүтээл дэх хоч нэрийг ажиглавал... ["Сайн үйлсийг бүтээж салаа замаар явсан эрдэмтэн-зохиолч"], Уб., 2008, 69 х.

“Бодит хүний нэр бол нэгэн үеэс нөгөө үед дамжин хувирч өөрчлөгдөн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даг нийгэм, түүхийн хөгж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юм. Хари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нь ямагт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 хэлний нэрийн тогтолцоог түшиглэн бий болдог хоёрдогч шинжтэй...”[5] ажээ.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г ажиглавал энэ баатрын нэр нь заавал зохиолынхоо цаг үе, орчин ахуй, тухайн нөхцөл байдлыг төлөөлж чадах нэр байдаг. Баатрын нэр нь зохиолынхоо нийгмийн байдал, нас, хүйс, зан төрх, бие, сэтгэлийн онцлогт тохирч байдаг.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од хоч нь уншигчид яг ийм нэр, хочтой байх ёстой юм шиг тийм гүн сэтгэгдэл төрүүлдэг. Уран зохиол бол баатрынхаар нэрээр амьдарч, баатрынхаан нэрээр яригдаж, баатрынхаа нэрээр мөнхөрдөг гэж хэлж болно. Хэрэв өөр нэртэй байсан бол магадгүй уншигчид итгэл үнэмшил багатай ч байж болох юм. Ихэнхи тохиолдолд уран зохиолд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 хоёр бараг ижи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дэг, ижил шинж чанартай байдаг.

Нэрийн тодотгол бол нэг талаар зохиолын дүрийн тодотгол болох нь байдаг гэж дээр дурдсан билээ. Бидний түүвэрлэсэ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бараг 70 хувь нь зохиолын үгүүлэх явцад дүрийн тодотгол хийж зураглан үзүүлсэн байдаг бөгөөд энэ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г хэвшүүлэн тодруулахад чухал зүйл болдог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Аминаа бол бэлхүүс нарийн, ташаа дүүрэн, гунхалзсан өндөр гоолиг биетэй, уран хүзүүтэй, жирвийсэн хөмсгийн доор наадах талимаарсан хар нүдтэй, ягаан шүлт тунасан цайвар царайтай, алхах гишгэх нь бүжихийн адил уян гунхуур, арван тав зургаа орчим насны буюу гэгээнтний үеийн охин байв.*” *С.Эрдэнэ, “Занабазар”,* “*Гаанаа ... хүн харахад зузаан уруултай, зууван бор нүдтэй, засмал хөмсөгтэй, бозлог биетэй жирийн л нэг хүүхэн. Гэхдээ миний хувьд чухам үлэмжийн чанар бүрджээ.*” *С.Эрдэнэ, “Зуурдын жаргал”,* “*Дагиймаа тэгэхэд арван долоохон настай, үргэсэн ботгоных шиг хар нүдтэй, лавай цагаан шүдээ яралзуулсан охин байлаа. Ёстой л манай энэ тоост их говийн ганц цэцэг байсан юм.*” *П.Пүрэвсүрэн, “Өшөө”* гэх мэтээр Аминаа, Гаанаа болон Дагиймаа гэгч чухам хэн бэ гэдгийг ийн нүдэнд харагдтал зурж үзүүлж нэр хэв шинжийг нь “хамгаалдаг” барьцалдуулан бэхжүүлдэг жишээ уран зохиолоос олныг олж болно.

Сайн сонгож олж өгсө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 өөр нэрээр сольж болшгүй баттай тогтсон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айдаг байна. Энэ тухай К.В.Зайцева “Зохиолын дүрийн оножегсөн нэр нь тухайн дүрийн амин сүнс нь болдог”[6] гэжээ. Нээрээ л цаг хугацаа, орон зайн илэрхийлэл болсон энэ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од хоч нэрийг чухам тухайн нэрээс өөр ямар ч сайхан нэрээр солисон ч зохиолын мөн чанарт нөлөөлөхүйц хүчин зүйл болох юм.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судлаач агсан Г.Эрхэмбаяр, баатрын нэрийн гүйцэтгэх үүргийг “1. Дүрийн мөн чанарт хамааралтай нэр, 2. Зохиолын үйл явдлын орон зайд хамааралтай нэр, 3. Зохиолын үйл явдлын цаг хугацаанд хамааралтай нэр”[7] хэмээн гурав ангилсан байна.

Хэдийгээр баатрын нэрийг ийн хувааж болох боловч энэ гурван шинж нэг баатрын нэрд цогцлон бий болсон нь ч бий, зөвхөн нэг нэрд ганц хоёр шинж бүрэлдсэн ч бий. Тийм учраас бүх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ийг энэ категорт хатуу зааглан хувааж болохгүй юм.

Баатрын нэрийн сонголт хэдийгээр санамсаргүй мэт боловч үнэн чанартаа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хүний нэрийн тусгал болж байдаг байна.

[5] Г.Эрхэмбаяр,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хэл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Уб., 2011, 21 х.
[6] К.В.Зайцева,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ономастики”, “Ономастика Поволжья” Уфа. 1973, с. 398
[7] Г.Эрхэмбаяр,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хэл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Уб., 2011, 28 х.

Хэдий үеийн зохиолд ямар нэр хэрэглэсэн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нэрийн давтамжтай бас холбоотой юм. Тухайлбал, "монголд сүм хийдүүдийг хааж, олон мянган лам нарыг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гээр буудан хороосон үеэс хойш төвд, санскрит нэрийн тоо эрс буурсан, сэхээтний төөрөгдөл, үндсэрхэг үзлийн эсрэг МАХН-ын явуулсан бодлогын улмаас монголын их хаад, эзэн Чингисийн төрийн өрлөг жанжнууд, түүхэн эх орончдын нэр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сангаас "бараг" арчигдаж байсан бол 1990 –ээд оноос Монгол Улсад ардчилал, үндэсний ухамсар, шашин сэргэж эхэлсэн үеэс төвд, санскрит нэрийн тоо нэмэгдэж, монголын их хаад, эх орончдын нэр мэдэгдэхүйц нэмэгдсэн" [8] тухай нэр судлаач Ж.Сэржээ бичжээ. Тэгэхээр уран зохиол бол цаг үеийн тусгал байдаг учраас мөн л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зохиолын хүний нэр ч тийн адил тэр цаг үеийнхээ нэрийн тусгал болж үлддэг ажаам.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г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ль бичгүүдэд[9] шүүн үзвээс ихэнхи нь бүрэн бүртгэлтэй байгаа нь энэ нэрс жинхэнэ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ийтлэг нэрс болохыг илтгэнэ. Харин бид тухайн уран зохиолын үйл явдлаас шалтгаалан орох гадаад хүний нэрс болон харь хэлнээс орсон зарим нэрийг энэ толь бичигт оруулаагүй болохыг хэлэх ёстой.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ийн тухай ярихын өмнө хоч нэр гэж ер нь юу вэ? гэдэг тухай авч үзэх учиртай. Хоч нэр гэдэг бол нийгмээс тухайн хүнд өгч байгаа үнэлэмж юм. Хоч нэр бол тухайн эзний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зар орон, цаг мөч, нийгмийн орчин нөхцөлтэй нягт холбоотой хэлний нэр зүйн тодорхой үзэгдэл юм.

Уран зохиолын хувьд баатрын нэрээс гадна хоч нэр чухал үүрэгтэй. Хоч нэр нь аливаа хэлний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гтолцоонд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дэг бөгөө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увьд бүр ч сонин онцлог их ажиглагддаг. Судлаач Д.Энхбат, "Хүний зан чанар, араншин, царай зүс, биеийн хэлбэр, дадал зуршлаас үүдэн нэрлэсэн, бусдаас нь онцгойлон ялгасан нэр юм."[10], Д.Бадамдорж "Хоч нэр гэж тухайн хүний зан чанар, өнгө зүс, ажил үйл, дадал зуршлаас улбаалсан, ёжилсон утгатай олдмол нэрийг хэлнэ"[11]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сон бол др Н.Нансалмаа, "Хоч нэр нь хэн нэгний зан ааш, гадаад төрх, ажил үйл, амьдралд тохиолдсон ямар нэг онцлог үйл явдал, үйлдэл зэргээс үүдэлиэй наргисан,, шоглосон, шоодсон, өнгө аястай, хэлэхүйн хэм хэмжээтэй олдмол нэр болно."[12], эрдэмтэн Б.Пүрэв-Очир "нийгэм- хэлшинжлэлийн талаас харвал ярианы болон уран сайхны найруулгад өргөн хэрэглэгдэж, гол нь нийгмийн зүгээс өгч байгаа эерэг сөрөг үнэлэмжийг илэрхийлдэгийн дээр тухайн улс үндэстний хэлэн дэх бэлгэдэх ёс, ялгах ёс, хийсвэрлэх ёс, адилтгах ба зүйрлэн нэрлэх ёсто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үүсээд, соёлын ялгааг тодорхойлогч нэгэн өвөрмөц үг, соёлын бүлэг болдог ажээ." [13] гэж тодорхойлжээ. Эрдэмтэн Р.Батаахүү, хоч нэр үүсэх нэгэн нөхцлийг их сонин тайлбарласан. Тэрбээр "Өхөөрдөл нэр яван явсаар уг хүнийг өсч өндийн том болохуй хоч нэр болох үүдэл болдог.

---

[8] Ц.Сувд,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 Уб., 2010, 5 х.

[9] А.Дариймаа,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ль", Уб., 1986, Ж.Сэржээ,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хадмал толь", Уб., 1993,

[10] Д.Энхбат, "Хүмүүний зохист нэр", Уб., 2004, 30 х.

[11] Д.Бадамдорж,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сангийн утгазүй", Уб., 2006, 252 х.

[12] Н.Нансалмаа,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ч нэрийн бүтэц, утгазүйн онцдог", ["Үг, утга, хэрэглээ"] Уб., 2011, 51 х.

[13] Б.Пүрэв-Очир, "Ардын уран зохиолч Ц.Дамдинсүрэн гуйн зохиол бүтээл дэх хоч нэрийг ажиглавал... ["Сайн үйлсийг бүтээж салаа замаар явсан эрдэмтэн-зохиолч"], Уб., 2008, 70 х.

Аль нэг нутаг хошуунаа ижил нэртэн олон болох тусам хоч нэр олширдог. Хоч нэр нь ижил нэртнийг нэгээс нөгөөг нь ялгах ардын арга болно”[14] гэж бичжээ.

Аливаа хэлэнд хэлэхүйн хоч нэр,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 гэж хоёр янз нэр байна. Хэлшинжлэлийн эрдэмтэд хэлэхүйн хоч нэр,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арын хоч нэрийн ялгаатай шинжийг авч үзэхдээ, “уран зохиолд баатрын нэр зохиолын нэр болон уг баатрын тухайн зохиолд гүйцэтгэх үүрэгтэй нягт холбоотой байдаг бол хэлэхүйн хэм хэмжээний хоч нэр н ийм хам сэдэв үгүй, харин түүний үүргийг уг хүнийг ийнхүү нэрлэх болсон хэлний бус нөхцөл байдал гүйцэтгэдэг байна.”[15] хэмээ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хэлэхүйн хоч нэрээс ямар ялгаатай болохыг тайлбарлажээ.

Монгол хүний хоч нэрийн талаар зохиолч Д.Маам “Түмний хайрласан хоч нэрэнд ч хүртэл учир их бий хэмээвээс эндүү ташаа болох нь юун. Хүний зан араншингийн сайн муу тал, гэгэг согог, бие бялдрын өө согог, тэр ч байтугай заяа төөргийг совиндон харж хочилсон нь бий бөлгөө”[16] гэжээ.

Судлаач Р.Батаахүү “хоч нэрэнд өхөөрдөл нэрийн нэгэн адил өнгө зүс, дүр төрхийн онцлог голлохоос гадна эрхтний гажиг согог, мэргэжсэн ажил, зан аашийн зүйл туссан байх нь олонтой.”[17] гэж үзжээ.

Үнэхээр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д бие бялдрын гэм согог (*алцгар Чойдон, атигар Балдан, гилжгий Жалбуу, гүзээ ихт Жамба, данхар Далхаа, дэвхрэг Дэчин, Дэрчин Дэрэм, хөх толгой Гончиг, мэлхий хамар Сэнгэд, хар Шоомой, Хоовон хөх, солгой Дорж*), зан чанарын алдаа эндэгдэл (*араажав Гэндэн, сагсуу Алтангэрэл*,), ажил амьдралын зам мөр, ажил мэргэжил (*агсан Жамбаа, алиа Петер, баян Донхор, бичээч Эрдэнэ, бэлтрэг Дорж*,), үйл дадал, амь амьдралын арчаа анхиа (*бух Гомбо, Ёндон панз, залхуу Маам, мангар Сүхээ*) зэрэг олон үйлээс үүтгэн хоч нэр үүсгэдэг болох нь дээрх дүгнэлт оргүй зүйл биш гэдгийг батлаж байгаа юм.

Энэхүү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ийн сан дахь нэрсийг ажиглавал доорхи хэдэн анги бүлэгт хувааж болмоор санагдана. Хари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нэг онцлог тухайн зохиолд авсанг хоч нэрийг мөн дам болон шууд аргаар чухам яагаад ийм нэртэй болсныг тайлж тайлбарласан байдаг нэг онцлог бий.

Ингээд та бүхэнд нэрийн санд орсон хоч нэрийг хэрхэн хувааж боломжтойг үзүүлье. Үүнд эрхлэн буй **ажил үйл, аж ахуйта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Анжаа дархан,бичээч Эрдэнэ, бичээч Ширнэн, босоо Чойжоо, бээжин Даш, Вандан арслан, дархан Цэнд, дархан Чимэддорж*, *мангас Дорж, Намдаг арслан, Насан арслан, таж магнаг Цэнд, тойг Насан, тэмээт Лувсанбалдан, хадаг Дэжид, хангай Базар, хөсрий Даш, хүрээ Хорол,* **гадаад төрх буюу эд эрхтэн илүүдэл, дутагдал, хэмжээ дамж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маш их бий. Үүн дотроо чих, нүд, хамар, толгой, хүзүү, үс, сахал, нүүр царай, шүд, гар хөл, гэх мэтээр хүний нүдэнд ил харагдах байдлаас нь дулдуйдан хоч нэр өгсөн явдал их байдаг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Алтайн гозгор хөх*, *арзгай Гомбо, атигар Балдан, боргоцой Дорлиг, бух Балдан, бух Дагдан, бух Лувсан, бүдүүн Аюур, бэтэг Түндэв, гилжгий Жалбуу, гонжоо Ганчиг, гүзээ ихт Жамба, гүлцэн толгой Гүр, гэзэгт Найдан, данхар Далхаа, дэвхрэг Дэчин, дэвхрэг Итгэлт, дэлдэн Дэрмээн, дэлдэн Зундуй, дэрчин Дэрэм, жижиг Бадам, мэлхий хамар Сэнгэд, мэнгэт Жүгдэр,нахиу Нанзад, ногоон Сандаг,*

[14] Р.Батаахүү,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д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үгийн тухай”, МУИС-ийн ЭШБичиг, №12, 73 х.
[15] Н.Нансалмаа, “Үг, утга, хэрэглээ”, Уб., 2011, 45 х.
[16] Д.Маам, “Газар шороо” Уб.,
[17] Р.Батаахүү,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д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үгийн тухай”, МУИС-ийн ЭШБичиг, №12, 74 х.

нохой Банзар, нохой Жаяа, онгорхой Жамсран, оодон Пүрэв, ороо Эрэнцэн, орос Михлай, өндөр Лувсан, солир Сандаг, тагалцаг Готов, тойтон Товуу, тоодог Базар, улаан Балдан, урт гуят Унзадын Балин, ягаан Нянгаа, ягаан Ядам, хавтгай Содном, хазгар Нидаа, халзан Равжаа, халцгай Гончиг, хар Жанлав, Харамчийнхан, хоовон Хөх, хөмсөг Зумба, хөх Гүнсэн, хулгар Загд, хэлтгий Нанзад, хэрээ Дорлиг, хялар Жадамба, цагаан Жамба, цоохор Дорж, цэхэр Чоймбол, шар Сандаг, эрүү Дамба, **явах хийх хөдөлгөөн эрчим, дуу хоолойто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алцан Чойдон, мойног Батаа, нударга Ганжид, Поошиг Бор, сариг Дамба, солгой Дорж, шумуул Жамц, жороо Банзар, жорон Загал, хайван Долгор гэх мэт,* амьдрах орчин нөхцөл, удам угс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Өөлд Самбуу, үсчээ Жигээ,холхоон Дамдин,* **хувь хүний зан аашта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агсан Жамбаа, аавын цээж Базаржав, алиа Петр, араажав Гэндэн,боохой Нацаг, буруу Довдон, буруу Цолмон, Дунжаагийн балай, дүнсий Түвдэн, дэгжин Насан-Очир, жож Сэрээнэн, жур Найдан, залхуу Маам, зүтгээ улаан Бүтэмж, мангар Гүрсэд, мангар Сүхээ,сагсуу Өлзий, салхи Янжмаа, сэнтэг Бадарч, хагархай Болд, яаруу Осор, ууæжуу Дондог, хулуу Мягмар, хутга Балдан, хэрүүлч Дорлиг,* **эд хөрөнгө бэл бэнчинтэй холбоотой** хоч нэр *баян Донхор, баян Болд, баян Лантуу, ганган Гомбо, алтат Дорж,торгон Самбуу гэх мэт болой.*

Эдгээр хоч нэрийг давтамжийн хувьд ажиглавал монгол хоч нэрэнд *баян, буруу, бух, далиу, дархан, данхар, дэвхрэг, дэлдэн, мангар, ногоон, сагсуу, тарган, торгон, улаан, хазгар, халзан, хар, хоовон, хулгар, цагаан, цоохор, шар, ягаан* зэрэг хоч нэр давтамж ихтэй байгаа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ахуй байдал, нийгмийн харилцаа, сэтгэлгээний онцлогийг судлахад сонин баримт болох юм. Мөн үнэлэмжийн хувьд авч үзвэл ихэнхи нь сөрөг үнэлэмжтэй байгаа нь ажиглагдсан бөгөөд хоч нэр хэдийгээр нэгийг нөгөөгөөс ялгах нэг арга болдог хэдий ч тухай хүнийг нөгөөгөөс ялгах гэхээсээ илүү түүний сөрөг үнэлэмжийг илэрхийлэх мэдээлэх зорилгыг агуулдагаараа онцлогтой байна.

Нэр, хоч хоёр агуулгын болон хэлбэрийн хувьд харилцан шүтэлцэн хавсарч урлан бүтээх нэгэн чухал хэрэглүүр болж байдаг. Уран зохиолд баатрын нэрийг тэр болгон тайлбарлаад байдаггүй бол хоч нэрээ ихэнхи тохиолдолд уншигчдад шууд болон дам тайлбарлаж ойлгуулсан нь их байдаг. Тайлбарыг зохиолын үйл явдалтай уялдуулан холбож дам учирлах явдал бий. Уран зохиолд хоч нэрийг хэрхэн тайлбарласан талаар авч үзвэл, Ц.Дамдинсүрэн “Бух Гомбо” зохиолдоо “*... Гэвч Гомбыг зүгээр Гомбо гэж хүн ердөө нэрлэдэггүй бух Гомбо буюу бух гэж нэрлэх болсон байжээ. За тэгээл Гомбын бух цолтой болсон нь учиртай юм байж. Гомбо аравхан үнээтэй байтлаа арван таван бухтай юм. Эр бяруугаа ердөө засаж хөнгөлөх гэж байдаггүй хүн байжээ.*” , гэсэн бол Б.Бааст “*Гэрийн хээрийн хоёр хар амт зохиолдоо, “Жалбууг гилжгий гэлцэнэ. Энэ гилжгий нь эхээс нь болжээ. Эх нь түүнийг төрүүлэх үед хөхөнд нь сүү орж, тулман хөхтэй ямаа шиг сэрийсэн хоёр хөх урган гарчээ. Гэтэл нэг хөх нь сүү муутай байв, тэгэхээр нь эх нь сүүтэй хөхөө өгч тэр болгонд өөрийн үнэртэй өрлөг үстэй бэлбэгнэсэн нялх зулайг нь илээд байсан чинь сүүлд мэдэхнээ хүү нь ийнхүү нэг талаараа хэвтэн хөхөж илүүлсээр гилжгий болжээ.*” гэж бичсэн буй.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оноосон нэр болоод хоч нэр нь хэдийгээр нэг зүйлийн хоёр тал мэт боловч зохиолын дүрийг тодруулах, уншигчид зохиолын утга учир, зорилго санааг нээж ойлгуулж өгөх бас нэг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болдогоороо зорилго нэгтэй адил зүйл ажээ.

Дүгнэлт

Ийнхүү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болон хоч нэрийг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алд гэх энэ үгүүлэлд авч үзсэн санааг дүгнэн үзвээс

-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 бол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сангийн нэг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мөн гэж хэлэх үндэстэй.
-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бүрэн түүвэр хийснээр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ль бичгийг баримттайгаар тайлбарлах нэгэн чухал үүсгэл болно.
-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 түүний тайлбар тодруулга б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дүрийг тодруулах, уншигчдад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г бүрэн зөв ойлгуулах нэг чухал арга мөн.
-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 бол монгол хоч нэрийн үүсгэл утгат учрыг тайлбарлах нэг чухал бэлэн эх үүсвэр болж чадна.
-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ийн санг түшиглэн монгол хоч нэрийн үүсгэл, ангилалыг хийж тайлбарлаж болно.
-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хоч нэрийг нарийн судлах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сэтгэлгээний онцлогийг танин мэдэх, түүнийг зөв ойлгох нэгэн чухал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ох үндэстэй.
- Цаашид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 хоч нэрийг дэлгэрүүлэн судлах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сангийн нэр судлалын нэг чуха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болно.

НОМЗҮЙ

[Батаахүү, 1998] Р.Батаахүү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д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үгийн тухай”, “МУИС-ийн МСДС-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иг, №12(135), Уб., 1998, 73-75 х.

[Бадамдорж, 2006] Д.Бадамдорж,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сангийн утгазүй”, Уб., 2006,

[Бат-Ирээдүй, 2009] Ж.Бат-Ирээдүй,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 хоч нэрийн сан”, Уб., 2009,

[Дариймаа, 1986] А.Дариймаа,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товч толь”, Уб., 1986

[Жаргалсайхан, 2007] Г.Жаргалсайхан, “Хоч нэрээр овгийн нэр үүссэн нь“, Монгол овгийн нэрзүй”, Уб., 2007, 41 х.

[Зайцева, 1973] К.В.Зайцева,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ономастики”, “Ономастика Поволжья” Уфа. 1973,

[Маам] Д.Маам, “Газар шороо” Уб.,

[Нансалмаа,2011] Д.Нансалмаа,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оч нэрийн бүтэц, утгазүйн онцлог”, “Үг, утга, хэрэглээ”, Уб., 2011, 42-51 х.

[Пүрэв-Очир, 2008] Б.Пүрэв-Очир, “Сайн үйлсийг бүтээж салаа замаар явсан эрдэмтэн-зохиолч”, Уб., 2008,

[Сэржээ, 1991] Ж.Сэржээ,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лавлах толь”, Уб., 1991

[Сэржээ, 1993] Ж.Сэржээ,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ийн хадмал толь”, Уб., 1993

[Сэржээ, 2007] Ж.Сэржээ, “Монгол овгийн нэрийн учир”, Уб., 2007

[Сувд, 2010] Ц.Сувд,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 хүний нэр”, Уб., 2010,

[Энхбат, 2004] Д.Энхбат, “Хүмүүний зохист нэр”, Уб., 2004,

[Эрхэмбаяр, 2011] Г.Эрхэмбаяр, “Уран зохиолын баатрын нэрийн хэл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Уб., 2011,

유라시아 순대문화의 分布와 變遷

김천호(한양여대)

서론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한국적인 길거리음식으로 순대를 접할수있으나 보편적으로 순수농경사회에서는 찾아볼수없는 현상이다. 그 예로 가까운 중국농경민(소수의 민족제외) 일본등은 그들의 태초의 선조들로부터의 음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순대는 육류를 주식으로 하든 순수 유목민, 수렵민이나 목축민의 산물이라 본다.

養豚의 기록으로는 약 6000년전 서남아시아유적에서 돼지의 뼈가 발견됬고 약 5000년전 목축민이든 Sumer인이 돼지의 腸속에 고기를 넣어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돼지보다 좀 늦은 시기에 양, 산야, 소, 야생당나귀도 사육을 시작했다고 전하고있다.

그것이 흑해북부지방을 지나 중앙유라시아로, 한편으로는 흑해서북지방을 통해서 유롭으로 전래 됬다고 한다.1)[1] 이는 유목의 기원이나 신석기의 확대코스와도 유사할수있다고 추정도 되나 반대로 순수유목의 출현을 유라시아초원이 건조한 기후로 변하는 BC 2000년경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경향도 있어서 확실한 단정은 어렵다 2) 3)

동시에 현재로는 유목음식문화나 순대가 전파된 경로에 관해서도 확실한 기록도 없어서 추정도 어렵다. 어쩌면 각각의 처해있는 자연조건이나 기호에 따라 자생적이며 필연적일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학자들은 <詩經>에 수록되있다고하나 저자가 분석하기로는 조리상의 해석의 차이로 순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순대는 육류가 부식이 아니라 육류의 일부로 주식이란 식량차원에서 발명된것임을 충분히 알수있다. 즉 가축속에서 피한방울 낭비없이 각각의 부위와 내용물을 어떻게 상호간에 잘 배합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식량으로 활용될수있나에서의 발상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몽골족의 이러한 의식을 기초로하는 도살법이 징기스칸 법령에도 명시되있다. 그만큼 유목민에게 가축은 귀중한 재산이며 식량이기때문이다. .

원래 순대는 腸속에 가축의 피, 고기, 내장등을 넣는 것에서 그 기원을 보고 있다. 차츰 그 민족이 이동하며 환경변화와 종교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넣는 내용물이 달라진 것이다.

---

1. CBS Sony, Ham & Sausage, CBS Sony Publishing INC, 1986, 19쪽
2. E.D. Philips, 초원의 기마유목국가, 17쪽
3. 하자노프, (김호동역), 유목사회의구조,지식산업사, 1990, 145쪽
4. 김학주역저, 詩經, 2002, 697쪽

   毛炰胾羹은 털이있는대로 통째로 진흙에 싸서 굽는다는 뜻이므로 순대가 아니다

즉 태초에 선조들때부터 먹든 식습관을 가진 민족은 시간이 경과해도 환경이나 산업생산식량구조가 변해도 그 맥을 이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한국은 "순대", 중국문화권에서는 "灌腸", 몽골은 "gedes", 裕固族은 "gedesn"등 민족마다의 명칭을 가지고 있고 유롭에서 시작되여 장기가공식품으로 진화된 "sausage"는 국제적인 식품이 됬다.

각지역의 유목민간의 육식생활차이는 생태환경, 가축구성, 주변민족과의 관계,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서도 유목민에게 가축은 식량과 전반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들이 처해있는 지역에 따른 유목민의 상황과 가축을 보면 그들나름대로의 가축을 이용한 독특한 순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즉 북방유라시아의 삼림과 툰드라에서는 주로 순록, 중앙유라시아는 가장 다양하여 양, 산양, 소, 말, 낙타이나 주로 양이나 산양, 염소의 내장을 이용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말고기를 넣은 말순대, 근동에서는 낙타, 양, 염소이나 이슬람종교에서는 대체로 가축의 피를 금기시하여 고기나 곡류, 채소가 이용되고 중동은 유라시아와 근동의 중간형이다.

동아프리카는 목축의 의존도가 높으며 내륙아시아 고지대인 파미르와 티베트유목민은 낙타, 말, 염소, 양, 산양외에 야크사육으로 야크순대가 특징적이다.3)

농경사회로 갈수록 돼지순대의 비중이 크다.

현재까지 순대가 전승되고있는 민족들을 살펴본다. 우선 역사적으로 몽골고원을 지배했든 투르크, 위글, 키르키즈, 몽골계통 민족으로 유구, 다굴 그리고 동북아시아 퉁구스계중 만주, 에벤키, 시버, 허저, 오로춘, 에벤, 조선족과 중국동북지역에서 청대에 신강으로 이주한 만주, 다굴, 시버족등과 고지대의 티베트족을 들수있다,

또한 남러시아의 민족중 부리아트족, 에벤키족, 야쿠트족, 에벤족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민족들의 음식문화에 관해서는 20여년간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대가 공통적으로 그들의 전통음식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하여 상호간의 다채로운 재료나 조리법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웠다.

이런 민족들은 다시 주변의 민족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줌으로서 지금은 어디를 가나 쉽게 볼수있고 차츰 민족적 특징도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민족의 계통을 알게되면 그 루-트를 알수있게된다.

유롭의 sausage제조는 멧돼지에서 시작됬으며 그 발전의 계기는 유롭German민족인데 그들은 고대로부터 수렵과 농경을 겸했지만 토양이 척박하고 한냉건조한 기후로 18세기까지는 맥류의 連作이 2년까지밖에 안되므로 3년에 1년은 휴경을 해야했다. 그 휴경기간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방목축산을 하면서이다. 5)[2]

그 중에서도 독일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약 1500종류의 다채로운 sausege를 탄생시켰다.

순대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중국의 기록으로는 6세기 北魏代에 쓰여진 농서인 <齊

5. 1)의 18쪽

民要術>로 炙篇에 羊盤腸雌斛法, 灌腸法, 胡炮肉等 몇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순대외에도 현재 몽골유목민의 전통음식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자세하게 서술되여있어 오랜 세월에도 몽골의 음식문화가 변치안았다는 사실도 알수있다.6)[3]

한편 元代에 쓰여진 <飮膳正要>서문에서 순대를 "胡炮肉"이라하여 양육을 생강, 후추등 의 향신료와 혼합하여 양의 胃에 넣어 구어서 만든것인데 페르샤에서 전래된것이라는 사실이 <제민요술>에 있다고 했다.7)[4] 또한 본저에서도 순대인 羊臟羹을 서술하고 있다

몽골민족의 기록으로는 <몽골비사> 3권 124절에 羊直腸순대가 나오는데 직장은 내장중 가장 맛있는 부위로 여기에 양의 피를 넣고 소금간을 하여 솥에 삶아 먹는다고 했다. 8)

그후 13세기말에 <居家必用>에서 비로서 肉灌腸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중국농경민에게는 주변의 유목민이나 목축민으로부터, 그후에는 서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래된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순대의 루-트는 몽골고원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순수수렵, 유목민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동북부지역의 여러 민족과 접촉하면서 반목반농의 산업경제를 거쳐 농경사회인 한반도로 이어지면서 크게 변화된 형태를 보이고있다.

각 민족의 순대에 관해서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 소개하므로써 상호 비교가 될것으로 본다.

순대에서 중요한 요소는 내용물을 담는 腸衣인 "casing"과 속에 넣는 내용물인 "stuffing" 그리고 조리방법이다. 그 차이에 따라 종류가 분류된다. casing으로 이용되는 가축은 돼지, 양, 산양, 염소, 소(야크, 물소), 말, 당나귀, 낙타, 개등이며 그들의 소장, 대장, 위, 허파, 방광, 기름망등 무엇이든 활용될수 있다. stuffing도 피를 비롯하여 육류, 내장, 각종곡류, 채소, 두부, 향신료등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르다. 도 1은 돼지의 casing부위를 나타낸것이다. 장 이외에도 위장부터 방광까지 순대로 이용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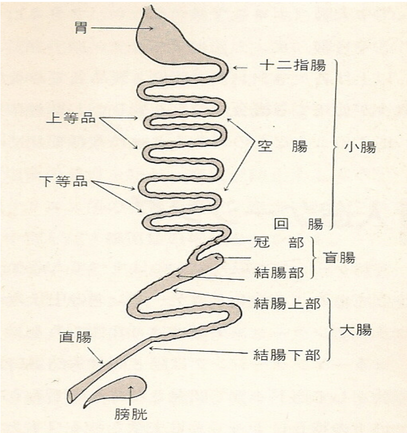
본론에서 각 민족의 순대를 사진과 함께 소개, 비교해본다.

---

6. 田中靜一譯외, 齊民要術, 雄山閣出版, 1998, 184쪽

7. 金世淋譯, 음선정요, 八坂書房, 1993, 序文23쪽, 106쪽

8. 김천호, 한국몽골학회지 15호, 몽골비사음식문화, 두솔, 2003, 194쪽



도1: 돼지의 Casing部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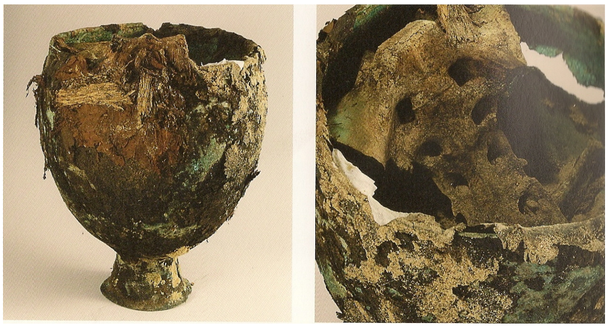
본론

1. 몽골족의 순대

주로 양이나 산양의 피를 이용하여 약간의 메밀가루를 넣고 순대를 만든다. 여름철에는 야생의 마늘이나 부추를 넣기도한다. 몽골족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중국 청해성에 사는 몽골족은 야크순대를 만든다. 도2는 몽골의 몽골족의 순대이다.

도2: 몽골의 몽골족순대

최근 몽골고원을 지배했든 흉노족의 묘장발굴이 활발하여 다양한 부장품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도르릭나르스 무덤에서는 음식과 관련된것으로 同腹과 그안에 소를 삶아 먹은 흔적이 있다. 현재의 몽골족 조리방법과 유사하여 다분히 순대도 같이 삶아 먹지안았을가 추정된다. 도3은 발굴된 동복과 그안에 있는 소삶은 음식이다.



도3: 몽골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발굴에서 나온 동복과 소삶은음식 10)[56]

그 이후의 <몽골비사> 3권 124절에서는 양의 直腸순대에 관해서 쓰여있다. 직장은 내장중 가장 맛있는 부위이며 여기에 양피을 넣고 소금간을 하여 솥에 삶아먹었다고 했다

13세기 국토확장기이후 몽골고원으로 복귀한 후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인 유목민의 음식문화가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고 본다.

2. 내몽골 몽골족의 血腸과 面腸 11)[7]

중국문화권은 56개의 민족이 있어서 다양한 순대의 집합체라고 볼수있다. 순대를 크게 분류하면 血腸은 피순대, 肉腸은 고기순대, 面腸은 쌀, 찹쌀, 밀가루, 수수가루 메밀가루등 곡류를 넣은 것을 말한다. 총괄적으로 순대를 灌腸이라하며 뒤에 腸자를 부쳐서 순대를 뜻 한다. 내장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육장에 포함시킨다. 조사한 내몽골몽골족은 몽골고원에서 눈강을 건너 남하하여 약 200여년간 집단부락을 이루고 사는 通遼周邊에 거주 커르칭족이다

그들은 현재는 반목반농의 형태의 생활을 하고있어서 주로 돼지순대로 곡류(쌀, 메밀가루, 옥수수가루등), 채소류 그리고 마늘, 파등의 향신료가 가미된다. 羊血腸도 있는데 피와 양기름을 넣는다. 杜爾伯特에 사는 몽골족은 특이하게도 순수농경민으로 대부분이 쌀이나 옥수수를 넣는다.

도4, 5는 내몽골몽골족중 科爾泌族의 혈장, 杜爾伯特의 순수농경몽골족의 면장이다..

---

10. 국립중앙박물관,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2009, 29쪽
11. 魯克才, 중화민족음식풍속대관, 세계지식출판사, 1992, 49쪽

.
도4:내몽골몽골족 돼지혈장　　　　도5: 내몽골순수농경몽골족 면장

3. 중국동북부와 新疆省에 이주한 다굴족의 內臟腸과 혈장

음식문화상으로 몽골족과 유사점도 있으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내장장은 신강성 塔城에 거주하는 다굴족을 조사한것으로 간, 심장, 양기름을 혼합한것을 羊大腸에 넣는다. 도 6은 신강성다굴족의 내장장이다

도5: 신강성 塔城거주 다굴족의 혈장과 내장장

4. 중국동북지역 만주족의 白肉血腸과 白肉酸菜血腸 12)[8]

원래 송화강과 목단강유역에서 원시적인 수렵생활을 했으며 역사적으로 북방유목민들과의 접촉이 빈번했다.

백육은 돼지고기를 말하며 산채는 한국의 김치에 해당되나 가을에 배추를 양념없이 소금에만 담가서 숙성시켜서 겨울에 먹는다. 산미가 강하여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며 맛이 개운하다. 혈장은 태고의 방법으로 독특하게 피만 넣는데 그래서인지 매우 부드럽다. 순대만 넣고 탕을 끓이기도하고 한국처럼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서 탕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청대 궁중요리인 만한전석에서도 보인다.

도6은 만주족의 백육혈장이다

도6: 만주족의 백육혈장

12. 中國名菜普篇輯委員會, 中國名菜普, 1995, 78쪽

5. 내몽골의 에벤키족의 羊血腸

내몽골 에벤키초원에 거주하는 에벤키족의 혈장을 조사했다. 원래 유목보다는 수렵민이라고 봐야할것이다. 현재는 유목과 목축민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축의 도살법부터 육식문화전반이 몽골족과 매우 유사하다 도6은 에벤키족의 양혈장이다

도 6: 에벤키족의 양혈장

6. 신강성 伊寧지역의 시버족의 돼지혈장

시버족은 만주족계로 전반적으로 만주족과 유사하나 만주족과 같이 全血腸이 아닌 곡류가 혼합된 형태이다. 오히려 한국순대에 가깝다. 중국동북부에서 신강성으로 이주한 몽골족, 다굴족, 시버족은 공통점을 보인다. 도7은 시버족의 돼지혈장이다

도 7: 시버족의 돼지혈장

7. 신강성 위글족의 面肺子과 米腸子 13)[9]

8-9세기에 몽골고원을 지배하든 위글족은 계단에게 밀려서 중앙아시아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원래는 혈장이였으나 이슬람교를 믿게되면서 코란에 따라 도살법과 피를 먹지안는다는등의 금기가 엄해졌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피를 먹는 예도 보인다.그 중에는 돼지를 혐오하는 금기에 따라 주로 양이나 소의 순대를 만들며 피대신 곡류로 채워서 백색을 띠운다. 여기서도 민족의 이동이나 종교의 변화로 인해서 순대의 재료는 바뀌여도 순대의 맥은 이어지는 현상을 보게된다.

面肺腸은 灌肺라고도하는데 양의 폐에 白面과 豆粉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섞어 만든다. 米腸子는 양장에 간이나 심장과 쌀을 넣는다. 이는 같은 무슬림인 후이족과 유사하다. 도8, 9는 위글족의 면폐자와 미장자이다.

13. 競鴻主, 北方飮食掌故, 百花文藝出版社, 2004, 259쪽

도8: 위글족의 양면폐자　　　도9: 위글족의 미장자

8. 甘肅省 临夏回族의 면장 14)[10]
회족은 처음에는 7세기 당대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라비아인이 중국남해무역기지인 광주, 천주, 항주, 양주 그리고 장안에 거주하게됐고 그 다음으로는 13세기 몽골군에 의해 중앙아시아 무슬림이 중국본토 각지로 또는 하서회랑지역에 다수 이주했다. 그중에는 투르크계, 이란계, 아랍계등 다양하나 일단 무슬림이라는 일체감이 모든면에서 보인다. 그래서 순대도 위글족과 유사하다.
도 10은 후이족의 순대이다.

도 10: 후이족의 面腸과 血腸

9. 甘肅省皇城裕固族의 羊血腸, 肉腸과 脂裏干 15)[11],
유구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하서회랑과 지렌산북부에 거주하는데 동부에는 몽골어계몽골족, 서부는 위글어계로 분류되나 몽골계유구족을 조사했다. 그들은 목축업위주이나 수렵과 유목생활도 한다. 양의 피와 고기를 넣는데 색다른 순대로는 양의 피, 간, 폐, 심장등을 분쇄하여 양복부의 기름망으로 싸서 순대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脂裏干이다.
도 11은 유구족의 순대류이다

도11: 유구족의 혈장, 脂裏干

14. 濫雲輿, 中國少數民族特色菜, 廣西과학技術出版社, 1996, 101쪽

15. 田自成 外, 裕固族風情, 甘肅文化出版社, 1994, 60쪽

10. 중국西藏 藏族의 야크혈장 16)[12]

약 5000년전 출현해서 6세기에 티베트왕조를 세우고 한때 당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 번영기를 누렸다. 평균해발 4500m의 티베트고원에는 티베트계 유목민과 농경민으로 구성되 있고 양, 소, 말, 당나귀외에 고지대에 적합한 야크가 많고 주식작물로는 青稞(쌀보리)가 유명하다.

순대류가 매우 다채로워서 3腸, 5腸이 있는데 3장은 肉腸, 血腸, 面腸을 말하고 5장이라면 여기에 肝腸, 油腸이 합쳐진 것이다. 주로 양이나 야크순대를 만든다. 면장에는 青稞나 콩가루를 넣는다. 도 12는 청해성장족의 야크순대이다

도 12: 청해성장족야크순대

11. 흑룡강성의 驢腸

하얼빈의 유명한 음식으로 당나귀순대가 소개되고 있으나 어느 민족의 순대인지 확실치 안으나 全血腸으로보아 만주족의 발상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시 그 루-트를 찾아보려한다. 도13는 흑룡강성의 당나귀순대이다

도 13: 흑룡강성의 당나귀혈장

12. 중앙아시아의 馬肉순대 17)[13]

중앙아시아와 신강성에 사는 중앙아시아민족들의 특색은 말고기순대를 만드는 것인데 고기만을 넣어 건조시켜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먹을때는 찜통에 쪄서 먹는다. 원래 말사육이 번성했고 다음으로는 무슬림이므로 피를 금기시하는 경향에서 온것으로본다.

도14은 중앙아시아민족의 마육순대이다.

16. 王勇, 藏味文化, 時事出版社, 2010, 127쪽

17. The National Cooking of Kazakhs, 1990, 227쪽

도 14: 중앙아시아민족의 마육순대

12 러시아 사하공화국 야쿠트족의 내장순대과 에벤족의 白血순대
같은 지역에 살아도 투르크계의 야쿠트족과 퉁구스계의 에벤족은 아주 상이한 점을 보인다. 야쿠트족은 말이나 소의 기름이나 피, 내장을 이용하는 반면 에벤족은 순록의 피를 이용하나 흔히 보이는 붉은 색인 적혈구가 아니라 하루밤 침전시켜서 위로 뜨는 맑은 혈장으로 순대를 만든다
도 15, 16는 로시아사하공화국 야쿠트족의 내장순대와 에벤족의 백혈장순대이다

도15: 야쿠트족의 내장순대

도16: 에벤족의 백혈순대

13. 서아시아의 쌀순대 18)[1415]
기록상으로 보면 순대의 발상지이나 오히려 흔하게 보이지는안았다.
이 순대의 명칭을 Chittering이라했는데 이는 본래 돼지의 腸이란 뜻으로 최초에 돼지순대를 만들었든때의 명칭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본고에서는 이짚트의 쌀순대를 소개하나 중동아랍지역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지역이므로 피대신 채소나 곡류를 넣는다. 순대탕은 한국의 순대탕을 연상시켜서

18. Magda Mehdawy, Modern Egyptian Cooking, International Printing Co, 2006, 29쪽

매우 흥미롭다. 도17는 이짚트의 쌀순대이다

도 17: 이짚트의 쌀순대

14. 유롭의 각종 Sausage
각 민족의 순대들을 집합시켜놓은듯이 다채롭다.

도 18 유롭의 각종 Sausage

15. 동일한 한국, 중국동북지역 朝鮮族과 카자크스탄 高麗人의 순대
3지역 모두가 돼지순대이며 찹쌀을 넣는 것을 가장 전통으로 알고있다. 이 3지역이 멀리 위치하고 있어도 음식을 통해서 같은 민족과 후예임을 무엇보다 강하게 확신을 준다는 사실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어렵다.

도19: 한국순대

도20: 중국길림성의 조선족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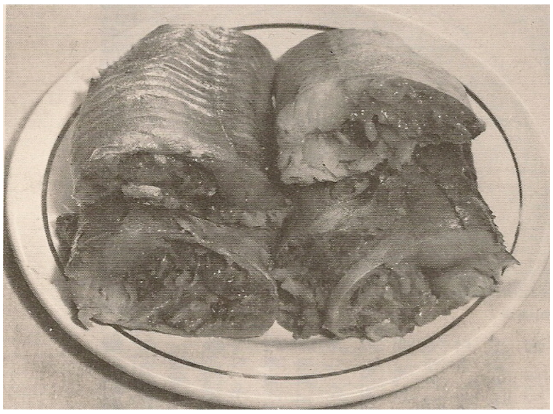
도 21: 카자크스탄의 고려인순대

동북아시아에서 유목과 수렵으로 시작된 한민족은 남하하여 한반도에 정착한후 농경사회로 변화했지만 태고의 맛을 잊지안고 그 맥을 이어 현재까지 전통음식 또는 각지방의 향토음식으로 남아 있다.
한국 순대에 관한 기록은 1500년대이후야 다수 수록되고 있으며 열거하면 다음과같다. 순대라는 명칭도 그리 오래되지안았다.

1500년대 <山林經濟>, 1600년초 <酒方文>, 1611년 <屠門大嚼>, 1670년 <飮食知味方>, 1767년 <增補 山林經濟>, 1800년 <曆酒方文>, 1815년 <閨閤叢書>, 1827년 <林園十六志>, 1800년말 <是議全書>등에서 牛豚犬腸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순대에 관한 문헌은 16세기초에 등장하며 20세기부터는 기록서가 증가한다.

犬腸은 돼지의 장에 犬肉을 채워서 만든 순대를 말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 있으며 주로 돼지피에 찹쌀 외에 곡류, 채소, 두부, 당면등을 혼합하여 돼지소대장에 넣어 만드는 순대가 보편적이다. 한편 해산물이 풍부한 北東海岸에는 명태, 오징어등 다양한 魚순대로도 진화했다.



도22: 북동해안의 명태순대

결언

1. 식량생산경제나 조리과학적면에서 볼 때 순대는 순수유목민과 목축민의 가축전체에서 낭비없이 상호 배합, 조화시킨 발상에서 온 지혜로운 발명품이다.
2. 동북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제민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여 그 주변민족에 영향을 주고 한편 그들의 이동으로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

대의 재료는 변하면서도 그 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그 민족의 기원을 알수 있다.

3.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BC 3000전 Sumer인이 돼지장에 여러가지를 분쇄하여 넣어 만들었다고하나 각각 처해있는 지역에 따라 자생적 또는 필연적이였을 가능성도 있다.
4. 순대의 종류라면 Casing과 Stuffing에 따라 다양하다. 최초의 형태로는 현재 만주족에 남아있는 순피순대에서부터 곡류를 약간 넣는 몽골족이나 에벤키족의 피순대, 반농반몽지역이나 농경지역의 피와 곡류, 채소, 두부등 각종 식품을 혼합한 한국, 내몽골몽골족, 다굴족, 시버족등을 들수있고 유구족은 몽골계이면서 脂裏干같이 아직까지의 Casing과 달리 복부 기름망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유목민이였든 위글족이나 후이족은 이슬람교금기의 영향으로 피대신 곡류가루로 채운 백순대로 변화했고 에벤족의 붉은 적혈구를 제거하고 맑은 혈장을 이용한 순대도 특이하며 티베트족과 몇몇 민족에게서는 혈장, 육장, 면장, 내장장등 다채롭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진정한 육식문화의 면모를 나타내고있다.
5. 끝으로 동일한 한민족인 한국,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중국길림성 조선족등에서는 오랫동안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동일한 순대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태고의 전통음식문화를 통해서 볼 때 이들 한민족은 다같이 북방기마유목민의 후예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면이라 볼수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더욱 광범위한 민족과 지역의 순대에 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

入居元朝的高丽人与蒙古肃良合氏*

额尔敦·巴特尔 内蒙古大学

蒙古对高丽的战争发生在高丽高宗王晊（1214—1259 年在位）统治时期。忽必烈即位后，毅然放弃了军事征服的强硬政策，与高丽建立了宗藩关系，蒙丽关系从此进入了一个新阶段。不久，忽必烈将自己女儿忽都鲁揭里迷失嫁给高丽元宗之子王谌。元丽两国在已有的政治同盟基础上，又增加了一重婚姻关系，从此两个王室成了"一家"。由于蒙丽战争和元丽两国的特殊的政治关系，大批高丽人入居元朝境内。在蒙古语中，高丽被称为"莎郎合思"（Solongos），汉译常为"肃良合"。元朝灭亡后，入居元朝的一些高丽人最终被吸收进蒙古民族之中。他们的族称"肃良合（Solongo）"也随之逐渐变成了蒙古的姓氏。入居元朝的高丽人的研究，对于弄清蒙古"莎郎合思"（Solongos）姓氏的来龙去脉具有重要意义。[1]

一、蒙丽战争与高丽移民

高宗三年（1216），反蒙的契丹势力在辽东不能立足，窜入高丽，攻城掠地，肆行杀掠。高宗五年（1218 年），为了追剿在高丽的契丹叛军，一支蒙古军队在哈真和札剌二元帅的带领下，踏上了高丽的国土，这是蒙古与高丽发生正式交往的开始。高丽国王派赵冲、金就砺率军合击，遂灭契丹流寇，双方"约为兄弟"。但蒙古从此不断遣使高丽索贡，诛求无厌，皇太弟斡赤斤尤为"贪暴不仁"。[2] 1224 年，蒙古使著古与回途中被杀，蒙古怀疑是高丽所为，蒙丽双方关系宣告破裂。1229 年，窝阔台继位后， 遣撒礼塔等统大军攻取辽东，1231 年，既以"著古与事件"为借口侵入高丽，"取四十余城，……设官分镇其地，[3] 传旨迫使高丽投降，并索要金银物品之外，又要求"国王、诸王、公主、郡主、大官人、童男五百个、

---

* 本研究获得教育部人文社科项目资助，批准号：09YJA770031。

[1] "莎郎合思"（Solongos）一词，作为国名最早见于《元朝秘史》第 274 节，旁译为"高丽"。因此，当时来蒙古的西方人柏朗嘉宾、鲁布鲁克的著作中按照蒙古人的叫法将高丽叫作"Solongga"。

[2]《高丽史》卷二十二，高宗世家一，上册，页 447。

[3] 《元史》卷　太宗纪

童女五百个”，以及“诸般工匠”、“刺绣妇人”。[1] 高丽一方面遣使周旋，一方面迁都江华岛，进行抵抗。高宗二十年（1233），高丽人洪福源、毕贤甫在西京（今平壤）发动叛乱，被政府派军镇压下去。洪福源于是率领所召集的高丽北部民户投奔蒙古，驻于辽阳、沈阳之间。二十一年，蒙古任命洪福源为“管领归附高丽军民长官”，并担负着“招讨本国未附人民”的任务。同时，“又降旨谕高丽之民，有执王綧及元构难之人来朝者，与洪福源同于东京居之，优加恩擢用。”[2] 后来，高丽遣永宁公王綧入蒙为质，王纯娶蒙古宗女为妻，颇得信任。1235 年，命唐古及洪福源复征高丽，诏征高丽国王入朝。窝阔台的后继者贵由和蒙古将这场战争继续打了下去。自定宗二年（1247）至宪宗八年（1258），凡四命将征之，凡拔其城十有四。[3] 仅 1254 年一年，高丽被掳男女无虑二十万六千八百余人。[4] 此外，很多投降蒙古军队的高丽军人，也迁入元朝境内。例如，窝阔台十年（1238），赵玄习、李元佑率二千名高丽人投降蒙古，迁入东京，受洪福源节制。不久，李君式等十二人来降，“待之如玄习焉”，可能也迁居东京。[5]

蒙古对高丽的征服战争，给高丽带来了严重灾难。蒙丽战争期间，大量的高丽人被迫迁居到元朝境内。高丽人民进行了长期的坚忍的反抗斗争，然最终屈于蒙古武力，1259 年四月，高丽高宗遣世子王倎入质，答应将都城迁回王京，蒙古统治者则不再坚持国王亲朝，与高丽议和。

二、入居元朝的高丽人

中统元年（1260），忽必烈即位，恰高丽高宗死，忽必烈就遣兵护王倎归国袭位，是为高丽元宗。同时下诏许高丽“完复旧疆，安尔田畴，保尔室家”，[6] 并宣布对以前举兵反抗者不再追究，蒙丽关系从此进入了一个新阶段。

至元七年（1270 年）二月，为了摆脱国内外交煎的情势，高丽元宗向元世祖请求联姻，希望后者将公主嫁给自己的世子王谌。为了进一步加强控制，又使高丽全力支持他进攻南宋、日本的计划，忽必烈决定许以幼女鲁揭里迷失（即大长公主）下嫁，但此时鲁揭里迷失公主

---

[1]《高丽史》卷二十三，高宗世家二，上册，页 462。
[2]《元史》卷一百五十四，洪福源传。
[3]《元史》卷二百八，高丽传。
[4]《高丽史》（韩国亚细亚文化社影印本，1972 年）卷二十四，元宗世家三，上册，页 488。
[5] 《元史》卷二百八，高丽传。参阅周采和:《洪福源一家与元丽关系》,《史学研究》24, 1981 年。
[6]《高丽史》卷二十五，元宗世家一，上册，页 506。

年幼，不能立即成婚。三年以后的至元十二年（1275）五月，高丽忠烈王尚世祖忽必烈之女忽都鲁揭里迷失公主（元赠齐国大长公主），元丽两国在已有的政治同盟的基础上，又增加了一重婚姻关系，从此两个王室成了“一家”。忽都鲁揭里迷失公主的下嫁，揭开了为时近百年联姻关系的序幕。自忠烈王起至恭愍王（1352—1374）止的高丽七王中五位尚公主七人。此外，忠宣王侄子沈王王暠亦尚梁王松山之女讷伦公主。下嫁高丽国王的公主中，除忠烈王王妃齐国大长公主外，都非当时皇帝的女儿，而是各宗王之女。元代诸王之女皆称公主，因此不论高丽王室成员所尚是否为帝女，皆得称“驸马”。元丽的联姻改变了两国间意理及实质上的关系，尚主以前，高丽只不过是元朝的外藩之一，两国的交往仅限于藩属与宗主间的正式层次。尚主之后，宗藩关系遂转为姻亲、亲族的关系。[1] 另一方面，两国的王室联姻加深了高丽国对元朝的依附关系。高丽被迫更改官职名号，凡省、台、院、部等与元朝相类的官号，都予改换。每一个高丽国世子在即位之前，都得到元朝去做质子、入宿卫，或长或短地生活一段时间。整个元朝时期，高丽统治者频频入朝或长期居住在元朝，尤其忠宣王王璋，一生的多半时间是在元朝度过的。

元丽王室之间特殊的政治关系，为两国人民大量的、自由的往来创造了条件。入居元朝的高丽人士包括官吏、僧侣、学生、质子、商人、士兵、宦者、妇女、普通百姓等，数量非常之多。[2] 有元一代，在大都生活着大批高丽人。他们主要是进入元朝政府任职的官吏、妇女、宦者、僧侣、商人等。有相当数量的高丽人在元朝各级官府中担任了或高或低的职务。桂栖鹏《高丽人入仕元朝考论》一文，对七十一名仕元高丽人进行了考察。[3] 当然仕元高丽人应远不止七十一人。世祖忽必烈的外甥——王璋长年在以驸马、沈王身份侨居大都期间，他身边有一大批从臣。王璋的儒士——郑可臣（？—1298 年）和闵渍（1248—1326）都曾经在元朝做官。此外，王璋的侍臣权汉功、白颐正、崔诚之、李齐贤等人都是高丽后期的著

[1] 萧启庆：《元丽关系中的王室婚姻与强权政治》，《内北国而外中国：蒙元史研究》，中华书局，2007 年，下册，页 770—784。

[2] 纵观现今对入居元朝高丽人的研究成果有：王崇时：《元代入居中国的高丽人》，《东北师大学报》1991 年第 6 期；从佩远：《元代辽阳行省境内的契丹、高丽、色目与蒙古》，《史学集刊》1993 年第 1 期；吴松弟：《蒙（元）时期朝鲜半岛对中国的移民》，《韩国研究论丛》第二辑，上海人出版社，1996 年。常大群：《高丽入元太子与元丽文化交流》，《山东师范大学学报》2001 年第 4 期；杨晓春：《明朝扬州高丽军职世家与元初高丽降民》，《元史及民族史研究集刊》第 14 辑，南方出版社，2001 年；杨晓春：《13-14 世纪辽阳地区高丽移民研究》，《中国边疆史研究》2007 年第 1 期。高丽与元朝的政治、经济关系和文化交流等多方面，韩国史学界做了很多有价值的工作。1994 年出版的张东翼《高丽后期外交史研究》（一潮阁，1994 年）一书对此有很好的论述，尤其本书的第三章第三节专门对入居元朝的高丽人进行了考察。

[3] 桂栖鹏：《高丽人入仕元朝考论》，浙江大学韩国研究所编：《韩国传统文化》（历史卷），学院出版社，2000 年。

名文人。

《元史》卷一百九十六记载："朴赛音不花，字德中，肃良合台人"。[1] 古代蒙古人表述姓氏时，在氏族、胞族、部落的名称之后续接姓氏后缀。所谓的姓氏后缀是指男性姓氏后缀-dai/dei 和女性姓氏后缀—jin。朴赛音不花是高丽人，所以说肃良合台人。朴赛音不花，初入宿卫为速古儿赤，授利器库提点、资政院判官，迁同知枢密院事、合浦全罗等处军民万户、大司农、岭北行省平章。至正二十四年（1364），改翰林学士承旨。再迁集贤院大学士、宣政院使、中书平章政事。二十八年，明兵逼大都，领兵数百人守承顺门，城陷被执，不屈被杀。[2]

元朝平章政事，从一品，为丞相的副贰，助丞相丞相掌军国重事。元武宗时期还有一个名叫乐实的高丽人担任过平章政事。不过，以上提到的诸多关于入居元朝高丽人的专题论文当中，都没提到平章政事乐实。乐实，《元史》无传，亦不载其族属。清代大学者钱大昕据虞集撰《齐国武敏公乐实碑》，知其为高丽人。这篇碑文在虞集的《道园学古录》和《道园类稿》中均不存，据钱大昕《潜研堂金石目录》，该碑在今山东省莱州市驸马庄，[3] 今不见拓片，未知碑尚存否。据钱氏跋文记载，乐实寄居莱州（今山东莱州）。初为世祖侍卫。后出任山东宣慰使，开胶莱海道，置运粮万户府。至元二十九年（1292），以盗库钞等事被解职。至大二年（1309），进言钞法大坏，请更钞法，图新钞式以进。并议立尚书省，任平章政事。建言江南富室岁收粮五万石以上者，令每石输二升于官，仍质一子为军。三年，加尚书左丞相，行平章政事，封齐国公。在元武宗时期扮演了重要角色。因娶宗王移相哥子野仙帖木儿三女及忽都帖木儿之女，又封驸马都尉。四年（1311），被仁宗以变乱旧章罪处死。[4]

元中期以后，在大都生活的高丽人更多了。延佑元年，元仁宗恢复了科举制，诏令高丽选派三名合格者参试。从此，不断有高丽举子参加元朝的会试。终元一代，高丽选送应元朝科举的士人中，先后有九人登第。[5] 泰定年间，高丽人曹頔、蔡河中等诉忠肃王于元廷，当时留居大都的二千余高丽人参与了其事。[6] 当然未参与其事者必还有一定的数量。

由于蒙古统治者和高丽统治者都崇信佛教，给以佛教很高的政治地位和经济地位，加上

---

1 《元史》卷一百九十六，朴赛音不花，第 4435 页。
2 《元史》卷一百九十六，朴赛音不花，第 4435 页。
3 钱大昕著，陈文和点校：《潜研堂金石文字目录》卷八，《嘉定钱大昕全集》第 6 册，江苏古籍出版社，第 187 页。
4 钱大昕：《潜研堂金石文跋尾》卷一九，《嘉定钱大昕全集》第 6 册，第 524—525 页。参阅《中国历史大辞典（辽夏金元史）》，上海此书出版社，页 119，周清澍写的"乐实"条目。李鸣飞：《元武宗尚书省官员小考》，《中国史研究》2011 年第 3 期，页 155—157。
5 桂栖鹏：《元代科举中的高丽进士》，《元代进士研究》，兰州大学出版社，2001 年，第 153—162 页。
6《高丽史》卷 125，蔡河中传。

元丽关系异常密切，交通便利，所以，元丽之间形成了十分繁荣的佛教交流局面。《元史》卷三三《文宗纪》载："（天历二年十二月）甲辰，以明年正月武宗忌辰，命高丽、汉僧三百四十人预颂佛经一藏于大崇恩福元寺"。《元史》卷四六《顺帝纪》九载："皇太子尝坐清宁殿，分布长席，列坐西蕃、高丽僧"。从 14 世纪开始，高丽人在元大都捐资兴建了许多寺庙。李谷说："在辇毂之下，寺号高句骊者其刹相望"。[1] 由于寺庙众多，客观上就造成了对高丽驻寺僧的很大需求。西域僧人指空由元入高丽，复由高丽返元，居大都，"所居寺，皆高丽僧"。[2] 李谷曾有一首题咏大都西山灵岩寺，注曰："寺僧皆乡人"。[3]

蒙古统治者很早就将高丽童女作为贡品，令高丽进纳。高丽王室和官员为了讨好元廷，有时也主动进献。在《高丽史》、《高丽史节要》等史书中，有关元廷索女、高丽献女的记载不计其数。[4] 元中期以后，宦官与宫女一样，成为元廷经常索取和高丽不时献纳的贡品，据《庚申外史》记载："（至正二年）秋，监察御史言：宦官太盛，宜减宦官额并宫女，盖时宦者多高丽人为之也"。[5] 高龙普、朴不花等人就是其代表人物。[6]

元朝的辽阳行省是高丽移民最集中的地区。辽阳行省毗邻朝鲜半岛，是高丽移民的主要迁居地之一。最初的大规模移民主要迁入沈阳路和辽阳路。中统四年（1263），以高丽质子王綧安抚高丽军民总管府，分领二千户，理沈州。由于沈阳一带移民众多，至元三年朝廷"立沈州以处高丽降民"。到他晚年，又增设总管高丽、女直、汉军万户府。这两个机构都设在辽阳、沈阳一带，主管高丽移民事务。元贞二年（1296），合并为沈阳等路安抚高丽军民总管府，简称沈阳路。[7] 沈阳路在行政区划上隶属于辽阳行省，但它是为管辖辽沈地区高丽军民而设的，因此在征东行省设立时，它又隶属于征东行省。元中后期，它还要接受常驻元廷的高丽王室成员——沈王的领导。辽阳行省的高丽移民，除了两国交战时期的降附者、被俘者以外，还有不少是主动由高丽境内逃亡而来的。长期的战乱使高丽经济凋敝，蒙丽战争结束后，元廷又以高丽作为进攻日本的跳板，赋役征调繁重，致使民不聊生，大量高丽百姓逃入元朝境内。有元一代，高丽王廷对此请求元廷刷还被掳和流亡的本国人民，并且得到元廷同意后派官到辽阳、沈阳、北京（今内蒙古宁城）、开元（今吉林农安）等地进行推刷。但

---

1 李谷：《稼亭集》卷 4《大都天台法王寺记》。

2 李穑：《牧隐文稿》卷 14《西天提纳薄陀尊者浮屠铭》，；张彦梦：《元代来华高丽僧人考试》，《内蒙古社会科学》1999 年 7 第 4 期。

3 李谷：《稼亭集》卷 16《题西山灵岩寺》。

4 参阅柳洪烈：《元朝的高丽贡女》，《震檀学报》第 18 号，1957 年，页 27—46；喜蕾：《元代贡女制度研究》，民族出版社，2003 年。

5 权衡：《庚申外史》，第 9 页。

6 傅乐淑：《元代宦祸考》，《元史论丛》第 2 辑，中华书局，第 157—166 页。

7《元史》卷 59，地理志二。

元朝地方官吏多不予合作，“滥称军户，或称农氓，沮遏不刷”，“擅自携带，当拦不与”，因此刷还的人口是十分有限的。[1] 此外，远在漠北的和林、称海一带，也有过高丽守军。[2] 元仁宗时期还有一些高丽军人被派到上都开平府驻守。[3] 到元朝后期，在元朝生活的高丽人就更多了。恭愍王三年（1354）十一月，高丽人印安从元朝回来时说：“太师脱脱领兵率八百万攻高邮城，柳濯等赴征军士及国人在燕京者，总二万三千人以为前锋”。[4]

从上所述，入居高丽人主要居住在大都、辽阳行省的沈阳路和辽阳路等地，亦有一些散居其他地方。

三、元朝的高丽后妃

十七世纪成书的《黄史》、《黄金史纲》、《蒙古源流》等蒙古文献记载成吉思汗亲征高丽，并在那里驻跸三年。可是，所谓成吉思汗亲征高丽一事，显然与史实不符，《元朝秘史》、《史集》、《元史》、《高丽史》等蒙元时期的基本文献里均无记载。不过，成吉思汗娶过高丽妃子。《元史》卷 106《后妃表》记载太祖第四斡耳朵者有琐郎哈妃子。琐郎即高丽。关于成吉思汗高丽妃子，史无明文。尽管元丽王室间的联姻，只是一种单向性的行为，但在此风气影响之下，元丽两国间各阶层的通婚也随之扩大。元皇室成员中娶高丽女子的人物有武宗、仁宗、明宗、惠宗、实逗太子、爱猷识理达腊、安西王阿难达等人。[5] 在大都的贵族官宦之家，普普遍都娶高丽女子为妻为妾，养高丽侍婢。“北人女使，必得高丽女孩童，……不如此，谓之不成仕宦。”[6] 李谷也说：“高丽妇女在后妃之列，配王后之贵，而公卿大臣多出于高丽外外甥。”[7]

元惠宗妥欢贴睦尔后妃奇完者忽都是元代后期的一个非常重要的人物。奇完者忽都在 1333 年前后，被高丽籍宦官徽政院使高龙普（蒙古名秃满迭儿）荐为元朝宫廷，最初只是一个宫女，主掌茶道。不过，奇完者忽都“性颖黠，日见宠幸”，从而遭到答纳失里皇后的嫉妒。答纳失里皇后是权臣燕帖木儿的女儿，出身显贵，自小娇生惯养，对妥欢贴睦尔宠爱

[1]《高丽史》卷 36，忠惠王世家，忠惠王元年四月庚寅条，上册，第 727-728 页。
[2]《元史》卷十九，成宗纪，第 417 页；卷九十九，兵志，第 2547 页。
[3]《元史》卷二十四，仁宗纪，第 558 页；卷九十九，兵志，第 2530。
[4]《高丽史》卷三十九，恭愍王世家一，上册，页 766。
[5] 叶泉宏：《明代前期中韩国交之研究》，台湾商务印书馆，1992 年，第 5 页； 喜蕾：《元代高丽贡女制度研究》，第 64—92 页。朴元吉：《大元帝国的高丽出身皇后——达麻实里》，韩国《蒙古学》第 24 号，第 205—225，2008 年。
[6] 权衡：《庚申外史》，页 9。
[7] 李谷：《代言官请罢取童女书》，《高丽史》卷一百九，李谷传。

奇氏，大为不满，屡辱奇氏。[1] 不久，生下了爱猷识理达腊。后至元六年（1340）立为第二皇后，居兴圣宫。奇氏串通大臣哈麻，欲立己子爱猷识理达腊为皇太子。哈麻讽之于脱脱，脱脱颇不以为然，每以"若中宫有子，将置之何所"为辞，表示反对。因此，诏立爱猷识理达腊为皇太子的决定，一直拖延到至正十三年（1353）六月，始正式颁发，而册礼则迄不举行。奇氏对脱脱十分不满。至正十四年（1354），脱脱督师高邮，奇氏与哈麻利用时机，以费财无功的罪名，即军前将脱脱罢相流放。脱脱死后，哈麻拜中书左丞相，其弟雪雪为御史大夫。哈麻谋立皇太子爱猷识理达腊，事泄遭贬，途中被杖死。哈麻兄弟被杀后，1356 年四月，搠思监进拜中书左丞相，次年，又进为右丞相。辽阳行省左丞相汉人太平为中书左丞相。1358 年，监察御史劾奏搠思监任用私人朵列，印造伪钞。搠思监迫令朵列自杀灭口。搠思监也因而罢相。此后，奇后屡与皇太子谋划夺取皇位，迫使惠宗内禅。奇后召太平示意，太平不答。奇后和太子决意除太平，便令监察御史劾奏太平信用的成遵、赵中等人，以中伤太平。1359 年，成遵、赵中被诬陷死狱中，太平请辞相位。二十三年（1363），搠思监弹劾太平，安置吐蕃，随即迫令太平自杀。此后，元朝宫廷内就形成了支持奇后、皇太子的搠思监、朴不花一党和支持惠宗的御史大夫老的沙、知枢密院事使秃坚帖木儿一党。元朝统治集团的中枢，陷入了长期的相互倾轧之中。[2]值得一提的是，至正十九年（1359）七月，元惠宗妥欢贴睦尔"从皇后奇氏请"，"以察罕脑儿宣慰司之地属资政院，有司毋得差占"。（《元史》卷 44、45《顺帝纪》）资政院是专掌惠宗皇帝财富的机构，[3] 从此以后察罕脑儿又成了皇后奇氏的私产。[4]

奇氏完者忽都被封为皇后后，其父奇子敖被元朝追封为荣安王，兄长奇辙被封为行省参知政事，还一度奉命摄征东行省事。奇氏家族在高丽作威作福，十分放肆，严重影响了元丽关系。1356 年五月，恭愍王终于以谋反为名，杀奇辙及其党羽，并布告国内，数其罪状。至正二十三年（1363），缘高丽自立，且杀戮其族人，因劝立塔思不花为王，以奇族之子三宝奴为元子，遣同知枢密院事崔帖木儿为丞相护送前往，兵败。二十五年（1365），奇皇后完者忽都册封为正皇后，"坤以承乾元，人道莫先于夫妇；后以母天下，王化实始于家邦。典礼之常，古今攸重。咨尔肃良合氏，笃生名族，来事朕躬。" [5] 二十八年（1368）八月，奇后和皇太子等人从惠宗帝北走。退到蒙古地区之后，奇后仍然干预朝政，据刘佶《北巡私

[1]《元史》一百一十四，完者忽都皇后奇氏传。页 2880。
[2] 参阅韩志远：《爱猷识理达腊与元末政治》，《元史论丛》，第 4 辑。1992 年。
[3]《元史》卷 204，朴不花传。
[4] 周清澍：《从察罕脑儿看元代的伊克昭盟地区》，《元蒙史札》，内蒙古大学出版社，2001 年，页 283。
[5]《元史》卷一百一十四，完者忽都皇后奇氏传。

记》记载，至元二十八年十二月三十日，监察御史徐敬熙条陈十事，其第二条就是“勿令宫掖干预政事”。[1]

顺便指出的是，自从元惠宗妥欢贴睦尔以后二百余年间，蒙古历代大汗，基本上是成吉思汗黄金家族的后裔。著名的达延汗就是元惠宗、昭宗爱猷识理达腊的后代。这表明，蒙古皇室中也有了高丽人的血统。

四、元代蒙古人对东北各族的称呼

元代居住在辽阳行省的民族或部落，除了契丹、汉、蒙古、高丽等民族以外，还有通古斯语族的女真、水达达、兀者野人、骨嵬等等。在元代，东北的女真人，基本上可以分为以下三大部分：一是从辽阳以南至辽东半岛的女真人。这些女真人被称为“熟女真”。其次，在“熟女真”的东北方向，散步在长白山两麓北至松花江上游和中游，以及牡丹、绥芬二水流域的女真诸部，与辽籍女真相区别，曾被称为生女真，或谓其“非熟女真，亦非生女真”。其三，由此继续往北、东北，在东北松花江、混同江的两岸及其周围深山密林中生活的通古斯语族诸部，构成了元代称为女真水达达（或水达达女真）和兀者诸部的主体。[2] 蒙古人将“水达达”称之为“usu irgen”。南宋彭大雅的《黑鞑事略》，在列举蒙古“残虐诸国”之中“已争而未竞者”时，提到其“西南曰斛速益律子”，小注云“水鞑靼也。”斛速益律子即系斛速益律干之讹，是为蒙古语 usu irgen 的音写。兀者（又译吾者），又称兀者野人和吾者野人，蒙古人称之为“üjiyed”（乌济叶特、乌齐业特）。

兀的改，又译兀底改、兀敌哥，是金元时期对黑龙江、松花江、乌苏里江三江流域地区狩猎民族的总称。《金史》称野居女直，明人称野人女真，或译乌德赫。此外，辽阳行省界域内的居民还有古亚语族居民，有吉里迷以及在明代被称为的“北山野人”的诸部中的若干部分。

有人认为，蒙古的“肃良合”姓与索伦有关系。不过，苏伦一名没有那样悠久的历史，索伦的名称始于明末清初。清代文献中的索伦一名称是指现今分布在嫩江流域及内蒙古自治区呼伦贝尔盟鄂温克自治旗一带的鄂温克人。

十七世纪成书的萨冈彻辰《蒙古源流》等文献中数次出现有关“肃良合”人的记载。这些人就是高丽人的后裔。现将《蒙古源流》中出现的“肃良合”人的记载，罗列于下面：

（一）（阿黑巴儿只济农）就在当天夜里派肃良合人忽都巴哈、火你赤兀氏猛可二人随

[1] 薄音湖、王雄：《明代蒙古汉籍史料汇编》，第一辑，内蒙古大学出版社，2006 年，第 1—3 页。
[2] 姚大力：《元辽阳行省各族的分布》，《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第 8 期，第 50—56，1984 年。

阿卜杜剌·扯臣回去，与四瓦剌联合起来。[1]

（二）公主让人把孩子送来，〔给他〕起名叫伯颜·猛可，交给肃良合人桑哈勒都儿的妻子哈喇黑臣太夫人来抚养。[2]

（三）肃良合人忽都巴哈来到莫兰合罕处，说："毛里孩王与撒蛮帝王妃合谋，已经带兵前来征伐你。"[3]

（四）那位顺治皇帝生于戊寅年，于甲寅年七岁时登上大明皇帝的金位，以"顺治皇帝"扬名四方。〔他〕绥服了南边八十万汉人、西边下康的二十六万吐蕃、北边四万瓦剌、东边三万白肃良合、中央四省满洲和六万蒙古人。[4]

结语

蒙古汗国对高丽的军事行动中，蒙古地区陆续吸收了大批的高丽人口。高丽与元朝的特殊政治关系，为两国人民大量的、自由的往来创造了良好的条件。元末明初政局动荡，进入蒙古地区的高丽人与其他汉、女真、西夏、哈剌鲁、钦察、阿速、斡罗思、花剌子模等民族和国家的一些人口一样，最终与蒙古人融为一体。他们的族称肃良合（Solongo）随之变成了蒙古人当中的姓氏。[5] 蒙古的"莎郎合思"（Solongos）姓不是源自蒙古的古老部落、姓氏的名称，而是元朝灭亡以后形成的。在蒙古民族中"肃良合"氏的产生，反映了蒙古与高丽的古代历史关系。

---

[1] 乌兰：《<蒙古源流>研究》，辽宁民族出版社，2000 年，页 273。

[2] 同上书，页 277。

[3] 同上书，页 280。

[4] 同上书，页 476。

[5] 参见亦邻真（署名 Aradanakarba）：《蒙古人的姓氏》（蒙文文），《亦邻真蒙古学文集》，内蒙古人民出版社，2001 年， 第 57—61 页。乌兰：《关于蒙古人的姓氏》，《蒙元史暨民族史论集》（纪念翁独健先生诞辰一百周年），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 年，第 101—108 页。